대치2동 성당 20년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치2동 성당

대치2동 성당 전경, 2011.6

본당 설립 20주년 감사기도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대치2동 본당 공동체를
넘치는 사랑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나이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씨 뿌리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라오니,
성령의 은총을 풍성히 내리시어
하느님 나라 건설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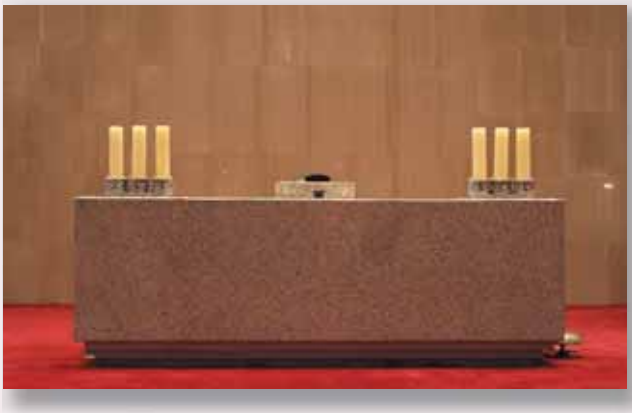
❖ 성전 제대와 십자가상

❖ 성전 십자가상

십자가상 (Crucifix, 브론즈, 130×130cm) –최종태 作

❖ 제대에서 바라본 성전 내부 전경

❖ 제대 전면부



❖ 감실

❖ 감실등

감실 (Tabernacle, 브론즈에 은도금, 41×54×40cm) –최종태 作

✣ 자비의 성모상
(Blessed Virgin, 브론즈, 높이 134㎝)

✣ 성 가족상
(Holy Family, 브론즈, 123×92㎝)

✣ 성 가족상
(Holy Family, 화강석, 높이 377㎝) –최종태 作

십자가상(성가정홀)

십자가상
(Crucifix, 브론즈, 88×44cm) –최종태 作

독서대

성수대

십자가의 길

✣ 1처

✣ 2처

✣ 3처

✣ 4처

✣ 5처

✣ 6처

✣ 7처

✣ 8처

✣ 9처

✣ 10처

✣ 11처

✣ 12처

✣ 13처

✣ 14처

✣ 15처

십자가의 길(Way of the Cross, 브론즈, 60×50cm) –최종태 作

✣ 제대 십자가상

✣ 미사경본대

성전 내부 스테인드 글라스 화

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요한 12, 24–26)
②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요한 8, 3–11)
③ 치유받은 나병환자 열 사람 (루카 17, 11–19)
④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 (루카 15, 11–32)
⑤ 착한 사마리아 사람 (루카 10, 29–37)
⑥ 누가 제일 높으냐? (루카 9, 46–48)
⑦ 불꽃 속에서 노래하는 세 젊은이 (다니 3, 14–30)
⑧ 착한 목자 (루카 15, 1–7)

– 최영심 作

①

❖ 둥근 스테인드글라스화 (2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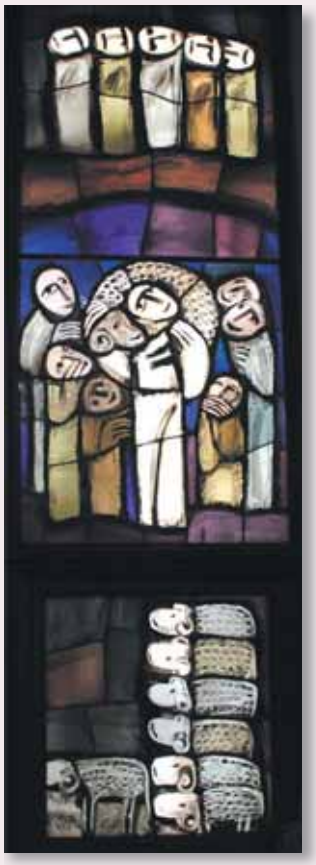
②

③

④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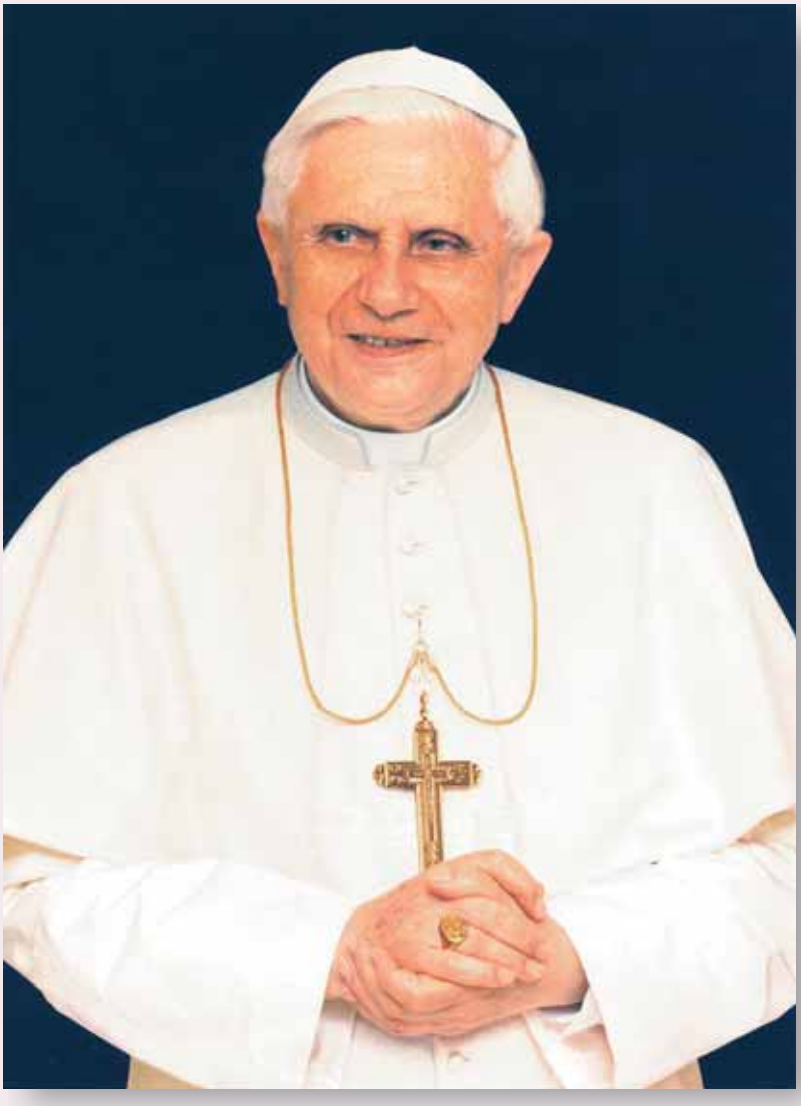


⑧

✣ 성모상(Blessed Virgin, 화강석, 높이 320㎝)

일러두기

- 역대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기를 중심으로 본당의 설립과 변천과정 그리고 교우들의 신앙활동을 주제별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본당 설립 20주년인 2011년 10월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본문의 서술은 한글을 전용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표기하였고, 성명과 세례명의 표기에 있어 세례명은 괄호로 표시하였습니다.
- 외국 성인명 로마자 한글표기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용어위원회가 정한 대로 하였습니다.(예시 : 아오스딩 → 아우구스티노, 니고나오 → 니콜라오, 글라라 → 클라라 등)
- 사도직 단체사는 2011년 9월 30, 본당 사목 주요통계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염수정(안드레아) 주교

조규만(바실리오) 주교

동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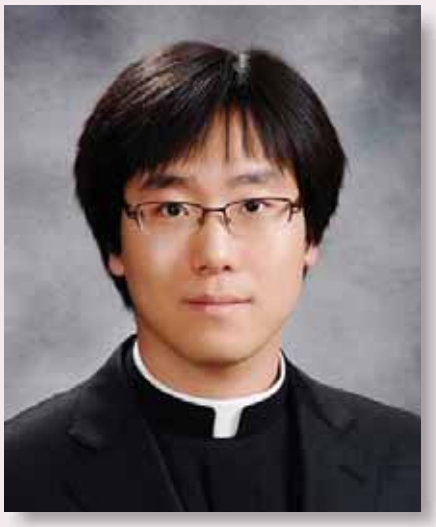
황인국(마태오) 몬시뇰

현 주임신부

홍기범(바오로) 신부
(2011.8.30~)

현 보좌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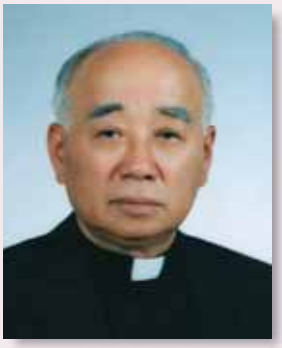
제1보좌 이길재(베드로) 신부
(2011.2.22~)



제2보좌 박민우(알베르토) 신부
(2009.12.1~)

역대 주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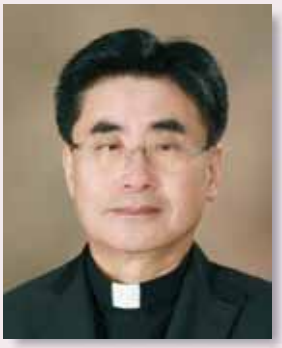
초대 최광연(모세) 신부
(1991.8.23~1996.10.10)



제2대 이상훈(리노) 신부
(1996.10.11~1998.10.8)

제3대 고명철(아우구스티노) 신부
(1998.10.9~2002.2.17)

제4대 김병학(라파엘) 신부
(2002.3.1~2006.9.4)



제5대 김자문(네레오) 신부
(2006.9.5~2011.8.29)

역대 보좌신부

박희원(보니파시오) 신부
(1991.9.5~1992.9.22)

송천오(안드레아) 신부
(1992.10.8~1994.12.1)

강문일(사도요한) 신부
(1992.10.16~1993.11.5)

김종원(세례자 요한) 신부
(1993.12.3~1995.12.1)

최희수(프란치스코) 신부
(1994.12.2~1996.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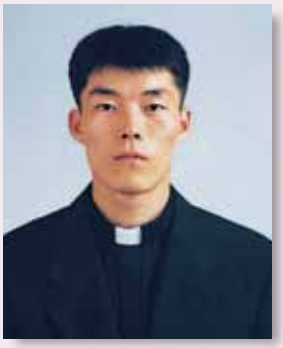
이충열(티토) 신부
(1995.12.2~1997.11.27)

조창수(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1996.11.21~1998.11.28)

김병훈(알렉시오) 신부
(1997.11.28~1999.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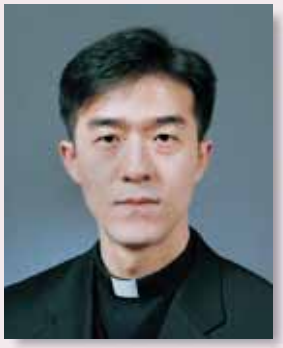
이은형(티모테오) 신부
(1998.11.29~2000.9.18)

역대 보좌신부



박종철(세례자 요한) 신부
(1999.12.10~2001.12.3)

라병국(아우구스티노) 신부
(2001.1.9~2002.2.28)



안성남(안드레아) 신부
(2001.12.4~2003.11.30)

이성우(요셉) 신부
(2002.3.11~2004.2.29)

김준동(마르티노) 신부
(2003.12.1~2004.9.30)

강재흥(요셉) 신부
(2004.3.1~2004.9.30)

민범식(안토니오) 신부
(2004.10.1~2004.11.30)

이계철(라파엘) 신부
(2004.12.1~2005.11.30)

정현영(요셉) 신부
(2005.12.1~2006.11.30)

역대 보좌신부

박수환(치릴로) 신부
(2005.12.1~200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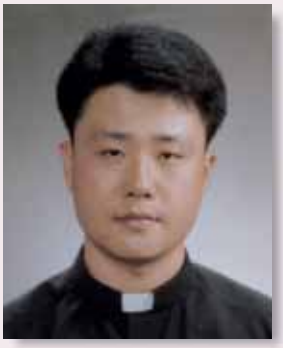
박지훈(안드레아) 신부
(2006.12.1~2008.11.30)

안원진(베드로) 신부
(2007.12.1~2009.8.31)

김숭호(안드레아) 신부
(2008.12.1~2009.2.16)

이도행(토마스) 신부
(2009.9.1~2011.2.21)

본당 출신 신부



이용현(알베르토) 신부
(서품 1997.7.5)

김지영(제오르지오) 신부
(서품 1998.7.3)

임민균(그레고리오) 신부
(서품 2006.7.7)

이은수(레오) 신부
(서품 2009.6.26)

유신재(에드문도) 신부
(서품 2010.6.30)

본당 신학생

유재현(다니엘)

현 원장 수녀

우정자(세레나) 수녀
(2010.2.8~)

현 수녀

이인숙(마르티나) 수녀
(2010.2.8~)

역대 원장 수녀

초대 김화순(런네마리) 수녀
(1991.9.13~1994.2.24)

제2대 권은희(베네딕타) 수녀
(1994.2.25~1997.2.13)

제3대 구은순(율리아나) 수녀
(1997.2.14~2000.2.7)

역대 원장 수녀

제4대 신숙자(데레사) 수녀
(2000.2.8~2003.2.10)

제5대 신민숙(로렌시아) 수녀
(2003.2.11~2007.2.7)

제6대 김영숙(아녜스 마리) 수녀
(2007.2.8~2010.2.7)

역대 수녀

김정숙(안젤라) 수녀
(1991.9.5~1993.2.24)

손명옥(베르나데트) 수녀
(1993.2.25~1995.2.13)

이계월(마리 율리아나) 수녀
(1994.2.25~1997.2.13)

역대 수녀

강영숙(마르가리타) 수녀
(1995.2.14~1998.2.9)

송숙녀(데레사) 수녀
(1997.2.14~1998.2.9)

김영희(에밀리아나) 수녀
(1998.2.10~2000.2.7)

윤용순(막달레나) 수녀
(1999.2.14~2001.2.6)

김희환(안나 노엘) 수녀
(2001.2.7~2004.2.9)

주순복(젬마) 수녀
(2001.2.7~2004.2.10)

김인옥(젬마로사) 수녀
(2003.2.11~2007.2.7)

최효숙(데레사) 수녀
(2004.2.9~2005.2.14)

김정애(베르나데트)수녀
(2005.2.15~2007.7.16)

역대 수녀

조진희(루치아) 수녀
(2007.2.8~20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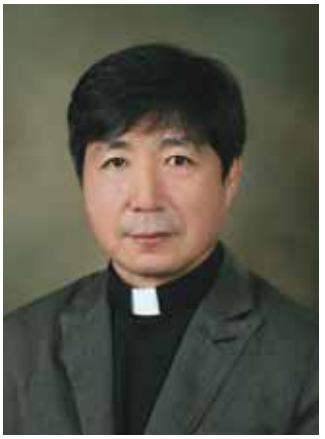
최헬레나(헬레나) 수녀
(2009.2.9~2010.2.7)

본당 출신 수도자

이수경(클라라) 수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입회 : 1995.3.25)
(종신서원 : 2004.2.2)

손수정(잔 다르크) 수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입회 : 2002.3.25)
(종신서원 : 2011.1.31)

성숙한 성가정 신앙 공동체로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대치2동 성당 신앙 공동체에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교우들과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만큼의 연륜을 채우며, 모든 신자들의 든든한 주님의 보금자리로 본당은 그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본당은 역대 주임신부님들과 보좌신부님들, 수도자들과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헌신적인 봉사와 열심한 기도생활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활기찬 신앙 여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용기 있게 헤쳐 나왔으며, 더욱 굳세어지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20년의 긴 세월동안 주님의 은총 안에서 대치2동 성당이 활짝 꽃 피어 온 것은 분명 주보이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풍성한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가정을 주보로 모시는 본당 신자들은 이미 성령을 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본당 신자들은 인간적인 혈연관계를 초월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바로 신앙으로 맺어진 신앙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지나온 본당의 발자취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되새기고 대치2동 성당의 미래와 희망인 신앙 가족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며, 성가정을 모범으로 삼아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염원을 담아 본당 20년사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작은 정성이 하느님께는 찬미가 되고 본당 신자들에게는 은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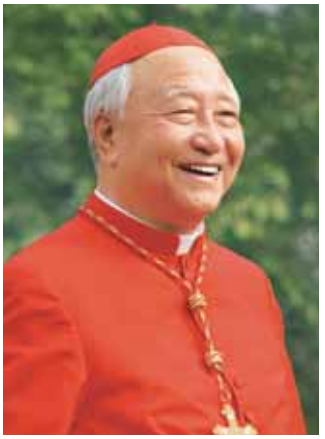
그동안 본당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자문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당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사랑이신 주님께서 교우 모든 분께 은총과 평화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치2동 성당 주임신부 홍기범(바오로)

성가정을 본받는 교회 공동체로



친애하는 대치2동 성당 교형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크신 은혜로 대치2동 성당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대치2동 성당의 교형 자매들과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년 전 대치2동 성당은 교구 총대리를 역임한 최광연 신부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태동되어 훌륭한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본당 신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기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의 발전되고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동안 본당 출신으로 5명의 성직자와 2명의 수도자가 탄생하였으며, 인근 대치3동과 대치4동 성당의 분당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인 지역사회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섰으며 소외된 이웃을 찾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치2동 교우들의 땀과 노력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고, 오늘의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는 기쁨은 매우 값지고 특별하며 소중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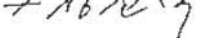
대치2동 성당은 '주님의 성가정'을 주보로 모시는 성당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수, 마리아,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이며, 또 하느님 백성의 친교와 섬김의 공동체이고, 더 나아가 주님의 섭리에 순명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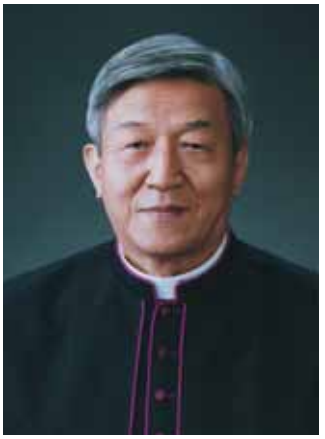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도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님의 '나자렛 성가정' 을 본받아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치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며,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보시기에도 뿌듯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뿌리내린 성숙한 본당 공동체' 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치2동 성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홍기범 주임 신부님을 비롯한 보좌 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 

대치2동 성당 설립 20주년을 맞으며



본당 창설 20주년을 맞는 대치2동 성당의 홍기범(바오로) 주임신부님과 그동안의 주임신부님들, 보좌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교구장님을 대신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걸어온 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저도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초대 최광연 신부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초창기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분일수록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깊은 감사의 기도를 바치실 것입니다. 풍상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감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함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청년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셨을 것이고,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다면,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잘 가꾸고 거름을 주어서 좋은 포도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태워버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0년 동안 잘 가꾸어 온 대치2동 성당 기름진 땅에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5주년에는 더 기쁜 기념식을 가지시고, 50주년에는 더 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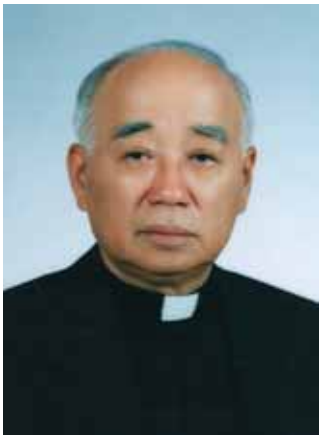
그동안 역대 신부님들과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본당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교우들의 피와 땀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무한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진심으로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11년 10월

서울대교구 동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황인국(마태오) 몬시뇰

성년을 맞는 대치2동 성당 공동체에 드리는 축하의 말씀



대치2동 성당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우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치2동 성당 공동체가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신앙 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면, 그 공동체 나름의 신앙생활 모습과 전통의 틀이 갖추어졌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2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갖가지의 역경과 애환의 흔적 또한 결코 미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치2동 신앙 공동체는 그동안 하느님께서 이 공동체에 베풀어주신 은총과 축복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치2동 성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성년을 맞은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본인은 특별한 감회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한 때 대치2동 성당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제 역량이 미치는 데까지 열정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 1996년~1998년에 이곳에서 주임사제로 사목하던 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맡겨진 막중한 역할에도 더욱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연륜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복음적 삶과 영성생활의 연륜 또한 그 만큼 깊어졌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년에 이른 대치2동 성당은

이 공동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보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본당 공동체에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친교와 일치와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들이 행여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묵은 때를 훌훌 떨어버리고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쇄신을 이루기 위한 성찰과 아울러 거듭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이 귀한 선물이 빛을 발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귀한 성품이 가정에서부터 싹터서 몸에 배이듯, 신앙생활의 고귀한 품성들도 가정에서 실천으로 다져져야 몸에 배인 거짓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가정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본당 창립 2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과 평화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 교리사목연구소에서[1] 2011년 1월

대치2동 성당 제2대 주임신부 이상훈(리노)

1) 참조 : 이 축사는 고(故)이상훈(리노) 신부님께서 선종하기 전날에 작성하여 본당 공동체에 보내주신 글입니다.

본당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특별기고

– 교 회 –

교회란 무엇인가?

'하느님의 백성' 이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르쳐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변두리에 살던 한 보잘 것 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간택하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당신 모습을 보여 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며, 당신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이런 큰 특전을 망각하고 끊임없는 금신(金神), 물신(物神), 권신(權神) 등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며, 하느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호세아 예언자의 일생은 이것을 고발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그는 길거리의 한 창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 온갖 정성을 기울여 돌보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것은 외간 남자와의 간음, 간통을 일삼으며 배신, 배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빛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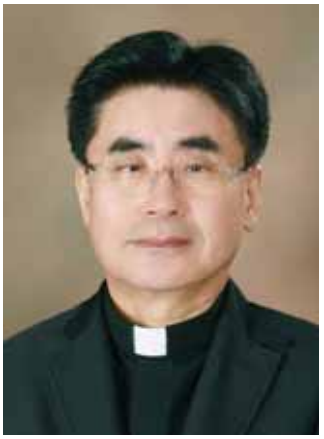
사랑하시는지 당신 외아드님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당신 부활로써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해내어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며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완성하십니다.

교회를 일컬어 원초적인 성사라고 합니다.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보이는 형태 속에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죄에 물든 하찮은 인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하느님의 신비가 구현되는 구원의 기관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 곧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 요소를 바라보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디 모자라고 흠 있는, 죄스런 존재입니다. 뚝배기만 바라 볼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보지 못 한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사물을 꿰뚫어 진실을 보게 해 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2011년 10월

대치2동 성당 제4대 주임신부 김병학(라파엘)

씨 뿌리는 공동체로 나아가며



본당 설정 20주년을 맞이한 대치2동 성당 교우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며, '대치2동 성당 20년사' 간행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사랑 가득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 사제 인사이동에 따라 2006년 9월 5일에 대치2동 성당에 부임해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5년간은 크나큰 은총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계동 성당에서 몸담고 있지만, 아직도 성가정을 주보로 모시는 본당 공동체와 함께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련하고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치2동 성당은 김수환 추기경께서 성전 축성을 하시며 '이 성당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믿는 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건립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당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 재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세상 모든 이들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 나아야 할 것입니다.

본당 공동체는 설립 초기부터 이러한 복음적인 삶과 함께 초대 교회의 모습인 사귐, 섬

김, 나눔의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당이 설립된 지 2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울대교구 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음화에도 앞장서 2011년에는 지역 복음화율이 25%에 가까운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한 누룩의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 부임하신 홍기범(바오로)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성년기에 들어서는 본당이 젊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당 신앙 공동체가 세상 안에서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내적 성숙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치2동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가정과 교회' 로 나아가며 '씨 뿌리는 신앙 공동체' 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본당 모든 신자들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대치2동 성당 20년사 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상린(프란치스코) 편찬위원장, 조헌성(발렌티노) 편집장과 편찬위원들의 노력과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치2동 성당 20주년을 축하하며, 이 모든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대치2동 성당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계동 성당 주임신부 김자문(네레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8천여 형제, 자매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당은 홍기범 주임신부님까지 여섯 분의 주임신부님을 모시게 되었고, 본당 출신 새 사제 5명과 수도자 2명을 배출한 것은 우리 본당의 축복이며, 주님께서 특별히 성소의 특은을 베푸심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본당은 15구역 8천여 명의 신자들이 홍기범 주임신부님과 함께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지역 곳곳에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신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대치2동 본당은 이제 20세의 청년으로 성장하여 더욱 분발할 것이며, 지역 주민 모두가 하느님 품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함께하도록 전 신자들이 힘을 모아 선교에 열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 본당이 오늘이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역대 주임신부님들과 보좌신부님들, 수녀님들, 전임 총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본당 발전에 헌신하신 모든 교우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당이 세세연년 크게 발전하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무궁토록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속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현 총회장 권혁노(프란치스코)

대치2동 성당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9년 대치동 성당은 신자수가 16,000여명으로 분당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지만 새 성당을 신설하여, 적정 규모의 본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최광연(모세) 초대 주임신부님의 구상이었습니다.

최 신부님은 이미 여러 성당을 신축한 경험이 있어서 성당 건립에 일가견을 갖고 계셨고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영관리하였으며, 필생의 사업으로 가장 아름답고 실용적인 성당 건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최 신부님과 교우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본당 성전을 완공하여 김수환 추기경을 모시고 장엄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새 성전을 마련하면서 신부님과 교우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성전 건립을 추진했던 추억은 너무도 자랑스럽고 흐뭇하며 가슴 벅찹니다.

대치2동 성당은 '성가정 성당' 입니다. 우리는 성가정을 본받아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한 가족이 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분명 대치2동 성당은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대치2동 지역은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중산층이 모여 사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도 시키고,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올바른 인격을 지닌 자녀 양육에도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치2동 성당 성가정 공동체가 주님의 품 안에서 한가족 처럼 화합하고 일치하여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여 평화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1년 10월

초대 총회장 신대진(베드로)

본당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년의 해를 맞은 본당 공동체 모든 교우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한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본당 20년사가 발간된다니 더욱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치동 성당에서 본당이 분리 설립되기 전, 막바지 완성 단계에 있는 횡성 교육관을 운영, 관리상의 문제로 성 도미니코 수도원에 넘기겠다는 최광연 신부의 말씀을 듣고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형화된 대치동 성당을 분리하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며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새로운 거룩한 성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신부님의 깊은 뜻을 봉사자로서 헤아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본당과 교우들을 사랑하신 이상훈 신부께서 본당 사목 소임을 다 마치지 못한 안타까움이 본당이 걸어온 지난 20년을 뒤돌아볼 때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속에 기쁨과 아쉬움이 있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 본당 사목에 헌신한 역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대치2동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이며, 하느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믿는 이로서의 신앙적 삶을 통해 만들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제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본당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당 설립 20주년과 2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본당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 10월

전 총회장 장주일(스테파노)

대치2동 성당이 설립된 지 어언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당이 성년이 되었음을 모든 신자들과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당은 대치동 성당에서 분당되기 이전에 이미 골조공사를 끝내고 내부 마감공사를 시작하는 상태에서 또 각 단체들은 새 본당으로의 조직을 분리한 상태에서 설립된 보기 드문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에는 최광연(모세) 신부님의 열정과 역량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만한 오랜 세월 동안에 즐겁고 좋은 일이 많았으며, 아픔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고명철(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선종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후임이신 김병학(라파엘) 신부님도 전임 두 분의 주임신부님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신 것을 못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또한 아쉬움은 초대 선교·교육분과 위원장을 맡아 남성구역모임인 '사도회'를 창설하고 그 운영지침서로써 '사도회보'로 시작하여 본당지로 발전하여 자리매김한 '성가정'지를 제가 총회장으로 봉사하는 때에 이를 폐간하게된 것은 또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당 설립 초기부터 봉사하던 성찬봉사회가 이때 해체된 것도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본당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본당에서 줄곧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주님의 은총이며, 이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 본당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교구 내에서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고 상위그룹에 랭크되었던 것은 우리 신자들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주민대비 신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한 곳이라는 자부심도 가져 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당을 더 다듬고 가꾸어서 교구, 아니 우리나라의 모범 본당으로 거듭 나도록 하고 주민대비 신자비율도 더 높여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띠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 봅니다.

20주년을 맞는 본당 교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2011년 10월

전 총회장 유영순(미카엘)

대치2동 성당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교우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당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여섯 분의 주임신부님과 보좌신부님들, 수녀님들이 함께 하여 헌신적으로 애써 주셨고, 또 오늘날 발전된 대치2동 성당이 될 수 있도록 그간 봉사해주신 교우님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님 재임시에 총회장으로 2년간 봉사한 저에게는 크나큰 은총의 시간이었으며, 또 본당 설립시부터 함께 걸어온 신앙의 길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추억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본당은 초대 교회의 정신을 본받아 설립 초기부터 소공동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역대 신부님들께서 사목의 주안점을 두셨고, 또한 그 결과로 기초 공동체의 기틀이 다져진 역동적인 본당입니다. 20년의 비교적 짧은 본당의 역사이지만 교구 내에서 본당의 위상과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년의 해를 맞은 대치2동 본당 공동체는 보다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당 설립 20주년이 그동안 지나온 발자취의 추억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추구하는 사귐과 나눔, 봉사의 정신으로 은혜로운 본당 공동체를 지향하여 보다 발전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당 20주년과 2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당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 10월

전 총회장 권중원(베드로)

대치2동 본당이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축하의 기쁨이 너무 크지만 문득 아쉬움도 남습니다.

총회장이라는 역할 안에서 제가 임기를 맡았던 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임기를 끝낼 수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은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자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임기동안 우리 본당이 가정 안에서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신앙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시기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풋풋한 20대 이전의 시기를 함께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려고 하는 토대를 쌓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은 본당 20주년을 맞는 대치2동 본당 공동체의 새로운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성숙된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제가 그 안에 사목협의회 총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병학(라파엘) 신부님, 김자문(네레오) 신부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사목위원들, 그리고 교우들의 도움으로 총회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힘이나마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역대 신부님과 수녀님, 사목위원, 본당 교우들의 고마움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당 설립 20주년과 2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대치2동 본당이 20년 이후에도 성가정을 본받는 신앙 공동체로서 큰 힘을 발휘하는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느님의 큰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로, 사랑이 가득찬 공동체로!

2011년 10월

전 총회장 노창수(라이문도)

우리 본당이 성년의 해를 넘겨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기에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 고 했는데, 20년 전 성당 신축 착공 후 지하 약 20미터 까마득한 깊이의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준공 때까지 주말이면 봉사자들의 땀방울은 건축자재 이동, 건축 폐기물 배출 및 청소 작업 등으로 봉헌되었고, 미완공 상태의 지하층에서 돗자리를 펴고 미사를 드릴 때는 초대 교회 모습을 떠올리며 소공동체의 나눔과 친교의 정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김수환 추기경을 모시고 거행된 우리 성당 축성식은 더없는 기쁨과 축복이었기에 다시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 본당 공동체를 풍성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신자수, 복음화율 및 재정 규모 등에서 서울대교구 성당 중에서 상위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에 더욱 주님께 큰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본당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참여해 주신 많은 교우님들과 큰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단체의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본당 사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간 저희 본당을 떠나 이주한 많은 교우들과 여러 신부님, 수녀님의 노고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씨 뿌리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2011년 10월

전 총회장 이주영(아우구스티노)

믿음, 희망, 사랑의 "성가정 공동체"

2011년 10월 9일(주일) ㈜대치2동성당 포토데이

차 례

제1부 천주교 전래와 대치2동 본당의 태동

제1장 천주교 전례와 한국 천주교회

1. 천주교의 유래 58
2.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 배경 58
3. 한국 천주교회의 전래 60
4.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 64
5. 조선교구의 설정 66

제2장 한국 교회와 서울대교구의 역사

1. 조선교구의 발전 69
2. 한국 교회의 쇄신과 발전 70
3. 오늘의 세계 천주교회와 한국의 천주교회 71

제3장 지역사회 변천과 대치2동 본당의 태동

1. 행정구역상의 대치2동 변천 73
2. 대치2동 본당의 계보 74

제2부 대치2동 본당의 설립과 정착 노력

제1장 본당 설립을 위한 노력

1. 대치2동 본당의 설립과정 80
2. 새 성전의 건축 진행과정과 신자들의 노력 85

제2장 본당 설립과 초기 현황

1. 대치2동 본당의 설립과 최광연 신부 부임 91
2. 성전 완공과 봉헌식 95

제3장 본당 정착을 위한 노력

1. 최광연 신부의 사목 지향과 사목목표 101
2. 기초 공동체의 구성과 노력 104

3.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 116
4. 신자 재교육 및 첫 부제의 탄생 120
5. 나눔과 봉사의 실천 123
6. 청소년의 활동 127
7. 2000년대 복음화와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행사 130
8. 본당 마크제작과 타 본당 견학 132
9. 최광연 신부의 이임 133
〈화 보〉 134

제3부 본당의 정착과 소공동체 운동

제1장 본당 내실을 위한 사목활동

1. 이상훈 신부의 부임과 사목방향 140
2. 전례의 변화와 신심 고양활동 전개 149

제2장 소공동체 운동과 첫 사제 탄생

1. 소공동체 정착을 위한 노력 154
2. 본당 첫 사제 탄생 162
3. 이어지는 성소와 성소후원회의 창립 164

제3장 신앙생활과 단체활동

1. 선교활동과 신앙교육 166
2. 사도직 단체의 신설과 활동 171
3. 성경공부와 나눔활동 175
4. 청년 소공동체 조직과 청소년 활동 178
5. 이상훈 신부의 이임 182
〈화 보〉 183

제4부 본당의 성장과 복음화 운동

제1장 복음화 운동의 전개

1. 고명철 신부의 부임과 사목목표 190
2. 대치4동 성당 분당과 본당 10주년 행사 196
3.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 200

제2장 대희년과 시노드 활동

1. 대희년 기념과 활동 205
2. 시노드 활동과 교구 사목체계의 변화 208

제3장 신심 강화활동과 단체활동

1. 선교활동 강화와 신앙교육 211
2. 사도직 단체의 개편과 나눔 활동 218
3. 청소년의 활동과 노력 223
4. 시설물의 보수와 본당 행사 225
5. 고명철 신부의 선종 226

〈화 보〉 228

제5부 본당의 안정과 내실화 활동

제1장 본당 공동체의 안정화 노력

1. 김병학 신부 부임과 사목계획 234
2. 대치3동 성당의 분당과 소공동체의 활동 239
3. 시노드 활동 243

제2장 본당 내실화를 위한 활동

1. 사도직 단체의 개편과 활동 247
2. 선교활동과 신자 재교육 강화 250
3. 청소년 및 노인 사목활동 255
4. 성경 공부의 확산과 단체의 설립 258
5. 임민균(그레고리오) 새 사제의 탄생 260
6. 전례의 변화와 본당 시설보수 263
7. 나눔과 봉사의 실천 266
8. 본당 행사와 김병학 신부의 은퇴 268

〈화 보〉 272

제6부 본당의 발전과 소공동체 활성화

제1장 본당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

1. 김자문 신부의 부임과 사목목표 278
2. 사목활동의 새로운 시도 284
3. 본당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노력 286
4. 미사전례의 변화 289
5. 내부시설 여건의 변화 292

제2장 소공동체 활성화와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

1. 소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노력 294
2. 친교의 공동체를 위한 활동 297
3. 신자교육과 영성생활 301
4. 선교사목의 다양한 활동 302
5. 영성 심화 활동과 성서 공부 305
6. 본당 출신 사제의 탄생 310
7.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의 실천 312
8. 사도직 단체의 확대와 활성화 315
9.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318
10. 본당 역대 주임신부의 선종 320

제3장 본당 설립 20주년의 준비

1. 본당 설립 20주년의 준비 323
2. 본당 설립 20주년 행사 시작과 김자문 신부의 이임 326

〈화 보〉 330

제7부 본당 설립 20주년과 새로운 미래

제1장 본당 설립 20주년과 미래지향

1. 홍기범 신부의 부임과 20주년 행사 336
2. 새로운 본당의 미래 337

제8부 사도직 단체사

1.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40
2. 기획분과위원회 342
3. 전례분과위원회 343
   – 남성해설단 / 여성해설단 / 여성독서단 / 성가정 성가대 / 바다의 별 성가대 / 제대회 / 반주단 / 전례꽃꽂이회 / 선창단 / 성체분배봉사회
4. 재정분과위원회 354
5. 교육분과위원회 355
   – 가톨릭 성서모임 / 울뜨레야 / 성서못자리 / M·E / 직장인 가톨릭 성서모임
6. 남성구역분과위원회 361
7. 여성구역분과위원회 363
8. 선교분과위원회 367
   – 평신도교리교사단 / 새신자기도모임회 / 성물봉사회 / 성소후원회

   ■ 샛별 꾸리아 372
   –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 / 구세주의 모후 쁘레시디움 / 천사의 모후 쁘레시디움 / 사도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 성조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 천상의 모후 쁘레시디움 /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 원죄없으신 모후 쁘레시디움 / 인자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 성가정의 어머니 쁘레시디움 / 천상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 상지의 옥좌 쁘레시디움 / 애덕의 모후 쁘레시디움 / 은총의 샘 쁘레시디움 / 천상 사랑의 어머니 쁘레시디움 / 중재자의 모후 쁘레시디움 / 천상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 / 그리스도의 모후 쁘레시디움

   ■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 391
   – 사랑의 모후 쁘레시디움 / 상아탑 쁘레시디움 / 다윗의 탑 쁘레시디움 / 사랑의 샘 쁘레시디움 / 예언자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 바다의 별 쁘레시디움 / 승리의 모후 쁘레시디움 / 정의의 거울 쁘레시디움 / 창조주의 모후 쁘레시디움 / 복되신 어머니 쁘레시디움 / 순교자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 / 겸손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 인자하신 모후 꾸리아 405
   –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 / 사도의 모후 쁘레시디움 / 신비로운 장미 쁘레시디움 / 무염시태 쁘레시디움 / 성실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 환희의 모후 쁘레시디움 / 은혜로운 어머니 쁘레시디움 / 영원한 도움의 모후 쁘레시디움 / 사랑하올 어머니 쁘레시디움 /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 찬송하올 어머니 쁘레시디움 / 그리스도의 모후 쁘레시디움 / 결백하신 어머니 쁘레시디움 / 상아탑 쁘레시디움 / 겸손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 거룩하신 어머니 쁘레시디움 / 희망의 모후 쁘레시디움

   ■ 사랑의 샘 꾸리아 423
   – 성조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 순교자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 샛별 쁘레시디움 / 창조주의 모후 쁘레시디움 / 성모승천 쁘레시디움 / 완덕의 모후 쁘레시디움 / 애덕의 모후 쁘레시

디움 / 능하신 정녀 쁘레시디움 / 천사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 증거자의 모후 쁘레시디움 / 로사리오의 모후 쁘레시디움 / 기쁨의 샘 쁘레시디움 / 지혜로운 정녀 쁘레시디움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쁘레시디움 / 천상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 하늘의 문 쁘레시디움 /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 /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 희망의 모후 쁘레시디움

9. 청년분과위원회 443
   – 청년 연합회 / 다솜누리 청년전례단 / 한울림 청년성가대 / 필레몬 청년합주단 / 예그리나 청년선교단
10. 소년분과위원회 449
   – 첫 영성체교사단 / 복사단 자모회 / 주일학교자모회 / 초등부 저학년 교사단 / 초등부 고학년 교사단 / 중고등부 교사단
11. 사회사목분과위원회 456
   – 연령회 / 성모성심회 / 나눔회
12. 관리분과위원회 460
13. 노인분과위원회 461
   – 성 요셉 아카데미
14. 홍보분과위원회 463

부록

1. 본당 관할 구역 466
2. 본당 사목현황 466
   1) 복음화 현황 / 2) 신자 현황 / 3) 신자 증감 현황 / 4) 영세 현황 / 5) 견진 현황
3. 역대 사무장 현황 471
4. 본당 연표 472
5. 세례명 표기법 481
6. 편찬위원회 482
7. 참고문헌 483

제 1 부

천주교 전래와 대치2동 본당의 태동

제1장

천주교 전례와 한국 천주교회

1.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써,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법통을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다. 서기 30년 경,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의 열성적인 선교 활동으로 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지로 신속하게 퍼져 나갔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천주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300여 년 가까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 마침내 313년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곧 이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한편 천주교는 지난 이천 년 동안 서구 문화와 문명의 정신적, 사상적 토대가 되어 왔으며, 학문과 예술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애 증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1)]

2.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 배경

한국 천주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사실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는데, 이 준비기간에

1) 한국천주교 예비자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p.25~26

비축된 힘은 당시 사회의 요청에 힘입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회를 창설한 사건은 기적이라기보다는 18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요청이었으니, 이 점을 알려면 교회 창설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대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 조선의 대내적 요소를 주목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문화와 사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의 남송에서 발생하여 조선 왕조에서 완성시킨 개신유학인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비판이 움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실학사상이 대두되었다. 실학사상은 유교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희(朱熹)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데 반대하고, 공자나 맹자 단계의 원초 유학으로 돌아가려는 학문 경향을 말한다.

당시 실학자들은 성리학에 회의를 품고 이에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체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실학자들은 중국의 유교 철학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원초 유학에는 천(天), 또는 상제(上帝)에 대한 관념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실학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와 그들이 원초 유학으로써 이해했던 상제 등에 대한 관념은 유일신 사상인 천주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와 같은 문화적 변동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요청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여러 책자를 구입하여 중국의 사상을 검토하였다. 그들이 검토한 서적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천주교 서적이 있었다. 이 한문 서학서들도 원초 유학에 입각하여 보유역불론(補儒易佛論)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남인계 지식인들은 당시의 서학서에서 원초 유학이라는 공통 요소를 발견했고 상대적으로 쉽게 서학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한국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창설될 수 있었던 대내적 배경에는 문화적 분위기와 함께 사회 변동상도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 왕조는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국가이다. 당시 사회는 양반과 양인(良人), 그리고 노비와 같은 신분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을 당연시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신분제도가 급격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당대 많은 사람이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바라고 있었으며, 그 평등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이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함을 주창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교회 창설의 두 번째 배경으로는 대외적 요인으로 천주교회의 동양 선교를 들 수 있다. 서양에서 종교개혁을 체험한 천주교는 자신의 쇄신을 다지는 한편 동양과 신대륙에 대한 선교를 시도하였다. 특히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단체들은 일본과 중국 선교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하여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 잡혀 간 조선인 가운데 몇몇이 일본에서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으며, 일본의 박해 과정에서 순교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입교와 순교는 한국사와는 무관하게 전개된 일본 교회사의 한 부분일 뿐, 한국 교회 창설과 직접 연결될 수는 없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선교사들은 각종 천주교 서적을 한문으로 간행하였는데, 이 한문 서학서가 조선에 전래되면서 한국 교회 창설에 직접 계기로 작용한다. 당시 예수회 선교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지은 마테오 리치(Mateo Ricci)였다.[2)]

3. 한국 천주교회의 전래

1) 천주교에 대한 관심과 교회 공동체의 출범

조선 왕조에 한문 천주교 서적이 전래된 이후,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천주교 신앙을 실천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표적 인물은 홍유한이었다. 1770년경 천주교 서적을 읽고 감동한 홍유한은 천주교 교리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날짜를 7일씩 계산하여 일곱째 날을 주일로 삼아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는 금욕 생활과 기도 생활을 실천

2) 조광, 한국천주교회총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377~408

했을 뿐 아니라, 날마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소재(小齋)[3]를 지켰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다. 그는 비록 세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이 책을 통해 터득한 천주교 신앙을 혼자서 실천해 나갔다.

그 뒤 천주교 교리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를 주도하는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는 기호 남인 계통에 속하고, 학문 전통으로는 성호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였다. 당시 이익의 학문을 이어받아 연구하던 권철신, 정약전 등 일단의 지식인들은 1777년에 이르러 서울 부근에 있는 주어사[4](走魚寺)에 모여 유교 경전을 강학하고 있었다. 주어사에서 강학[5]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벽도 여기에 합류한다.

그들은 주어사에서 유교 경전을 강학하면서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서적을 참조했고, 서학서에 언급된 내용들도 검토하였다. 이들이 검토하는 서적 가운데는 「천주실의」와 「칠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강학의 참여자 가운데 몇몇은 천주교 서적에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천주교를 신앙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결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대표적 인물은 이벽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결심이 곧 교회 창설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창설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벽은 교리를 연구하는 일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천주교에 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얻고자 하였다. 마침 그때 이벽의 동료 이승훈이 부연사(赴燕使) 일원으로 중국 북경에 가게 되었다. 이벽은 곧 이승훈을 만나 북경에 가거든 선교사를 만나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책들을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 부탁을 받은 이승훈은 북경에 간 후 선교사를 만나서 교리를 배우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천주교 책들과 성물을 가지고 1784년 봄에 귀국하였다.

이승훈은 가져온 서적의 일부를 이벽에게 넘겨주었다. 이벽은 몇 개월 동안 이 책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승훈과 함께 친척과 친지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벽은 정약용 형제들을 찾아가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당시 지식인

3) 금육제의 옛말
4)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하호리 앵자봉 정상 가까이에 있던 사찰
5) 강학은 여럿이 모여 공통된 주제를 놓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토론하는 학문연구의 한 방법으로, 주로 조선시대 유학자들 사이에서 성행되었다.

들 사이에 덕망이 높은 권일신 등을 입교시키는 한편, 김범우를 비롯한 중인들에게도 전교하였다.

1784년 9월 이승훈은 서울의 수표교 부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서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 마련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결속된 복음 선포 기능을 수행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었다.

2) 가성직 제도와 초기의 신앙 공동체

교회 창설 직후 복음 선교에 앞장선 인물로는 이승훈, 이벽, 권일신이 있다. 권일신의 제자인 이존창은 충청도 내포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전주에서는 유항검이 신앙을 전파해 갔다. 이 밖에도 많은 신자들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여 이를 기쁘게 실천하면서 교회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바쳤다.

이렇게 출발한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창설 직후부터 탄압에 직면하게 된다. 1785년 봄, 형조의 관리들은 서울 명례방[6]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적 모임을 하고 있던 신자들을 검거하였으나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양반인지라 방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형조는 양반의 범죄를 다스릴 수 없었다. 그러나 함께 체포된 신자 가운데 중인 출신인 김범우는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냈다. 귀양을 살던 김범우는 고문받은 상처가 악화되어 죽었다.

이러한 탄압에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조직을 다져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1786년 가성직 제도(假聖職 制度)를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가성직 제도는 성품성사를 받지 아니한 신자들이 성직자의 고유한 업무까지 수행하던 비합법적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를 미처 알지 못한 당시 신자들은 미사와 고해성사 등을 집전하였다. 이 가성직 제도 아래에서 이승훈은 교회의 으뜸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두 10여 명의 신자가 신부로 추대되었다. 가성직 제도는 교회법으로는 올바른 일이 아니나, 교회 조직을 갖추어 신자들의

6) 명동성당의 모체가 '명례방'(明禮坊)이다. 한국 교회 최초로 정기적인 신앙 집회가 열린 곳으로 중구 명동 1가에 위치한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선교를 강화해 보려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가성직 제도는 1789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천주교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가성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북경 주교에게 문의한다. 1790년에 도착한 답변에서 북경 주교는 가성직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약속하는 한편,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하였다. 이로써 조선 교회는 선교사를 맞이하는 기쁨과 조상 제사 문제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조선 왕조에서 장자(長子)에 대한 제사 상속권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양반 사족(兩班士族)들이 본격적으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게 된 시기는 17세기 이후다. 조상 제사는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던 효심의 자연스런 표현으로, 사대 봉사는 양반 신분의 상징이다. 사족들은 사대봉사를 통해서 팔촌친(八寸親) 공동체를 형성하여 변동하는 사회에 대처해 가고 있었다. 이렇듯 조상 제사는 양반 가문의 사회적 결속과 존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 때문에 조상 제사 금지는 양반 사족 출신 신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조상 제사 포기는 양반으로서 명망과 특권을 버리고, 가문을 존립시키는 사회적 기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앞서서 양반 문중의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사대봉사를 하던 양반층 신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터득한 천주교 신앙을 버리고 자신이 원래 속한 유교 문화로 재편입해 가면서 초기 교회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양반들도 탈락하였다. 따라서 1790년대 이후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급 신자들도 바뀌었다. 양반층 신자들이 탈락한 반면, 양반으로서 특권을 포기하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과 중인 이하의 인물들이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상 제사를 거부한 윤지충과 권상연은 1791년에 순교하였다. 그들은 우리 교회사에서 첫 순교자들로 기록되었다. 그들의 순교로 양반층 신자들이 빠른 속도로 탈락해 나가면서 1791년의 박해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양반 지식층이 주도하던 종교에서 민중들의 종교 운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 갔다.

한편 북경의 주교는 조선 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794년 주문모 신부를 파견하였다. 중국인 성직자로서 조선에 파견된 그는 조선의 신생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다. 그의

노력과 신자들의 전교 활동으로 조선 교회는 크게 발전하면서 신자 수가 1만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때 신자들은 주로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분포되어 있었다.

주문모 신부가 전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탐지한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고자 하였다. 이 때에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윤유일, 최인길, 지황과 같은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강완숙을 비롯한 신자들의 보호로 주문모 신부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다.

주문모 신부가 들어온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소규모의 탄압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탄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증언하는 신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리고 신자들은 명도회(明道會)[7]와 같은 신심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교리를 익히고 자선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종이다. 그는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순수한 한글로 교리서 「주교요지」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천주교 교리를 요약하여 제시해 준 정약종은 1801년의 박해 때에 순교하였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조직적으로는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최창현은 '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조직과 발전에 초석을 놓았으며, 강완숙과 윤점혜는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여성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당시 교회에서 '여회장'으로 불렸다.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서 활동하던 정산필이나 김승정의 경우처럼 지방에서도 '회장'을 임명하였다. 이 회장들은 주문모 신부가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임명하였다.[8]

4.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

1784년 교회가 세워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신자의 숫자가 1,000명을 헤아리게 되었

7) 주문모 신부에 의해 세워진 평신도들의 교리연구 및 전교단체이다. 명회(明會)로도 불렸다. 주 신부는 북경에 세워져 있는 회의 본을 떠서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회'라는 뜻으로 조직하였다.

8) 조광, 한국천주교회총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377~408

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뒤에는 대략 4,000명의 신자가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이후 교세는 더욱 발전하여 1800년에는 대략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신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특권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힘없는 민중들이었으며,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천주교를 반왕조적 종교로 규정한 집권층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일대 탄압을 단행하였다. 1801년에 단행된 박해는 나이 어린 교회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으니, 이 박해로 말미암아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였다. 이때 주문모 신부는 중국으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피하면 신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순교의 길을 택하였다.

이 박해의 와중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신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 당시 교회의 총회장 최창현과 명도회 회장 정약종,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이존창과 유항검이 이때 순교하였으며, 강완숙, 이순이 등과 같은 여성 신자들도 이때 순교하였다. 또한 이 박해에서는 앞서 배교를 선언했던 이승훈, 김건순, 이희영과 같은 인물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정약용을 비롯하여 배교를 선언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형을 면하고 귀양을 떠나거나 방면되었다.

이때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한다.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황사영은 박해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여 제천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북경의 주교에게 조선의 박해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려 하였다. 이 편지는 도중에 발각되었고 그도 체포되었다. 편지 내용에는 조선 왕조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국 세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강경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정은 천주교의 성행에 대하여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그는 '신앙의 자유' 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백서를 작성했지만, '무력적 외세' 라는 부당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인색하게 되었다. 결국 황사영도 자신의 행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

1801년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 박해는 천주교 신앙을 더욱 널리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니,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진 신자들은 피난처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경상도나 강원도로 이주한 내포 지방 신자들은 비밀리

에 신앙을 실천하면서 그 지역에 천주교 신앙의 씨를 뿌렸던 것이다.

박해가 끝난 이후 신자들은 교회 재건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다. 당시 교회 재건에 힘쓴 신자들 가운데는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 등이 있었다. 1801년의 박해 때 배교를 하고 귀양을 살던 정약용도 1811년 이후 교회 재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경의 주교에게 밀사를 보내어 선교사 파견을 간청하였으며, 로마 교황청에까지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주교 파견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회 재건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나 천주교에 대한 조정의 박해는 일부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꾸준히 교회 재건 운동을 전개한 결과 조선 교회는 중국인 여항덕 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조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교하였다. 그러나 그는 뒷날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게 되자 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으로 귀환하였다.[9)]

5. 조선교구의 설정

1831년 조선교구가 설정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는 북경교구의 관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교구가 설정된 것은 조선인 신자들의 꾸준한 청원과 파리외방전교회의 응답에 따른 결과였다. 조선인 신자들의 청원을 받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조선에 교구를 설정하고자 했고, 파리외방전교회에 소속된 브뤼기에르(Bruguiére) 주교는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다.

그는 조선교구 제1대 교구장이 되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새로운 사목지를 눈앞에 두고 중국 땅에서 병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1835년 이후 조선에 입국하였다. 조선에 입국한 이들은 신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조선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신자들의 숫자가

9) 조광, 한국천주교회총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 377~408

늘어 갔으며 그들의 신앙도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1839년 다시 박해를 일으키어 앵베르(Imber 1796~1839년) 주교를 비롯한 3인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체포, 처형하였다. 이때 순교한 신자들로는 유진길 등을 들 수 있다. 정하상이 「상재상서」를 지어 천주교 신앙을 변호한 것도 바로 이 박해에서 였으며, 그 또한 이때 순교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의 순교는 조정의 천주교 탄압이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문제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에 들어온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김대건, 최양업 등을 선발하여 중국의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였다. 그 후 김대건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 수품되어 국내에 돌아와 활동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몇몇 신자와 함께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체포되어 1846년에 순교하였다. 그의 순교를 전후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조선에 들어왔다. 그리고 최양업도 사제가 되어 귀국하였다. 최양업 신부는 산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면서 교우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한 교리 내용을 쉽게 알려 주기 위하여 '사향가(思鄕歌)'를 비롯한 천주교 가사를 지어 부르게 하였는데, 이러한 천주교 가사는 신자들의 묵상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교 과정에서 과로로 병을 얻어 죽었다.

이처럼 선교사들과 조선인 성직자 그리고 신자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발전되어 갔다. 교회 초기부터 186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신자 수는 다음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시대의 교회 현황 (단위 : 명)

년도	신자 수	외국인 선교사	조선인 신부
1789	1,000	0	0
1790	4,000	0	0
1796	10,000	1	0
1859	16,700	8	1
1865	23,000	16	0

1860년대 초의 교회는 거듭된 박해에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고종의 후견인으로 정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 이하응은 천주교가 성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대원군은 정권을 장악한 직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국가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자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사상을 정비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에 그는 지방 유림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철폐하기에 앞서, 이단으로 지목되던 천주교부터 척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순결성을 먼저 과시하면서, 사족(士族)들을 위압하려 한 듯하다.

대원군은 1866년부터 1874년 그가 하야할 때까지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대원군 집권기에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기간은 1866년 이후 3년 동안이었다. 이 박해 과정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던 12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베르뇌(Berneux) 주교, 다블뤼(Daveluy) 주교를 비롯하여 아홉 명의 선교사가 순교하였다. 이에 1866년 프랑스 해군은 병인양요를 도발하여 강화도를 침략하고 약탈을 감행하였다.

1868년에는 흥선 대원군의 생부인 남연군 묘를 파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는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피신해 있던 페롱(Fecuron) 신부가 개입되었다. 이 도굴 미수사건의 여파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혹독하게 전개되어, 충청도 해미에서는 많은 신자를 생매장 학살하기까지 하였다. 1866년에 시작되어 3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 박해 과정에서 남종삼, 홍봉주 등 많은 신자가 신앙을 증언하고자 순교하였다. 또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삼아 1871년 미국 해병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신미양요로 외세와 결탁된 것으로 간주되던 천주교는 다시 탄압을 받았다.[10]

그 이후에도 천주교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하였고, 1886년 한불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포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0) 조광, 한국천주교회총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p.377~408

제2장

한국 교회와 서울대교구의 역사

1. 조선교구의 발전

1831년(순조 27년), 로마 교황청에서는 북경교구에 속해 있던 한국을 조선교구로 독립시켰으며, 1911년 4월에는 조선교구를 경성교구와 대구교구로 분리시켰다. 1920년 8월에는 경성교구에서 원산교구가 독립하였고, 1927년 3월에는 경성교구에서 평양교구가 독립하였다. 1940년에는 서울교구(경성교구에서 개칭)에서 춘천교구가 분리되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 교회에는 6개의 교구(대목구)와 3개의 지목구, 1개의 수도원 교구(면속구)가 있었고, 신자 수는 대략 18만여 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남한에는 서울교구, 대구교구, 전주지목구, 광주지목구, 춘천지목구 산하에 약 1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북한에는 평양교구, 함흥교구와 덕원수도원교구에 약 5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만주의 연길교구에 2만여 명의 신자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 신자들 외에도 300여 명의 내외국인 성직자와 400명 남짓한 수녀들이 있었다.

휴전 이후 한국 교회는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교구가 증설된다. 지목구이던 춘천이 1955년에 교구(代牧區)로 발전하였으며, 1957년에는 광주교구, 전주교구, 부산교구가 설정되었다. 이어서 1958년 대전교구가 설정되어 해방 직전 일본 식민지 정권의 강요로 은퇴를 강요당한 파리외방선교회 선교사 라리보(Larribeau) 주교가 정식으로 교구장에 취임하였다. 청주교구(1958년)와 인천교구(1961년)도 설정되어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이 두 교구를 관장하였다.

1950년대 한국 교회 발전에는 수도회가 크게 기여하였다. 극심한 전란의 피해를 입은

덕원의 성 베네딕토회는 경북 왜관에 재정착하였으며(1952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도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예수회가 진출하여 서울에 서강대학교를 개교하였다(1960년). 그 밖의 몇몇 남자 수도회들이 새롭게 창설되거나 한국에 진출하였다. 이 시기에 여자 수도회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전란의 과정에서 혹심한 시련을 당했지만, 전후 한국 사회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으며, 가르멜 수녀회도 관상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함흥교구와 연길교구에서 선교하던 성 베네딕도회 수족(修族)의 수녀회들도 남한 사회에 재정착하여 선교에 종사하게 된다. 평양교구 소속 수녀회이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가 서울에 정착하였고, 한국 순교 복자회, 서울 성가 소비녀회, 포항 예수 성심 시녀회 등 방인 수녀회도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 시기에 여러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곧 한국 사회와 교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11]

2. 한국 교회의 쇄신과 발전

1962년 이후 세계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아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한국 교회는 1984년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기에 이른다.

1962년 한국 교회는 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된다. 교계 제도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성사 집전과 관련되는 신품권(神品權)을 통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내의 입법·사법·행정 업무와 관련되는 재치권(裁治權)의 행사와 관련된 제도이다. 교황청에서는 선교지의 경우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치권[12]의 일부를 제한해 왔다. 선교지의 교회는 재치권 행사에 대하여 교황청 포교성성에 직속되어 지도와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교황청은 선교지 교회가 자립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정식 교계 제도를

1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2) 재치권은 교도권(敎導權) 및 신품권(神品權)과 구별하여 협의의 사목권(司牧權)이라고도 불린다. 재치권은 교회 내의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하나 국가의 삼권분립 제도와는 달리 재치권자가 삼권을 모두 가지며 다만 그 행사의 편의상 기능의 분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설정해서 완전한 재치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정식 교계 제도 설정은 교회 제도적 측면에서 일대 발전을 뜻하는 사건이다.

한국 교회의 교계 제도 설정은 한국 교회가 성취한 1950년대의 발전을 감안한 것이다. 교계 제도 설정으로 한국 교회는 종전의 대목구(代牧區) 체제에서 정식 교구(dioecesis)로 승격된다.

1961년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모두 8개 교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서울대교구는 아직 대교구가 아닌 전국 8개 교구 가운데 하나였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관내의 모든 천주교회를 관할하였다. 1961년 7월 인천교구가 분리되었고, 1963년 10월 수원교구가 분리 됨으로써 서울교구는 서울과 경기도 북부 지역만을 관할하게 되었으나, 1962년 3월 로마 교황이 서울, 대구, 광주 3개 교구의 교구장을 대주교로 승격시키고, 교구의 지위를 대교구로 승격시킴으로써, 서울교구는 교회법상의 정식교구로 확정지어져 로마 교황에 직결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외국의 전교단체가 영도하던 한국의 교회가 당당한 자치교회로의 지위에 올라간, 큰 의의가 있는 조치였다. 이때 대주교로 임명된 노기남 대주교가 서울대교구의 초대 교구장이 되었다.

한국 교회의 제도적 발전은 1968년 서울대교구 김수환 대주교가 추기경에 서임됨으로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추기경 서임으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교회사와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후에도 1989년 10월 교황 칙서에 따라 한국 군종교구가 설립되고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정명조 주교가 임명된다. 2004년 6월 서울대교구에서 관할하던 경기도 지역이 의정부교구로 분리되면서 이한택(요셉) 주교가 초대 교구장이 되었다.

3. 오늘의 세계 천주교회와 한국의 천주교회

교황청 국무원 통계처가 2010년 발행한 '교회통계연감(Statistical Yearbook of the

Church 2008)' 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 총수는 11억 6,571만 4,000명으로 세계 총인구 66억 9,835만 3,000명(2008년 6월 30일 기준 UN 인구 연감) 중 17.4%에 달한다. 이는 가톨릭 신자 수가 2000년에 10억 4,505만 6,000명에서 1억 2,065만 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 교회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491만 4,000명으로 세계 227개 국가에서 48번째였으며, 아시아 48개 국가에서는 618만 7,000명인 베트남에 이어 5번째로 집계됐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2010년 5월에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9' 에서는 5,120,092명으로 집계돼 인구대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다. 현재 한국의 가톨릭 인구는 2000년부터 10년 간 2~3%의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교구의 현황(2010년 12월 31일 통계 기준)을 살펴보면, 관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역과 황해도 전 지역으로 면적은 17,053.41㎢이고, 관할 지역의 인구수는 10,575,446명이고, 그 중에 신자수는 1,417,695명이다. 따라서 신자 비율은 13.4%이며, 주민 100명당 13명이 천주교 신자인 셈이다. 한편 성직자 현황을 보면 추기경 1명, 주교 2명, 몬시뇰 9명, 신부 710명, 신학생은 288명이며, 서울대교구의 본당 수는 224개이다.

제3장

지역사회 변천과 대치2동 본당 태동

1. 행정구역상의 대치2동 변천

대치동 지역은 조선시대에 8개의 자연부락(한티, 움말, 응달짝, 새말, 능안말, 중간말, 세촌, 아랫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중 큰 고개 밑에 있던 한티마을을 한문으로 대치(大峙)라 한데서 비롯된 오늘날의 대치동은 조선시대 말까지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지역이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경기도 구역 확정 때 대치리로 변경되었고,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서 대치동이 되었다.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276호로 신설된 성동구 언주출장소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고, 이때 대치동의 행정은 청담동, 삼성동과 함께 수도동사무소(修道洞事務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1970년 5월 18일에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 사이의 명칭을 일정하게 할 때 수도동사무소에서 청담동사무소(淸潭洞事務所)로 개칭되었다.

1970년에 서울시는 도심지의 과밀인구 분산책의 하나로 영동 제2지구와 잠실도를 개발해 각각 24만 명과 1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형성키로 결정했다. 영동 제2지구는 강남의 압구정, 청담, 삼성, 도곡, 대치, 학동 일대를 택지로 개발했으며, 잠실도는 잠실, 신천 일대로 탄천 유역의 치수 사업을 벌여 수몰 지구를 없애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어 대치동은 1973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영동출장소(永東出張所)에 속하게 되었다. 그 이후 다시 영동출장소 관할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75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따라 강남구가 신설되어 성동구가 강남구로 분리되면서 대치동은 강남구에 속하게 되었다.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181호에 따라 청담동사무소에서 삼성동사무소가 분동(分洞)되자 삼성동사무소의 행정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198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413호에 따라 삼성동에서 대치1동과 대치2동이 분동되었다. 그 후 198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2015호에 따라 대치2동에서 대치3동이 분동되었고, 1988년 7월 1일 대치1동에서 대치4동이 다시 분동되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780호에 따라 대치2동과 대치3동이 대치2동으로 통폐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대치2동의 행정상 구역 변천

시 기	구 역 명 칭
조선시대 중기	경기도 광주목 언주면 대치동
1895년 5월 1일	한성부 광주군 언주면 대치동
1914년 3월 1일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치동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98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2. 대치2동 본당의 계보

1) 강남지역의 공소 설정과 관할지역의 변화

약현 본당(현 중림동 성당)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프랑스인 두세(C. Doucet) 신부는 자신의 사목구역 안에 새로 몇 군데의 공소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선 한강 이남 지역에는 1891년에 '동지기 공소'(현 동작구 동작동 지역)를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1897년에는 다시 변두리 지역 즉 경기도 남부·서부를 미리 둘러보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교구장에게 보고하였다.

"현재 본인이 오로지 소망하는 것은 서울에서 떨어진 곳(경기도 지역)에 한 10리쯤 간격으로 몇 군데 공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교인(外敎人)들 가운데서 고립되어 살고

있는 몇몇 신자들이 주일이면 그들을 돌보게 될 전교회장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남부와 서부에서는 일이 잘 되었으니, 이제 북부와 동부가 남았습니다."[13]

이처럼 두세 신부가 외교인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의 집회소(공소집)를 마련해 주고자 한 것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던 교안(敎案) 때문이었다. 이 교안은 천주교인들과 일반 민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침해 사건을 말하는데, 박해가 끝나고 1896년에 한불조약(韓佛條約)이 체결된 이후부터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1905년 사이에 특히 심하였다. 그러므로 두세 신부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두리 지역의 공소집 설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도 아래서 그는 지금의 강남 지역에도 공소[14](公所)를 설정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맨 먼저 이루어진 것이 1900~1901년에 설립된 서리풀 공소(현 서초구 서초동)였다. 1903~1904년에는 '가나골 공소'(현 송파구 가락동 지역)가 설립되었다. 1907~1908년에는 숫골 교우촌이 정식 '숫골 공소'(현 강남구 청담동 지역)로 설정되었으며 이인의(프란치스코) 초대 공소회장의 노력으로 공소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1~1912년에는 '게리 공소'(현 서초구 양재동 지역)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27년에 백동 본당(현 혜화동 성당)이 설립되면서 지금의 강남 일대는 소속 성당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즉 동부 지역에 있던 숫골과 가나골 공소는 신설된 백동 본당의 관할 아래 들어가게 되었지만, 서리풀과 게리 공소는 그대로 약현 본당 소속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약현 본당은 1917년 4월 초대 두세 신부가 선종함에 따라 제2대 신부로 비에모(Villemot) 신부가 부임하였으며, 1926년에는 비에모 신부가 명동 본당으로 전임되면서 한국인 김윤근(요셉) 신부가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한편 1930년대 초에 이르러 지금의 반포와 논현 지역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언구비 공소'를 설립하였다.

13) 논현동본당 30년사 p.60

14) 본당(本堂)보다 작은 교회 단위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공소 교우들의 모임 장소인 강당(講堂)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소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가 집전되지 못하고 대신에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첨례를 보거나 공소예절이 행해지며, 정기적인 신부의 방문을 통해서만 성사(聖事)가 집행된다.

2) 잠실리 본당과 강남 지역 변화

이우철 신부는 약현 본당에 재임할 때부터 서울역 인근에 버려져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1947년에 이르러 약현 본당 신부를 사임하고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당시 잠실리 13번지 5호, 현 서초구 잠원동)에 성심원(聖心園)이란 보육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신부는 이해 7월 15일 자로 성심원을 개원하고, 그 안에 조그만 소성당을 건립하여 문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잠실리 준본당' 의 시작이었다.

잠실리 준본당(현 잠원동 성당의 전신)은 그 후 자연스럽게 본당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전까지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중림동이나 혜화동 성당의 미사에 참여해야 했던 강남 지역 신자들에게는 이곳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제 이 일대의 신자들은 한강을 건너지 않고서도 목자가 상주하는 보육원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우철 신부는 강남 지역의 서초리·방배리·양재리·반포리·잠실리·청담리·신사리 등에 거주하는 신자들을 위해 순회 미사를 집전해 주거나 춘추 판공성사를 맡아주었다.

이후 잠실리 본당의 성당과 성심원은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모두 파괴되었지만 휴전 후 성당 재건에 힘써 1954년 7월 18일에는 미군의 도움으로 성당 및 보육원을 완공, 낙성식을 가질 수 있었다.

3) 양재동 성당, 청담동 성당의 설립과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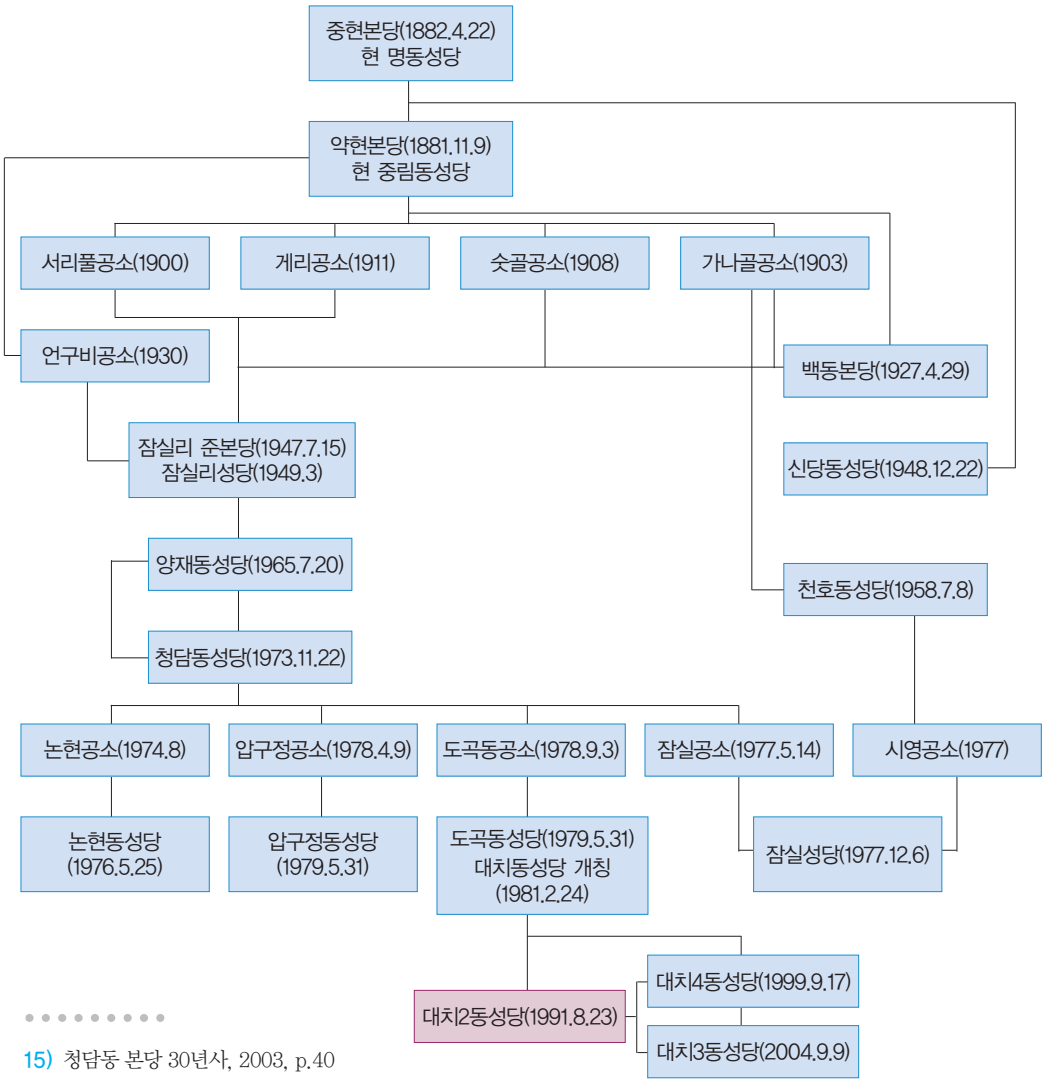
양재동·서초동·반포동·청담동의 신자들은 이우철 신부와 협의하여 1964년 서초구 양재동 23번지에 3,970평을 매입하게 되었다. 서울교구에서는 인구 유입과 교세 확장을 위해 이 지역에 본당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1965년 7월 20일에는 마침내 '양재동 성당' 의 설립을 발표하고 초대 본당 신부로 이용선(베드로) 신부를 임명했다. 이후 양재동 성당의 관할 구역 중에서 현재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과 서쪽의 신사동, 논현동, 학동, 압구정동, 남쪽으로 도곡동, 대치동, 역삼동의 일부 그리고 동쪽으로 송파구 잠실동의 일부

를 분할하여 1973년 11월에 청담동 성당을 설립하여 분할하였다.

이 무렵에는 한남대교, 영동대교가 준공되고 강남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이 끝난 상태여서 아파트 입주를 위해 이주한 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교인들의 수도 급증하였다.

청담동 성당 설립 이듬해, 1974년 8월에 논현 공소가 설립되고, 1977년 5월 잠실 공소가, 1978년 4월 9일엔 압구정 공소, 9월 3일엔 도곡동 공소가 각각 설정되었다.

▶강남·서초·송파지역의 본당 및 공소 분할[15)]



15) 청담동 본당 30년사, 2003, p.40

이후 청담동 성당 관할구역 중 신사동, 논현동, 학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과 역삼동 일부 지역이 분할되어 1976년 5월 25일 논현동 성당으로, 1977년 12월 6일에 천호동 성당의 시영 공소와 통합되어 잠실 성당이 설립되어 잠실 공소가 분할되었다. 그리고 1979년 5월 31일에 압구정 성당과 도곡동 성당이 분할되었다.

4) 대치동 성당의 설립

1978년 7월부터 도곡동과 대치동에 거주하는 신자들은 공소 설립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다. 8월엔 최창정(요하킴) 신부(청담동 성당 제2대 주임신부)의 허락을 얻어 신축 상가 건물 3층(도곡동 439 블럭 체비지 5호 나)에 있는 85.5평의 방을 매입하였고, 9월 3일에 최 신부의 집전 아래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공소 설립 전부터 도곡동 구역의 신자들은 레지오 마리애 운동을 도입하고 성체회(현 대치동 성당 연령회의 전신)를 비롯하여 공소 단독의 성가단, 복사단, 학생회 등을 설립하였으며, 공소 설립 이후인 10월 8일에는 주일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무렵에 군종 신부로 재직하던 이성만(토마스) 신부가 틈을 내어 공소 신자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도곡동 공소는 1979년 5월 31일 도곡동 성당으로 승격되었고, 행정구역상 주소지가 대치동이었기 때문에 1981년 2월 24일, 대치동 성당으로 개칭되었다. 초대 주임으로 안상인(요셉) 신부가 부임하였으며 설립 당시 성당의 신자 수는 1,178명, 관할 구역은 도곡동, 대치동 전 지역과 삼성동, 역삼동 일부 지역이 속하게 되었다.[16]

16) 청담동 본당 30년사, 2003, p.110

제 2 부

대치2동 본당의 설립과 정착 노력

제1장

본당 설립을 위한 노력

1. 대치2동 본당의 설립과정

1) 1980년대 대치동 성당의 현황

대치동 성당은 1978년 800여명으로 도곡 공소가 설립된 후 그 이듬해인 1979년에는 신자수가 1,311명(636세대 남 579명, 여 732명)로 증가되었다.

특히 대치동 성당의 관할구역인 대치동과 도곡동, 역삼동 일부, 개포동, 삼성동 지역은 그 관할 면적만큼이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인구밀도가 높고 강남지역 개발과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자 유입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지역에 은마아파트 4,424가구의 입주가 1979년 8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 이어서 1980년에 청실아파트, 1983년에는 우성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이어 1985년에는 쌍용아파트의 입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역삼동 성당이 대치동 성당과 양재동 성당의 관할 구역을 넘겨받아 1984년 8월 1일에 설립될 때에 대치동 성당에 속해있던 1,996명(642세대 남 863명, 여 1,133명)의 신자 교적이 옮겨졌다.

이렇게 분할 이후에도 대치동 성당은 1985년 6월 16일 주일미사 참석자수가 8,517명[1]인 포화상태였다. 그래서 개포동과 일원동 일부에 거주하는 교우들을 위해 1985년 7월 14일에는 개포동 공소를 설립(미도파 슈퍼 6층 18평, 6월 19일 전세계약)하였다. 8월 16일에는 개포동 공소가 개포동 성당으로 승격되면서 대치동 성당에 속해있던 4,135명(1,483세

1) 대치동 본당 15년사, p.355 연혁

대 남 1,715명, 여 2,420명)의 신자 교적이 개포동 성당으로 분리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986년에 신자수가 11,097명이나 되는 대형화된 성당의 상태였다.

▶대치동 성당의 신자 현황[2)]

(단위 : 명)

년도	세대수	신자수			증감(%)	비고
		남자	여자	합계		
1979년	636	579	732	1,311		
1980년	1,262	792	1,216	2,008	53.2%	
1981년	2,262	1,908	2,656	4,564	127.3%	
1982년	2,349	2,683	3,791	6,474	41.8%	
1983년	2,893	3,494	5,111	8,605	32.9%	
1984년	3,745	4,355	6,387	10,742	24.8%	역삼동 성당 분당
1985년	3,055	3,702	5,485	9,187	-14.5%	개포동 성당 분당
1986년	3,244	4,492	6,605	11,097	20.8%	
1987년	4,154	5,158	7,687	12,845	15.6%	
1988년	4,504	5,737	8,736	14,478	12.7%	
1989년	5,243	6,216	9,464	15,680	8.3%	
1990년	5,667	6,586	10,053	16,639	6.1%	
1991년	2,182	3,736	5,848	9,584	-42.4%	대치2동 성당 분당

2) 대치동 성당의 분당 검토

당시 대치동 성당의 주임신부는 1986년 8월 29일에 부임한 제3대 최광연(모세) 신부였다. 최광연 신부는 1961년 12월 21에 사제 서품 후 서울대교구 재경부장과 사목국장, 교구장 총대리직을 역임하였으며, 본당 사목에 있어서도 경험이 많았는데, 불광동 성당 주임을 시작으로 8번째 사목지가 대치동 성당이었다. 최광연 신부는 오랫동안 본당 사목을 한 경륜과 더불어 서울대교구 총대리직을 수행할 만큼 교구에서 본당의 현황 파악이나 주변

2) 대치동 성당 30년사, p.88

지역의 변화에도 남다른 선견지명을 지녔다.

특히 서울대교구 재경부장 재임시 1970년대 들어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전 건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경향잡지(1971년 7월호)에 '성당 건축에 따르는 문제들' 이라는 특집 좌담회에서 밝혔듯이 '성당 건축 기본 사무방침의 정립이 필요하고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거창한 성당을 한 곳에 짓는 것보다 많은 곳에 분산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 좋겠다.' 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었다.[3)]

1987년에 이르러 대치동 성당은 신자수가 12,845명에 달하여 성전의 규모나 시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신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사목활동과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당시 대치동 성당은 1982년 4월에 완공(1983.5.29 축성)될 때 연건평이 970평이었으니, 1만여 명의 신자들이 미사와 신심활동을 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너무나 비좁고 또 힘겨운 상태였다.

이처럼 갑작스런 신자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원활한 성무활동이 어려운 실정에 다다르게 되자, 이러한 본당의 제반 문제에 봉착한 최광연 신부와 대치동 성당 사목위원회는 1987년 6월에 원활한 사목활동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선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성전을 확장하는 방안과 본당의 분당을 위한 별도의 성전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게 되었다. 결국 '분당을 위한 새 성전 건립의 추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새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3) 새 성전 부지 마련과 교우들의 정성어린 헌금

최광연 신부는 1988년 2월부터 새 성전 건립을 위한 대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후 3월 14일에는 강남구 대치동 993번지 소재의 대지 2,349.4㎡(712평)를 2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6월 17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다. 이처럼 성전 건립 추진을 결정하고 부지 계약까지 빠르게 진행한 이유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강남권 개발 붐과 전국

3) 가톨릭시보(현 가톨릭신문) 제768호 197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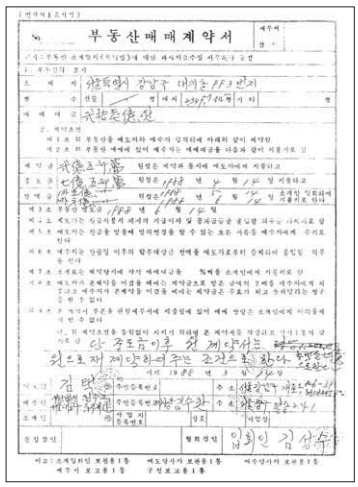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최광연 신부의 판단으로 더 오르기 전에 분당을 위한 성전 부지 매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치2동 성당의 분할을 6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발표하였다. 이렇게 새 성전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치동 성당의 청소년들과 신자들의 교육, 피정을 위해 강원 횡성에 교육관 건립이 한창 마무리 공사 중이었는데, 교육관 완공 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광연 신부가 제안하여 성 도미니코 수녀회에 이를 이전시켜주고 받은 기초자금이 바탕되었다.

또한 교구로부터 1988년 5월에 3억 원을 9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고, 이어 6월에는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자 모금액으로 4억 원을 1년 안에 상환하며, 나머지 2억 원을 1990년 1월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상환계약서를 최광연 신부가 자필 서명하여 자금을 급하게 융통하였다. 이러한 최 신부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1988년 6월부터 시작된 대치동 성당 교우들의 적극적이고 정성어린 새 성전 부지 매입을 위한 봉헌 행렬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새 성전 부지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신자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1차로 사목위원 31명이 5,270만원을 청약 입금하였고 이어서 교우 2,382세대가 1989년 2월 27일까지 청약을 약정하였으며, 589,550,000원의 청약액 중 444,394,000원이 입금되었다.

하지만 본당 신설 준비금으로 많이 부족하였기에 교우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미청약 세대의 청약과 기청약자의 입금을 요청하는 주보 공지(대치동 성당 주보 제520호, 1989.3.5)를 하였다.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성전 부지 매매계약서(1988.3.14)

4) 새 성전 건립의 시작

부지 매입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새 성전의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 1989년 1월, 본당 성전의 건축설계를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무이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건축 시공사는 조흥공영(주), 음향시설 시공사는 (주)인켈 피에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석재공사는 신라석건(주), 설비공사는 삼원설비공업(주), 전기공사는 (주)하나전기, 조경공사는 명상의 집, 조명시설은 신일조명(주)으로 각각 정하였다.

▲ 성전 조감도(1989)

이처럼 새 성전을 건립하며 도급 형태가 아닌 여러 업체를 선정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본당 직영 관리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최광연 신부의 성전 건립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건축비의 절감과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여 봉헌하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 때문이었다.

한편 새 성전의 성상, 성물의 경우는 성전 건립을 주관하는 신부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광연 신부는 자신이 직접 신뢰하는 작가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였다. 그래서 대치2동 본당의 모든 성전 조각품의 제작에는 친분관계가 있던 당시 서울대 미대 교수였던 최종태(요셉) 조각가에게 맡겼으며,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는 당시 성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피정의 집에 잠시 머무르던 최영심(빅토리아) 유리화가에게 맡겼다. 특히 훌륭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에는 훌륭한 장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최영심 작가의 남편이며 오스트리아 유리화 장인인 루카스 훔멜 브룬너(Lukas Hummel brunner)가 직접 맡아서 하였으며, 모든 제작 공정은 오스트리아 현지 유리화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2. 새 성전의 건축 진행과정과 신자들의 노력

1) 새 성전 건축설계 과정

새 성전의 건축을 위해 1989년 1월에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무이에 성전 건축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3일에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제89-0472호)를 받았다. 그리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1월 15일에 제1차 설계변경허가(연면적 5,888.11㎡으로 변경), 1990년 7월 28에 제2차 설계변경허가(연면적 6,901.66㎡으로 변경)를 받고, 1991년 11월 12일에 최종 제3차 설계변경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신청 및 통과를 받게 되었다. 제3차 설계변경의 내용은 1차, 2차와 달리 연면적 증감은 없었으나 외장재료 중 벽체의 붉은 벽돌 치장쌓기를 화강석(포천석) 물갈기 및 버너마감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공사개요[4)]

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3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4종미관지구	
면적	대지 : 2,349.4㎡(712평)	건평 : 6,901.66㎡(2,091.41평)
적용율	건폐율 : 49.74%	용적율 : 104.62%
구조	철근 콘크리트 및 일부 철골조	

▶시공내역과 층별 규모(지하 3층, 지상 3층)

층 별	내 역	평 수
지하 3층	주차장, 기계실	1,728.74㎡(523.86평)
지하 2층	주차장	982.28㎡(297.66평)
지하 1층	대강당, 교리실	1,750.61㎡(530.48평)

4) 본당 성전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제89-0472호, 강남구청). 허가서에는 대지면적이 2,332.2㎡(706.7평)로 기재되어 있어 행정 사무상 오류로 보인다.

지상 1층	로비, 만남의 방, 사제관, 수녀원	1,104.32㎡(334.64평)
지상 2층	성 당	1,058.58㎡(320.78평)
지상 3층	성 당	277.13㎡(83.97평)
계		6,901.66㎡(2,091.41평)

▶시공업체

공사부문	업체명	대표자(책임자)
건축설계	도성무이	박재환 (도미니코 사비오) 대표
건축시공	조흥공영(주)	현장책임자 : 김만호(대건 안드레아)상무 현장소장 : 김존영
음향시설	(주)인켈 피에이	조동식(프란치스코) 대표
석재공사	신라석건(주)	박은봉 이사
설비공사	삼원설비공업(주)	최일섭 대표
전기공사	(주)하나전기	김선식 대표
조경공사	명상의 집	김동선(돈보스코) 대표
조명시설	신일조명(주)	한상일(아우구스티노) 대표

2) 새 성전 기공식과 공사과정

새 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기공식(당시 명칭을 '대치2동 지역 성전건립 기공식' 이라 부름)은 1989년 10월 22일에 있었다. 기공식에는 강우일(베드로) 주교와 최광연 신부, 송영준(비오) 보좌신부와 김종욱(미카엘) 보좌신부, 이명향(클라라) 수녀와 차순향(이사벨라) 수녀, 신대진(베드로) 사목협의회 총회장과 사목위원들, 그리고 많은 대치동 성당 교우들이 참석하였다.

▲ 성전 기공식 장면(1989.10.22)

강우일 주교의 성전 대지 축성으로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다. 기공식이 끝난 후 여성 구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음식 등을 먹는 다과회 자리에서 최광연 신부와 참석한 300여명의 교우 모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힘을 함께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3) 신자들의 기도와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신축기금 봉헌

기공식에 이어서 최광연 신부는 대치2동 성당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본당 공동체 전 신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우리의 기도' 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만들어 미사 전후, 단체모임 전후에 함께 바치도록 하였다. [5]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우리의 기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이곳을 우리들의 신앙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치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당신 은총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당신 이름을 떨치셨으니,
어찌 다 찬양하리이까.
몇 해 동안 우리는 당신께 보다 큰 영광을 드릴
새 성전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신께서 항상 머물러 계실 새 성전을 짓고자 노력해 왔나이다.
하오나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체험하였나이다.

5) 대치동 본당 15년사, p.165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 당신께 청하오니
시간도 능력도 생명도 재화도,
이 모든 것이 당신께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당신의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삶이오니,
우리에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성전 건립에 우리의 정성을 봉헌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 건립과 복음 전파에 계속 축복하시어 주관하여 주시고,
당신 성전 이룩되는 그 날,
찬미 소리 드높게 당신 돌보심 기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천주교 대치동 성당

그리고 새 성전 부지 매입을 위해 1988년 6월부터 시작되었던 교우들의 봉헌금 청약 이후에도 본격적인 성전 신축공사가 진척되면서 부족한 건축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신축기금 봉헌을 재차 교우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부터 새 성전 건립을 위한 봉헌금 청약이 시작되었으며, 대치동 성당 공동체 신자들의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봉헌이 이루어졌다.

본당 설립 후인 1991년 9월 8일까지 대치2동 성전 신축을 위한 기금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교적상 세대수 4,733세대에서 봉헌 약속 세대수는 2,639세대이고, 완납 세대수는 1,911세대였다. 또한 봉헌 약속액 1,839,143,000원 중 실납입 봉헌금은 1,580,315,000원이었다.[6]

그 이후 1993년 1월 10일에 본당 주보(제72호)에 공고된 대치2동 성전 신축을 위한 기금납부는 교적상 세대수 4,733세대에서 봉헌 세대수는 2,665세대이고, 봉헌 약속액 1,869,148,000원 중 실납입 봉헌금은 1,752,733,000원으로서 더 많은 신자들이 동참하였다.

그리고 새 성전 부지 마련을 위한 헌금과 성전 신축기금 외에도 자발적인 교우들의 봉헌은 계속 이어졌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대리석 제대와 대형 십자고상, 성모상, 감실, 독서대, 14처, 성작과 성합 등 본당 여러 성물과 성전 조각품, 제의, 신자용 의자나 예절용 의자, 책상, 조경용 나무 등을 마련하는데 많은 교우들이 아낌없이 봉헌에 동참하였다.

4) 신축공사 진척과 본당 공동체의 노력

기공식 이후,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된 성전 건립공사는 본당 차원에서의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졌다. 현장 시공업체의 선정에서도 일괄도급방식이 아닌 여러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한 만큼 새 성전 건립의 책임자인 최광연 신부는 불철주야 성전 건립에 모든 것을 바쳐야만 했다. 메머드급 대치동 성당의 성무활동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와 시공 진행과정을 일일이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고, 또 건축 설계대로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성전 건립공사 현장(1990.3)

2) 대치동 본당 주보, 1991.9.8일자

▲ 공사현장에서 봉사하는 신자들(1991.5)

최광연 신부의 헌신과 열정을 지켜본 보좌신부나 수녀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큰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성전 건립의 모든 과정에서 김문종(요한), 양재봉(베네딕토) 교우의 적극적인 시공 협조와 함께 김기성(비오) 교우의 철저한 현장 시공감독의 노력이 매우 컸다. 또한 하느님의 집을 짓는다는 기쁨에 기꺼운 마음으로 성전 건립과정 동안 주말이면 노력 봉사에 나서는 신자들과 레지오 단원들의 협조도 많았다.

남성 신자들은 2주에 1회 씩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거푸집 처리, 기타 잡역 등 보조 일을 기꺼이 맡는 노력 봉사를 하였다. 특히 1991년 9월 28일(토) 오전 10시 미사에 참례한 신자들과 레지오 단원들이 합동으로 노력봉사를 하였고, 샛별 꾸리아 소속 레지오 마리에의 단원들도 순서를 정하여 야적되어 있는 자재를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주일에 많게는 55명, 적게는 15명이 성전 건립공사의 노력 봉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새 성전을 짓는 공사 중에 어려운 일도 있었다. 지하 5층까지 굴착공사를 해보니 지형은 탄천의 수위와 같고 토양은 사질토(모래성분이 많은 점성이 거의 없는 흙)라서 침출수가 계속해서 고이며, 바닥에 직경 2m 대형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배수관 이전 작업을 선행하여야만 하였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시일이 소요되어 2개월 정도의 공기가 연장되었다.

▲ 성전 건축의 과정

제 2 장

본당 설립과 초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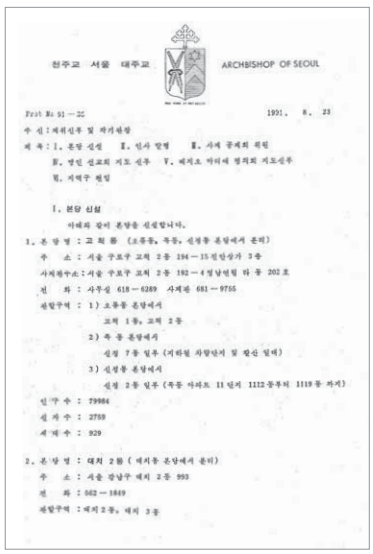
1. 대치2동 본당의 설립과 최광연 신부 부임

1) 대치2동 본당의 설립

새 성전의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991년 7월에, 대치동 성당의 관할구역을 대치2동 성당으로 분할요청하는 신청서를 교구청에 접수하였다. 그 후 교구청은 1991년 8월 23일자로 대치동 성당의 사목 관할구역 중 대치2동과 대치3동을 신설되는 대치2동 성당의 관할로 하는 본당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로써 골조만 완성단계에 이르러 아직 신축 중인 대치2동 본당은 3,055세대 8,488명 신자들의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로 탄생하게 되었다. 본당 사목구 관할지역은 강남구 대치2동 은마, 미도, 쌍용, 대치우성아파트와 대치3동 우성2차, 신해청아파트와 대치3동 942~1009번지가 해당되었다.

한편 본당 주보를 정함에 있어 최광연 신부는 나자렛 예수님의 성가정을 본받아 아름다운 대치2동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으로 '성가정' 성당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본당 초대 주임신부는 최광연 대치동 성당 주임신부가, 초대 보좌신부로는 박희원(보니파시오) 대치동 성당 보좌신부가 임명되었다. 이어 9월 3일(화)에는 대치2동 본당 사제관에서 최광연 주임신부


천주교 서울 대주교 ARCHBISHOP OF SEOUL

Prot No. 91 — 35 1991. 8. 23

수 신 : 제위신부 및 자기관장

제 목 : I. 본당 신설 II. 인사 발령 III. 사제 공제회 위원

IV. 영인 신교회 지도 신부 V. 제지소 마리에 평의회 지도신부

VI. 지역구 편입

I. 본당 신설

아래와 같이 본당을 신설합니다.

1. 본 당 명 : 고 척 동 (오류동, 목동, 신정동 본당에서 분리)

주 소 : 서울 구로구 고척 2동 194 — 15 진안상가 3층

사제관주소 : 서울 구로구 고척 2동 192 — 4 정남면립 타 동 202호

전 화 : 사무실 618 — 6289 사제관 681 — 9755

관할구역 : 1) 오류동 본당에서

고척 1동, 고척 2동

2) 목 동 본당에서

신정 7동 일부 (지하철 차량단지 및 왕산 일대)

3) 신정동 본당에서

신정 2동 일부 (목동 아파트 11단지 1112동부터 1119동 까지)

인 구 수 : 79984

신 자 수 : 2759

세 대 수 : 929

2. 본 당 명 : 대치 2동 (대치동 본당에서 분리)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 2동 993

전 화 : 562 — 1849

관할구역 : 대치 2동, 대치 3동

▲ 본당 설립인가서(Prot No. 91-35, 1991.8.23)

와 대치동 성당 후임으로 내정된 김몽은(요한) 신부가 나원균(바오로) 신부의 입회와 사목회장, 다수의 사목위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대치동 성당과 대치2동 본당의 인수인계를 가졌다.[7] 그리고 분당에 따른 신자들의 교적부와 교무금 대장 등의 서류는 9월 11일에 인계받았다.

2) 최광연 초대 주임신부의 부임

최광연 신부는 1936년 12월 25일 황해도 장연군 장연면 선정리에서 출생하여 1962년 12월에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교)을 졸업하고 1962년 12월 21일에 사제 수품을 받았다. 그리고 길음동 성당 보좌(1962.12.22), 불광동 성당 주임(1964.12.18), 명동 성당 수석 보좌(1965.4.7), 답십리 성당 주임(1965.12. 28), 대신학교(1966.12.14), 가톨릭중앙의료원 경리처장(1968.6.14), 도림동 성당 주임(1970.1.16), 서울대교구 재경부장(1970.11.13), 중림동 약현 성당 주임(1972.9.27), 서울대교구 사목국장(1973.12.5), 총대리(1974.10.1), 서교동 성당 주임(구 양화진, 1977.3.4), 해외사목(1978.3.3), 연희동 성당 주임(1978.9.7), 해외연수(1980.8.1), 중앙동 성당 주임신부(구 봉천동, 1981.5. 21)를 역임하였다. 이어 대치동 성당 주임(1986.8.31)신부로 사목하면서 본당 새 성전 건립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본당 분리와 함께 1991년 9월 5일에 공식으로 부임하였다.

▲ 본당 재임시 최광연 신부의 모습(1992.5)

최광연 신부가 부임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새 성전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라, 본당에서 성무활동이나 신자들이 신심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집기류나 편의설비 등이 거의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임시로 마련된 미사장소에 쓰일 의자를 500개 구입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음날에 사제관과 수녀원에 쓸 책상과 탁자, 의자나 침대, 사무 집기

7) 대치2동 성당 사목일지(1991.9.3)

류 등을 구입하면서 본당 사목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 10월 1일에는 본당의 정식 전화가설(전화 565-1991~6, 팩스 565-1004)이 완료되었다. 본당 전화번호 뒷자리 1991번은 본당 설립년도를 의미하는 뜻으로, 최성기(베드로) 형제의 도움이 있었다.

3) 보좌신부 부임과 수도자들의 동정

제1보좌신부는 최광연 주임신부와 같은 날, 1991년 9월 5일 부임한 박희원 (보니파시오) 신부였다. 박희원 신부는 대치동 성당에서부터 본당 보좌신부로 부임하여 성전 신축이나 본당 분리과정 내내 최광연 주임신부를 정성으로 보필하였다. 본당으로 부임하자마자 9월 11일(수)에 반장단 월례미사와 반장회의, 구역 가정방문, 혼배상담을 시작으로 본당 초기의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사목하였다. 이어 1992년 9월 23일에 신설본당인 수서동 성당의 초대 주임신부로 이임하였으며, 후임으로 송천오(안드레아) 신부가 1992년 10월 8일에 창동 성당에서 본당으로 부임하였다.

한편 제2보좌신부는 1992년 7월 3일에 사제서품 후 사제학교를 마치고 1992년 10월 16일 본당에 첫 사목지로 강문일(사도요한) 신부가 부임하였다. 최광연 주임신부 재임기동안 본당에서 사목하였던 사제들은 다음과 같다.

성 명(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새 임지	비 고
박희원(보니파시오) 신부	1991.09.05	1992.09.22	수서동 성당	제1보좌
송천오(안드레아) 신부	1992.10.08	1994.12.02	명동 성당	〃
최희수(프란치스코) 신부	1994.12.01	1996.11.20	휴양	〃
강문일(사도 요한) 신부	1992.10.16	1993.11.05	고척동 성당	제2보좌
김종원(세례자 요한) 신부	1993.12.03	1995.12.01	화곡동 성당	〃
이충열(티토) 신부	1995.12.02	1997.11.27	명동 성당	〃

본당 사목의 활성화를 위해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의 수도자들이 대치2동 본당 설립시부터 봉사하였다. 본당 설립 초기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고 궂은일을 마다 않고 봉사했던 수도자는 1991년 9월 13일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김화순(런네마리) 수녀와

서울관구에서 1991년 9월 5일에 부임한 김정숙(안젤라) 수녀였다. 김화순 원장수녀는 1994년 2월 25일 계성여고 교장으로 이임하고, 권은희(베네딕타) 수녀가 원주교구 횡성성당에서 제2대 분원장으로 부임하여 1997년 2월 13일까지 본당 사목을 도왔다. 본당 초창기부터 김화순 원장수녀와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김정숙(안젤라) 수녀는 강릉 옥천성당으로 1993년 2월 25일에 이임하고 동시에 손명옥(베르나데트) 수녀가 부임하였다가 1995년 2월 14일 인천교구청으로 이임하고, 후임으로 강영숙(마르가리타) 수녀가 원동성당에서 부임하였다.

한편 1992년 2월 5일(수) 최희숙(아녜스) 수녀가 부임함으로써 본당은 1명의 분원장 수녀와 2명의 전교 수녀가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최희숙(아녜스) 수녀는 1994년 2월 25일 원주교구 태장동 성당으로 이임하고 이계월(마리 율리아나) 수녀가 부임하여 1997년 2월 13일까지 본당 사목에 협력하였다.

4) 신학생

1992년 당시 본당 출신의 신학생은 3명이었다. 군복무를 마친 후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3학년으로 복학 예정인 이용현(알베르토) 신학생과 2학년 과정을 수료 후 군복무 중인 김지형(제오르지오) 신학생, 그리고 구속주회 소속으로 1학년 재학 중인 유신재(에드문도) 신학생이었다. 이후 1995년에 은성제(요셉) 군이 가톨릭대학교 신학부로 입학하였다.

5) 감격적인 첫 미사 봉헌[8]과 주보 발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1991년 9월 6일(금) 아침 6시에 본당 설립 후 첫 미사가 지하 임시성당(현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신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룩히 봉헌되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지하에서 임시 제대를 설치하여 봉헌한 미사였지만, 최광연 신부와 참석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실로 감격적이며 감동의 첫 미사였다. 참석한 신자들은 시멘

8) 대치2동 성당 사목일지(1991.9.6~9.8)

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비좁은 공간이지만 오순도순 앉아 첫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오전 10시에 두번째 미사가 같은 장소에서 45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미사 후 구역 반장단에서 정성껏 준비한 축하 떡을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었고, 교우들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9월 7일(토) 본당 첫 토요미사는 오후 4시에 45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으며, 저녁 6시 30분에 봉헌된 첫 토요 특전미사에는 470여명이 참례하였다. 또한 같은 날 주일학교 개학이 있었으며 초등부 교리가 오후 3시에 있었고, 중고등부 개학은 9월 8일 주일 오전 9시 미사 직후에 있었다.

본당 설립 후 첫 주일미사는 9월 8일(일) 아침 6시 30분에 봉헌되었으며, 교우 500여명이 참례하였다. 중고등부미사는 오전 9시에 600여명이, 교중미사인 오전 11시 미사에는 750여명이, 청년미사는 저녁 6시 30분에 520여명의 교우들이 참례하였다. 본당 첫 주일미사시에 '전례봉사' 어깨띠를 봉사자들이 착용하고 교우들의 미사 안내를 도왔으며, 레지오 여성 단원들이 첫 주보 접기 봉사를 하였다.

한편 9월 28일부터는 미사장소가 지하 주차장에서 강당으로 옮겨져 거행되었다.

2. 성전 완공과 봉헌식

1) 성전 완공과 봉헌식 준비

본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이후 1991년 10월까지는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주변이 어수선한 상태였다. 11월부터는 성전이나 성당 내부도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또 탁자나 의자 등 신자들이 신심활동에 필요한 집기류와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점차 안정되었다. 11월 15일에 감실 설치와 제대 촛대가 놓이고 1992년 1월 21일에는 성전 및 지하 대강당에 마이크와 음향설비 설치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성전 마당 바닥공사는 1992년 3월 11일에 실시되었고, 신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3월 16일, 17일에는 준공을 위한 성전 대청소와 성전 바닥 왁스작업을 하였다. 3월 18일에는 1층 로비 옆 대성문이 설치되었으며, 4월에는 성전 마당과 성당 주변 조경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5월 20일에서 6월 1일까지 스테인드글라스 시공이 있었으며, 성전에 14처상 부착이 6월 16일과 17일에 있었고 성모상은 18일에 성당 앞마당에 안치되었다.

본당 성전의 준공검사는 1992년 7월 6일에 완료되고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본당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 기공식 이후 2년 8개월간 동안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광연 신부와 신자들은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고 없이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함께하여 주셨다.

한편 조경공사가 끝날 무렵 사목협의회는 대치2동 새 성전 봉헌식(당시의 명칭은 축성식) 행사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계획 입안자는 사목협의회 최양기(바오로) 총무가 하였으며, 행사계획안이 나오자 1992년 5월 20일, 봉헌식에 대한 실무 협의차 임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5월 28일에는 봉헌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29일 저녁 8시에는 제1차 전례협의차 백성호(세례자 요한) 추기경 비서신부가 참석하였다. 이어 6월 4일에도 추기경 비서신부 주관하에 제2차 전례부분 연습이, 6월 11일과 17일에 제3차 봉사자회의와 전체 실행연습을 하였다.

▲ 성전 봉헌식 준비(1992. 6)

2) 성전 봉헌식 행사 계획과 준비위원회

성전 봉헌식 준비위원회 구성은 최광연 신부와 박희원 보좌신부가 지도를 맡고, 김화순(런네마리) 원장수녀는 만찬 준비를 담당하였다. 실무 총지휘는 사목협의회 신대진(베드로) 총회장, 실무총괄은 최양기(바오로) 총무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실행협력은 최해선(요한 보스코) 사무장이였다.

담당 부문별 업무를 사목회 상임위원들이 나누어 맡았다. 우선, 홍보담당(초청장, 공로패, 감사패, 인쇄 등)은 한상국(야고보)을, 재정담당(기념품 준비와 관

리)은 정인수(야고보), 시설담당(행사장 시설 설치)은 이중표(바드리시오), 환경담당(행사장 청소와 정리정돈)은 권중원(베드로)이 맡았다.

그리고 안내담당(내빈, 주차, 성당좌석, 연회장 안내)은 유영순(미카엘), 복지담당(꽃, 리본, 방명록, 사진, 비디오 촬영)은 유승재(아우구스티노), 진행담당(식전 행사 및 축하식)은 최양기(바오로), 전례담당(전례예식)은 심종보(프란치스코), 만찬담당(축하연회)을 여연희(클라라)가 담당하였다.

한편 2년 8개월간의 기나긴 공사 끝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 봉헌식을 하게 된 기쁨과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본당 신앙 공동체 전신자들의 준비도 있었다. 1992년 6월 11일부터 구역 반별로 모여 공동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6월 17일(수)에는 공동 고해성사 및 참회미사, 6월 18일(목)은 공동 십자가의 길, 6월 19일(금)은 전신자들이 성당 대청소를 함께 하였다.

3) 성전 봉헌식

본당 성전의 봉헌식은 1992년 6월 20일(토) 오후 4시에 있었다. 성전 봉헌식 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전례예식서를 제작하고 신자들은 여러 번의 연습을 하며 축복과 은혜로운 시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봉헌식은 제1부 봉헌 전 행사와 제2부 봉헌미사 그리고 제3부 성전 준공 축하식과 제4부 축하연으로 나누어 거행되었다.

▲ 교우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1992.6.20)

성전 봉헌식 행사에는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과 구속주회 나윌리(Wilfredo Jesena) 신부, 송영준(비오) 신부, 이문주(프란치스코) 신부, 구천우(요셉) 신부, 김몽은(요한) 신부, 박병윤(토마스) 신부, 고명철(아우구스티노) 신부, 정치윤(이냐시오) 신부, 최승룡(테오필로) 신부, 김자문(네레오) 신부 등 많은 내외 귀빈과 여러 수도회 수도자들, 본당

▲ 성전 봉헌식 테이프 커팅(1992.6.20)

2천여 명의 신자가 함께 참석하였다.

성전 봉헌식은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주례로 거행되었는데, 이날 봉헌미사에 앞서서 성모상 축복 예식이 먼저 있었다. 축복 예식을 하는 가운데 성전 마당에 안치된 성모상을 제막하는 순간 손님수녀가 눈물을 보이자,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신자들도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과 최광연 주임신부, 김화순(런네마리) 원장수녀, 신대진(베드로) 총회장의 테이프 절단과 교우들의 환영이 있었다. 성전 봉헌식의 순서는 입당식과 헌당식, 성수 축성과 성수를 뿌림, 성인 호칭기도, 축성기도, 제단과 성당 벽의 도유, 제단과 성당의 분향, 제단과 성당의 조명 등으로 거행되었다.

서울 대치2동 본당 새聖殿 着工 32개월만에 축성식

서울대교구 대치2동성당(주임·崔光淵 신부) 축성식이 金壽煥 추기경을 비롯 2천여명의 신자가 참여한 가운데 6월 20일 오후 4시에 거행됐다(사진).

●대치2동성당 축성식이 金壽煥 추기경을 비롯 많은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거행되었다.

金壽煥추기경은 축성미사 강론에서 "불철주야 모든 것을 바친 본당 신부 그리고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신자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치하하고 "성당축성이 여러 신자들의 수고이지만 그 뒤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당을 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金 추기경은 "동구사회가 무너진 것은 공산주의가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배치되는 하느님 없는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진정 하느님을 믿을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성당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믿는 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말했다.

대치2동성당은 대치동성당의 신자증가로 인하여 당시의 대치동성당으로는 원활한 성무활동이 어려운 실정에서 87년 6월 본당을 위한 새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이후 8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32개월만에 1천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당과 대강당, 교회실 등 부속실을 갖추었다. 현재 대치2동본당의 신자수는 8천3백여명이다.

육군 무열대성당 축성식 사제관·수녀원 등 두루 갖춰

육군 제6619부대 무열대성당(주임·鄭東烈 신부) 축성식이 6월 18일 오후 2시 군종교구장 鄭明祚 주교의 주례로 대구대교구장 李文熙 대주교와 朴道植 신부를 비롯 신자와 군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됐다.

신축 성당은 성전과 사제관, 수녀원 등을 갖춘 연건평 2백55평 규모로, 지난해 10월에 착공해 7개월 동안 4억5천만원을 들여 완공했다.

▲ 평화신문 본당 성전 봉헌식 기사(1992. 6. 28)

김수환 추기경은 봉헌미사 강론에서 "불철주야 모든 것을 바친 본당 신부 그리고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신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치하하고, "성당 축성이 여러 신자들의 수고이지만 그 뒤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당을 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 김수환 추기경은 "동구사회가 무너진 것은 공산주의가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배치되는 하느님 없는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진정 하느님을 믿을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이 성당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믿는 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말씀하였다.[9]

9) 평화신문, 1992.6.28

▲ 성모상 성수 축복 예식

▲ 제대에 도유하는 모습

▲ 성전 기둥 벽에 도유

▲ 성당 불밝힘 예식

▲ 축성미사

▲ 김수환 추기경의 특별축하금을 받고 기뻐하는 최광연 신부(1992.6.20)

4) 봉사자 위로와 감사패 증정

봉헌식 후 김수환 추기경은 "교구의 큰 도움 없이 본당 자력으로 봉헌된 것은 교우 신자들의 노력과 일치된 모습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하며 특별축하금을 하사하였다. 또 축하연 때 "여러분, 성전 건립 후 빚(채무)이 정말 한 푼도 없나요?"라며 세 번을 거듭 질문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은 성전 건축 현장 책임자인 김만호(대건 안드레아)와 건축 설계를 담당한 박재환(도미니코 사비오)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최광연 주임신부도 성전 건축과정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무사히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업체 관계자들과 노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신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또 성전 봉헌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 내방한 귀빈과 본당 신자들에게 봉헌 기념 황동메달과 기념품을 감사의 뜻으로 선물하였다.

그리고 봉헌식 후 축하연회에서는 구역분과장과 구역장, 반장들이 기쁜 마음으로 2,000여명 분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참석한 내빈들과 신자들에게 대접하며 성전 봉헌의 기쁨을 함께하는 감사의 나눔 잔치를 베풀었다.

▲ 성전 축성기념품(1992.6.20)

5) 성 가족상 안치

본당 주보인 성가정을 상징하는 '성 가족상'은 1993년 7월 7일, 1층 로비에 최종태 조각가가 직접 부착하였으며, 성당 외부 '성 가족상'의 안치는 9월 1일에 있었다.

제3장

본당 정착을 위한 노력

1. 최광연 신부의 사목지향과 사목 목표

1) 사목지향과 사목목표

최광연 신부는 서울대교구 총대리를 맡았을 정도로 성실하고 검소하게 임무를 해내 사제의 모범이 되었고, 신자들에게는 따뜻했지만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욕심이 없으셨던 분이었다.[10] 때로는 영명축일 무렵 때면 자리를 비웠고 피정을 떠나거나 하여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또한 본당 성전 건립시 대치동 성당 주임신부로 재임하며 16,000여명이 넘는 많은 신자들을 일일이 돌보기도 벅찬 가운데도 사목자로서 성실히 성무활동을 수행하였다. 성전 건립공사의 공기 단축과 건축비 절감을 위하여 직영관리하는 어려운 일도 충실히 해냈으며, 아름답고 훌륭한 '하느님의 집' 인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 몸소 구석구석 살피는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공사 현장의 어렵고 힘든 노력봉사를 솔선하여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성전 건립 과정에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본당 성전을 완성하였다.

본당 사목에서도 매년 교구장의 사목교서에 따라 본당 사목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본당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공동체 운동의 확산과 기초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교우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원형은 복음적

10)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 강론 중, 평화신문 2009.10.17

▲ 최광연 신부의 영명축일(1993.9)

자세를 지니는 것이므로 신자들 각자가 가정과 이웃에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를 닮아 나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몸소 그 표양이 되었다. 특히 타 성당의 성전 건립기금 후원이나 어려운 단체 지원에 앞장섰다.

최광연 신부의 재임기 동안 사목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1992년부터 1994년의 경우 서울대교구에서 정한 2000년대 복음화의 제1단계 추진의 해로 복음화 준비, 개념정립 기간이었다. 이어 1995년에서 1997년은 2000년 복음화의 제2단계로 복음화 활동 강화 및 정리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교구 사목지침에 따라 1992년의 본당 사목목표는 1) 2000년대를 향한 교회상 정립 2) 지역공동체로서 위상 정립 3) 새로운 교회상 정립으로 주요 시책과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복음의 생활화

입교 권면 운동, 냉담자 회두 적극 추진, 전신자 판공성사 권장, 가족별 기도시간 갖기

나. 신자다운 삶의 생활

환경보존 생명수호 운동, 과소비 근절 운동,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 한 움큼 사랑 운동

다. 교회공동체의 활성화

구역 반 모임 적극 참여, 남성 구역모임 활성화, 전신자 1단체 가입 운동

라. 지역주민을 위한 교회 개방

자녀 주일학교 보내기 운동, 친교와 나눔의 장 제공, 문화와 생활교육의 장 개설, 법률, 세무, 건강, 자녀교육 상담 개방

마. 새 정신 새 질서의 확립

엄숙한 성전 분위기 정립, 경건한 미사 참례유도, 성숙한 새 신자상 모색

바. 새 성전 새 관리 체계 정립

새 성전의 참신한 모습 견지, 시설 및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한 본당 사목목표와 주요 시책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구 분	사목목표	주요 시책
1993년	복음적 교회상 정립	– 소공동체 활성화 – 가정사목 활성화 – 신자 교육 – 복음정신 생활화
1994년	2000년대 복음화 실천 정착의 해 – 내적 복음화 교우간 영성생활 심화 및 유대 강화 – 외적 복음화 지역사회, 일상생활, 삶의 현장에의 복음화 추진	– 소공동체 조직점검 및 활성화 – 가정사목의 활성화 – 평신도 제 단체활동 활성화 추진 – 주일학교 및 청소년 사목의 활성화 – 복음의 생활화
1995년	2000년대 복음화의 제2단계 추진의 해	– 사도회 및 반조직 활성의 심화 – 복음 나누기 7단계 교육 강화 – 전례의 생활화 추진 – 성찬 정신의 생활화
1996년	2000년대 복음화의 지속적인 추진	– 삶의 현장과 복음의 결합을 위한 소공동체 정착화 – 청소년 및 청년 사목 활성화 – 평신도 재교육 철저 – 열린 교회 표방

2) 사목방문

최광연 신부 재임기 동안 두 번의 본당 사목방문이 있었다. 사목방문은 교구장이 교구 관할지역에 신앙과 교회의 교리가 정확히 존중되도록 감독하고 또 그 남용의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본당을 방문, 사목 현황을 보고받고 사목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다. 성전 봉헌식이 있은 후 3개월 뒤, 본당 첫 사목방문이 1992년 9월 18일(금)에 있었으며, 강우일(베드로) 주교, 사목국장 김인성(요한 비안네) 신부, 교육국장 나원균(바오로) 신부, 관리국장 최선웅(야고보) 신부가 내방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목방문은 1995년 9월 27일에 최창무(안드레아) 주교, 교육국장 이기헌(요한) 신부, 선교사목국장겸 2000년대 복음화사무국장 박기주(미카엘) 신부가 본당을 내방하였다. 이에 최광연 주임신부와 최희수(프란치스코) 보좌신부, 권은희(베네딕타) 원

장수녀, 강영숙(마르가리타) 수녀, 이계월(마리 율리아나) 수녀와 사목협의회 윤성노(니콜라오) 총회장 등 사목위원들이 본당 교세와 사목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 초대 사목협의회 명단(1991.9~1993.11)

- 회 장 : 신대진(베드로)
- 부회장 : 박대식(돈보스코), 장주일(스테파노), 윤성노(니콜라오), 배세일(요한), 임동하(베드로)
- 총 무 : 최양기(바오로)
- 부총무 : 김형범(마티아)
-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상국(야고보), 부위원장 김종화(요한), 간사 이인선(레이몬드) 외 위원 4명
-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심종보(프란치스코), 부위원장 노양근(토마스), 간사 노길자(안젤라)외 위원 7명
-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영순(미카엘), 부위원장 김영덕(안드레아), 간사 이주영(아우구스티노) 외 위원 13명
-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영순(미카엘), 부위원장 유하상(그레고리오), 간사 정길현(스테파노) 외 위원 9명
- 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여인희(클라라), 총무 전덕순(가타리나), 서기 최인복(실비아)외 위원 12명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승재(아우구스티노), 부위원장 이대원(도미니코), 김명승(프란치스코), 간사 이용헌(베네딕토) 외 위원 19명
-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인수(야고보), 부위원장 김용번(아우구스티노), 간사 이종대(도미니코) 외 위원 7명
- 청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권중원(베드로), 부위원장 이국빈(요셉), 간사 은희완(베드로)외 위원 4명
- 시설관리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중표(파트리치오), 부위원장 김기성(비오), 간사 이현수(다니엘) 외 위원 2명

2. 기초 공동체의 구성과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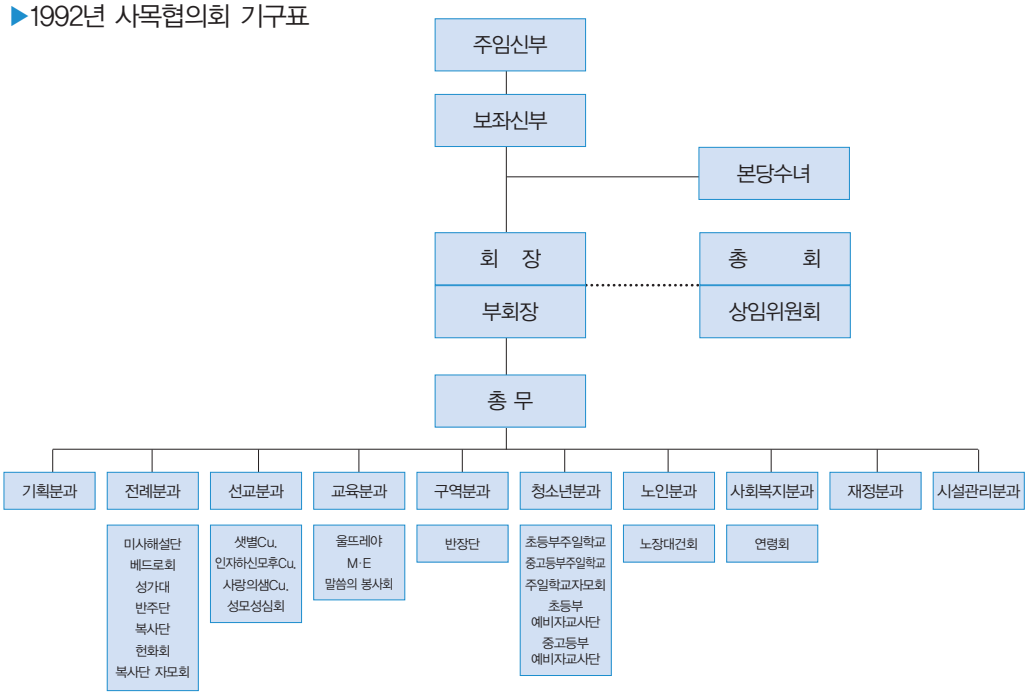
1) 사목협의회 구성과 활동

최광연 신부는 부임 후 본당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대치동 성당 재임기에 총회

장직을 수행하며 성전 건립과정이나 본당 설립시에 봉사하였던 신대진(베드로)을 총회장으로 임명하는 등 초대 대치2동 본당 사목협의회를 구성, 조직하였다. 그리고 9월 29일에 사제관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며 어려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봉사자가 되라고 강조하였다.

초대 사목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주임신부 아래 총회장 1인과 부회장 5인, 총무와 부총무를 둔 다음 기획, 전례, 선교, 교육, 구역,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재정, 시설관리 등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형태를 갖추었다. 세부적으로 기획분과는 사목협의회 및 본당 운영계획을 작성하며, 전례분과는 미사전례와 교회 예식을 담당하여 소속단체로 미사해설단, 베드로회, 성가대, 반주단, 복사단, 헌화회, 복사단 자모회를 두었다. 선교분과는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홍보와 선교활동,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 성가정 운동과 각급 신심단체의 조직, 운영을 맡아 샛별 꾸리아, 인자하신 모후 꾸리아, 사랑의 샘 꾸리아, 성모성심회, 사도회(1992.5)를 소속단체로 두었다.

▶1992년 사목협의회 기구표



자료 : 1992년 본당 사목계획서(1992.2)

그리고 교육분과는 신자 재교육, 피정과 연수 등을 맡아 울뜨레아, M·E, 말씀의 봉사회를 소속단체로 두었다. 구역분과는 여성 중심 지역 공동체의 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 운영을 맡아 구역장회, 반장단을 두었다. 청소년분과는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 및 청년단체의 조직과 교육, 성소후원에 관한 소임을 맡고 초등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 주일학교 자모회, 초등부 예비자 교사단, 중고등부 예비자 교사단을 소속단체로 두었다.

노인분과는 노인들에 대한 신심활동과 여가 등을 맡으며, 노장대건회를 소속단체로 두었으나 당시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선임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분과는 지역사회의 개발, 불우이웃돕기와 후원사업 등을 맡아 연령회를 소속단체로 두었다. 재정분과는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을, 시설관리분과는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를 맡도록 하였다.

한편 사도직 단체들은 본당 분리 설립에 따라 대치동 성당에서 활동하던 신심단체들의 구성원들이 본당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초대 사목협의회는 본당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각 사도직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직 외형적인 모양만 갖춘 본당 상황을 직시하여 신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당 1994년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사목위원 연수가 1993년 11월 13일(토)에 실시되었으며, 그 다음날에 제2대 사목협의회 총회장 이·취임이 있었다. 2년 넘게 봉사하였던 초대 신대진(베드로) 총회장에 이어 윤성노(니콜라오) 부회장이 제2대 사목협의회 총회장직을 맡았다. 상임위원 구성에도 부회장이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 조직 변화가 있었다.

제2대 사목협의회는 최광연 신부의 사목 지향에 따라 총회장을 중심으로 본당 공동체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복음화 교육이나 연수에 적극 참여하였고 신심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피정과 교양특강, 나눔 생활의 실천에 앞장섰다. 그리고 '1995년 사목활동 보고회(1995.9.3)' 를 개최하여 상반기 동안 사목활동의 결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에는 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친교의 밤을 열어 한 해 동안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이 자리에 외짝 교우 배우자들도 초청하였다.

▲ 1995년 사목활동 보고회(1995.9.3)

▲ 사목위원 일일피정(1996년)

■ 제2대 사목협의회 명단(1993.11~1996.3)

– 총회장 : 윤성노(니콜라오)

– 부회장 : 장주일(스테파노), 배세일(요한), 임동하(베드로), 조명승(가리노), 박대식(돈보스코)

– 총 무 : 최양기(바오로)

– 부총무 : 최성기(베드로)

–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용헌 (베네딕토), 부위원장 유병국(마티아), 간사 이세용(요한) 외 5명

–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심종보(프란치스코), 부위원장 이수홍(스테파노), 간사 노길자(안젤라) 외 위원 7명

–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영순(미카엘), 부위원장 이대용(요셉), 간사 이주영(아우구스티노) 외 12명

–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성수(라우렌시오), 부위원장 고승희(베드로 카니시오), 간사 박유자(요세피나) 외 7명

– 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여인희(클라라), 총무 최혜숙(가타리나), 서기 김영자(율리아나) 외 16명

– 청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권중원(베드로), 부위원장 서상현(베드로), 간사 은희완(베드로) 외 4명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위원장 권혁노(프란치스코), 부위원장 김명승(프란치스코), 간사 우계성(이타) 외 15명

–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인수(야고보), 부위원장 김용범(아우구스티노), 간사 유재엽(마르코) 외 6명

– 시설관리분과위원회 : 위원장 오부석(토마스), 부위원장 김용철(루피노), 간사 문순식(알베르토) 외 2명

한편 제3대 사목협의회는 1996년 3월 24일에 사목위원 정기총회를 대강당에서 개최하

면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출범하였다. 정기총회에서 윤성노(니콜라오) 제2대 총회장이 연임되었다. 제3대 사목협의회는 한마음한몸운동 전개와 남성 기도모임인 사도회 활동의 지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유해기도회 준비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본당 각 단체의 협찬을 받아 꽃동네 경로 야외행사(1996.5.13)를 진행하였다.

■ 제3대 사목협의회 명단(1996.3~1996.11)

– 총회장 : 윤성노(니콜라오)
– 부회장 : 장주일(스테파노), 배세일(요한), 조명승(가리노), 임동하(베드로), 유영순(미카엘)
– 총 무 : 최양기(바오로)
– 부총무 : 최성기(베드로)
–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용헌(베네딕토), 부위원장 유병국(마티아), 간사 이세용(요한) 외 위원 5명
–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심종보(프란치스코), 부위원장 이강호(빈첸시오), 간사 노길자(안젤라) 외 위원 6명
–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주영 (아우구스티노), 부위원장 차일성(이냐시오), 송진선(야고보), 최영식(보니파시오), 간사 이지연(그레고리오), 정길현(스테파노) 외 위원 12명
–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성수(라우렌시오), 부위원장 유성하(베드로), 간사 김군배(요셉) 외 위원 6명
– 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성자(체칠리아), 총무 최혜숙(가타리나), 서기 김영자(율리아나), 회계 김명숙(클라라), 1구역 조선학(데레사), 3구역 엄정숙(요세피나), 4구역 이은주(안나), 5구역 마영애(체칠리아), 6구역 송금자(젬마), 7구역 강인숙(가타리나), 8구역 전은경(체칠리아), 9구역 조윤자(체칠리아), 10구역 홍영자(아녜스), 11구역 이상진(루치아), 13구역 도윤수(프란치스카), 15구역 이춘자(유스티나)
– 청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권중원(베드로), 부위원장 이계원(요한), 간사 은희완(베드로) 외 위원 2명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위원장 권혁노(프란치스코), 부위원장 김명승(프란치스코), 노창수(라이문도), 차학만(베드로), 간사 우계성(이타), 부간사(이수창(요한) 외 위원 13명
–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인수(야고보), 부위원장 이창구(요셉), 간사 유재엽(마르코) 외 위원 7명
– 시설관리분과위원회 : 위원장 오부석(토마스), 부위원장 김용철(루피노), 간사 문순식(알베르토) 외 위원 2명

2) 기초 공동체 구역 및 반의 조직과 구성

본당 설립 당시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상 대치 2동과 대치 3동이었다. 최광연 신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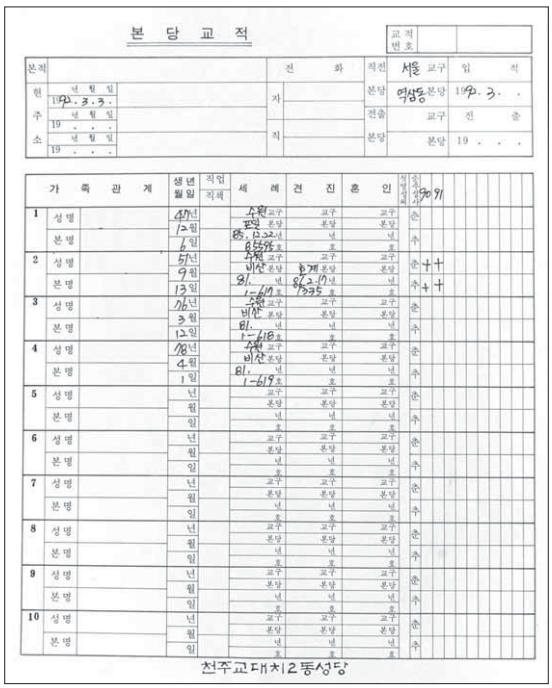
기초 공동체인 반 모임 조직을 위해 본당 관할구역을 14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장과 반장을 임명하였다. 1년 뒤 구역을 추가하여 15구역 109개 반으로 나누었다가 1995년에는 신자들의 증가로 15구역 116개 반으로 다시 개편하였다.

그리고 최광연 신부는 본당이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역과 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였으며, 재임기 동안 기초 공동체인 반모임의 활성화에 사목활동의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본당 신자들의 믿음의 뿌리는 구역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부임 후 곧바로 구역과 반의 편성이나 구역장, 반장의 임명을 우선적으로 하고 반장단의 첫 월례미사를 1991년 9월 11일(수)에 봉헌하였다. 또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구역 반기도 모임의 날' 로 정하고 1991년 9월 25일(수)에 첫 반모임을 가졌다. 이는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반장과 반원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반모임에 신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교무금영수표
199 년도
천주교대치2동성당

▲ 초기 교무금 영수표(1992년)


본 당 교 적
천주교대치2동성당

▲ 초기 본당 교적부(1992년)

▶구역 및 반 편성 현황

구역명	반수	신자수	주 소	구역장
1	8	527	은마 1~5동	하수강(클라라)
2	6	408	은마 6~10동	최혜숙(가타리나)
3	9	571	은마 11~15동, 현대	엄정숙(요세피나)
4	11	661	은마 16~20동	김영자(율리아나))
5	6	512	은마 21~26동	김복순(베로니카)
6	7	638	은마 27~31동	최인복(실비아)
7	7	400	미도 101~105동	박선희(루피나)
8	6	453	미도 106~111동	김시순(스텔라)
9	6	461	미도 201~207동	조윤자(루치아)
10	6	437	미도 208~212동	홍영주(아녜스)
11	11	661	쌍용 1~10동	전덕순(가타리나)
12	7	304	우성 1~7동	김명숙(클라라)
13	5	177	우성 2차 201~206동	이춘자(마리아 막달레나)
14	5	185	신해청 1~6동	남태옥(엘리사벳)
15	9	788	대치3동 942~988	이순임(아가타)
구역외		252		
소계	109	7,435		

(1992년 교구 연말 보고자료, 1992.8.31 기준)

3) 구역 가정방문과 구역미사

최광연 신부는 본당 분리 설립 이후 사목적인 안정, 정착화를 위해 관할 교우 가정을 축복하며 구역 기초 공동체의 구성과 조직을 위하여 신자들의 각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본당 신자들의 가정방문은 박희원 보좌신부가 1991년 9월 12일에 대치우성2차 아파트를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그리고 최광연 신부는 다음날인 9월 13일부터 대치현대1차 아파트의 교우 가정을 방문하면서 부터, 이후 11월 29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신해청아파트 1~6동까지 본당 관할 총 14구역을 매주 4회(화, 수, 목, 금)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정방문의 목적은 각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강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방문 가정의 집을 축복하며, 신자들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최광연 신부는 신자 가정을 방문하여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며, 성사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성사를 주었다. 또 당일에 그 반의 모든 가정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교우들은 각자 집 문을 열어 놓고 대기하면서 주임 신부를 맞이하였다. 이를 위해 구역장과 반장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가정방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가정방문이 끝난 해당 구역신자들과 함께 공원이나 노인정, 쌍용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서 저녁시간에 구역미사를 봉헌하였다. 그 당시 새로 입주하는 가정이 많았을 때라 공동 가정축성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미사 후에는 구역 반장단이 생강차와 음료, 다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신자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4) 사도회의 설립과 활동

여성 신자들의 소공동체 반모임은 본당 초기에 바로 구성되어 구역 단위로 조직되었고, 사목협의회에도 구역분과를 두어 체계화를 이루었지만 남성 신자들의 모임과 조직은 없었다. 그래서 최광연 신부 지원하에 사목협의회 유영순(미카엘) 선교분과장(교육분과장 겸임)이 중심이 되어 월례회 진행 지침과 순서, 규약을 만들어 남성신자 기도모임인 '사도회' 를 발족시켰으며, 첫 월례모임을 1992년 5월 28일(목)에 가졌다.

처음으로 남성 신자들의 모임이 구성되면서 그 명칭을 '사도회' 라 하였고, 조직 구성은 구역 반별로는 각 분회를 두는 형태였으며, 정식명칭이 '사도회 ○○분회' 라 불렀다. 설립 목적을 남성 신자들의 상호친목 도모와 신심을 돈독히 하며,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여 2000년대 복음화의 초석이 되자고 규약을 정하였다. 회원도 신자 남성 세대주로 하고, 비신자의 경우 영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였다. 임원은 선교분과장이 회장으로, 구역위원은 선교분과 위원이, 분회장은 각 분회에서 선출하여 2년 임기(중임 가능)를 하도록 하였다.

월례회 진행지침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저녁 8시에 회원 가정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작기도–성가–영적독서–주제발표–대화의 시간–본당 소식 및 공지사항–다음회의 일시, 장소결정–출석점검–성가–마침기도 순으로 하였다. 간단한 다과준비는 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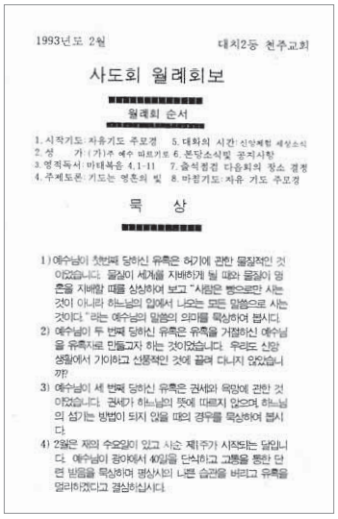
가정에서 준비하도록 하였다.

본당 주보(1992년 5월 24일자)에 사도회 창설 공고를 알리는 다음의 글을 실으며 공지하였고 당일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40여명의 남성 신자들이 참석하면서 본당 첫 남성 구역 공동체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이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현실에서 교우들만이라도 서로 알고 나누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남성 '사도회' 모임이 시작됩니다. 남성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992년 9월 무렵, 초창기 사도회는 90여명이 활동하였으며, 월례모임을 '사도회 기도모임(형제 반모임)'이라 불렀다. 그리고 1994년 1월 13일부터 '사도회 기도의 날'이라 불렀다. 또한 사도회는 기도모임의 순서를 자세히 기록한 월례회 소식 안내지인 '만남'을 이때 처음으로 발행하였다. 월례회보지 내용은 성가와 복음나누기 7단계, 묵상을 위한 신자들의 좋은 신앙글이 실렸고 간단한 본당 소식도 담았다.

사도회의 월례회보인 '만남'은 월간으로 발행되었으며, 1993년 1월 '사도회 월례회보'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어 1994년 10월에 다시 '샛별'로 명칭을 바꾸면서 16면으로 증보되었고, 1996년 6월에 다시 '성가정'으로 바뀌었다.


1993년도 2월 대치2동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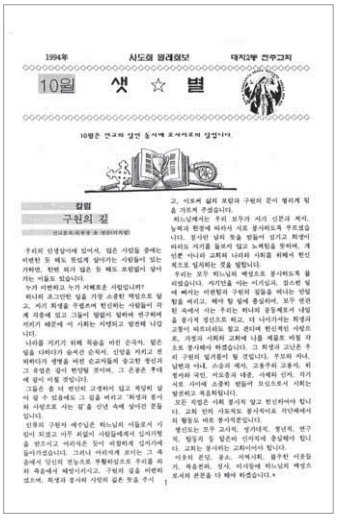
사도회 월례회보

월례회 순서

1. 시작기도: 자유기도 주모경 5. 대화의 시간: 신앙체험 세상소식
2. 성 가: (가)주 예수 파르기로 6. 본당소식및 공지사항
3. 영적독서: 마태복음 4.1-11 7. 출석점검 다음회의 장소 결정
4. 주제토론: 기도는 영혼의 빛 8. 마침기도: 자유 기도 주모경

묵 상

1) 예수님이 첫번째 당하신 유혹은 하기에 관한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와 물질이 영혼을 지배할 때를 상상하여 보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여 봅시다.
2) 예수님이 두 번째 당하신 유혹은 유혹을 거절하신 예수님을 유혹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가야하고 선풍적인 것에 끌려 다니지 않았습니까?
3) 예수님이 세 번째 당하신 유혹은 권세와 욕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권세가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며 하느님의 섬기는 방법이 되지 않을 때의 경우를 묵상하여 봅시다.
4) 2월은 재의 수요일이 있고 사순 제1주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고 고통을 통한 단련 받음을 묵상하며 평상시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유혹을 멀리하겠다고 결심하십시다.


1994年 사도회 월례회보 대치2동 천주교회

10월 샛 ☆ 별

10월은 전교의 달인 동시에 로사리오의 달입니다.

감명

구원의 길

제46호 사도회 월례회보 대치2동 천주교회

1996 6월 성 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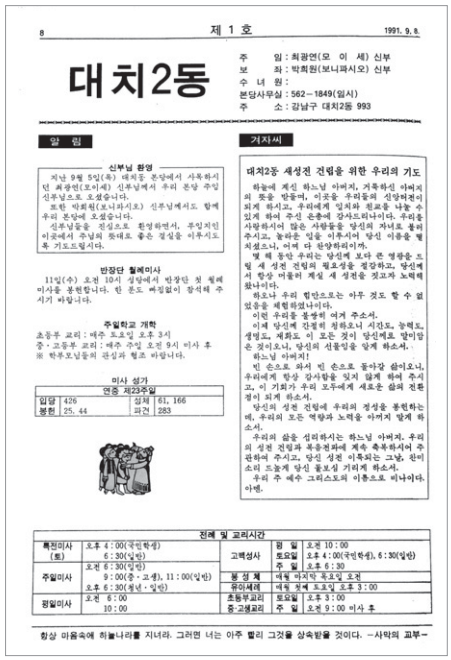
감명

사도회는 신앙공동체 운동이다

5) 본당 첫 주보 발행

본당 주보 창간호가 1991년 9월 8일(주일)에 발간되었다. 첫 주보에는 '신부님 환영' 이란 제목으로 최광연(모세) 주임신부와 박희원 보좌신부의 본당 부임 소식을 알렸다.

본당 주보는 신자들 사이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과 함께 신자들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키워나가기 위해 발간되었다. 최광연 신부는 본당 신앙 공동체의 결속이나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주보를 통해 알림으로서 설립 초기의 기틀을 다지고 사목활동을 펼치기 위해 본당 설립 후 첫 주일에 주보를 간행한 것이었다.



8 제 1 호 1991. 9. 8.

대치2동

주 임 : 최광연(모 이 세) 신부
보 좌 : 박희원(보니파시오) 신부
수 녀 원 :
본당사무실 : 562-1849(일시)
주 소 : 강남구 대치2동 993

알 림

신부님 환영

지난 9월 5일(목) 대치동 본당에서 사목하시던 최광연(모이세)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 주임신부님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박희원(보니파시오) 신부님께서도 함께 우리 본당에 오셨습니다.

신부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부임지인 이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결실을 이루시도록 기도드립시다.

반장단 월례미사

11일(수) 오전 10시 성당에서 반장단 첫 월례미사를 봉헌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개학

초등부 교리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등부 교리 : 매주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
※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미사 성가

연중 제23주일			
입당	426	성체	61, 166
봉헌	25, 44	파견	283

기자씨

대치2동 새성전 건립을 위한 우리의 기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이곳을 우리들의 신앙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치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당신 이름을 떨치셨으니, 어찌 다 찬양하리이까.

몇 해 동안 우리는 당신께 보다 큰 영광을 드릴 새 성전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신께서 항상 머물러 계실 새 성전을 짓고자 노력해 왔나이다.

하오나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음을 체험하였나이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 당신께 간절히 청하오니 시간도, 능력도, 생명도, 재화도 이 모든 것이 당신께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당신의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빈 손으로 와서 빈 손으로 돌아갈 삶이오니, 우리에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성전 건립에 우리의 정성을 봉헌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심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 건립과 복음전파에 계속 축복하시어 주관하여 주시고, 당신 성전 이룩되는 그날, 찬미소리 드높게 당신 돌보심 기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전례 및 교리시간

특전미사 (토)	오후 4 : 00(국민학생) 6 : 30(일반)	고백성사	평 일	오전 10 : 00
			토요일	오후 4 : 00(국민학생), 6 : 30(일반)
			주 일	오후 6 : 30
주일미사	오전 6 : 30(일반) 9 : 00(중·고생), 11 : 00(일반) 오후 6 : 30(청년·일반)	봉 성 체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전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 : 00	
평일미사	오전 6 : 00 10 : 00	초등부교리	토요일	오후 3 : 00
		중·고생교리	주 일	오전 9 : 00 미사 후

항상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지녀라. 그러면 너는 아주 빨리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사막의 교부-

▲ 본당 첫 주보(1991.9.8)

주보를 살펴보면 새 성전 건립을 위한 기도문이 '대치2동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우리의 기도' 라는 제목으로 실렸으며, 최광연 신부 환영 외에 소식이 소공동체 활성화를 알리는 본당 반장단 첫 월례미사와 주일학교 개학 안내 글이었다.

6) 사도직 단체의 설립과 활동

대치동 성당에서 본당 분리 설립에 따라 신자들의 교적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신심단체에서 활동하던 신자들은 본당에서도 각 신심단체의 고유활동을 그대로 계속 이어 갈 수 있었다.

노장대건회는 대치동 성당과 합동으로 1991년 10월 7일에 모임을 가진 뒤, 다음 해에 설립 후 첫 월례회의(1992.1.9)가 있었다. 그리고 연령회는 모든 선종을 돕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통한 공로로 모든 연령들을 위로하며, 여성 노인신자의 개인 성화와 친목을 위한 단체로서 1992년 3월 18일에 최광연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초기 사도직 단체현황

단체명	설립 년월일	회원수			설립목적
		남	여	계	
사목협의회	91. 9. 5	93	25	118	사도직 활성화, 사목활동 효율화
구역반장단	91. 9. 5	–	125	125	반원 상호 신앙 유대강화, 기초공동체 도모
사도회	92. 5.28	93	–	93	구역 남성형제 친목도모, 신앙유대 강화
베드로회	91. 9. 5	16	–	16	성체 분배
성모성심회	91.12.16	–	70	70	봉사 및 회원 성화
노장대건회	92. 1. 1	16	–	16	회원 친목 및 성화
울뜨레아	91. 9. 5	48	49	97	신앙쇄신 활동
엠이가족(M·E)	91. 9. 5	60	60	120	부부 가정 성화
주일학교자모회	91. 9. 5	–	40	40	주일학교 육성 후원
복사단자모회	91. 9. 5	–	12	12	복사단 지도육성
말씀의 봉사회	91. 9. 5	–	20	20	어버이성서 그룹지도
청년성서봉사회	92. 3. 5	4	5	9	청년성서 그룹 지도
레지오 마리애	91. 9. 5	129	437	566	전교 봉사활동
훼미리성가대(장년)	92. 1. 4	12	58	70	성가를 통한 전례봉사
중고부성가대	91. 9. 5	15	27	42	성가를 통한 전례봉사
초등부성가대	91. 9. 5	1	39	40	성가를 통한 전례봉사
헌 화 회	91. 9. 5	–	70	70	성당 꽃 봉헌
복 사 단	91. 9. 5	14	–	14	미사 복사
미사해설단	91. 9. 5	10	7	17	미사전례 참여
반 주 단	91. 9. 5	–	8	8	미사전례 참여
연 령 회	92. 3.18	2	70	72	선종 봉사, 노인층 친목
주일학교(초등부) 교사단	91. 9. 5	8	17	25	주일학교 운영
주일학교(중고등부) 교사단	91. 9. 5	9	11	20	주일학교 운영
초등부 예비자 교사단	91. 9. 5	–	6	6	예비자 교리 지도
중고등부 예비자 교사단	91. 9. 5	–	5	5	예비자 교리 지도

(자료 : 1992년 본당 사목방문 자료집, 1992.9.18)

그리고 성모성심회는 성모님의 성심을 본받아 깊은 믿음과 실천으로 본당 발전과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1991년 12월 16일에 설립되었고, 월 2회 주일에 물품 판매 수익금을 불우이웃과 단체에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독서 봉사단은 독서직을 전문화하고 미사 해설단을 도와 미사 전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례분과에서 1995년 2월에 공모를 통하여 독서 봉사자를 선발하였으며, 1995년 3월 13일에 설립되었다.

한편 최광연 신부 재임시 신규로 설립된 레지오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레지오 명	설립일	소속 꾸리아	레지오 명	설립일	소속 꾸리아
기쁨의 샘	1991.11.12	사랑의 샘	사랑의 샘	1993. 5. 25	성가정의 어머니
지혜로운 정녀	1992. 6. 9	〃	예언자들의 모후	1993. 6. 9	〃
영원한 도움의 성모	1992. 7. 21	〃	바다의 별	1995. 1. 9	〃
천상은총의 모후	1992.12. 22	〃	승리의 모후	1995. 1. 24	〃
하늘의 문	1995. 7. 18	〃	희망의 모후	1995. 5. 16	〃
상아탑	1992. 5. 19	인자하신 모후	정의의 거울	1995. 9. 12	〃
겸손하신 모후	1992. 7. 2	〃	티없으신 어머니	1996. 9. 1	〃
인자하신 모후	1995.10.18	샛별	천상은총의 모후	1996. 7. 30	샛별
성가정의 어머니	1996. 2. 8	〃			

▲ 성모성심회 배론성지 피정(1993.9.16)

3.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

1) 초기 미사시간과 교리

본당 초기 미사 전례시간은 다음과 같다.

▶본당 초기 전례 및 교리시간

전례 및 교리시간				
특전미사 (토)	오후 4 : 00 (초등학생) 6 : 30 (일반)	고해성사	평일 토요일 주일	오전 10 : 00 오후 4 : 00 (초등학생) 6 : 30 (일반) 오후 6 : 30
주일미사	오전 6 : 30 (일반) 9 : 00 (중고생) 10 : 30 (일반) 오후 6 : 30 (청년, 일반)	봉성체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전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 : 00	
평일미사	오전 6 : 00 10 : 00	초등부 교리 중고생 교리	토요일 주일	오후 3 : 00 오전 9 : 00 미사 후

자료 : 본당 주보 제1호(1991.9.8)

2) 첫 영성체와 나눔

본당 초등부 어린이들의 첫 영성체는 1992년 5월 23일(토)에 있었다. 대상은 유아 세례를 받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로서 천주교의 주요 기도문을 외우고 5월 4일부터 5월 22일 까지 매일 1시간씩 교리를 받은 어린이들이었다.

다음해인 1993년 6월 12일(토)에도 초등부 어린이 70명이 첫 영성체를 하였다. 첫 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은 교리기간 중 하루 한 줌씩의 쌀을 예수님의 몫으로 봉헌하여 모아진 헌미 160kg을 서울 사당동 소재 지적 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손' 에 전달하였다.

하느님께 드리는 편지[11]

하느님께

하느님, 저는 이번에 첫 영성체를 받게 되는 박선민(안젤라)예요. 성체를 빨리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내일이면 받게 되어 기쁘고, 고마워요.

그래도 오늘은 첫 고해성사도 보았고 "화해의 파티"도 하면서 너무 너무 기뻤어요.

항상 교리 선생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예쁜 아이들만 뽑으셔서 온 거란다."하고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열심히 성체를 모시겠어요.

하느님, 앞으로 친구들과 나눔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 자주 편지 쓸게요. 안녕히 계세요.

1993.6.11(금) 첫 영성체 전날 박선민(안젤라) 올림

그 다음해인 1994년 6월 4일(토)에도 역시 첫 영성체를 한 어린이들이 120kg의 헌미를 봉헌하여 대림, 사순 때 주일학교에서 모은 저금통 봉헌금 95,500원과 함께 양재동 소재 양로원인 '작은 둥지'로 보냈다. 이어 1995년에도 6월 3일(토)에 첫 영성체를 한 어린이들이 헌미 80kg과 현금 9만원을 '작은 둥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 영세 및 첫 영성체 기념(1994.10.30)

11) 첫 영성체를 받은 어린이의 글. 본당 주보 제94호(1993.6.20)

3) 예비신자 교리와 영세식

본당이 설립된 1991년에는 예비신자 모집기간이 짧아 하반기 영세식은 없었다. 이듬해 2월 27일(목)에 직장인반, 청년반이 처음으로 개강되었으며, 개강 첫날 106명이 등록하였다. 2월 28일(금)에는 노인반(오후 2시), 부인반(오전 10시)이 개설되었고 이때 80명이 등록하였다. 그리고 초등부반(오후 5시)은 3월 14일(토) 첫 모임에 63명이, 3월 15일(일) 중고등부반(아침 7시)의 첫 모임에는 64명이 참석하였다.

예비신자들은 소정의 예비자 교리과정을 마치고 1992년 7월 26일(일)과 10월 25일(일) 각각 세례성사를 받았다. 이어 9월에 성인 예비자반이, 10월에는 학생 예비자반이 다시 개설되었다. 이렇게 최광연 신부 재임시 1년에 두 차례의 예비자 교리와 4회(성인 2회, 학생 2회)의 영세식이 있었다.

그리고 영세식에 앞서 예비신자들이 '성세성사를 위한 9일 기도'를 봉헌하였다. 9일 기도에는 매일 성서읽기, 아침기도, 저녁기도, 식사 전후 기도, 삼종기도, 묵주기도, 희생, 봉사의 항목이 들어가 있었으며, 영세자 스스로 실천표에 실천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1993년 예비신자들은 3월 21일(일)에 직장인반과 청년반이, 3월 26일(금)에는 부인반, 노년반이 미리내 성지로 순례를 다녀왔다. 또한 예비신자 일일피정을 1995년 11월 26일에 부인반, 노인반을 대상으로 우이동 소재 '명상의 집'에서 가졌다.

▶영세 현황 (성인, 유아 포함) (단위 : 명)

년 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2	12	172	208	173	230	97	115	121	197	116	153
계	24		380		403		212		318		269	

※ 1991년 영세자 수는 유아 세례자임

한편 최광연 신부는 새 영세자들에게 영세 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기 위한 사목적인 배려를 하였다. 그 일환으로 새 영세자들의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를 '훼밀리아(Familia)'로 부르고 1992년 8월 14일에 제1기 각 반별 첫 모임을 가졌다. 훼밀리아 2기(1993.4.18 영세자) 모임은 5월 30일 10시 30분 미사 후 대강당에서 있었고, 1994년 3월 5일에는 훼밀리아 3기가 1박 2일의 피정을 통하여 믿는 이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 영세자들을 위한 일일피정(1994.11.1)도 실시되었으며, 두봉(레나도) 주교의 지도로 행주 공소에서 있었다.

4) 견진교리와 견진성사

본당 설립 후 첫 견진교리가 1992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 진행되었다. 첫날인 18일은 지하 대강당에서 최광연 신부의 견진교리 특강이 있었으며, 22일은 고해성사, 27일은 견진성사 전례연습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덕원자치수도원구 및 함흥교구장 서리인 왜관 성 베네딕도회 이동호(쁠라치도) 아바스 집전으로 340명(남 156명, 여 184명)의 신자들이 견진성사(1992.11.28)를 받았다. 그리고 1994년 6월 19일에 강우일(베드로) 주교, 1995년 5월 21일에는 이동호(쁠라치도) 아바스 집전으로 견진성사식이 거행되었다.

▲ 견진성사 기념(1992.11.28)

▶견진교리 특강

견진교리 특강	1994. 6. 9 (목)	예수님의 육화	김종원 신부
	1994. 6. 10 (금)	예수님의 공생활	〃
	1994. 6. 11 (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
	1994. 6. 13 (월)	성령과 견진성사	유병만 신부
	1994. 6. 14 (화)	성사 생활 – 고해성사	송천오 신부
	1994. 6. 15 (수)	〃	〃
	1994. 6. 16 (목)	혼인과 가정	〃
	1994. 6. 17 (금)	전례와 기도생활	권 베네딕타 수녀
	1995. 5. 11 (목)	하느님의 계시	최희수 신부
	1995. 5. 12 (금)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김종원 신부
	1995. 5. 13 (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최희수 신부
	1995. 5. 16 (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김종원 신부
	1995. 5. 17 (수)	성모 마리아와 기도 생활	최희수 신부
	1995. 5. 18 (목)	성령과 교회	최희수 신부
	1995. 5. 19 (금)	평신도 사도직	김종원 신부

▶견진성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56	184	–	–	77	142	36	75
계	340		–		219		111	

※ 1993년도 견진성사는 없었음

4. 신자 재교육 및 첫 부제의 탄생

l) 성경 공부의 활성화

본당 분당 이전에 대치동 성당에서 '말씀의 봉사자회'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에서 주관하는 성경공부를 수료한 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성인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이었다. 분당 후 본당에서도 그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1991년 12월 5일 말씀의 봉사자회(현 가톨릭 성서모임)를 설립하였고, 다음해 2월 27일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교육과 말씀의 봉사자 양성을 위한 그룹성서 공부를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4개 그룹으로 개강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에는 16개반 191명이 성서 가족이 수료했으며, 1993년 20개반 164명, 1994년 21개반 229명, 1995년 19개반 190명, 1996년 16개반 153명이 수료했다. 1996년에는 사도행전 그룹이 새로이 개설되면서 본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성경 생활화 운동을 활력적으로 펼쳐 나갔다. 한편 가톨릭 청년 성서모임도 본당 내 청소년을 위한 성경공부 그룹을 1992년 3월 29일에 개설하였다.

2) 신자 재교육과 영성생활

최광연 신부는 신자들을 위해 교양특강을 많이 실시하였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외부 강사는 교수, 의사, 소설가 심지어 스님 등까지 각계를 망라하였다. 교우들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 자녀 교육과 자신의 삶을 다시 신앙 안에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교양특강은 본당 신자 뿐 아니라 타 본당과 이웃의 비신자에게도 개방되었는데, 1992년 본당 사목목표 중의 하나인 '지역주민을 위한 교회 개방을 실천' 하기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당시 주보에 '누구나 오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비신자 지역 주민의 참석도 환영함' 이라고 공지하였다.

한편 성모성심회 주관으로 '현대 여성과 부모 역할' 이라는 주제로 김인자 한국심리상담소 소장의 특강(1992.4.9)이 있었다. 또한 '밝은 가정 만들기' 라는 주제로 조동춘 교수의 특강(1994.6.23)이 있었다. 교육분과가 주관하였으며, 이때는 강의시간이 오전에서 오후 8시로 바꿔 남성 신자들의 참석을 배려하였다.

▶교양 특강 현황

일 자	강 의 내 용	초 빙 강 사
1992. 4. 9(목)	현대 여성과 부모 역할	김인자 교수(한국심리상담소 소장, 서강대 교수)
1992. 5.25(월)	현대 사회와 부모 역할	〃
1992. 6.11(목)	창의성을 키우는 자녀 교육	이성호 교수(연세대 학생처장, 교육학)
1992. 10.1(목)	셰익스피어의 비극세계	여석기 교수(연합 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영문학)
1993. 7. 7(수)	사회변화와 적응	지용희 교수(서강대)
1993. 9. 9(목)	행복한 부부생활	김상태 박사(성 베드로정신건강소 소장, 전 가톨릭의대 외래교수)
1994. 6. 23(목)	밝은 가정 만들기	조동춘 교수
1994. 7. 22(금)	복된 가정	송열섭 신부(주교회의 사무처장)
1994. 9. 30(금)	밝은 마음, 밝은 세상	석용산 스님
1994. 10.27(금)	건강과 영양	윤춘자(데레사) 영양사
1995. 5. 26(금)	나는 어떤 부모인가?	문용린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1995. 6. 30(금)	현대인의 스트레스	송수식 박사(적십자병원 원장)
1995. 9. 29(금)	청소년 교리공부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	문용린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1996. 10.27(금)	인간의 갈등과 행복	김홍신(리노) 소설가
1996. 5. 17(금)	시테크와 시간 창조의 기술	윤은기(정보전략연구소장)
1996. 6. 28(금)	신바람과 종교인의 자세	이철근(루카)(현대경영기술개발원 원장, '신바람 운동'의 창안자)

한편 최광연 신부 재임기에 실시된 사순절 특별강론은 다음과 같다.

▶사순 특강

구 분	일 시	주 제	강 사
사순절 특별강론	1994 .2. 28 (월)	기도와 영성 생활	김정훈 신부
	1994. 3. 7 (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홍승권 신부
	1994. 3. 14 (월)	주님과 나	두봉(레나도) 주교
	1994. 3. 21 (월)	주님과 우리 가정	〃
	1994. 3. 28 (월)	성사 생활	김종원 신부
	1995. 3. 13 (월)	사순절과 크리스천 가정	이정운 신부

사순절 특별강론	1995. 3. 20 (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유혹	두봉(레나도) 주교
	1995. 3. 27 (월)	고통의 길, 행복의 길	박종근 신부
	1995. 4. 3 (월)	신앙인의 고해 (화해) 성사	두봉(레나도) 주교

3) P.E.T 교육과 비디오 포럼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1992년 5월부터 본당에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P.E.T 교육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훈련으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여 자녀들을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립시켜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P.E.T 교육 첫 시작모임은 5월 9일(토)에 있었으며, 반 편성을 3개조로 하여 각 15명씩 8주간 과정으로 매주(목, 금, 토) 오전 10시 30분에 하였다. 각 단계별 교육이 있었는데, 1992년에 1차로 42명이 수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한편 매월 1회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누는 비디오 포럼(Video Forum)은 매월 셋째 목요일에 실시하였는데, 첫 영화는 크쉴롭스키의 '십계' 중 '제1계'로, 1994년 4월 21일(목) 10시 미사 후 김종원 신부의 지도로 상영되면서부터 계기가 되었다. '십계' 시리즈는 1994년 11월 24일 '제7계'까지 이어졌다.

4) 본당 첫 부제의 탄생

1996년 7월 4일(목) 오후 2시 개포동 성당에서 있었던 부제 서품식에서 본당의 첫 부제인 이용현(알베르토) 부제가 수품을 받았다. 7월 6일(토)에는 이용현(알베르토) 부제가 첫 집전하는 유아 영세식이 오후 3시에 있었고, 새 부제의 첫 강론도 있었다.

5. 나눔과 봉사의 실천

1) 교우 상담실 개설과 운영

본당 신자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선교분과 주관으로 1992년 10월 11일에 1층 만남의 방

에 '교우 상담실'이 개설되었다. 매 주일별로 본당 신자들 중에서 교육, 건강(의료), 세무, 법률 전문가가 상담 봉사자로 주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활동하였으며 신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상담 분야 중 법률과 세무는 특히 호응도가 높았다. 1996년 1월 14일 둘째 주 부터는 그전에 내과만 상담하던 건강 상담이 월별로 정형외과, 치과, 피부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한방 등 특수과목도 추가되면서 상담활동을 하였다.

구 분	분 야	상 담 봉 사 자
첫째 주일	교육	정정희(마리아), 정길현(스테파노)
둘째 주일	건강 의료	최영훈(베네딕토), 이인성(베드로)/정형외과, 정기방(미카엘)/치과 유병국(마티아), 김학술(바오로)/피부비뇨기과 고준영(요한)/(이비인후과), 장충현(리노)/성형외과 김용화(마리아 막달레나)안과, 김완주(미카엘)/한방
셋째 주일	세무	노창수(라이몬드), 안경식(안드레아), 김용문(보니파시오)
넷째 주일	법률	황의채(프란치스코), 정동윤(토마스 아퀴나스), 김종보(요한)

2) 나눔과 후원활동 전개

'한마음한몸운동'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생활 쇄신 실천운동으로 모든 신자들이 헌혈과 장기기증 등으로 생명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 본당은 1992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1994년의 경우 본당의 5월 헌미헌금 봉헌금이 13,334,800원으로 133개 참여 성당 중에서 1위를 하였고, 1995년말 누계액이 117,079,000원이었다. 이에 한마음 헌미헌금 우수본당으로 선정되어 최창무(안드레아) 주교와 김기준(비오) 사무국장 신부가 내방하여 1996년 5월 5일에 본당 교중미사 후 교구장의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 김수환 추기경 명의의 감사패

■ 한마음한몸운동 헌미헌금 현황(1992~1996년)

1992년 5월 30일	13,414,121원	1992년 10월 7일	11,879,915원
1993년 5월 31일	13,199,820원	1993년 10월 1일	14,928,500원
1994년 6월 1일	13,334,800원	1994년 10월 2일	14,117,844원
1995년 5월 31일	14,214,000원	1995년 10월 3일	21,990,000원
1996년 6월 17월	15,833,110원	1996년 10월 2일	16,698,500원

한편 본당은 1992년과 1993년은 연중 한 달을, 1994년부터는 1년에 두 번 5월 성모성월과 11월 순교자성월을 '한마음한몸 헌혈의 달'로 정해 본당 교우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73명, 1993년은 67명, 1994년 5월 29일 70명, 11월 6일에는 79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매년 9월 무렵에는 알뜰시장을 열어 그 수익금을 봉사단체에 전달하였는데, 1992년 10월 개장한 알뜰시장에서 얻은 수익금 2,096,300원을 낙태방지와 미혼모들을 위한 단체인 '마리아의 집'에 전달하였다.

▲ 알뜰시장(1994.10.9)

그리고 1993년 3월에 비닐하우스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연천성당의 수녀들이 성당 신축기금 마련을 위해 두부를 만들어 본당에 판매하러 온 것을 계기로 최광연 신부는 두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당 의자는 유승재(아우구스티노) 사회복지분과장이 기증하였다. 또한 성가복지병원의 행려병자들을 위해 신자들은 헌 구두, 헌 옷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가능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밖에 최광연 신부는 연천 신탄리 '안나의 집'에 삼백만원 가량의 본인 개인 경비를 지원하여 매년 경로잔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애덕의 집', '프란치스코의 집', '나자렛의 집'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나눔과 후원내역

일 자	대 상	금 액	비 고
1992.05.15	LA 교민돕기	1,000,000원	
10.18	남원 도통성당 신축보조	1,500,000원	
12.23	맹인선교회 신축지원금	30,000,000원	
1993.05.19	대치동 성당 개축비 보조 2차	100,000,000원	
05.29	레소트난민 겨울담요	50매	
05.30	신탄리 안나의 집 양로원 보조금	4,300,000원	
09.05	포이동 성당 성전건립 후원	8,408,650원	헌금
	〃	157,540,000원	신립봉헌액
12.19	요셉의원 후원금	12,000,000원	성모성심회
1994.02.20	상록촌 화재복구비	2,000,000원	
03.31	연천성당 건축보조금	50,000,000원	
04.04	성모자애재활원 신축기금	1,000,000원	
09.02	연천성당 성전건축비 보조	50,000,000원	
09.04	신내동 성당 성전건축비 보조	1,000매	바자회 티켓
1995.02.05	LA 체칠리아성당 종합센타 건립기금	12,205,880원	헌금
	〃	56,605,000원	신립액
05.18	풍기성당 성전건립비 보조	30,000,000원	
07.13	염리동 성당 성전건축비 보조	30,000,000원	
07.27	양노원 안나의집 운영비 지원	4,000,000원	
07.28	부천 심덕성당 성전건립비 보조	10,000,000원	
08.07	진안성당 부귀공소 성전부지 매입비 보조	10,000,000원	
09.11	수서동 성당 성전기금 보조	50,000,000원	
	월계동 성당 성전기금 보조	3,000,000원	
10.02	대구 갈멜 수녀원 건립비 보조	3,000,000원	
10.23	FIJI NAVUNIBITU 성 방지거 사제관 찬조금	$7,000	미화 달러
1996.03.20	요셉의원 후원	10,000,000원	
04.15	자운리성당 건축비 보조	10,000,000원	
05.05	양구 안나의 집 운영비 보조	4,000,000원	
05.11	명일동 성당 신축 후원	5,000,000원	바자회 티켓
06.17	제주교구 고산성당 청수공소 성전건축비 보조	10,000,000원	
07.25	고양동 소원석 신부 성전건립비 보조	30,000,000원	

6. 청소년의 활동

1)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최광연 신부는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운동을 지원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이나 성소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남달랐다. 본당에서도 부임 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1991년 10월 2일(수)에 최광연 신부는 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를 재정비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박희원 보좌신부에게 주일학교에 나와야 할 신자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 파악과 현재 나오고 있는 각 반별 인원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종전에 하던 방식의 주일학교 운영 탈피책 강구와 몇 명되지 않는 학생으로 현상유지식의 주일학교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하여 새롭게 시작하도록 각별히 권고하였다.[12] 이에 따라 주일학교 인원 파악과 교적부 조사를 실시하여 본당 주일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김종원 보좌신부도 1994년 7월 3일(일)에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조서한을 레지오 마리애와 각 사도직 단체장에게 발송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제5회 별빛따라(1995.12.25)

▲ 고3 수험생 피정(1996.1)

12) 최광연 신부의 메모 서한의 내용

본당 설립 후 1991년 9월부터 매 주 토요일 오후 3시 미사 후에 초등부 주일학교가, 매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에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처음 운영되었다. 초·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학기 중에 주일학교를, 각 방학 중에는 성경학교를 개설하였다. 겨울 방학에는 주일학교 피정으로, 여름 방학에는 하계 캠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성경학교는 1992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고등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7월 28일에서 31일까지 주일학교 하계캠프에는 무지개 동산 160여명, 코이노니아 200여명이 참석한 것을 필두로 해마다 여름, 겨울방학 동안 있었다. 초등부 여름캠프는 무지개 동산, 중·고등부는 '친교' 라는 의미의 '코이노니아' 라고 불렀다.

▶초·중·고등부 활동

구 분	일 시	장 소	대 상
겨울 성경학교	1992. 2.25~26	본당 대강당	고등부
〃	1992. 2.27~28	본당 대강당	중등부
여름 성경학교(여름 캠프)	1992. 7.21~23	본당 대강당	초등부(유치부~초 2학년)
무지개동산(여름 캠프)	1992. 7.28~30	양지 리조트 연수원	초등부 3학년~6학년
여름 코이노니아	1992. 7.28~31	〃	중 1학년~고 2학년
주일학교 피정	1993. 1.25~27	싸리제 피정의 집	중등부(초 6학년~중 2학년)
〃	1993. 1.27~29	〃	고등부(중 3학년~고 2학년)
여름 성경학교	1993. 7.28~30	지하 교리실	초등부(유치부~초등 2학년)
무지개 동산	1993. 7.20~22	용인 영보 피정의 집	초등부 3학년~6학년
여름 코이노니아	1993. 7.26~29	공세리 성당	중 1학년~고 2학년
중고등부 학생피정	1994. 1. 5~6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중등부
〃	1994. 1. 6~7	〃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1994. 7.19~21	본당 교리실	초등부(유치부~초등 2학년)
무지개 동산	1994. 7.26~28	배론 성지	초등부 3학년~6학년
여름 코이노니아	1994. 8. 1~4	용인 영보 수녀원	중 1학년~고 2학년
주일학교 피정	1995. 1.23~24	돈암동 상지회관	초등부 6학년
〃	1995. 1.13~14	신월동 살레시오회관	중 1, 2학년
〃	1995. 1.16~18	용인 잠실본당교육관	중 3학년~고 2학년
여름 성경학교	1995. 7.18~20	본당 교리실	초등부(유치부~초등 2학년)

여름 성경학교	1995. 7.18~20	본당 교리실	초등부(유치부~초등 2학년)
무지개 동산	1995. 7.25~23	잠실교육관 나눔의 집	초등부 3학년~6학년
여름 코이노니아	1995. 8. 1~4	나바위 성지	중 1학년~고 2학년
중고등부 피정	1996. 1.29~31	성 프란치스코 피정의집	초 6학년~고 2학년
여름 성경학교	1996. 7.17~19	본당 교리실	초등부(유치부~초등 2학년)
무지개 동산	1996. 7.25~27	배론성지	초등부 3학년~6학년
여름 코이노니아	1996. 7.30~8. 2	아침 고요 수목원	중 1학년~고 2학년

그리고 중고등생 46명이 교사들과 함께 대모산 환경봉사 활동을 1996년 8월 17일에 4시간동안 펼쳤다. 한편 고3 수험생을 위한 '고3 수험생 피정' 을 1991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은혜의 집' 에서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공세리 성당(1996.1.20~22)' 에서 했던 피정까지 매년마다 있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에는 '고3 학생모임' 을 가졌는데, 1993년 3월 28일(일)에 첫 만남이 있었다.

▲ 코이노니아(1995.8.1)

▲ 중·고등부 교사단 피정(1996년)

또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주일학교 미사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미사' 로 정해져 1993년 3월 27일 (토) 오후 4시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매년마다 성탄시기에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은 '꼬마들의 성탄' 을,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은 '별빛 따라' 라는 주제로 성탄예술제를 열었다. 그 밖에 중고등부 백일장(1994.9.11)을 '양재 시민

의 숲' 에서, 중·고등부 가을 소풍(1995.9.17)을 '양재 시민의 숲' (중등부)과 '선정릉' (고등부)에서 갖는 등 다양한 행사를 하였다.

2) 청년단체의 설립과 활동

초창기 본당 청년들의 활동은 활발하였다. 처음 설립된 청년 사도직 단체는 청년 레지오 마리애 원죄 없으신 모후 Pr.이었다. 1991년 9월 9일에 설립되어 청년 선교와 신심활동에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행동단원의 충원이 되지 않아 1994년 11월 5일에 해단되었다.

청년 성서그룹이 1992년 3월 29일에 시작되었고, 송천오 신부 지도로 중·고등부 교사단의 성경공부(요나서)가 1993년 3월 10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청년 성가대(이후 '한울림 청년성가대' 개칭)는 1993년 3월 14일에 15명의 청년들로 첫 출발되어 1994년 4월 10일부터는 청년미사시 국악미사로 봉헌하였다. 청년 미사전례에 봉사할 '청년전례단' 도 1994년 10월 5일에 결성되었다. 중고등부교사들이 '진리를 따라서' 라는 주제로 1995년 8월 8일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도보 성지순례를 하였다.

한편 최광연 신부는 초·중등부나 청년들의 피정, 성경학교, 캠프 등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장수녀, 총회장과 사목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보좌신부나 수녀, 봉사자들과 청소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자상한 어버이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7. 2000년대 복음화와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행사

1) 2000년대 복음화 및 지도자 교육

1990년대 초반, 강우일 주교 주축으로 '2000년대 복음화' 라는 장기적인 사목방향과 사목지침을 통해 소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다. 소공동체 운동은 2000년대 복음화 운동의 핵심으로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선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신자의식 교육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본당에서는 1992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

도문을 매 미사 후에 모든 신자가 합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구 사제를 대상으로 한 사목연수회에 최광연 신부는 1992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참석하였으며, 2000년대 복음화 사목연수(1992.3.20~21)에 본당 사목위원들이, 총회장은 22일의 연수에 참석했다.

서울대교구에 '2000년대 복음화사무국'이 1992년 10월에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화 지도자 양성교육이 실시되었다. 본당은 김화순(런네마리) 원장수녀와 김정숙(안젤라) 수녀가 1993년 1월 5일에 1일간, 13일에는 강문일 보좌신부가 3일간, 16일에는 신대진 총회장과 최양기 총무, 한상국 기획분과장이 2일간 참가하였으며, 2006년까지 많은 사목위원들이 복음화 지도교육을 받았다.

2) 성 김대건 신부 유해 순회기도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1996년은 한국 성직자들의 주보성인이신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순교 150주년으로 서울대교구는 기념 신앙대회를 비롯한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순회 기도를 실시하였다. 본당은 7월 10일~12일까지 성인의 유해를 모시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당 신자들은 7월 5일 저녁 8시에 대강당에서 '김대건 신부 일대기' 영상교육과 함께 경건한 유해 영접을 위해 고해성사도 가졌다. 유해 안치 전 9일 기도를 7월 1일부터 바쳤으며 10일에는 유해 안치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순교자들의 시성 시복과 민족의 일치를 위한 묵주기도 7천만 단 바치기에 본당 교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본당 유해 봉영일인 7월 10일 오후 1시 50분, 일원동 성당에서 출발한 성인의 유해를 봉영하기 위해 성당에서 삼원가든까지 신자들(남성은 정장, 여성은 한복 착용)은 묵주기도를 드리며 도열하였다. 오후 2시 5분, 유해가 성당에 도착하여 유해 봉영 예절이 성전에서 있었다. 유해 안치기도는 7월

▲ 김대건 성인 유해 거동행렬(1996.7.10)

10일(수) 오후 1시부터 7월 12일 오전 10시까지 44시간 연속 밤샘기도를 하였다. 유해 봉송 미사는 7월 12일 (금) 오전 10에 거행되었고 유해는 다음 봉송지인 대치동 성당으로 인계되었다.

한편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대회가 1996년 9월 15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본당은 신앙대회에 앞서 8월 17일 준비기도모임에 사목협의회 최양기(바오로) 총무와 심종보(프란치스코) 전례분과장, 김성자(체칠리아) 구역분과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윤성노(니콜라오) 총회장과 조명승(가리노), 유영순(미카엘) 부회장과 심종보(프란치스코) 전례분과장이 9월 7일에 신앙대회 준비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본당 신자들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봉헌문을 작성하였다.

8. 본당 마크제작과 타 본당 견학

1) 본당 심볼 마크 제작

사목협의회 기획분과에서는 본당을 상징하는 마크 도안 공모를 1992년 10월 25일, 그리고 1995년 4월 9일에 주보를 통해 공고하였고 한희완(마르티노) 형제가 제작한 것이 선정되었다.

▲ 초기 본당 성가정 마크

▲ 현 본당 성가정 마크

2) 본당 성전시설의 견학

본당 성전 봉헌식이 1992년 6월 28일에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타 본당에서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건립된 성전을 보기 위해 견학이 줄을 이었다. 1992년 10월 11일에는 여수 문수성당 교우 70명이 성전 견학을 하였고, 이듬해 2월 21일에는 성전 건립을 추진 중인 신내동 성당에서 건축위원 6명 견학차 방문을 하였다.

또한 베네딕토회관 촬영팀이 1993년 3월 13일에 성당 전경과 스테인드글라스, 제대 등을 촬영하였고, 3월 7일에는 개신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7명이 내방하여 본당시설 견학을 하였다. 17일에는 압구정동 성당에서 본당 성전 견학과 촬영이 있었으며, 1996년 2월 1일에 평화방송에서 본당 성전의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영상촬영을 하여 14일에 T.V로 방영되었다.

9. 최광연 신부의 이임

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성전 신축과 초기의 기틀을 다지기에 여념이 없었던 최광연 신부는 교구 인사발령에 따라 신수동 성당으로 1996년 10월 11일에 이임하였다.

최광연 신부는 본당의 설립과 성전의 건립, 구역 중심의 기초 공동체를 튼튼히 다졌으며, 청소년들과 선교사목에도 깊은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 특히 성당의 중심은 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본당 기초 공동체가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인은 솔선수범하여 절약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나눔'에는 항상 앞장서서 실천하였다. 특히 연말에는 각 여성 구역장들에게 전국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단체를 찾아내도록 지시하였고 그 단체를 위하여 모금한 금액에 그 만큼을 더 더하여 후원을 하기도 하였다.

초등부 영세기념(1992.9.26)

성전 기공식(1989.10.22)

성전봉헌미사(1992.6.20)

성전 기공식 축복예식을 하는 강우일 주교
(1989.10.22)

성전 봉헌 축하연(1992. 6. 20)

성전 봉헌식에 도착한 김수환 추기경(1992.6.20)

성모상 축복예식(1992.6.20)

최광연 신부 영명축일(1993.8)

첫 영성체(1993.6.12)

복사단 제2기 졸업기념(1994.4.10)

견진성사 기념(1994.6.19)

첫 영성체(1996.6.1)

성전 봉헌식 기념 방명록에 서명하는
김수환 추기경(1992.6.20)

성전 봉헌 미사 예물봉헌(1992.6.20)

제 3 부

본당의 정착과 소공동체 운동

제1장

본당 내실을 위한 사목활동

1. 이상훈 신부의 부임과 사목방향

1) 이상훈 신부 부임

최광연(모세) 신부의 뒤를 이어 가톨릭대학교 교리사목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했던 이상훈(리노) 신부가 1996년 10월 11일에 제2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10월 13일(일) 10시 30분 교중미사는 이상훈 신부를 축하하는 환영미사로 봉헌되었고 미사 후 환영식이 이어졌다.

이상훈(리노) 신부는 1927년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태어났고, 동성상업고교 졸업(1946.2) 후 서울대학교 문리대 예과 2년을 수료하고, 공과대학에서 섬유학 공부를 하던 중 성소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교) 수료(1954.3) 후 프랑스 릴(Lille) 대교구의 초청을 받고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릴 신학대학교를 졸업(1958.6)하고 프랑스 릴(Lille) 대교구 대성당에서 교구장인 리에나르 추기경으로부터 사제 서품(1958.12.21)을 받았다. 1959년부터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학교 교리사목대학원에서 교리사목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와 교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대학원 재학 중에 파리 생 끌로델 성당에서 학생 담당으로 사목하였다. 귀국 후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교수(1962.3), 가톨릭교리신학원 교수(1963.3),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1964.5), 혜화동 성당 주임(1985.8), 가톨릭대학교 교리사목연구소 소장(1991.9.5)를 역임하였다.

2) 사목지향과 사목목표

이상훈 신부는 천주교 한국교회의 교리교육의 아버지[1]라 불릴 만큼, 사제직무의 으뜸을 교리교육으로 삼았고, 가톨릭 교육의 기초를 놓는데 헌신한 신부였다. 가톨릭 교리교육에 평생을 바쳤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스승이었다. 그만큼 한평생 교리교육과 평신도 선교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상훈 신부는 본당 사목에 있어서도 성직자로서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지역 복음화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 소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상훈 신부는 11월에 사목협의회 상임위원을 임명한 후 첫 월례회의를 1996년 12월 8일에 사목회의실에서 진행하면서 진선미(眞善美)한 모습으로 하느님 사업에 전념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상훈 신부는 이곳을 마지막 본당 사목활동으로 여기고 헌신할 것이기 때문에 사목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앙의 예술화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성가정 성당으로 거듭나자고 말하였다.

▲ 이상훈(리노) 신부 재임시 모습(1997년)

특히 본당 공동체 신자들에게 2000년의 대희년을 준비하며 가톨릭 전례 본래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본당 사목을 몸소 실천하며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였다. 본당에서 연령회 활성화와 성모신심 고양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가톨릭 축일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를 신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축제처럼 성대하게 함께 나누는데 앞장섰다.

또한 가톨릭신학교와 교리신학원에서 헌신했던 열정과 사랑으로 많은 하느님의 일꾼을 키워냈듯이, 본당 공동체의 신자들을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열심한 신앙인으로 이끌어내는 사목자의 책임을 다하였다.

1) 평화신문 제1104호, 2011. 2. 13,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 강론

이상훈 신부 재임기의 사목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는 교회사적으로 대희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의 대희년은 하느님께 봉헌된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주년의 대희년을 위해 하느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으며, 쇄신과 화해와 일치를 이루도록 세계 교회에 기도를 당부하였고,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복음화' 를 강조하였다.[2)]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제1단계(1994~1996)는 교회 보편적 차원에서의 성찰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교회에서는 위원회들을 설립, 대희년 거행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부각시키도록 계획하며, 추진사항은 희년의 성격 규정, 교회와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성찰과 책임 의식,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며 증언한 교회내의 순교자 명부를 재작성하며 시노드를 개최하여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도 부응하여 1996년은 새로운 복음화의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이를 때였다.

제2단계(1997~1999)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학적이며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느님의 순서로 각 해에 걸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각 해에 대한 주제를 향주삼덕의 주제와 연관시켜 1997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로서 신덕(信德), 1998년은 성령의 해로서 망덕(望德), 그리고 1999년은 성부 하느님의 해로서 애덕(愛德)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3)]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당면과제를 이상훈 신부는 1997년도 본당 사목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도 중시하였다. 당시 2000년 복음화를 위한 1997년 교구 사목교서 세부지침은 '본당 설립 10개년 계획' 에 따라 신자 5,000명 이상의 본당은 분할 준비를 하며, 모든 신자들이 '소공동체' 와 '복음나누기 7단계'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자들의 교육을 권고하였다. 남성구역 모임을 결성하고, 반장교육과 남성구역장 월례교육 실시, 반장들에게 반모임 일지를 작성하며, 새 예비자 교리서 「함께하는 여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본당도 '2000년의 대희년 준비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운동 전개' 를 사목 목

2, 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L' Osservatore Romano, N. 46, 1994, 11, 16

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시책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다.

1) 2000년대 복음화 운동 지속적 추진

- 교회 내 복음화 활동 심화 – 구역모임, 사도회모임 등 소공동체 모임
- 교회 외 복음화 운동 전개 – 직장 공동체 결성
- 제 단체장들의 복음화 교육 및 활동 강화
- 평신도 복음화 교육 강화 – 복음나누기 7단계의 지도자 교육, 전달 교육 및 자료발간

2) 청소년과 청년 사목의 심화

- 자녀 미사 참여 및 주일학교 보내기 운동
- 청소년, 청년 사목을 위한 소공동체 결성 및 활동 심화
-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지도자 교육 및 연수 활동 참여
- 청소년 성소자 개발 육성
- 청소년, 청년 사목운영회의 조직 및 활동 강화

3) 평신도 신앙활동 강화

- 주일미사 준수 및 매일미사 참례 배가 운동 전개
- 고해성사 자주 보기
- 선교활동 적극 추진
- 각종 전례의 생활화

4) 교회 활동 적극 참여

- 각종 심신 단체 가입 및 적극 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 한마음한몸 운동 활동 동참

5) 본당 분할 추진

- 추진위원 구성 및 계획 수립

한편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의 해를 맞았다. 이에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은 12월 27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기도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말씀하였다. 이를 위해 교구와 본당,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경제난국이 극복될 때까

지 특별 기도를 바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1998년도 사목교서의 '복음적 가난에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나눔을 실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상훈 신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본당 사목목표를 성무회의의 결의사항으로 대신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한 해 본당 사목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의 인내와 기도, 협력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원만하게 사목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F 시대를 맞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조용한 교회', '사랑과 평화의 교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순명과 겸손'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당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사목활동에 대한 평가와 신자들의 많은 건의와 충언을 토대로 하여 본당 사제들과 수녀들이 공동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목방향을 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본당 내 모든 단체는 자체 큰 행사를 거행할 때는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기원미사를 봉헌한다.
2. 본당에서 정한 주요행사가 있는 날 사목회 임원, 각 단체장과 임원은 행사에 참석한다.
3. 모든 단체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신자들은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지양한다.
5. 교우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를 돕기 위한 공식적인 모금과 지원활동은 사전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 보고를 한다,
6. 본당에서의 단체 지원금은 청소년 및 신심고양을 위한 교육에 집중되며, 성인 단체의 신심활동 교육비 등 모든 비용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우리 본당 성전을 '하느님의 집'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금번 사순절부터 성전 마당과 로비(현관)에서의 각종 판매행위 및 모금활동을 월 1회만 실시한다.'

〈1998년 2월 7일 성무회의에서 주임신부, 보좌신부, 수녀〉[4]

4) 천주교 대치2동 주보 제337호, 1998.2.15

3) 보좌신부 부임과 수도자들의 동정

최희수(프란치스코) 신부의 휴양으로 그간 공석 중이었던 제1보좌에 조창수(토마스 아퀴나스) 신부가 1996년 11월 21일에 상도동 성당에서 부임하였다. 제2보좌인 이충열(티토) 신부는 그동안 본당 소임을 마치고 1997년 11월 28일에 풍납동 성당으로 이임하였고, 그 자리에 김병훈(알렉시오) 신부가 사제학교에서 첫 사목지인 본당으로 부임하였다.

3년 동안 본당 사목을 도왔던 권은희(베네딕타) 원장수녀는 1997년 2월 14일에 가톨릭회관 관리과로, 이계월(마리율리아나) 수녀는 대전교구 논산 대교동 성당으로 이임하였다, 같은 날 구은순(율리아나) 수녀는 가톨릭회관 관리과에서 본당 제3대 원장수녀로 부임했으며, 송숙녀(데레사) 수녀는 서울관구에서 본당으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강영숙(마르가리타) 수녀는 1998년 2월 10일에 논산 부창동 성당으로 이임하였으며, 김영희(에밀리아나) 수녀는 공주 중동 성당에서 본당으로 부임하였고, 같은 날 송숙녀(데레사) 수녀가 계성초등학교로 이임하였다.

4) 사목협의회의 개편과 활동

이상훈 신부는 1996년 11월 17일, 그동안 3년간 봉사한 윤성노(니콜라오) 총회장에 이어 신대진(베드로) 초대 총회장을 다시 총회장에 임명하여 새롭게 제4대 사목협의회를 개편하였으며, 12월 8일에 첫 사목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신대진(베드로) 총회장은 이듬해 5월 4일에 개인 사정으로 총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조명승(가리노) 부회장이 총회장직을 수행하였다.

■ 제4대 사목협의회 명단(1996.11~1997.10)

– 총회장 : 신대진(베드로)
– 부회장 : 조명승(가리노), 김세준(안드레아), 유영순(미카엘), 권중원(베드로), 김성자(체칠리아)
– 총 무 : 이덕행(바오로)
– 부총무 : 이세용(요한), 김용문(보니파시오)
–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병국(마티아), 부위원장 김광수(안토니오), 정길현(스테파노),
간사 류우태(바오로) 외 위원 7명

–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심종보(프란치스코), 부원원장 이강호(원선시오), 간사 한진동(요셉) 외 위원 7명
–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주영(아우구스티노), 부위원장 차일성(이냐시오), 간사 이지연(그레고리오) 외 위원 13명
–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임성락(프란치스코), 부위원장 이창구(요셉), 간사 김명식(마태오) 외 위원 3명
–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성수(라우렌시오), 부위원장 유성하(베드로), 간사 김군배(요셉) 외 위원 8명
– 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성자(체칠리아), 총무 엄정숙(요세피나), 회계 김명숙(클라라), 홍영주(아녜스) 외 15개 구역장
– 청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권중원(베드로) 외 위원 12명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위원장 권혁노(프란치스코), 부위원장 김명승(프란치스코), 차학만(베드로) 외 위원 13명
–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송진선(야고보), 부위원장 우계성(이타), 간사 신영부(안토니오), 강정림(세레나) 외 위원 5명
– 시설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성기(베드로), 부위원장 임용빈(율리아노), 간사 이이성(마태오) 외 위원 3명
– 2000년대복음화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수홍(스테파노), 부위원장 이걸중(루카), 간사 장선호(요한) 외 위원 3명

제4대 사목협의회 구성은 기존 제3대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되었으며 2000년대 복음화분과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그리고 시설관리분과가 시설분과로 개칭되었고, 이듬해년 1월 19일 교중미사시에 신임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제4대 사목협의회는 1997년 9월 7일에 대강당에서 각 분과 및 사도직 단체들의 1997년도 상반기 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며 사목활동의 중간점검을 하는 활동을 펼쳤지만, 1997년 10월 5일에 이상훈 신부의 직권에 따라 제4대 사목협의회는 해체되었다.

그리고 5개월간 사목협의회의 공백이 있은 뒤, 본당 사목협의회 재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1998년 3월 22일에 수지 성모교육원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신부는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와 사목 활동을 위한 방향 탐색' 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를 19페이지 분량으로 집필하여 사목위원의 연수교육에 사용하였다. 주요내용은 1) 교회란 무엇인가? 2) 교회의 사명에 대한 요약 3)본당 공동체와 사목 활동 등으로 공동체에서 봉사자의 자세와 본당 사목활동의 주요 실천방향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하였다. 이어 4월 5일에 윤

성노(니콜라오) 전임 총회장이 제5대 사목협의회를 이끌게 되었으며, 5월 3일에 신임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제5대 사목협의회 구성에서 그동안 구역 남성신자 기도모임인 사도회가 선교분과 소속이었으나 남성구역분과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사도회를 기반으로 하는 남성구역 소공동체가 조직화될 수 있었다.

■ 제5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 명단(1998.4~1999.1)

– 총 회 장 : 윤성노(니콜라오)
– 부 회 장 : 장주일(스테파노)
– 총 무 : 이강신(라우렌시오), 최세훈(유스티노)
–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병국(마티아)
–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심종보(프란치스코)
–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임희성(엘리야)
–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노창수(라이문도)
–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장충현(리노)
–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차일성(이냐시오)
–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홍영주(아녜스)
– 청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두혁(미카엘)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위원장 남궁칠(미카엘)
– 시설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지석(가브리엘)
–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서상현(베드로)
– 2000년대 복음화분과위원회 : 위원장 노종성(바오로)

5) 이상훈 신부 영명축일 및 고희 축하식, 교구장 착좌식

이상훈 신부의 영명축일과 고희 기념 축하미사가 1997년 9월 21일, 12시에 본당 성전에서 거행되었다. 축하 미사에는 김옥균(바오로) 대주교, 최창무(안드레아) 주교를 비롯하여 박고안(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최익철(베드로) 신부, 정지웅(요셉) 신부, 류장선(베드로) 신부, 오창선(시몬) 신부, 김진태(그레고리오) 신부, 나성도(아르멜) 신부 등 선후배 신부들과 여러 수녀회 소속 수녀들, 그리고 가족 친지와 95세이신 부친과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였다. 축하미사에서 “사랑은 사랑을 일깨우며,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총장 겸 신학대학장인 오창선(시몬) 신부의 강론은 그리스도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였다.

그리고 축하미사가 끝나고 기념식에는 약력 소개와 축하 선물 증정이 있었으며, 가톨릭교리 신학원 제자들이 제작한 '한 생을 주님과 함께' 라는 고희 기념집 봉정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꽃다발에 둘러싸인 이상훈 신부는 김인규(토비아) 신부가 쓰고 전영애(엘리사벳) 자매가 낭송한 축시를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70 평생을 회고하는 모습이었다.

▲ 이상훈(리노)신부 고희기념 축하식(1997.9.21)

▲ 이상훈(리노)신부 영명축일 및 고희기념 축하미사(1997.9.21)

이어 대강당,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 축하연은, 본당 신자 중에서 고희를 맞은 채병규(마르코), 김영화(데레사) 교우와 함께 자리를 한 가운데 조창수 신부, 이충열 신부, 본당 수녀와 가족 친지, 단체장 순서로 헌주를 하였다. 멋있게 한복을 차려입은 이상훈 신부는 시종 즐거운 표정이었고 반장단의 수고로 마련된 국수잔치에는 천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한편 제13대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의 착좌식이 1998년 6월 29일 오전 명동 주교좌 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이상훈 신부는 신 · 구 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와 김수환 추기경을 위한 영적 선물로 미사 영성체와 주교를 위한 기도, 주모경, 묵주의 기도, 화살기도, 희생, 십자가의 길 등을 봉헌할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하였다. 신임 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를 위하여 신자들은 6월 21일부터 '주교를 위한 기도문' 으로 9일 기도를 미사 전에 드렸다.

2. 전례의 변화와 신심 고양활동 전개

1) 개정된 교회용어와 새 미사통상문 사용

한국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미사 전례에 있어서 '새 미사통상문'(1995년 로마 교황청 승인)을 1996년 12월 1일(대림 1주일)부터, 그리고 29년만에 전면 개정된 '가톨릭 기도서'의 기도문을 1997년 8월 15일부터 미사 전례나 기도때 사용하였다. 개정된 새 기도문들은 '새 미사통상문'에 반영된 표현원칙에 따라 현대어법과 어투에 맞도록 바뀌었다.

대표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천주 → 하느님, 성신 → 성령, 주 → 주님', 기도문에서는 '주의 기도 → 주님의 기도, 그 나라가 임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등으로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한편 한국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교회용어 89개와 전례복과 전례용어 49개, 미사 통상문 개정과 더불어 바뀐 용어 167개가 1997년 1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바뀐 용어를 살펴보면 '예비자 → 예비 신자, 본명 → 세례명, 학사 → 신학생, 미사수건 → 미사보, 그레고리안 성가 → 그레고리오 성가, 행방 불명자 → 거주 미상자 등이었다. 또 성당 명칭의 표기도 '천주교 ○○동 성당'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사 전례를 더욱 은혜로우며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성가 안내 전광판(1996.12.8), 음향시설 보완을 위한 성전 내 스피커(1996.12.22), 또 아름다운 음색의 선율로 미사 전례와 기도를 더욱 성스럽게 하기 위해 RODGERS(로저스) 오르간(1998.3) 등을 설치하였다.

2) 8시 미사 신설과 국악미사의 봉헌

평일과 주일의 오후 8시 미사가 1997년 12월 2일부터 신설되었으며, 기존 토

▶미사 시간표

특전미사	오후 4:00 초등학생	
	오후 8:00 일반	
주일미사	오전 6:30 일반	9:00 중고생
	10:30 일반	12:00 일반
	오후 6:30 청년,일반	8:00 일반
평일미사	오전 6:00 10:00	
	오후 8:00	
고해성사	평 일	오전 10:00
	토요일	오후 4:00 6:30
	주 일	오후 6:30

자료 : 본당 주보(1997.12.2)

요일 특전미사가 오후 8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송천오 신부(1992~1994) 재임때에 청년 미사시 국악미사를 봉헌해왔으나, 다시금 1997년 3월 30일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국악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악 미사 책'을 준비하여 성당 좌석에 비치하였으며, 청년 ᄒᆞᆫ울림성가대는 신자들이 국악 가락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3) 본당 성가정 주일 제정과 성시간 정례화, 로사리오의 밤

이상훈 신부는 교우들이 올바른 신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교회 전례력에 따라 가톨릭 축일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를 되새기며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신자들과 함께 축일을 축제처럼 성대하게 나누고자 하였다. 특히 본당 주보인 '성가정'을 닮은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신자 가정이 노력하며 주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온가족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1997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주일을 대치2동 교우의 '성가정 주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처음으로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고양을 위해서 1997년 2월부터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 8시 미사 후 이상훈 신부의 주례하에 성시간을 정례적으로 가졌으며,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동안 깨어 기도드리는 성체 현시 예절을 하였다. 또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인 시편기도를 성서못자리 수강생들이 중심이 되어 1997년 8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성전에서 소성무일도 시편기도를 드렸으며, 1998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신자들은 '본당과 가정 성화를 위한 15단 묵주기도' 라는 명칭으로 성전에 모여 촛불을 켜고 성모님께 15단 묵주기도를 1998년 7월 27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미사 후에 드렸다. '가족과 함께하는 로사리오의 밤'이라 불렀으며, 처음에는 2000년 대희년을 위한 기도지향을 두었다. 이후에는 '본당 발전을 위하여', '성가정을 위하여', '기도자 개인의 특별지향'을 두고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신자들이 성전에 모여 묵주기도를 드리는 모임을 본 제3대 주임신부인 고명철 신부는 본당 교우들의 신심행사로 '로사리오의 밤'에 참여하도록 신자들에게 적극 권장하였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는 '로사리오의 밤'으로 개칭되었으며, 2002년까지 이 기

도모임이 지속되면서 본당 교우들의 기도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4) 성부의 날 제정

이상훈 신부는 1997년 성 요셉 성월을 맞이하여 신자들이 성가정의 수호자인 성 요셉 성인을 공경하는 신심을 고양하며,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성가정을 수호한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성 요셉 대축일을 본당 '성부(성 요셉)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본당 모든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며, 가장을 존경하고 예의범절 향상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모든 아버지를 위한 합동미사'가 3월 19일(수) 오전 10시 미사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고, 저녁 8시에 '성부의 밤' 행사를 대강당에서 가졌다. 특히 이 미사에 가장은 물론 가족이 함께 참례하도록 하였고, 가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공지도 하였으며, 1998년에도 이 행사를 가졌다.

▲ 성부의 날, 촛불 봉헌(1997.3.19)

▲ 성부의 밤 행사(1997.3.19)

5) 전신자들의 9일 기도 봉헌과 성모 신심활동

성령 강림 대축일(1998.5.30)을 거룩히 맞이하며, 대희년 '성령의 해'에 본당에서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특별히 본당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향을 두고 전신자들이 '9일 기도'를 드렸다.

■ 전신자 9일 기도 지향

1일 : 대치2동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2일 : 대치2동 본당 사제들을 위하여
3일 : 우리 본당의 사제서품 준비 중인 김지형(제오르지오) 부제를 위하여
4일 : 대치2동 본당 봉사자를 위하여
5일 : 대치2동 본당 성직자, 수도자, 성소 증가를 위하여
6일 : 대치2동 본당 I.M.F로 고통 받는 신자들을 위하여
7일 : 대치2동 본당 청소년들을 위하여
8일 : 대치2동 본당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9일 : 대치2동 본당 은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8년 사제들이 복음 선포의 직무를 되새기고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예수 성심 대축일을 '사제 성화의 날'로 정하였다. 본당 신자들은 성전에서 성체를 현시한 가운데 사제 성화를 위하여 1998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부터 오후 7시까지 성체조배와 기도를 드렸다. 구역별로 기도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였으며 329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1998년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9일 기도를 봉헌하며, 두 번의 금요일을 북한 동포를 위한 단식일로 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에 본당 신자들도 1998년 8월 6일부터 9일 기도 봉헌과 단식에 함께 참여하였다.

한편 1998년 성모승천대축일 12시 미사에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의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33일 완전한 봉헌'을 준비한 교우들의 봉헌식이 있었다. 봉헌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조창수 신부의 3회에 걸친(1998.7.31, 8.7, 8.14) 루도비코 영성수련 특강이

있었으며, 봉헌자의 내적 준비로는 고해성사, 외적 준비로 자신의 삶의 정리, 개인 봉헌 편지를 준비하였다.

▲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33일 완전한 봉헌식(1998.8.15)

그리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생활할 것을 다짐하면서, 신자들의 특별한 전구와 은총도 청하는 성모의 밤 행사(1997.5.24, 1998.5.9)를 가졌다.

6) 주일미사 참여율 조사와 교적 전산화 작업

이상훈 신부는 부임 후 첫 사목회의를 주재하며 본당 통계자료의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너무 엉성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사목 자료정리와 관리를 개선하기 시작하였으며, 기획분과는 본당 사목활동의 지표로 삼기 위해 1997년 2월 16일 주일미사에 참여한 교우의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적부에 올라있는 총 교우 8,149명 중에 미사에 참여한 교우는 3,00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미사 참여율은 36.8%였다. 그리고 남녀의 비율은 남자 31.7%, 여자 40.7%로 나타났으며, 여성 교우의 미사 참여율이 조금 높았다. 이 조사를 연말까지 매월 한 번씩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7년 4월부터 그물시스템에 의뢰하여 교적 자료를 입력하고, 본당 교적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제2장

소공동체 운동과 첫 사제 탄생

1. 소공동체 정착을 위한 노력

1) 가정방문 사목과 구역 지구별 편제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와 사제와 신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신자들의 가정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문하는 사목활동을 펼쳤다. 이상훈(리노) 주임신부와 조창수(토마스 아퀴나스) 1보좌신부, 이충열(티토) 2보좌신부가 각각 지역을 나누어 방문하였으며, 구은순(율리아나) 원장수녀와 강영숙(마르가리타) 수녀, 송숙녀(데레사) 수녀도 동행하였다.

가정 방문시 가정 축성과 안수, 신앙 면담, 고해성사 등을 주었으며, 이를 위해 각 가정에서는 십자가, 초, 성수, 성가 책,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준비하였다. 해당 구역의 가정방문을 하는 동안 김성자(체칠리아) 총구역장과 구역장, 반장들은 가정방문, 특히 쉬는 교우들의 가정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봉사하였다.

▶지역별 가정방문 일정

지 역	가정방문 일정
1지역 (은마, 현대아파트)	1997년 3월 4일~6월 27일
2지역 (미도아파트)	1997년 3월 4일~3월 20일
3지역 (쌍용, 우성1, 2차, 대치구마을)	1997년 3월 11일~3월 21일

▶1997년 구역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본 명	담당구역
위원장	김성자	체칠리아	총구역장
총 무	엄정숙	요세피나	부총구역장(1지구장)
회 계	김명숙	클라라	부총구역장(2지구장)
	홍영주	아녜스	부총구역장(3지구장)
1구역장	조선학	레지나	은마 1~5동
2구역장	최혜숙	가타리나	은마 6~10동
3구역장	엄정숙	요세피나	은마 11~15동, 현대 101동
4구역장	이은주	안나	은마 16~20동
5구역장	마영애	체칠리아	은마 21~26동
6구역장	송금자	젬마	은마 27~31동
7구역장	강인숙	가타리나	미도 101~105동
8구역장	김현자	안나	미도 106~111동
9구역장	조윤자	루치아	미도 201~207동
10구역장	홍영주	아녜스	미도 208~212동
11구역장	이상진	루치아	쌍용 1~10동
12구역장	김명숙	클라라	대치우성 1~7동
13구역장			대치우성2차 201~206동
14구역장			신해청 1~6동
15구역장	이춘자	마리아 막달레나	대치3동 942~988

한편 이상훈 신부는 1997년 1월 7일, 신자 가정방문에 앞서 구역 반 재조정과 지구별 관리를 새롭게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5구역 108개반으로 조정하였고 공석 중인 반장을 신규 임명하였다. 그리고 본당 구역을 3개 지구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지구장 제도를 실시하였다. 1지구는 은마 1~6구역 51개반을 엄정숙(요세피나) 지구장이, 2지구는 미도 7~10구역 25개반을 김명숙(클라라) 지구장이, 3지구는 쌍용, 우성 11~13, 15구역 32개반을 홍영주(아녜스) 지구장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역 반장단 피정을 용인 나눔의 집(1997.1.15)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지구별로 구

역 반장 야유회(1997.5.7)를 다녀왔었다. 1지구는 치악산으로, 2지구는 청계산으로, 3지구는 용문산으로 떠나 이상훈 신부와 구은순(율리아나) 원장수녀, 구역 봉사자 등 112명이 자연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등산모임을 가지며 친교를 나누었다.

한편 5월 21일에는 반장학교 1단계 수료자 10명에게 수료증, 신임 반장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4월에 반장학교 2단계 교육(5.29~6.26)에 20명이 참가하였으며, 4월 23일에 반장미사 및 반장회의 때 신임 반장 8명에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2)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소공동체' 특강 실시

본격적인 신자 가정방문이 시작될 때인 1997년 3월 9일(일), 대강당에서 상임위원, 각 단체장, 남성 구역위원 및 분회장, 여성구역장 및 반장, 레지오 단원, 일반 신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무국장인 박기주(미카엘) 신부의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소공동체' 초청 특강이 실시되었다.

이 초청 특강의 배경에는 서울대교구가 대희년을 맞이하여 '2000년대 복음화'의 핵심인 소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가는 가운데, 본당 신자들에게 소공동체 운동의 의미를 일깨우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동안 본당은 설립 초기부터 각 구역 반모임, 사도회 등을 조직하여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복음나누기 7단계를 통해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하지만 소공동체 모임의 참여를 높여야 하고 아직도 신자들이 소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특히 남성의 경우 조직화되지 못한 구역이 있어 본당의 소공동체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봉사자 교육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3) 남성 구역분과 신설과 소공동체의 활성화 추진

이상훈 신부는 부임 후 다음 해인 1997년 1월 7일에 남성 사도회 지구장제도를 여성구역과 같이 운영하였다. 이로써 남성 사도회의 조직을 보다 체계화하며, 소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그래서 은마구역(1~6구역)을 차일성(이냐시오) 1지구장이, 미도구역(7~10구역)을 이지연(그레고리오) 2지구장이, 쌍용, 우성구역(11~15구역)을 최세훈(유스

티노) 3지구장이 담당하도록 임명하였다. 또한 이상훈 신부는 사도회 미결성된 구역인 제3구역(은마 11~15동)과 제2구역(은마 6~10동)을 1997년 1월 12일과 26일에 사도회에 직접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이충열(티토) 보좌신부는 24일에 제11구역(쌍용 1동~10동)을 방문하여 사도회 결성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두 달 뒤, 1998년 4월의 제5대 사목협의회 개편시 남성구역분과를 처음으로 신설하면서 그전까지 선교분과에 속하여 구역 남성신자 기도모임인 '사도회'를 여성구역과 같은 본당의 기초 구역 조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차일성(이냐시오) 초대 남성구역분과장과 구역장들이 남성신자들의 기초 공동체인 구역 조직을 갖추고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남성 사도회 분회장단 명단

직 책	성 명	세례명	담당구역
제 1구역 구역위원	차일성	이냐시오	은마 1~5동
제 2구역 구역위원	김진규	스테파노	은마 6~10동
제 3구역 구역위원	이종성	돈보스코	은마 11~15동, 현대
제 4구역 구역위원	이광규	스테파노	은마 16~20동
제 5구역 구역위원	김재근	에드문도	은마 21~26동
제 6구역 구역위원	심기용	요셉	은마 27~31동
제 7구역 구역위원	이상호	프란치스코	미도 101~105동
제 8구역 구역위원	문형진	안토니오그라시	미도 106~111동
제 9구역 구역위원	김성하	스테파노	미도 201~207동
제10구역 구역위원	이지연	그레고리오	미도 208~211동
제11구역 구역위원			쌍용 1~10동
제12구역 구역위원			대치우성 1~7동
제13구역 구역위원	최세훈	유스티노	대치우성2차 201-206동
제15구역 구역위원	김봉태	베드로	대치3동

자료 : 1996.12

한편 이상훈 신부는 1997년 4월 9일에 '사도회(남성 소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며'라는

제목의 두 페이지 분량의 유인물을 만들어 1992년부터 매달 실시해 오고 있는 남성 소공동체 활동인 '사도회'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2000년대 복음화의 의미와 소공동체 소개의 글, 본당 사도회 활동현황 등을 실었다. 이 자료에 실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도회 설립 초기인 1992년과 1993년에는 15개 구역별로 65개의 분회수와 260여명의 남성신자가 참석하고 있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1997년 1월 이전까지는 14개 구역에 35개 분회가 있었고 참여 남성 신자수도 100여명이었다.

이러한 이상훈 신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남성 소공동체의 조직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사도회 분회의 경우, 1997년 6월에는 15개 구역에 총 41개 분회가 결성되어졌으며, 사도회 참석 인원도 162명이 되었다.

4) '성가정의 날' 행사

본당 '성가정의 날' 행사가 1997년 5월 18일(주일), 도곡초등학교에서 이상훈 주임신부와 조창수 1보좌신부, 이충열 2보좌신부, 구은순(율리아나) 원장수녀와 강영숙(마르가리타) 수녀, 송숙녀(데레사) 수녀, 6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우천으로 순연되어 개최되었지만 본당 설립 이후 전 교우가 참여한 야외행사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각 사도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해왔던 야외행사 및 체육대회를 본당 차원으로 통합하여 실시한 것이었으며, 본당 모든 신자들의 신심 일체감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성가정의 날 야외미사(1997.5.18)

이날 행사는 운동장에서 오전 10시 미사봉헌으로 시작하여, 성가정상 시상, 초·중·고·일반이 참여하는 100m 달리기, 남·여 줄다리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3인 4각,

축구, 투호, 제기차기, 초등부 어린이의 이름찾아 달리기, 널뛰기, 초·중·고·일반의 이어달리기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모성심회, M·E, 여성 꾸리아, 자모회, 울뜨레야에서 김밥, 순대, 파전, 잔치국수 등을 준비하여 먹을거리 장터를 열었고 다양한 메뉴로 교우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였다.

▲ 성가정의 날 야외행사(1997.5.18)

그리고 행사장 곳곳에는 의료봉사 지원팀, 음향기기 조작팀, 소품 담당팀 등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쳐 행사의 진행을 순조롭게 도왔으며, 각 경기 끝에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또 원종균(아우구스티노)과 이옥순(가타리나)의 금혼식을 기념하는 전통혼례식은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으며, 한바탕 어우러진 축하 농악과 시상 및 폐회 성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맑은 날씨 속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폐회식까지 시종일관 활기차게 진행된 '성가정의 날' 행사는 대치2동 성당의 단합과 신심 일체를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적 사명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본당 성가정상 시상식이 특별히 있었는데, 그 선정기준은 ① 부모님을 모시고 ② 전 가족이 신자이며 ③ 냉담자가 없을 것 등으로서 다음의 아홉 가정이 특별히 수상하였다.

〈1997년 성가정상을 수상한 가정〉

김긍 (비오)	김인순(크리스티나) 가정
김정환(안셀모)	신성희(안젤라) 가정
류형훈(요셉)	장경자(마리아) 가정
송정근(스테파노)	정순욱(미카엘라) 가정
안순수(마티아)	유순희(안젤라) 가정
윤준달(루카)	우유순(엘리사벳) 가정
이수창(요한)	이경자(데레사) 가정
이용선(가예타노)	남혜옥(가타리나) 가정
최희석(시몬)	장운선(마리아) 가정

▲ 성가정상 시상(1997.5.18)

5)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성가정' 월간지 발행

월간인 '성가정' 지가 1997년 1월에 창간호로 제51호가 발행되었다. 남성신자 기도모임인 사도회를 시작하면서 그 안내를 위해 1992년 5월에 '사도회보' 를 2면으로 월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말까지 총 50호를 발행하여 면수는 16면으로 늘어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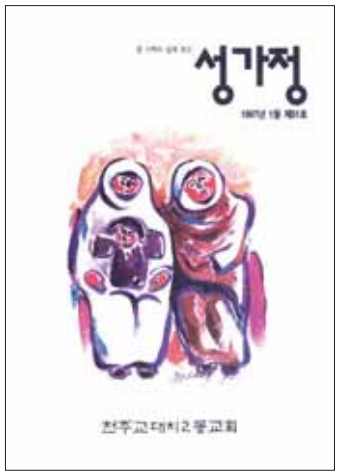
이상훈 신부는 '성가정' 지 창간 권두언으로 "지난 4년 동안에 매월 발행해 온 『사도회보』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본당이 가는 새로운 복음화의 길에 이 잡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며 지난 '사도회보' 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본당 공동체가 새롭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데 성가정지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성가정' 제51호는 나자렛 '성가정' 의 그림을 표지로 하고, 그 구성은 이상훈 주임신부의 권두언과 총회장의 취임사, 1997년 교구 사목교서, 보좌신부의 칼럼, 가톨릭 교리 해설, 교우 가정을 소개하는 성가정 순례, 영성교육 자료, 온가족이 풀어보는 퀴즈, 사도회 모임 등 총 44면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성가정지 첫 호(제51호) 발행을 1996년 11월경부터 준비하면서 교리실에 책상 하나에 컴퓨터 1대를 가지고 편집실을 열었다. 편집위원에 이재야(클라라), 전영애(엘리사벳), 그리고 사진은 채복례(제노베파) 등의 봉사자가 활동하였다. 제작은 봉사자들이 기획과 원고청탁, 편집 등의 작업을 직접 하였다. 이후 IMF 외환 위기 영향으로 칼라 표지에

서 흑백 표지로, 발행부수도 2,500부에서 2,000부로 줄였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이상훈 신부와 보좌신부, 수도자와 신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편집위원들과 기고자들, 봉사자들의 희생을 통해 매달 인기리에 발행되었다. 그 후 2001년 3월 제100호의 특집호를 발행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당시 100호 발행 때 고명철 본당 제3대 주임신부의 축사를 보면 성가정지의 역할과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 '성가정' 지 제51호-첫 호 표지(1997.1)

특히 남성 사도회와 여성 반모임, 청년 반모임의 교재로 활용됨은 물론 본당의 행사와 소식, 피정이나 특강의 지상중계 및 시기별 전례 설명, 교우들의 신앙 고백 등과 이웃에게 가톨릭을 소개하는 선교지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또한 당시 서울대교구에서도 성가정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홍보국(정웅모 신부)에서 표지의 그림과 해설을 1년간 맡아주었고, 각종 문헌과 자료의 도움을 주었다. 타 성당에서도 소식지를 만들면서 대치2동 '성가정' 지를 모범적인 모델로 삼았기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고명철 주임신부의 선종과 김병학 주임신부의 부임 이후 성가정지 발행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매달 월간지를 발행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2002년 6월 제115호를 끝으로 아쉬운 막을 내렸다

〈월간 「성가정」 발행을 위한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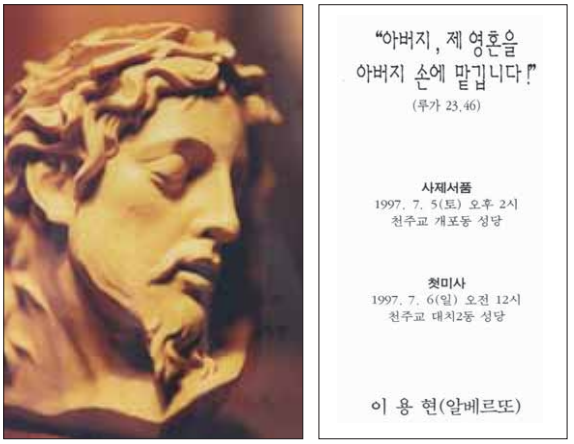
- 기획분과 : 유병국(마티아), 정길현(스테파노), 이재아(클라라), 이미영(안젤라)
- 기획/편집위원 : 이재아(클라라)(초대 편집장 : 1997.1~1998.10)
  전영애(엘리사벳)(제2대 편집장 : 1998.11~2001.12)
  김연숙(제3대 편집장 : 2002.1~2002.6)
  이미영, 소해경, 이혜민, 최혜순, 홍춘기
- 표지 그림 : 유하상(그레고리오)
- 사진 : 송진선(야고보), 채복례(제노베파), 정성희(가브리엘)

• 그림, 만화 컷 : 강규련(헬레나), 유하상, 김명옥, 유창영, 강민호, 김성은(가타리나), 우시현(아녜스)
• 퀴즈 : 송현철(라파엘), 김정숙(엘리사벳)

2. 본당 첫 사제 탄생

1) 이용현(알베르토) 신부, 본당 첫 사제 탄생

이용현 부제가 1997년 7월 5일(토) 오후 2시 개포동 성당에서 최창무(안드레아) 주교로부터 사제서품을 받음으로써 본당 출신의 첫 사제가 탄생하였다. 이용현(알베르토) 신부는 이정균(파비아노)과 김경자(제노베파) 사이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휘문중학교와 중동고등학교를 거쳐 가톨릭신학대학교를 졸업 후 1996년 7월 4일에 부제품을 받았다. 이용현 신부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처럼 자신도 사제가 되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고자 성소의 길을 걸었다. 또한 이를 따르고자 서품 성구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46)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용현 신부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가톨릭신학대학교 낙산중창단의 멤버로도 활동했었다. 그가 작곡한 '늘 그렇게'는 성 바오로 딸 수도회가 주최한 가톨릭 창작성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낙산중창단과 함께 녹음한 '코이노니아'가 음반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 이용현 신부의 상본(1997.7.5)

신자들은 대치2동 본당 첫 사제의 탄생을 있게 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르는 사제의 길을 걷도록 6월 25일부터 9일기도를 봉헌하였다.

2) 이용현 신부의 첫 미사 봉헌

▲ 이용현 신부 첫 미사 봉헌(1997.7.6)

이용현 신부의 첫 미사는 천여 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1997년 7월 6일 12시에 봉헌되었다. 이날 이상훈 주임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십 년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까지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신부의 길을 걷게 해주신 하느님과 부모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새 사제가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항상 기도하여야 하고, 또 신자들에게도 새 사제를 위하여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첫 미사 때 이용현 신부가 작사, 작곡하여 처음으로 발표하는 '당신의 한 조각 빛이 되게 하소서' 라는 노래가 미사 끝에 성가대의 열창으로 성전 가득히 울려 퍼졌다. 이어서 축하식과 축하연을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성대하게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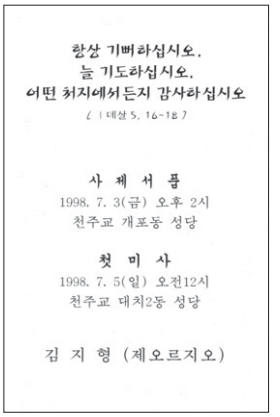
3) 김지형 부제 수품 및 사제 수품

▲ 김지형 신학생 부제 수품(1997.7.4)

김지형(제오르지오) 신학생이 1997년 7월 4일 개포동 성당에서 최창무(안드레아) 주교의 집전으로 부제수품을 받았다. 김지형 부제는 중학교 2학년때부터 막연하나마 성소를 품기 시작하였고, 중동고등학교 졸업 후 성소의 길을 걸었으며 1989년 가톨릭신학대학교에 입학한지 9년 만이었다. 그리고 1998년 7월 3일 오

후 2시에는 개포동 성당에서 많은 본당 교우들이 새 사제의 출발을 축하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최창무(안드레아) 주교의 집전으로 김지형 부제가 사제수품을 받았다. 본당 설립 이후 두 번째 사제 탄생이었다.

김지형 신부는 죽기까지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주님께 봉헌된 삶을 살기로 하였다. 서품성구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1데살 5,16-18)' 로 정하였다.



▲ 김지형 부제 사제 수품과 상본(1998.7.3)

4) 김지형 신부의 첫 미사

김지형 신부의 첫 미사는 1998년 7월 5일 12시에 이상훈 주임신부와 조창수 신부, 수녀와 가족들, 그리고 많은 본당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미사 후 축하식이 있었으며, 반장단의 정성으로 마련된 국수잔치가 있었다. 또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과 주일 6시 미사 참례 신자들에게는 사제서품 기념으로 빵을 나누었다,

3. 이어지는 성소와 성소후원회의 창립

본당 설립 이후 1997년에는 이용현(알베르토) 신부, 그리고 이듬해 김지형(제오르지오)

신부로 이어진 연속적인 본당 출신 사제 서품은 신자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은총의 시간이었다. 또한 사제 서품을 계기로 본당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는 성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97년 3월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1학년으로 입학한 임민균(그레고리오) 신학생의 성소가 있었다.

한편 1997년은 본당 첫 사제의 탄생, 첫 부제의 탄생, 본당 설립 후 첫 신학교 입학을 계기로 성소후원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상훈 신부는 본당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를 계발하고 후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997년 5월, 후원에 동참할 회원을 모집하고 6월 6일 성소후원회 창립미사 및 첫 총회를 개최하였다.

성소후원회는 정기적으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0시에 봉헌하고 매월 둘째 주일 매 미사 전후 신규 회원 가입 및 회비 접수를 받았다. 임원진은 회장에 장충현(리노), 부회장 박명숙(크리스티나), 총무 문형진(안토니오 그라시), 조임(미카엘라), 회계는 임은숙(소피아), 간사는 1지역 이정숙(데레사), 2지역 박경심(마리안나), 3지역 이성이(유스티나)가 봉사하였으며, 초기 후원회원을 위한 연풍 성지(1997.11.6)와 배티 성지(1998.11.5) 순례를 가졌다.

제 3 장

신앙생활의 내실화와 단체활동

1. 선교활동과 신앙교육

1) 예비신자 교리와 영세

이상훈 신부 재임시 교구 선교국에서 발행한 월간지인 '지금 그대 어디에' 300부를 매월 받아서 선교활동을 위한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 교리반 운영은 직장인반은 목요일팀과 금요일팀 2개반, 부녀, 노인반은 금요일 1개반으로 편성하였다. 1996년 12월 1일에 예비신자 교리가 시작되어 10개월 뒤 영세식(1997.9.28)이 있었고, 1998년에는 예비신자 환영미사(1998.2.1)를 시작으로 11월 8일에 중·고등부 영세식, 11월 15일은 청년 영세식, 12월 12일 에는 성인 영세식이 각각 있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세례를 받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1997년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비자 교리 특강을 실시하였다. 교리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조창수(토마스 아퀴나스) 신부가 맡았으며, 교리 시간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도록 하였다. 단기간의 교리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 이번 특강에는 외짝교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12월 21일에 223명이 세례성사를 받았다.

또한 아직 한국말을 잘 모르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생활영어를 할 줄 아는 영어회화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성서교리반(1998.3.7~6.30)을 모집하였으며, 그 첫 모임을 3월 7일 소강당에서 가졌다. 그리고 가톨릭 교리통신 교육회에서 통신교리를 수강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신교리 수료자 보강 교리교육을 매년 실시하였다.

한편 예비신자 부녀반이 미리내 성지로 성지순례(1997.4.25)를 다녀왔으며, 조창수 신부 지도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예비신자 피정과 성지순례(1997.9.7)를 하였다. 그리고 새 영세자 일일피정(1997.10.26) 및 첫 고해성사(1998.2.22)가 있었다.

▶영세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6년		1997년		1998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16	153	213	214	98	130
계	269		427		228	

그리고 초등부 첫 영성체 예비자 모집은 반드시 부모님 중의 한 분이 영세한 분이여야 하고, 주요 12기도문을 암기한 후 각 교리반이나 사무실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첫 영성체 교리는 유아세례를 받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대강당에서 첫 모임(1998.4.18)을 가졌으며, 6월 6일에 첫 영성체가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신부는 부모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하였다.

▲ 첫 영성체 기념 (1997.5.31)

▶첫 영성체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6년		1997년		1998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29	34	16	22	24	18
계	63		38		42	

2) 견진교리와 견진성사

1996년 견진성사는 10월 27일에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이, 1998년은 5월 31일에 최창무(안드레아) 주교 집전으로 거행되었으며, 1997년은 견진성사가 없었다. 1998년 견진교리의 특징은 1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견진교리를 실시함으로써 신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날을 선택하여 교리반에 등록하여 더욱 많은 교우들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견진성사 기념(1996.10.27)

▶견진성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6년		1997년		1998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21	205	–	–	133	245
계	326		견진성사 없음		378	

▶1998년 견진교리 시간과 내용

일 자	내 용
1차 (1/10일~3/14일)	견진교리
2차 (3/21일~5/23일)	견진교리를 겸한 마태오 복음 특강
3차 (5/25일~5/30일) 오전 11시 (주부반) 4차 (5/25일~5/30일) 저녁 8시~9:30분 (중고생, 대학생, 직장인반)	25일(월) : 성령과 성사 26일(화) : 예수그리스도 27일(수) : 성사생활의 중심인 성체성사 28일(목) : 그리스도 신자의 기도생활 29일(금) : 한국 교회사와 평신도의 역할

3) 복음화 지도자 교육 실시

서울대교구는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 라는 사목지침을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우선 교구는 1992년 '2000년대 복음화 본당 조직에 관하여' 라는 공문을 통해 각 본당 상황에 맞는 운영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상훈 신부는 1996년 11월에 제4대 사목협의회 개편시 '2000년대 복음화위원회' 를 설립하며, 이수홍(스테파노)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교구 복음화사무국과 평신도사목국이 추진하는 본당 복음화 교육팀 양성과 지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복음화 지도자 교육(남성구역장 학교 제1단계) 수료자가 1996년 12월말에 16명으로서 김성자(체칠리아), 마영애(체칠리아), 김명숙(클라라), 이춘자(유스티나), 송진선(야고보), 김광선(바실리오), 이주영(아우구스티노), 전영애(엘리사벳), 이광규(스테파노), 유성하(베드로), 김군배(요셉), 노치권(가브리엘), 노종성(바오로), 김성수(라우렌시오), 이광규(스테파노), 이인수(요아킴)이었다.

또한 복음화교육 특별과정(1997.2.15~2.16)에 27명이 참석하였으며, 1997년 3월에는 제5기 남성구역장 학교를 6명이 수료하였다. 이렇게 복음화를 위한 소공동체의 활동을 잘 지도하기 위한 지도자 교육을 수료한 복음화 지도자 학교 1, 2단계 수료자, 남성, 여성 구역장학교 1, 2단계 수료자, 복음화 교육 특별과정 수료자들이 중심이 되어 본당 복음화 교육팀을 맡는다는 것이 이상훈 신부의 사목방향이었다.

4) 사순, 대림특강과 신자 재교육

1997년 사순절 특강에는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대구 월배 수도원장인 김인규(토비아) 신부를 초빙한 특별강론이 있었다. 5주간 실시된 특강에서는 제1주 회개의 삶(1997.2.20), 제2주 믿음의 삶(1997.2.27), 제3주 죄(1997.3.6), 제4주 기도(1997.3.13), 제5주 사랑(1997.3.20)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순시기 중 매 주일마다 봉헌된 2차 헌금(1천 5백만원)은 인천교구 가톨릭대학교와 클라라 수도회의 건축기금으로 보내졌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1998년 사순절 특강은 총 5회

(3.5~4.2)로 진행되었으며, '희년과 성령의 역사하심' 주제로 한연흠 신부, 이범주 신부, 송광섭 신부가 강사로 초빙되어 강론하였다.

한편 대림시기 특강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결심과 실천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로써 대림시기동안 특별강론이 마련되었다. 1997년의 경우 매주 목요일(12월 4일, 11일, 18일)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0년 희년, 희망과 변혁의 해' 주제로 상도동 주임신부인 함세웅(아우구스티노) 신부가 특별 초청되었다. 그리고 IMF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전 건립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교구 내 6개 성당(낙성대, 망우동, 신림4동, 인창동, 등촌3동, 백석동)에 도움을 주고자 대림기간 중 2차 헌금을 봉헌하였으며, 봉헌된 10,028,630원을 해당 성당에 적절하게 배정하여 보내졌다.

한편 신자들과 비신자인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양 특강이 마련되었으며, 신자들을 위한 영성심화 특강도 실시되었다.

▶교양 특강과 영성심화 특강

날 짜	주 제	강 사
1997.4.24	생명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빛	박홍(루카) 신부
1997.5.7~21	부모에게 약이 되는 프로그램 – 성격유형	정영애(마르타)
1997.6.26	내 인생 나의 구현	최영배(비오) 신부
1997.10.24	자매님들을 위한 미술강좌	유화상(그레고리오) 교수
1998.3.9, 3.16	기도방법과 영성수련 특강	조창수 신부
1998.6.6	견진축하기념 영성수련 특강 '이냐시오 묵상'	
1998.6.15	영성수련 특강 '하느님의 경제학'	변희선 신부
1998 6.18	성모성심회 특별교양강좌	두봉(레나도) 주교
1998.7.30	몽포르 성 루도비코 영성수련 요약강의	조창수 신부
1998.9.3~10.8	건강과 한방특강	경희한방병원 교수진

5) 판공성사와 교무금 책정

이상훈 신부는 1996년 성탄 판공성사에서 구역 반장을 통하여 성사표를 신자 각 가정에 전달하였으며, 성사기간 중에 신자들은 사무실에 와서 새해 교무금을 책정하고 전 가

족 성사표에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성사를 보도록 하였다. 당시의 교무금 책정 상황(1997년 1월 15일 기준)을 살펴보면 대상 2,514 세대 중에서 책정 세대수가 1,044 가구로 책정비율이 41.5%가 되었다.

▶판공성사 현황(1996~1998) (단위 : 명)

판공성사 기간	판공성사 본 인원
1996년 성탄 판공성사(12.9~12.21)	4,352 명
1997년 부활 판공성사(2.24~3.26)	3,496 명
1997년 성탄 판공성사(11.30~12.21)	4,352 명
1998년 부활 판공성사(3.17~4.2)	3,020 명
1998년 성탄 판공성사(11.29~12.19)	3,148 명

2. 사도직 단체의 신설과 활동

1) 부부성가대 창립

부부가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며 신앙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찬미,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부부성가대(현 바다의 별 성가대) 첫 모임이 1997년 1월 28일에 있었다. 2월 14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매주 낮 12시 주일미사에 정기 봉사를 하였다. 부부성가대가 설립되므로서 장년성가대와 함께 본당에는 성인 2개의 성가대가 있게 되었다. 주종익(김제준 이냐시오) 단장과 이안기(안셀로) 지휘자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창립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단체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1997년 7월 13일(일) 12시와 20일(일) 12시 미사 봉헌을 하며 활동회원과 명예회원 가입신청을 받기 시작

하였다. 이를 위해 20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중앙 이사회 지도신부인 김정남(바르나바) 신부가 본당에서 주일미사 집전과 강론이 있었다.

그 후 11월 16일(일) 12시 미사 봉헌과 창립총회를 가지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상훈 신부는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본당 빈첸시오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신심행위와 자선행위의 진정한 의미대로 활동할 것이며 은인으로서 대접받기보다 가난한 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의 정신을 회원 각자의 행실로써 드러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활동(1998)

주요 활동은 불우이웃 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지원, 불우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환자와 장애자, 무의탁 노인들의 사회복지시설 입소 추진 등이며, 권혁노(프란치스코) 회장과 김명승(프란치스코) 부회장, 원명숙(율리아나) 부회장, 이병란(스텔라) 서기, 신흥자(마르가리타) 회계 외 12명의 창립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3) 한마음공동체의 활동

한마음공동체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운영된 단체로서 성 빈첸시오회와 뜻을 같이하는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역과 남대문 근처의 노숙자를 위하여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을 운영하였다. 1998년 5월에 서울역 근처 후암동에 식당을 하던 허름한 가게를 계약하여 그해 8월 15일부터 운영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본당 많은 신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밥솥이나 국솥 등도 모두 신자들이 각자 준비하였다.

그리고 봉사자들은 각 레지오 단원들과 성 빈첸시오 회원 그리고 본당 신자들과 인근 성당의 신자들이 요일별로 나누어 봉사하였으며, 음식을 만들어 하루에 1,000~1,200명의 노숙자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였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진료봉사도 하였으며,

추운 겨울에는 서울역, 남대문 주위와 지하도 등을 돌면서 따뜻한 차와 점퍼, 옷 등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4) 경로잔치와 나눔행사

▲ 본당 노인경로잔치(1997.2.5)

이상훈 신부의 의중에 따라 노인분과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1997년 2월 5일에 대강당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본당의 지원과 각 단체로부터 많은 찬조를 받아 15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대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척사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어른 모시는 경로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산정호수로 경로 야유회(1997.5.28), 배론성지로 경로 성지순례(1997.10.15)를 다녀왔다.

사회복지분과는 1997년부터 요셉의 집 외 의료봉사를 매월 3회 이상 실시하였고, 나환자 마을인 상록촌 외 14곳 등에 재정보조와 후원활동을 하였다. 또한 사회기관시설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로 하여금 잠시 즐거운 추억을 갖게 해주기 위한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김포 프란치스코의 집 장애자 가족과 정릉 안나의 집 등의 할머님들과 함께 42명이 제주도 나들이를 다녀왔으며, 매년 2박 3일 일정으로 이러한 여름 캠프를 진행하였다. 또한 매월 2주~4주차 주일에 실시된 신자들을 위한 상담활동도 의료 35건, 세무 46건, 법률 27건 등(1996.7~1997.6)이였으며, 헌혈행사(1997,6.8)에도 68명의 신자들이 동참하였다.

5) 사도직 단체의 활동

이상훈 신부 재임기 동안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은 샛별 꾸리아에서 상지의 옥자 Pr.(1997.12.16), 애덕의 모후 Pr.(1998.1.4) 두개 쁘레시디움이 신설되었으며,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는 창조주의 모후 Pr.(1997.11.11), 복되신 어머니 Pr.(1998.6.8), 순교자들의 모후 Pr.(1998.7.6) 등 세 개의 쁘레시디움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샘 꾸리아는 평화의 모후 Pr.(1997.8.26)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인자하신 모후 꾸리아, 사랑의 샘 꾸리아는 합동으로 배론성지 순례(1996. 9.10), 전단원 연도 교육(1997.1.21~1.28)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들꽃마을 최영배(비오) 신부를 초청하여 '사랑의 이치를 터득하면 팔자도 고쳐 살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합동피정(1997.6.10)을 가졌으며, 소속 36개 Pr. 400여명의 단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샛별 꾸리아는 풍수원과 배론 성지(1996.9.10), 연풍성지 순례(1997.11. 9)와 과천 성모영보수녀원에서 김영진(바르나바) 신부 지도로 전단원 봉쇄피정(1997.6.21), 변희선(안셀모) 신부 지도로 전단원 봉쇄피정(1998. 6.20~6.21)을 가졌다. 그리고 1997년 8월까지 레지오 1단계 교육에 34명이, 2단계 교육에 18명이, 3단계 교육에 20명이 수료하였다.

그리고 울뜨레아는 1997년 10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 울뜨레아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이충열(티토) 신부, 류형훈(요셉), 서호경(체칠리아), 김정희(아녜스), 유신재(에드문도) 등 18명이 꾸르실료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1997년 8월까지 본당의 꾸르실리스따는 남성 63명, 여성 61명이었다.

M·E는 하남 조정경기장에서 야외 쉐어링(1996. 11. 3)과 '참 부모 되는 길' 일일피정(1997. 4. 20)에 90여 부부가 참석하였고 수지 성모교육관에서 서공석(요한) 신부 지도로 '참 부모 되는 길Ⅱ' 일일피정(1998. 9. 13)을 가졌다.

성모성심회는 혼배미사시 폐백 봉사와 매월 2~3회의 생필품 판매봉사, 그리고 예비자 교리봉사를 1996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예비신자 환영식 준비 및 매주 금요일에 노인, 부인반에 봉사하였다. 또한 과천 수목원(1997.5.15)과 과천 어린이 대공원(1998.5. 21)에서 야유회를, 본당 성당 마당에서 알뜰시장 큰잔치(1997.10.5)를 열었고 배론성지 순례(1997.10.23)와 두봉(레나도) 주교를 초빙하여 교우들을 위한 특별 교양강좌(1998.6.18)를 실시하였다.

연령회는 제주 관덕정 성지 순례(1996.10.16)를 하였고, 노장 대건회는 배론성지로 순례(1996.10.7)를 다녀왔다. 그리고 성체분배자회는 수지 성모교육원에서 성체분배자 피

정(1997.11.8~11.9)을 하였다,

주일학교 자모회는 척사대회(1997.2.13), 사랑의 씨튼 수녀원(1997.3.13)과 수지 성심교육관(1998.3.19)에서 일일피정을 가졌고, 자모회원 40명이 배론성지로 순례(1997.5.22)를 다녀왔다. 그리고 정명애(마르타) 강사를 초청하여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성격 유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1997.5.7~5.22), 1997년 12월에는 자모회원들이 본당에서 유자차, 포도쥬스 판매를 실시하여 이익금으로 주일학교 여름방학 캠프 간식, 영세식 준비, 어린이날 선물, 성탄 선물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복사단 자모회는 미리내 성지(1996.10.16)와 배티성지 순례(1997.11. 12)를 하였으며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일일피정(1997.6.9)을 가졌다.

3. 성경공부와 나눔활동

1) 어버이 그룹성서

말씀의 봉사자회가 주관하여 어버이 그룹성서의 모든 반원들이 솔뫼로 성지순례(1996.10.7)를 다녀왔으며, 12월에는 어버이 그룹성서 16개반, 153명이 수료(봉사자 16명)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룹 개설과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2개의 반이 개설되었다. 이듬해 1997년은 어버이 그룹성서 18개반 169명이 수료하였으며 12월 5일에 수료미사와 수료식이 있었다. 1998년 어버이 그룹성서는 19개반 168명이 수료(봉사자 19명)하였다.

2) 성서못자리

성서못자리는 조창수 신부가 강의를 담당하였다. 성서못자리 1권을 끝마친 수강생 180여명은 책거리 행사로 해미성지로 순례(1997.4.14)를, 2권을 끝낸 수강생들은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일일 피정(1997.6.9), 그리고 3권을 마친 수강생 120여명은 청양 다락골 성당

으로 성지순례(1997.10.27)를 다녀왔으며, 성서못자리 수료식(1998.6.15)이 있었다.

그동안 성서못자리는 조창수 신부의 열강으로 1997년 2월 3일, 제1권을 시작으로 제5권을 마감하는 날까지 1년 5개월 동안 총인원 1,600여명의 신자들이 수강하였으며, 5권까지 마친 수강생 중 162명은 수료식과 더불어 성서못자리 봉사자 자격이 주어졌다. 또한 각권이 끝날 때마다 미사 봉헌금으로 북한 동포돕기 지원과 교도소, 군종후원회로 성경을 보내는 나눔활동을 하였다.

한편 1998년 성서못자리 종강미사(11.23) 후 대강당에서 '사랑이 넘치는 기도하는 성가정' 이란 제목으로 안병철(베드로) 신부의 종강특강이 있었다.

▶성서못자리 강의목록

교 재	수업기간	수강 시간
제1권	1997.2.3~5.5(매주 월요일)	주부반 오전 11시~12시 30분 직장인반 오후 8시~9시 30분
제1권 특강	1997.5.6(화)~5.10(토)	매일 저녁 8시
제2권	1997.5.12~7.21(매주 월요일)	주부반 오전 11시~12시 30분 직장인반 오후 8시~9시 30분
제1~2권 영신수련특강	1997.8.25~8.30(매일)	주부반 오전 11시~12시 00분 직장인반 오후 8시 30분~10시 10분
제3권	1997.9.1~12.7(매주 월요일)	주부반 오전 11시~12시 30분 직장인반 오후 8시 ~9시 30분
제4권	1997.12.8~1998. 3.16(매주 월요일)	주부반 오전 11시~12시 30분 직장인반 오후 8시~9시 30분
마르코복음 특강	1998.1.10~1999.3.14(매주 토요일)	저녁 8시~9시 30분
제5권	1998.3.23~6.15(매주 월요일)	주부반 오전 11시~12시 30분 직장인반 오후 8시~9시 30분
영성수련을 겸한 루카복음 나눔터	1998.6.20~8.24(10주간)	주부반 매주 월요일 11시 직장인반 매주 토요일 8시
영성수련을 겸한 요한복음 나눔터	1998.9.5~10.9	

3) 나눔과 후원활동 전개

성 빈첸시오회는 설립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양로원, 고아원 등 여러 단체에 후원금 및 물품 지원과 중증 장애인이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이웃에 생활 보조금 및 학자금 지원 등의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였으며, 활동을 중단한 후 잔액 983,000원을 본당에 입금시켰다. 이후 모든 나눔의 재정을 본당의 13개월 교무금 기금을 지원받아 사목협의회 사회사목분과의 나눔회에서 집행하였다.

▶빈첸시오회 나눔활동

기 간	나눔 내역	금액
1997.5.23~12.31	개인지원, 단체지원, 지정기탁금	10,753,000원
1998.1. 1~12.31	개인지원, 단체지원, 지정기탁금	45,865,000원
1999.1. 1~1.27	개인지원, 단체지원, 지정기탁금	2,890,000원

그리고 1997년에 여성구역은 3,108,000원을, 성모성심회는 6,170,000원을 후원하였다. 한마음 한몸 운동을 위한 헌미헌금은 1996년 16,698,500원과 1997년 5월 18,109,980원, 9월 6,420,000원, 1998년 5월에는 16,396,320원, 9월엔 4,843,130원이 전달되었다.

또한 어려운 사정의 타 성당을 지원하는 일에도 신자들의 나눔은 계속되었는데, 갈말성당 성전신축 후원(1997.11.9)에서 신립약정액이 53,280,000원, 헌금 6,027,190원이 봉헌되었다.

한편 사회사목분과가 중심이 되어 본당 신자들의 생명 나누기 '헌혈' 행사가 매년 계속되었으며, 1996년 11월 17일에 80여명이, 1997년 6월 1일에는 200여명, 1998년 6월 28일에는 53명의 본당 교우들의 참여가 있었다. 그리고 성모성심회 주관으로 불우이웃 돕기 알뜰시장(1997.10.5)이 성전 마당에서 열렸으며, 9월 한 달 동안 교우들로부터 주방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 150여 만원을 연말에 불우이웃을 도왔다.

4. 청년 소공동체 조직과 청소년 활동

1) 청년연합회 설립 및 활동

조창수 신부의 지도로 청년단체의 각 단체장들이 모여 1998년 2월 3일에 청년연합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과천 영보수녀원에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청년연합회 피정을 가졌다. 피정에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전례부, 성서모임, 레지오 등 여섯 개의 청년단체에서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11지구 제1회 청년연합회 체육대회(장소 : 수도공고, 1998.5.5)에 참가하여 본당 청년단체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년연합회는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모아 1998년 12월 22일,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목위원회에 45박스(1,500여권)를 전달하는 나눔활동을 펼쳤다.

※ 청년연합회 초대 임원 명단

- 회 장 : 신재민(요한)
- 부 회 장 : 이숙경(엘리사벳)
- 총 무 : 김현기(스테파노)
- 서 기 : 김윤지(디오니시아)
- 회 계 : 이나리(마리아)

2) 청년신자 사목방문과 청년 소공동체 조직

청년사목을 맡은 조창수 신부는 미래 교회의 희망인 청년신자들의 신심 고양과 청년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년신자 중심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상훈 주임신부에게 사정을 보고한 후, 보다 체계적인 사목방문 준비를 위해 로마 교황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35세까지의 본당 청년들의 교적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적 상에 올려있는 미혼 청년신자의 수는 1,911명, 부모가 신자임에도 영세를 받지 못한 청년의 수도 441명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창수 신부와 청년연합회는 의논 끝에 10주간의 청년신자 사목방문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방문에 앞서 청년 사목방문의 주제를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라고 정하고 방문시 청년들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간단한 청년 사목방문 안내지를 만들었다.

또한 청년단체에서 추천 받은 1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아 사목방문 지침에 따라 봉사자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해당지역 모임 1주일 전에 모임시간과 장소를 적어 알림장을 보내며 참석을 유도하였고, 모임의 장소를 제공해 줄 가정에서 준비할 것과 감사의 편지도 함께 발송하였다.

▲ 청년 사목방문시 미사 봉헌(1998.8)

한편 청년신자 사목방문시 미사와 나눔을 하며, 그 자리에서 청년반장과 구역장을 임명하였다. 그래서 한 주일의 사목방문을 마친 후 청년 반모임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이들과 간단한 다과회와 나눔을 하며 '엠마오의 길에서' 라는 주제로 구역별 소공동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청년구역은 1지역은 6개 구역 13개 반, 2지역은 4개 구역 8개 반, 3지역은 4개 구역 9개 반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청년구역 반장단을 구성하여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 청년 반모임의 날로 정하고 1998년 9월 23일 오후 8시부터 반모임을 시작하였다.

또한 청년구역 반장들은 청년 예비신자들이 교리공부를 하는 10주 동안 매주 교리시간에 봉사자로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청년 반모임에 나오도록 안내하였다. 방학을 이용한 9주간의 방문과 구역별 소공동체 교육이 끝나고 10주째 되는 9월 13일에는 전체 청년신자를 위한 환영미사와 만남의 잔치를 가졌다. 9월 26일에 정릉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에서 반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장단 첫 피정을 가졌다 .

※ 청년 반장단 초대 임원 명단

- 회장 : 윤주현(돈보스코)
- 부회장 : 김지영(마리 스텔라)
- 총무 : 홍정의(야고보),
- 서기 : 김지현(헬레나)
- 회계 : 유필재(라파엘)

3) 청년 성경공부의 활성화

▲ 청년 사목방문시 나눔의 시간(1998.8.12)

본당 성인 신자들의 성서못자리 성경공부의 열풍에 힘입어 청년들도 성서못자리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으며, 이충렬 신부의 강의로 1997년 6월 1일부터 매 주일 청년미사 후 있었다. 이후 조창수 신부 지도로 1998년 3월 1일부터 18주간 강의로 진행되었다.

가톨릭 청년 성서모임은 1997년 9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성경과 간단한 문답집을 중심으로 1명의 봉사자와 4~5명의 그룹원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주 1회 성경공부를 하였다.

4) 청년단체의 활동

학생부, 청년부 소식을 다루는 '다래마음'이 1997년 3월 30일 부활대축일부터 본당 주보를 2면으로 증쇄하여 출간되었다. '다래'란 '다함께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순우리말로서, '다래마음' 첫 호에는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소식과 청년단체 소식 등을 담았다. 다래마음 편집은 이고은(에스테), 김은지(다오니시아) 편집위원이 봉사하였다.

그리고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단은 1997년 4월 6일에 도곡동 현대체육관에서 초·중·고등부 현역 교사들과 전임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충렬(티토) 신부와 송숙녀(데레사) 수녀도 참석하였으며, 교사들이 농구와 피구 등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펼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칫 서먹할 수 있는 초등부 교사와 중·고등부 교사들 모두가 마음의 일치를 느낄 수 있었다.

▲ 제2회 한울림성가발표회(1998.9.26)

ᄒᆞᆫ울림성가대는 1993년 3월 14일에 15명 남짓한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면서 제1회 ᄒᆞᆫ울림 성가 발표회(1996.10.3)를 시작으로 ᄒᆞᆫ울림의 밤 행사(1997.12.19), 제2회 ᄒᆞᆫ울림 성가 발표회(1998.9.26)를 가졌다.

또한 본당 첫 청년 레지오 마리애인 '원죄 없으신 모후 Pr.' 이 1994년 11월 5일에 해단된 후 '티없으신 어머니 Pr' 이 1996년 9월 1일 샛별 꾸리아 소속의 청년 레지오 마리애로 두 번째 설립되었다. 초창기 청년 레지오의 활성화를 위해 임희성(엘리야) 형제가 1년 동안 단장을 맡아 수고하였으며, 그 후 청년 단원이 단장을 맡게 되었다.

5) 초·중·고등부 활동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유치부, 초등 1, 2학년)는 본당에서 실시하였고(1997.7.17~7.19, 1998.7.17~7.18), 초등부 무지개동산(초등학교 4~6학년)은 1998년에는 가평 계성 청소년 수련원(7.21~7.23)에서 하였으며, '꼬마들의 성탄' 성탄예술제도 매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초등부 주일학교는 1997년 10월 26일 오후 3시, 11개 팀이 참가한 역삼동 성당에서 열린 11지구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대회에서 지정곡인 '내 증인 되리라' 와 자유곡인 '꼬마 마르첼리노' 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다음 해 본당에서도 11지구 어린이 성가대회를 개최(1998.10.11)하였다.

한편 초등부 주일학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孝)' 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특강(1997.6.3~6.21)이 총 6회에 걸쳐 있었다. 초등 6학년부터 1학년, 유치부까지 학년별로 각각 특강을 실시하였고, 강의는 청년분과 은희환(베드로)이 맡았다.

▲ 초등부 신앙학교(1998.7)

복사단은 천마산 여름캠프(1996.7.29), 강원 성우리조트 겨울캠프(1997.1.4~1.7), 용인 에버랜드 여름캠프와 언북초등학교에서 열린 11지구 복사단 체육대회(1997.5.14)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충열(티토) 신부와 김지

형(제오르지오) 부제의 지도로 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름방학(1997.7.8~8.23) 동안 아침운동을 하였다. 중·고등부 코이노니아는 배론성지(1997.7.29~8.1), 가평 계성 청소년 수련원(1998.7.28~7.31)에서 있었다. 중·고등부 겨울학교(1997.1.15~1.17, 1998.1.22~1.24)는 횡성 싸리재 피정의 집에서 열었으며, 1997년 7월에 대치동 성당과 본당 중고등부 학생들의 친선 체육대회를 가져 본당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승하였다.

한편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수험생과 그 부모를 위한 40일 기도(1998. 10.10~11.18)와 수험생 부모를 위한 일일 피정(1998.11.8)이 있었고, 설악동 성당 물치공소(1997.1.20~1.22), 횡성 싸리재 피정의 집(1998.1.24~1.26)에서 대입 수험생 피정이 있었다.

5. 이상훈 신부의 이임

이상훈 신부는 1998년 7월 21일에 신병 요양차 쉬게 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교구청에 휴직을 청하게 되었으며, 그 공백을 서울대교구 사무처장인 염수정(안드레아) 신부가 직무 대행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25일자 교구 사제 인사발령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교리사목연구소로 이임하였다.

이상훈 신부는 본당에서 약 2년간의 짧은 사목을 하는 동안 2000년 대희년 준비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운동 전개라는 본당 사목목표를 설정하고 구역 반모임과 사도회 모임 등 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복음화 지도자 교육이나 전례의 생활화, 청소년과 청년 사목의 활성화에 큰 자취를 남겼고, 두 사제의 서품식과 성소후원회의 설립, 성가정의 날 행사와 성가정지 발간 등을 통해 세상의 복음화를 향한 본당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성가정의 날 행사(1997.5.18)

성모의 밤(1998.5)

반장단 피정(1998.1.8)

남성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1998.11)

가톨릭 성서모임 수료식(1997.12.5)

김영희(에밀리아나) 수녀의 예비자 교리 모습(1997년)

세례성사(1998)

성 목요일 주님만찬 미사(1997.3)

사랑의 헌혈 나눔(1999.6.27)

성 목요일 주님만찬 미사 후 빵 나눔(1997.3)

✣ 김지형 신학생 부제 수품 축하(1997.7.4)

✣ 이용현 신부 사제 수품 후 신자 안수(1997.7.5)

✣ 이상훈 신부 영명축일 및 고희연(1997.9.21)

성가정의 날 행사 먹을거리 장터 (1997.5.18)

성가정의 날 체육행사(1997.5.18)

청년 여름캠프(1997.8.7)

제 4 부

본당의 성장과 복음화 운동

제1장

복음화 운동의 전개

1. 고명철 신부의 부임과 사목목표

1) 고명철 신부 부임

이상훈(리노) 신부의 뒤를 이어 천호동 성당 주임신부로 재임하던 고명철(아우구스티노) 신부가 교구 사제 인사발령(1998.9.25)에 따라 10월 9일 신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고명철 신부를 축하하는 환영미사는 10월 11일 교중미사(10시 30분)시에 봉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강론으로 사목을 시작하였다.

▲ 고명철 주임신부 부임(1998.10.9)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철 신부는 1937년 9월,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에서 출생해 가톨릭대학교를 졸업(1962.12.21)하고 사제품을 받았다.

첫 사목지로 종로성당에서 보좌신부(1962.12.27)를, 그리고 군종신부(공군, 1965.5)를 거친 후 서울 소신학교 교사(1968.6)와 부교장직(1968.10)을 수행하면서 사제양성에 헌신

하였다. 이어 응암동 성당 주임(1970.1.16), 소신학교 교장(1973.12. 5), 정릉동 성당 주임(1981.9.3), 상봉동 성당 주임(1986.8.29), 양재동 성당 주임(1991.9.5), 천호동 성당 주임(1997.10.10) 신부로 사목활동을 하였고, 한국가톨릭사진가협회 지도신부를 역임하였다.

2) 사목지향과 사목목표

고명철 신부는 모든 일에 원칙을 중시하였으며, 전례 예식에 철저해서 미사전례 준비 부족이나 해설을 잘못하면 호통을 칠 정도였다. 본격적인 2000년대 복음화 운동의 확산에 발맞추어 소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역미사를 실시하여 신자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구역 반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선교사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레지오나 신심단체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신심을 북돋아 주었고, 본당 월간 소식지인 '성가정' 지를 더욱 활성화하여 신자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의 비신자들을 위한 선교지로의 역할과 함께 소공동체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였다.

부임 후 첫 본당 사목방향을 정하면서 "1999년은 하느님의 섭리적이고 역사적인 2000년 대희년을 앞둔 마지막 준비를 하는 성부의 해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요 완성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복음을 통하여 깨우쳐 즐거이 실천하여 하느님 아버지께는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복음 선포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첫째가는 봉사입니다.' 라는 1999년 서울대교구장의 사목교서에서 강조한 내용에 발맞추어 본당 사목목표를 '복음의 뜻을 깨우치고 느끼고 생활화하고 전파하자' 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대 복음화 운동의 적극적 추진과 예비자 교육 강화, 쉬는 교우에 관심을 가지고 평신도 신앙활동 강화, 대희년 맞이 최종준비를 잘하자는 세부지침을 세웠다.

2000년은 '대희년의 기쁨과 은총으로 참다운 복음화를 실천하자' 를 사목목표로 정하고 소공동체의 활성화 및 일체감 조성을 세부지침으로 세웠으며, 여성 반모임과 동일한 비중으로 남성 구역모임 활성화를 전개하였다. 특히 구역내 소공동체 지도자(여성, 남성구역 반장·분회장)간의 교류 증진 및 정보교환을 위한 합동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고, 구역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소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 실시와 사목적 배려를 하였다.

또한 청소년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자 자녀의 미사 참여 및 주일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매주 월요일 지속적인 묵주기도와 북녘 동포들을 위한 나눔의 봉헌활동 실천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본당 공동체의 노력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구조개선(지하 연회장 개 · 보수, 유아방 신설, 문서고 및 재배치, 각 단체부속 회합실 마련) 작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2001년 본당 사목목표는 '신유박해 200년을 맞아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전파하자' 로 정하고 전 교우가 예비신자 1인 이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각 선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전례생활과 기도 신심 및 봉사활동을 심화하고 선교활동을 적극 전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세부계획인 소공동체를 통한 지속적인 복음화 추진, 예비신자 및 새영세자 돌봄 강화, 냉담자에 대한 회두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아파트 등 단위 구역미사의 실시에 따른 소속 전교우가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그리고 구역 내에서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생활 실천을 위해 임종하신 분의 연도 및 봉사, 외인상가 돌봄이나 병자방문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3) 보좌신부와 수도자의 동정

조창수(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는 1998년 11월 29일에 구리성당으로 이임하기 전까지 본당 청년들의 신심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청년 구역 조직화와 성서사목에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창수 신부 후임으로 이은형(티모테오) 신부가 미아5동 성당에서 부임하여 사목을 하였으며 2000년 9월 19일에 해외사목을 위하여 러시아 연해주로 이임하였다. 그리고 잠시 제1보좌신부의 공백이 있은 뒤 라병국(아우구스티노) 신부가 2001년 1월 9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포사목을 하다 부임하였다.

김병훈(알렉시오) 2보좌신부는 1999년 12월 10일에 오류동 성당으로 이임하고 박종철(세례자 요한) 신부가 사제학교에서 부임하였다. 그 후 박종철 신부는 2001년 12월 4일에 공항동 성당으로 이임하고 안성남(안드레아) 신부가 사제학교에서 2보좌신부로 부임하여 본당 사목을 하였다.

한편 이상훈(리노) 신부 때부터 본당 사목을 도왔던 구은순(율리아나) 원장수녀가 2000년 2월 8일에 응암동 성당으로 이임하면서 그 자리에 공주 중동성당에서 신숙자(데레사) 수녀가 원장수녀로 부임하였다. 윤용순(막달레나) 수녀는 1999년 2월 14일에 부임하였으며, 김영희(에밀리아나) 수녀는 2000년 2월 8일에 묵호성당으로 이임하였다. 그리고 윤용순 수녀가 2001년 2월 7일에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임하면서 김희환(안나노엘) 수녀와 주순복(젬마) 수녀가 부임하였다.

4) 사목협의회의 개편

고명철 신부는 부임 후 다음 해인 1999년 1월에 사목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새롭게 상임위원들을 인선하였다. 그동안 초대 최광연 신부 이래로 2대 이상훈 신부까지 총회장으로서 사목의 협력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던 윤성노(니콜라오) 전총회장을 다시 제6대 총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제6대 사목협의회는 대치4동 성당의 신설에 따른 협조와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자들의 구역미사 참여 등에 노력하였다.

■ 제6대 사목협의회 명단(1999.1~1999.11)

총회장 : 윤성노(니콜라오)

부회장 : 장주일(스테파노)

총무 : 이강신(라우렌시오)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세훈(유스티노), 부위원장 이세용(요한) 간사 이호진(대건안드레아) 외 3명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심종보(프란치스코), 부위원장 한진동(요셉) 총무 성기란(아녜스) 외 6명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영식(보니파시오), 부위원장 이창구(요셉) 간사 현송철(바오로) 외 6명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노창수(라이문도), 부위원장 이기호(티모테오) 간사 안경식(안드레아) 외 2명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길현(스테파노), 부위원장 정정희(마리아) 간사 정병채(안토니오) 외 5명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차일성(이냐시오), 1지역장 이수홍(스테파노), 2지역장 이지연(그레고리오), 3지역장 이영원(스테파노), 간사 조규황(요한) 외 구역장 11명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홍영주(아녜스), 1지역장 엄정숙(요세피나), 2지역장 김현자(안나), 3지역장 김명숙(클라라) 외 구역장 15명

청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두혁(미카엘) 외 12명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병국(마티아), 부위원장 김명승(프란치스코), 부위원장 원명숙(율리아

나), 간사 신당균(바오로) 외 7명

시설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지석(가브리엘), 부위원장 지계환(사도요한) 외 2명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송진선(야고보), 부위원장 이규인(베드로), 간사 신영부(안토니오), 간사 류순희(안젤라) 외 4명

2000년대 복음화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길현(스테파노)

그리고 2000년 2월 6일에 사목협의회가 새롭게 인선되어 발표되었다. 윤성노(니콜라오) 총회장의 후임으로 장주일(스테파노) 부회장이 신임 총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제7대 사목협의회 구성에선 부회장과 부총무, 전례분과장, 교육분과 및 2000년대 복음화분과장, 사회복지분과장, 노인분과장이 새롭게 선임되었다. 제7대 사목협의회는 은총의 대희년 준비를 위한 묵주기도 운동과 성전시설 보수공사에 많은 노력을 기우렸고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본당 설립 10주년기념 한마당 대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 제7대 사목협의회 명단(2000.2~2001.11)

총회장 : 장주일(스테파노)

부회장 : 유영순(미카엘)

총무 : 이강신(라우렌시오)

부총무 : 고윤상(정하상 바오로)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세훈(유스티노), 부위원장 이세용(요한), 간사 이상일(바오로) 외 2명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재유(다니엘), 부위원장 한진동(요셉), 간사 박순민(아가타) 외 6명

▲ 제7대 사목협의회 구성(2000.2.6)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영식(보니파시오), 간사 강규련(헬레나) 외 4명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노창수(라이문도), 간사 조규황(요한) 외 6명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상동(토마스 아퀴나스), 부위원장 정정희(마리아), 간사 배기만(베드로) 외 6명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차일성(이냐시오), 1지역장 송현철(라파엘), 2지역장 이지연(그레고리

오), 3지역장 임용빈(그레고리오), 간사 변종욱(루도비코) 외 구역장 14명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홍영주(아녜스), 1지역장 엄정숙(요세피나), 2지역장 김현자(안나), 3지역장 김명숙(클라라) 외 구역장 16명

청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두혁(미카엘), 부위원장 권성호(필립보), 간사 장연숙(헬레나) 외 6명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길현(스테파노) 간사 박명환(요아킴) 외 8명

시설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지석(가브리엘), 부위원장 지계환(사도요한) 외 1명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송현철(라파엘), 부위원장 이규인(베드로), 간사 이후희(리카르도), 간사 류순희(안젤라) 외 4명

2000년대 복음화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상동(토마스 아퀴나스)

한편 2001년 11월 4일에 다시 사목협의회가 개편되면서 유영순(미카엘) 부회장이 총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청년분과가 신설되었으며 2000년대 복음화분과가 폐지되고, 부회장과 총무 등 대부분의 상임위원들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고명철 신부는 신임 사목위원들에게 본당의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당부하였다. 제8대 사목협의회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대 사목협의회 명단(2001.11~2003.10)

회 장 : 유영순(미카엘)

부회장 : 권중원(베드로),

총 무 : 최세훈(유스티노)

부총무 : 고윤상(정하상 바오로)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차일성(이냐시오), 부위원장 강규련(헬레나), 간사 정병채(안토니오) 외 2명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진동(요셉), 부위원장 이재근(티모테오) 간사 곽혜숙(크리스티나) 외 5명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길현(스테파노), 부위원장 김현자(안나) 간사 조용수(안셀모), 간사 유숙희(안나) 외 11명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조규황(요한), 간사 감명식(마태오) 외 7명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정희(마리아), 부위원장 한동윤(미카엘라), 간사 김태희(아가타), 서기 이영심(실비아) 외 7명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지연(그레고리오), 1지역장 한상섭(돈보스코), 3지역장 임용빈(율리아노), 간사 변종옥(루도비코) 외 구역장 11명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한분(스테파니아), 1지역장 이은주(안나), 2지역장 신연수(노엘), 3지역

장, 김선희(마리아) 외 구역장 16명

청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장충현(리노), 간사 김희동(요한) 외 4명

청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종성(돈보스코), 부위원장 권성오(필립보) 외 5명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위원장 노창수(라이문도), 간사 김재선(요아킴) 외 7명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계원(요한) 외 4명

시설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지석(가브리엘), 부위원장 지계환(사도요한) 외 2명

2. 대치4동 성당 분당과 본당 10주년 행사

1) 대치4동 성당의 분당

서울대교구는 1996년 11월 7일, 가톨릭회관에서 사제총회를 열고 각 본당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사제의 효율적인 사목활동과 신자들의 원활한 신앙생활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당을 소규모로 분할하여 새 성당을 신설하도록 하는 본당 설립 10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 계획에는 당시 신자수가 1만 명이 넘는 성당은 1997년까지 분할해야 하며, 9천 명 이상은 1998년까지, 8천 명 이상은 1999년까지, 7천 명 이상은 2001년까지, 6천 명 이상은 2003년까지 분할하여 새 성당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경갑룡(요셉) 주교는 고명철 신부에게 본당 관할 인구수가 9천 명 이상이고 신자수가 5천 명 이상인 경우 새 성당을 신설하도록 당부한 사항이기도 하여, 1999년 10월 1일자로 대치2동 본당과 대치동 성당에서 분리되어 대치3, 4동 전역을 관할하는 대치4동 성당이 신설되었다. 본당에서는 새 성당 설립을 위한 분당금 신립서가 반장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총 1,105세대가 신청하였고, 이는 본당 전세대의 67%에 달했다. 본당의 대치3동(우성2차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신자들의 교적은 1999년 10월 4일에 대치4동 성당으로 일괄 이전되었다. 대치4동 성당은 초창기 공사 중이였으므로 평일 미사는 화~토요일 10시 사제관에서 봉헌되었으며, 2000년 1월 8일(토)부터는 주일학교(초, 중, 고) 미사를 시작하면서 본당에서는 분리되어 나갔다.

고명철 신부는 2000년 1월말 새 성당 설립헌금 지출상황을 다음과 같이 주보에 공고하였다.

1. 총수입 : 406,530,401원
2. 지 출 : 대지구입 3억원(본당부담총액 5억원)
착공보조금 1천만원 / 공사보조금 5천만원 / 이자지급 7,116, 740원
지출합계 : 367,116,740원, 잔액 39,413,661원
*신립헌금 세대수 1,105세대(교무금 납부세대의 67.6%)

그리고 대치4동 성당의 신설에 따라 대지구입 관계로 1999년 8월에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 12월 21일에 공사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고명철 신부는 2000년 3월 24일에 본당 신자들이 정성껏 봉헌한 1억 원을 마지막으로 대치4동 성당에 보낸 후 교우들에게 대치4동 성당이 안정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8개월 뒤 11월 25일(일) 오전 11시에 대치4동 성당(초대 양장욱 신부)은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의 주례로 새 성당 봉헌식이 거행되었다.

▲ 대치4동 성당 봉헌식(2000.11.25)

대치2동 본당이 1991년 9월 대치동 성당에서 분당된 후 신자의 정성이 모아진 또 하나의 주님의 집이 탄생되었다. 대치4동 성당은 총공사비 10억여 원, 대지면적 275평, 연면적 302평에 350여석 규모의 성당, 유아실, 사제관, 교리실, 사무실을 갖추었다.

2) 성가정 한마당 대축제

본당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전파하자' 는 주제로 2001년 9월 16일에 '성가정 한마당 대축제' 를 개최하였다. 오전 9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 기념미사, 운동회, 행운권 추첨 등 1부에서 4부까지

뜨거운 열기가 대치골에 울려 퍼진 축제의 잔치였다.

이날 고명철 주임신부와 라병국 신부, 박종철 신부, 신숙자(데레사) 원장수녀와 김희환(안나노엘) 수녀, 주순복(젬마) 수녀와 신자 1,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체육대회는 청팀(2, 3지역-미도, 쌍용, 우성, 구역외)과 백팀(1지역-은마)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종합 우승은 (청팀 2,320점 : 백팀 2,530점) 백팀이 승리하였다.

또한 6개 봉사단체(인자하신 모후 Cu., 사랑의 샘 Cu., 자모회, 성모성심회, 울뜨레아, M·E)는 풍성한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금 전액 621,410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

▲ 성가정 한마당 대축제 야외 기념미사(2001.9.16)

이날 행사에서 고명철 신부는 다음과 같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성가정성당과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하여 이 축제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성가정 한마당 대축제를 통해 지난 10년을 주님께 봉헌하고 저희 신앙의 나아갈 길을 비추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한마음으로 청한다면 10주년을 더욱 뜻 깊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대축제를 기쁨의 축제, 희망의 축제로 만듭시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평화와 기쁨을 가득 담고서...

한편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며 8월에 주보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기념 '기도문'을 공모하였다. 응모된 기도문 중에서 홍지원(마리아)의 기도문이 가작으로 뽑혔으며, 그 기도문을 당일 기념식장에서 봉헌하고 성가정지에도 게재하였다.

본당 설립 10주년 기도문

성가정을 이끄시는 하느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가 성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10주년을 기념하여 저희 본당을 당신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짧은 기간이나마 보다 더 많은 이들이 당신을 깨닫고
사도직 영성이 풍부한 공동체로 이끌어주심에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오니 가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누어
믿음의 거름이 되게 하시고
배운 모든 것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겸손이 되게 하소서.
특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성가정의 기쁨을 저희 모든 가정에 가득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가정 한마당 대축제 행사(2001.9.16)

3.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

1) 본당 공동체를 위한 사목전개와 전례의 변화

고명철 신부는 부임 후 1998년 10월 24일에 첫 성무회의를 가지면서 즉시 시행할 본당 사목들을 조창수 신부와 김병훈 신부 그리고 구은순 원장수녀, 김영희 수녀, 이은정 사무원에게 밝혔다. 그 내용은 봉성체의 경우 주임신부가 보좌신부와 함께 나간다는 것과 장례미사의 주례에 있어 가능한 한 고명철 신부가 직접하며 10시 미사인 경우는 보좌신부와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다.

성전 내 성수대는 스펀지를 놓도록 하며 성체등도 깜박이는 등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당 2층에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가 외부에서도 잘 보이도록 채광조명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해 본당 사무실에 한국가톨릭대사전을 비치하여 성인이나 전례, 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당 미사 전례에서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행한 매일미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우들에게 사제 성화를 위한 '사제를 위한 기도' 를 미사 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당부하였다.

예비자 영세의 경우 가능하면 대부모가 본당 신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였다. 특히 견진식이나 혼배, 영세식, 첫영성체 때에 '믿는이의 편지' 에서 발행한 성사기념 증서를 주었다.

2) 여성 구역의 활동

여성 반모임은 1998년 때에도 조직화되고 활성화되어 있었다. 당시 1지역은 5개 구역, 2지역은 4개 구역, 3지역은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각 구역마다 5~11개의 반을 운영하여, 본당은 3개 지역, 15개 구역, 11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 구역장들은 매월 첫 수요일 10시 미사 후에 월례회의를 하였으며 역삼동 성당에서 구역장 연수를 받았다. 반장단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0시 미사 후에 월례회의를 하고

압구정동 성당이나 역삼동 성당에서 구역 반장단 연수에 참가하였다.

▲ 구역 반모임(1999년)

반장단은 정기적으로 천진암(1998.10.14), 어농 성지(1999.10.20), 죽산 성지(2001.10.24)로 순례를 다녀왔다. 그리고 고명철 주임신부, 신숙자 원장수녀가 참석한 가운데 미리내 성지에서 일일 피정(1999.1.13), 용문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반장단 피정(2000.1.19)을 가졌으며, 여기서 신임 구역장과 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그 해 10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85명의 구역장, 반장들이 제주도 이시돌 목장으로 피정을 다녀왔었다. 삼뫼소 은총의 동산에서 묵주기도와 정난주 마리아 묘소와 황사평의 무명 순교지를 참배, 자연 피정으로 한라산 등반을 하였다. 고명철 신부는 지삿개 해안의 절경을 배경으로 구역별로 단체사진을 찍어주었으며, 저녁에는 임문철(시몬)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또한 반장단 피정을 조 바실리아 수녀의 지도로 2002년 1월 16일 부터 2박 3일간 충남 연기군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를 하였다. 한편 영세식을 앞둔 예비신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1999년 6월 4일에 예비신자들이 소속될 구역 반장과의 만남행사였다, 이 자리는 예비신자 돌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역 반원들의 본당 사목목표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구역 반장들은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고 예비신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신앙체험 사례 발표와 레크레이션을 가졌다.

▲ 성 이시돌목장 반장단 피정 (2000.10.12.)

그리고 야외행사로 용문산(1999.5.19), 강화도 광성보(2000.6.7), 문경

새재(2001.5.16)로 다녀왔으며, 행사 장소를 사전 답사할 때에는 고명철 신부도 항상 동행하여 행사장으로 적합한지 면밀히 점검하기도 하였다.

2) 남성구역 사도회의 확장과 구역미사 봉헌

이상훈 신부의 의욕적인 소공동체 활성화 노력과 1998년에 남성구역분과를 설립하는 등 남성 구역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목활동은 고명철 신부 재임기에는 더욱 강화되어 나갔다.

▲ 4구역 사도회(1999.9.17)

특히 고명철 신부는 남성 소공동체를 조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자 가정마다 방문하여 구역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부임 후 처음으로 구역미사를 쌍용 아파트 2동 105호(1999.2.11)에서 오후 8시에 봉헌하였으며, 이 구역의 공석인 분회장 자리에 임성락(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을 미사 후 임명하였다.

이후 1999년 5월 20일부터 2001년 10월 25일까지 매월 세 번째 목요일과 네 번째 목요일 오후 8시에 고명철 신부는 차일성(이냐시오) 남성구역 분과장과 이지연(그레고리오) 2지역장 등과 본당 전 구역을 돌며 구역미사를 봉헌하며, 그 때마다 공석인 사도회 분회장 등을 임명하였다. 이렇게 남성 사도회에 형제들이 참석하고 또 구역미사가 봉헌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영주(아녜스) 여성구역 분과장과 지역장, 구역장, 반장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적극 협력해 주었다. 그리하여 남성 소공동체도 점차 활성화되었다.

▲ 은마 11동 구역미사(2001.4.26)

▶구역미사 봉헌일자와 장소

일자	장소	대상지역
1999.2.11	쌍용 2동 105호	쌍용 2동
5.20	우성 3동 701호	우성 1~3동
5.27	미도 103동 104호	미도 101~103동
6.17	미도 111동 101호	미도 110~111동
6.24	현대 101동 1508호	현대 아파트 전체
7.15	은마 5동 1413호	은마 5동
7.22	은마 8동 611호	은마 8동
9.10	은마 20동 904호	은마 20동
10.21	은마 25동 106호	은마 25동
10.28	은마 28동 906호	은마 28동
11.18	은마 29동 407호	은마 29동
11.25	은마 30동 1302호	은마 30동
2000.2.17	은마 27동 1007호	은마 27동
2.24	은마 31동	은마 31동
3.16	미도 107동 908호	미도 107동
5.18	미도 106동 701호	미도 106동
5.25	미도 108동 1206호	미도 108동
6.15	미도 109동 703호	미도 109동
6.22	미도 203동 1101호	미도 203동
6.29	미도 201동 202호	미도 201동
9.21	미도 202동 1104호	미도 202동
10.19	미도 206동 302호	미도 206동
10.26	미도 207동 803호	미도 207동
11.16	미도 103동 1408호	미도 103동
11.30	미도 208동 208호	미도 208동
2001.2.15	은마 1동 1101호	은마 1동
2.22	미도 211동 507호	미도 211동
4.19	우성 202동 702호	우성 202동
4.26	은마 11동 1012호	은마 11동
5.24	은마 19동 811호	은마 19동
5.31	미도 209동 804호	미도 209동
6.21	은마 23동 410호	은마 23동
6.28	우성 205동 1002호	우성 205동
8.30	쌍용 1동 106호	쌍용 1동
9.20	은마 6동 604호	은마 6동
9.27	은마 16동 1204호	은마 16동
10.25	우성 2동 1406호	우성 1,2동

3) 청년 소공동체의 활동

청년 반모임 결성과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조창수 신부가 이임한 후 이은형(티모테오) 신부가 본당 청년사목을 맡으면서도 그 활동은 계속되었다. 이은형 신부는 1998년 1월에 청년 반모임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하기로 청년반장단과 의견을 나눈 뒤, 5월 13일부터 한 달에 2번씩 구역미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반장단은 새 지역장들을 선출하고 8월 28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화도의 상방공소에서 피정을 하였다. 1999년에도 매달 반장단 회의와 구역 반모임을 꾸준히 가졌다.

▲ 청년 반장단 피정(1999.8.28)

2000년에 들어서서는 반장단이 청년연합회와 함께 청평으로 M.T(1.29~30)를 다녀오고 3월부터 반모임도 시작하였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21일에는 1박 2일로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 반장단 피정도 다녀왔다. 그러나 이은형 신부가 9월 7일 해외선교를 위해 본당을 떠나고 청년들을 이끌어 줄 1보좌 신부의 공백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청년 반모임은 점차 시들해지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 들어, 라병국 신부는 청년 반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2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본당 전 구역을 돌며 한차례씩 청년 구역미사를 드렸으나 반모임은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반장단 회의도 없어지면서 구역장 모임만 5월 31일과 10월 28일 두 차례 열렸다. 11월 25일에는 청년미사 후 지하 소강당에서 전체 청년이 모이는 반모임을 가졌다.

대희년과 시노드 활동

1. 대희년 기념과 활동

1) 대희년 맞이 준비

로마 교황청은 1999년 12월 24일 자정부터 2001년 1월 6일 자정까지를 대희년으로 선포하였다. 한국 주교회의는 '대희년을 바라보며' 공동 사목교서를 발표하며 한국교회의 대희년 실천운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변화와 삶의 쇄신을 지향하는 「새날 새삶」운동을 시작하면서 각 교구와 수도회, 본당 등에서 폭넓은 실천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는 다가오는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해 신앙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실천활동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9년 12월 24일 밤 대희년 선포와 함께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년문을 열었다. 이어 25일 성 요한 라테란 대성전, 2000년 1월 1일 성모 대성전, 그리고 1월 18일 성 바오로 대성전의 문을 차례로 직접 개방함으로써 대희년이 시작됐음을 선포하였으며, 새 천년기의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시작을 알렸다.

▲ 대희년 로고

고명철 신부는 1999년 본당 사목목표 중 '대희년 맞이 최종준비'를 추진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당 소식지인 '성가정지'를 통하여 본당 신자들에게 대희년의 의미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부의 해' 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치고

'한마음한몸운동' 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사목적인 배려를 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도 '대희년의 기쁨과 은총으로 참다운 복음화를 실천하자' 로 본당 사목목표를 정하고 하느님과 화해,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개선 노력,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적 활동을 실천하며, 본당 공동체상을 향해 '소공동체의 활성화 및 일체감 조성' 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대희년 준비 묵주기도 봉헌

제6대 사목협의회 윤성노(니콜라오) 총회장과 사목위원들은 대희년 맞이 준비의 일환으로 본당 전신자들이 묵주기도 1억단 봉헌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1999년 6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된 묵주기도 1억단 봉헌운동은 경제위기 극복과 북한동포 돕기, 도덕성 회복, 회개와 화해를 지향하며 한국 교회의 모든 본당에서 참여하였으며, 본당은 개인기도 176,457단, 공동체기도 897,973단 총 1,074,430단을 봉헌하였다.

▲ 묵주기도 1억단 봉헌운동

그리고 은총의 대희년을 지내면서 대희년 평신도대회(2000.10.29)를 앞두고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월 5일까지 ① 하나되게 하소서(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②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새 천년기 새 복음화를 위하여)라는 지향으로 묵주기도 3억단 바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본당 공동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미사 후에 신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묵주기도 15단 바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개인이나 소공동체 단위, 각 단체별로 본당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정성으로 묵주기도가 봉헌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749,201단이 봉헌되었다.

3) 본당 대희년 개막식과 성탄 미사

고명철 신부는 1999년 12월 24일 밤 11시, 본당의 대성문을 열면서 대치2동 성당의 2000년 대희년을 선포하였다. 이날은 1992년 본당 성전 봉헌식 이후 처음으로 대성문이 열린 기념적인 날이었다. 대희년 개막 선포와 성탄미사를 시작하면서 고명철 신부는 다음과 같이 참석한 신자들에게 말하였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2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신비 안에서 되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 이 전례 거행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되신 말씀을 경축하면서 보편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본당의 대희년을 장엄하게 개막합니다. 이것은 성년의 폐막까지 연장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에 대한 특별히 심오한 체험을 위한 서막입니다.
> 이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님께서 모든 이를 위하여 선포하신 기쁜 소식의 알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대희년 성탄미사는 마라나타 오소서 주여!, 성탄 복음선포, 구유 축성, 기도, 낭독, 21C 사이버 구유, 구유 안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년·부부성가대와 한울림성가대가 연합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를 특송하였다. 이 자리에 본당 공동체에 대희년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신자들은 기도하였다.

▲ 대희년 개막미사(1999.12.24)

▲▲ 대성문 개문(1999.12.24)

2. 시노드 활동과 교구 사목체계의 변화

1) 시노드와 본당 의견 수렴

시노드(synod)란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였던 회의의 명칭으로 한 곳에 함께 모여 같은 목표를 향해 공동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함께 하는 여정' 을 의미하였다.

2000년 1월 교구장 사목교서를 통해 시노드를 선포하고, 강우일 주교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노드 진행 절차와 규범을 정하고 시노드 지침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노드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를 묻는 '의제 선정과정' 에 들어갔다. 그 과정의 핵심은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이었는데, 2001년 당시 214개 본당 중 186개(전체의 3/4) 성당이 참여하였고 제안된 의견 수는 거의 37만 건에 이르렀다.

본당에서는 2000년 6월 16일 이틀 동안 '시노드에서 교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는 주제 아래 신자들에게 매 미사시간 중 제1차 의견수렴을 하였다. 그 결과 본당 신자들이 작성한 제안서의 총 집계는 주일미사 참례자 2,560명 중 1,472명이 참여하여 교구 시노드의 의제를 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평소에 느꼈던 자신의 생각을 '교구의 쇄신과 발전' 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며, 하느님 백성이라는 공동체 속에 시노드의 의미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의견수렴 참여 인원 및 제안건수

대 상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일반신자
참여인원	252명	1,522명	214명	186개 본당 163,877명
제안건수	1,355건	7,195건	999건	311,530건(20세 이상) 57,635건(20세 이하)

자료 : 서울대교구 시노드 사무국

2) 본당 시노드 위원 임명

본당 시노드를 추진할 19명 위원을 2000년 5월에 확정해 발표하였다. 임명된 시노드 위원들은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본당 시노드 의견수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본당 시노드 위원

유영순(미카엘)	고윤상(정하상 바오로)	차일성(이냐시오)	이지연(그레고리오)	송현철 (라파엘)
홍영주(아녜스)	엄정숙(요세피나)	김현자(안나)	김명숙(클라라)	이은주(안나)
이재호(헬레나)	이귀배(레지나)	박석동(라우렌시오)	이진옥(로사)	이경자(로사)
박상원(요셉)	박주원(에스텔)	박지윤(레지나)	박윤석(사도요한)	

3) 본당 사목방문과 새로운 사목체계 시행

제11지구장인 오태순 신부의 본당 사목방문이 2001년 9월 19일에 있었다. 최광연 신부 재임기인 1995년 9월 27일에 이어 6년 만에 세 번째 본당 사목방문이었다. 사목방문에 앞서 본당의 사목현황(1995.10.5~2001.7.31)을 정리하였으며, 본당의 일반현황, 교세현황, 단체현황, 사목활동 및 계획,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목, 성소개발, 재정 등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였다.

▲ 본당 사목방문(2001.9.19)

그리고 2002년은 한국 교계제도 170년, 서울대목구가 대교구로 승격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명의로 공포된 서울대교구 사목체계 쇄신에 관한 교령에 따라 새천년기 새로운 복음화와 교회 쇄신의 틀을 짜기 위해 직능과 지역을 담당하는 교구장 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당은 동서울지역 11지구에 속하게 되었다.

4)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신앙대회

한국 순교자 현양위원회와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한 신유박해 200 주년을 기념하는 순교자 현양 신앙대회가 2001년 9월 16일에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신앙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고 하느님과 이웃사랑 생명 존중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평신도의 신앙대회였다

본당에서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한 '나의 결심, 나의 봉헌'에 동참하여 9월 9일 미사 중에 1,281명의 신자들이 자신을 봉헌하는 봉헌문을 작성하였다. 이 봉헌문은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 제2부 장엄미사 중에 봉헌되었으며, 서울대교구 소속 5만 여명의 신자들의 봉헌문도 함께 했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 절두산 기념관에서 새남터까지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도보 성지순례에 참가하였다.

신심 강화활동과 단체활동

1. 선교활동 강화와 신앙교육

1)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고명철 신부는 2000년대 복음화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구역내 소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과 예비자 교리서 '함께 하는 여정' 봉사자의 재교육, 또한 예비자 교리 교사 양성을 통한 예비자 교육 강화를 사목목표의 세부지침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예비신자를 위한 봉사자 교육인 '함께하는 여정' 1, 2단계 교육에 구역과 레지오, 신심단체의 여성 봉사자 25명이 참가하여 수료하였다. 이들은 교육 수료 후 본당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차일성(이냐시오), 유영순(미카엘), 정길현(스테파노)등 구역 남성 봉사자들도 2개월 과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

▶ '함께하는 여정' 수료자 명단

이 름	세 례 명	본당내 활동	이 름	세 례 명	본당내 활동
홍영주	아녜스	여성 총구역장	이혜순	보니파시아	레지오 단장
이정례	데레사	레지오 부단장	이영심	실비아	초등부 예비자교사단
김혜옥	헬레나	초등부 예비자교사단	이명숙	마리나	초등부 예비자교사단
이주미	베로니카	레지오 단원	권복희	모니카	레지오 단원
이태경	세레나	1구역 7반장	유숙희	안나	장년성가대 단원
김현숙	헬레나	6구역 9반	차정연	가브리엘라	성서못자리 봉사자

김현자	안나	2지역장	신연수	노엘	8구역장
장혜원	마틸다	성서못자리 봉사자	이경선	비비아나	10구역 6반장
홍영희	안젤라	11구역 5반	이상진	루치아	12구역 2반
백옥현	모데스타	레지오 서기	나명희	엠마	레지오 단장
정혜진	모니카	레지오 단장	김명숙	클라라	3지역장
엄정숙	요세피나	1지역장	이현희	소피아	레지오 단원
소해경	엘리사벳	5구역 8반장			

2) 선교운동 '새 가족 찾기' 전개

2001년 본당 사목목표인 '선교하여 내실을 다지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사목협의회 선교분과 주관으로 본당 외짝 교우 및 가족 중 미 영세자를 대상으로 '새 가족 찾기' 선교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2월말까지 본당 교적부에서 750명(남성 650명, 여성 1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다음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고명철 신부 명의의 초대편지를 작성하여 반장들과 여성 레지오 단원들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함에 넣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고명철 신부는 이러한 선교활동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도 본당의 복음화와 선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신자들이 40일 동안 '새 가족 찾기'를 위한 기도운동을 먼저 실시하여 주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10월 10일의 예비신자 입교를 앞두고 40일간의 특별선교 기도기간(9.1~10.10)이 정해졌다. 이 기간동안 매일마다 교우들은 미사 후 성전에 모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과 태도로서 예비신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간구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 예비신자 봉헌서를 접수받았다. 특히 '새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반장들과 레지오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서로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미사 강론 중에서도 모든 신자들이

▲ 예비신자 환영식(1999.2.21)

이 선교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고명철 신부는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예비신자들에게 입교를 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선교에 대한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다.

예비신자 초대의 글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2동 고명철 신부입니다.

귀 댁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귀하를 저희 성당에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매일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보다 잘살기 위하여, 적어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앞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뛰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편히 쉬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천주교회는 귀하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시도록 도와 드리며 평화를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도록 해 드립니다.

2001년 저희 대치2동 성당에서는 귀하를 위해 2월 1차, 6월 2차, 10월 3차에 걸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편리한 시기를 선택하시어 가벼운 마음으로 꼭 참석(입교)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01년 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치2동 성당
주임신부 고명철 드림

2001년 입교 가능 시기

2월 ( ) 6월( ) 10월 ( )

(새가족) 성명 : (남 여) 연락처 :
주소: 나이 :

(선교자) 성명 :

3) 가두 선교와 신앙상담소 활동

서울대교구는 대희년을 맞이하여 각 본당들이 신자 배가운동을 적극 실천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경갑룡(요셉) 주교가 1998년 11월에 고명철 신부에게 본당 신자 10%를 늘리는 선교사목에 매진하도록 언급한터라 새로운 입교자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선교활동의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1999년 12월에 약 160명 정도가 영세를 받았다.

하지만 고명철 신부가 보기엔 아직도 입교자가 너무 적다며 각 꾸리아에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배당으로 예비신자 입교 권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이 무렵 서울 세나뚜스에서도 레지오 단원들의 선교활동을 위한 가두 선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본당 남녀 꾸리아 간부들은 선교지침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 남녀 레지오 단원들은 가슴에 띠를 두르고 성당 주변에서 지역 주민 비신자들에게 천주교를 알리는 소책자 등을 나누어주며 가두선교 활동을 실시하였다.

▲ 성전 마당에서 신앙상담소 운영(2000.11.18)

그런데 고명철 신부는 길거리에서 천주교를 알리는 책자 배부나 육성으로 외치는 선교활동보다 우선적으로 토요일 혼배미사에 오는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해보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은 토요일마다 본당 마당에 책상을 놓고 플래카드를 걸어두고 일일 신앙상담소를 운영하였다. 오전에는 여성 꾸리아가, 오후에는 남성 꾸리아가 담당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12시~2시 혼배미사 전후 시간에 운영되었다. 신앙상담은 2000년 11월 18일부터 실시되었으며, 천주교를 알리는 '안녕하세요' 책자 141권,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책자 58권, '그대 지금 어디에' 책자 42권, 대치2동 상본 42권, '성가정지' 책자 47권, 테이프 16개 등 소책자와 테이프를 본당을 찾은 비신자들에게 나눠 주며 선교활동을 실시하였다.

4) 예비자 교리반 운영

고명철 신부는 재임기 동안 2000년 대희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신자들의 삶 안에서 실천하며 복음 선포로 이웃을 하느님의 품 안으로 이끌게 하는 선교활동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래서 예비신자 교리반 운영 또한 기존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가 아닌 2월(1차 개강), 6월(2차 개강), 10월(3차 개강)로 연간 총 3차례 개강하는 등 유연한 선교사목을 펼쳤다.

▶영세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9년		2000년		2001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20	172	82	119	97	133
계	292		201		230	

5) 신자 재교육과 신심강화 활동

신자들의 영성생활과 신심고양을 위해 전례 시기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신심강화 특강

구 분	일 시	주 제	강 사
사순시기 특별강론	1999. 3. 4(목)	고통	임병헌 신부(가톨릭대)
	1999. 3. 11(목)	복음서에서의 수난사	송봉모 신부(서강대)
	1999. 3. 18(목)	삶의 그림자	임병헌 신부(가톨릭대)
	1999. 3. 25(목)	구원은 어디에서	송봉모 신부(서강대)
	2000. 3. 23(목)	동방교회에 나타난 신앙세계	정응모(에밀리오) 신부
	2000. 3. 30(목)	서방교회에 나타난 신앙세계	정응모(에밀리오) 신부
	2000. 4. 6(목)	하느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	조광호 신부(베네딕토 수도원장)
	2001. 3. 9(금)	하느님의 사랑	장수완 수녀(구속주회)
	2001. 3. 16(금)	하느님의 사랑	장수완 수녀(구속주회)
	2001. 3. 23(금)	순교자의 영성과 우리의 삶	배은하 신부

선교를 위한 40일 기도 특강	1999. 10.1(금)	선교를 위하여	박도식 신부(대구효성가톨릭대)
	1999. 10. 2(토)	〃	박도식 신부(대구효성가톨릭대)
대림시기 특별강론	1999. 12. 3(금)	대림의 현대적 의미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1999. 12. 10(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유시한 신부(예수회)
	1999. 12. 17(금)	하느님께로 향한 징검다리	박영호 신부(한국꼰벤뚜알 관구장)
	2000. 12. 8(금)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김운회(루카) 신부(동성고교장)
	2000. 12. 15(금)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김운회(루카) 신부(동성고교장)
	2001. 12. 7(금)	하느님과의 일치 과정	황지연(요한) 신부
	2001. 12. 14(금)	나를 보내신 하느님	김종오(아우구스티노) 신부
하루피정 및 특강	1999. 7. 1(목)	낭만에 초쳐 먹는	강길웅 신부
	2000. 9. 28(목)	한국순교자 영성과 새천년	김길수(사도요한) 교수(대구가톨릭대)
	2001. 10. 18(목)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용길(세례자 요한) 신부

견진성사는 1999년에 김옥균 주교(1999.5.30), 2000년(5.28)과 2001년(5.27)에는 강우일 주교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견진교리도 역시 매년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견진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9년		2000년		2001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05	210	84	89	61	106
계	315		173		167	

▶견진교리 내용

교육기간	주 제
1999.4.30~5.28	1회 (4. 30) : 하느님 자녀로서의 탄생과 성장 2회 (5. 7) :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 3회 (5. 14) :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4회 (5. 21) :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 5회 (5. 28) :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절 연습)

2000.4.28~5.26	1회 (4. 28)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활 2회 (5. 5) :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신비 3회 (5. 12) : 교회와 성사 4회 (5. 19) :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마리아 5회 (5. 26) :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절 연습)
2001.4.27~5.25	1회 (4. 27) : 성령과 함께 2회 (5. 4) : 주님과 함께 3회 (5. 11) : 화해의 삶 4회 (5. 18) : 일치의 삶 5회 (5. 25) :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절 연습)

6) 혼인성사 갱신식과 '한가족 만찬' 시행

대희년을 맞아 가정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고명철 신부의 주례로 2000년 6월 18일(일) 12시 미사에 본당 교우 43쌍 부부의 혼인성사 서약 갱신식이 있었다. 이를 위해 M·E는 외짝교우, 혼인성사 하지 않은 부부, 혼인 5년 후의 부부들을 찾아 6월 10일 한차례의 준비모임을 한 후, 더욱 따뜻한 부부의 사랑으로 성가정을 이루도록 혼인성사 서약 갱신식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 혼인 갱신식(2000.6.18)

그리고 고명철 신부는 2001년 성주간 수요일에 '한가족 만찬'을 통하여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본당 신자들에게 적극 권유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을 각 가정이나 반모임, 소공동체가 가족 단위로 재현하는 가정 전례를 통해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2. 사도직 단체의 개편과 나눔 활동

1) 성 빈첸시오회, 성소후원회 해체와 본당 후원활동 전개

고명철 신부는 부임 후 성 빈첸시오회를 1998년 12월, 성소후원회를 1999년 1월로 단체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당 1999년도 사목방침을 발표하면서 모든 후원단체에 대한 신자들의 후원회 기금과 불우이웃돕기(13개월분 교무금) 기금을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본당 재정에서 일원화하여 관리,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 빈첸시오회와 성소후원회에서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였던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활동 또한 사목협의회 사회복지분과 주관 하에 계속하여 후원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었다.

한편 고명철 신부는 이러한 본당 나눔의 실천에 있어 지금까지 아낌없는 희생과 나눔의 활동이 각 신자 가정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한 본당 신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성소후원 및 각종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돕는 것은 사랑 실천의 근본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13개월분 교무금을 성실히 내도록 주보를 통하여 교우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2) 나눔회 신설과 성소기도회의 재탄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1999년 1월 사목협의회 사회복지분과 소속으로 나눔회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초기 조직은 4명의 임원과 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회장에 김명승(프란치스코), 부회장 원명숙(율리아나), 서기 신흥자(마르가리타), 회계 조정숙(도로테아)이 봉사하였다

나눔회의 예산은 신자들이 내는 13개월의 교무금 중 1개월분으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해에 집행 사용하며, 예산에 없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전개하였다.

▲ 이상훈 리노 신부 방문 (1999.5.6)

그리고 해체된 기존 성소후원회의 정신 그대로 성소자 및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모임으로 그 명칭을 '성소기도회'로 개칭하면서 재출범하였다. 첫 미사가 1999년 3월 4일에 봉헌되었고, 성소기도회 모임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10시 미사 후 소강당에서 하였으며, 미사 전후에 회원모집 활동을 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당 2대 주임신부였던 이상훈 신부가 재임하는 교리 사목연구소 방문(1999.5.6)을 시작으로 회원 42명이 미리내 성지순례(1999.10.7), 원주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은퇴수녀 방문(2000.12.18)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3) 연령회의 조직화와 연도 활성화

기존 '연령회'의 봉사자들은 선종한 본당 신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할머니 친교모임인 연령회 회원을 위한 봉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7년 간 봉사한 박순기(베드로) 초대 회장의 뒤를 이어 제2대 정재익(가누토) 회장은 이상훈(리노) 신부께 연령회원들인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는 노인분과에서 담당하고 자신은 선종교우 봉사활동에 전념하기로 말씀드리고 1998년 5월 13일에 회장직을 맡았다. 이렇게 하여 선종 교우를 위한 봉사단체인 기존 연령회 활동이 이원화(이후에 선종봉사회, 안나회로 분리) 되었다.

이후 기존 연령회 봉사자인 김용성(아녜스)을 총무로, 그리고 정병채(안토니오), 이후희(리카르도), 고윤상(정하상 바오로) 등을 선종 봉사자로 모집한 후에 조남훈(요셉), 남옥진(베로니카)을 보강하면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본격적인 선종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자비로 봉사자들의 춘추복과 동복으로 예복 두벌 씩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 상장 예식서를 구비하고 연도 연습을 많이 하였으며, 김용성(아녜스) 자매는 직접 염을 하기도 하였다. 제3대는 송진선(야고보)이 2000년 8월부터 회장직을, 2001년 2월 말에는 조명승(가리노)이 제4대 회장을 맡았다.

▲ 위령성월 용인 성직자 묘역(1999.10.29)

한편 고명철 신부는 본당 신자들의 연도 공지가 나면 장례식장에 친히 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연도 시작부터 무릎을 꿇은채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선종한 교우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연도를 드렸다. 이러한 선종 교우를 위한 고명철 신부의 모범적인 사목과 함께 새로이 출범한 연령회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본당에서 연도가 나면 많은 신자들이 연도에 참여하게 되었다.

4)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활동 전개

본당 모든 나눔의 재정을 맡은 나눔회가 어려운 이웃과 단체에 후원활동과 지원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나눔회의 나눔내역

기 간	나눔 내역	금액
1999년	개인지원, 단체지원	49,680,000원
2000년	개인지원, 단체지원	53,260,000원
2001년	개인지원, 단체지원	52,960,000원

그리고 여성구역 구역반원들의 정성을 담은 헌미헌금은 1999년도에 22,546,000원, 2000년에 17,517,000원과 2001년 18,158,000원으로 3년 동안 총 58,221,000원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보냈다. 또한 모금한 금액을 연말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눔 활동

기 간	나눔 내역	금액
1998년 12월	나눔의 집 외 21곳	19,761,000원
1999년 12월	살레시오 집 외 18곳, 개인 3명	17,280,000원
2000년 12월	섭리의 집 외 16곳	13,784,000원
2001년 12월	나사렛의 집 외 15곳	14,812,000원

한편 사목협의회 사회사목분과에서는 헌혈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하는 헌혈의 날을 정하고 적극 홍보하였으며, 1999년 85명, 2000년은 59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성모성심회가 불우이웃돕기 알뜰 바자회를 열어 각종 의류와 기증품 판매를 통해 1999년 10월 4,458,370원, 2000년 10월 4,171,360원, 2001년 10월 5,103,670원의 수익금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이월성당 신축 후원금으로 6,173,680원과 미화 11불을 지원하였다.

5) 사도직 단체의 활동

미사해설단은 2001년부터 남성해설단과 여성해설단으로 분리되었다. 여성독서단은 1999년에 '미사독서단' 으로 개칭되었고, 봉사자들이 배티 성지(1999.12.22)와 서울 시내의 각 성지를 순례(2001.11.1)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성찬봉사회는 1999년 6월 6일, 교중미사 후에 성체 분배권자 임명식과 갱신식을 하였으며, 2000년과 2001년 5월에 신규 성체 분배권자 임명식과 갱신식을 거행되었다.

또한 봉사자들은 수지 성모교육원에서 1박 2일 피정(2001.11.10~11)을 가졌다.

주일학교 자모회는 배티성지 순례(1999.5.20), 성 요셉 수도원 피정(2000.4.6) 이외에 주일학교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주일미사 후 딸기 쨈과 유자차 판매를 하였다.

샛별 꾸리아는 2001년 5월 26일에 13개 쁘레시디움을 분리하여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를 설립시켰다. 초대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 간부는 단장 권중원(베드로), 부단장 박석동(라우렌시오), 서기 문형진(안토니오 그라시), 회계 한진동(요셉)이 맡았다. 이로써 본당은 남성 2개, 여성 2개의 총 4개 꾸리아가 사도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인자하신 모후 꾸리아는 배론성지 순례(1999.9.28), 본당 대강당에서 일일피정(2000.4.18)을 가졌다.

▲ 샛별 꾸리아 전단원 교육(1999.6)

그리고 레지오 마리애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샛별 꾸리아 소속으로 원죄 없으신 모후 Pr.(2000.7.1), 은총의 샘 Pr.(2001.7.31)이 설립되었으며, 인자하신 모후 꾸리아는 결백하신 어머니 Pr.(1999.12.3), 루르드의 성모 Pr.(2000.1.4), 거룩하신 어머니 Pr.(2001.1.11), 희망의 모후 Pr.(2001.5.10)이 설립되었고

자비의 모후 Pr.은 1999년 1월 1일에, 사도의 모후 Pr.은 2000년 1월 3일에 1,000차 주회를 가졌다. 또한 사랑의 샘 꾸리아도 은총의 모후 Pr.(2001.2.20)이 설립되었고, 순교자들의 모후 Pr.이 1999년 9월 7일에, 샛별 Pr.이 2000년 1월 3일에 1,000차 주회를 가졌다.

울뜨레아는 꾸르실료 교육에 신광희(아녜스), 장재근(마르코)외 여러 명의 참가자를 보냈으며, 2002년에는 이은수(레오), 송진혁(미카엘) 등 청년들도 수료하도록 하였다.

파밀리아(Famílla) 성가대는 1999년 12월에 단장이 한동윤(미카엘라)에서 김태희(아가타)로, 부단장이 김용석(아우구스티노)에서 라병남(프란치스코)으로 바뀌었으며 성가대 단원모집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때 성음악 미사(1998.11.1), 2000년 대희년 맞이 제2회 정기발표회(1999.11.12)를 가지기도 하였다. 부부성가대는 수도공고 운동장에서 성가대원 가족 체육대회(2001.6.26)를 하였다.

연령회(이후 안나회, 선종봉사회로 분리됨)는 남양성지 순례(1998.10.14)와 경로잔치

(1999. 3.10), 연풍 성지(1999.10.13)와 솔뫼 성지 순례(2000.10.11)를 하였다. 노장대건회도 가평 꽃동네 방문(1998.10.12), 솔뫼 성지 순례를 하였다. 성모성심회는 매월 한 두 차례씩 성전마당에서 알뜰시장을 열어 교우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기금을 마련하여 불우이웃을 도왔으며, 풍수원 성당(1999.10.21), 공주 황새바위(2000. 3.16), 갈매못 성지 순례(2001.10.11) 등을 하였다.

가톨릭 성서모임은 매년 2월에 성서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룹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정릉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련원에서 그룹원 일일피정(1999.3.30)을 실시하였다. 1999년에 성서 40주간 88개조 974명이, 2000년 성경 공부 25개반 241명이, 2001년 성경 공부 23개반 276명이 수료하였다.

3. 청소년의 활동과 노력

1) 청년연합회의 활동

이은형(티모테오) 신부가 부임한 후 청년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청년연합회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이듬해 양수리 운길산에서 청년연합회 L.T.(1999.1.9~10)를 시작으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천진암으로 성지순례(1999.3.1)를 다녀왔다. 또 영희초등학교에서 개최된 11지구 청년 체육대회(1999.5.5)에 참가하여 수서성당 청년들과 한 팀이 되어 당당히 우승하였다.

그리고 본당에서 청년 철야피정(1999.9.18~19)을 가졌으며, 최성욱(라파엘) 제2기 청년연합회장과 이숙경(엘리사벳)은 율동 찬양부(어울림으로 개칭됨)를 만들어 2000년 5월 14일부터 청년미사에서 율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제3기 청년연합회는 엄상빈(요셉) 회장이 중심이 되어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2000.1.16)을 펼치면서 군복무 중인 친구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냈고, '빛과 소금' 이라는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사이버상 친교와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라병국 신부 부임 후에도 청년 가톨릭 회관에서 청년연합회 임원, 단체장, 구역장 등이

참석하여 월례교육을 받았고, 청년 여름캠프(2001.8.17~19)와 피정도 다녀왔다.

2) 청년 사도직 단체의 활동

▲ 청년합주단의 공연(1999.8.14)

ᄒᆞᆫ울림 성가대는 매년 동계, 하계 MT와 뮤직 캠프를 가졌으며, 제3회 ᄒᆞᆫ울림 성가발표회(2000.11.25)를 하였다. 청년 성서 모임은 매년 2차례 씩 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가톨릭 성서공부 그룹원 모집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제1기 청년연합회에 활동했던 노시현(이레네)과 유신재(에드문도 : 현 예수회 신부)는 청년 사목방문하는 동안 본당 청년 신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같이 모여 합주도 하고 성당 행사 때에 봉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998년 9월 20일부터 합주단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1999년 4월 11일 청년미사 때부터 ᄒᆞᆫ울림 성가대와 연합하여 활동하였으며,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여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인 '한 여름 밤의 콘서트' (1999.8.14)를 개최하였다.

3) 청소년의 활동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생 피정을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 주제로 과천 영보수녀원(1999.1)에서, 코이노니아는 포천 산정호수(1999.8.5~8.7)에 101명이 참가하였고 가평 꽃동네 봉사활동(2000.1.13~15)은 박종철 신부와 조윤행(베드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감과 교사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90여명

▲ 코이노니아 산정호수 B캠프장(1999.8.5)

이 참여하였다.

복사단은 1999년 2월에 예술의 전당 성서 유물전에 다녀왔으며 가족캠프(1999.8)에도 30여명이 참석하였다. 2000년 초등부 무지개동산은 강화도 청소년 캠프장, 2001년은 광주군 우산 야영장에서 있었으며 121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본당에서 11지구 어린이 성가 잔치(1998.11.10)가 열렸다.

4. 시설물의 보수와 본당 행사

1) 본당 시설물 보수와 개선

본당 시설 여러 곳의 누수를 막기 위해 2000년 5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성전 마당의 전면적인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하 3층의 다목적 강당(현 연회장)과 성전 2층 아기방 설치, 누수로 오염된 지하 교리실의 도색작업과 수리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기획분과가 주관하여 성전 스피커 교체에 따른 음향 상태를 설문조사하여 기존보다 개선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성전 의자 높이 조정 공사를 마친 후 신자들이 보다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방석을 설치하였다. 또 고해소 장궤틀 설치, 각 단체의 사물함과 교리실 칸막이 공사 등 각종 시설물 정비도 하였다.

또한 본당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신자들이 미사시 편리하게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가책을 구입하여 성전 의자에 처음으로 비치하였다. 이러한 본당 시설물의 보수 공사비용은 129,000,000원이 소요되었지만 신자들에게 특별모금이나 헌금을 받지 않고 기존 저축 자금과 경상비 절약으로 충당하였다.

한편 2001년 6월 16일에 선종한 신봉균(데레사) 할머니 가족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본당 발전을 위하여 일천만원을 봉헌하여 주었다.

2) 김정진(바오로) 신부의 금경축 미사

고명철 신부는 서울 소신학교 선배교사였던 김정진(바오로) 신부의 사제 서품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미사와 축하식을 본당에서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진 신부의 금경축 기념미사는 2000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에 본당 성전에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 등 동료와 20여명 후배 사제들이 공동집전한 축하미사에 수도자, 1,000여명의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한 생을 목자의 삶에 헌신한 노사제의 금경축을 축하드렸다.

5. 고명철 신부의 선종

고명철 신부는 2001년 10월 첫 주일에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제8대 사목협의회를 이끌 총회장으로 유영순(미카엘) 부회장을 임명한 뒤, 이튿날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에 갔으나 곧 입원하여 암 요양치료를 받게 되었다.

고명철 신부의 병원 입원 소식과 위중한 병환이 본당 신자들에게 알려진 뒤 매 미사 때마다 쾌유를 위한 기도를 전신자들이 함께 바쳤다. 또한 평일 10시 미사 때마다 묵주기도 5단을 하나된 마음으로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로사리오 기도모임에서는 월요일 오후 8시, 15단 묵주기도를 바칠 때 고명철 신부의 쾌유를 위한 지향을 같이 하였으며 각 구역 반장단을 통하여 후원모금도 하였다.

▲ 고명철 신부 선종(2002.2.17)

하지만 3년여 동안 본당 사목하는 동안 교우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축복하고 신자들과 친교를 나누는 일을 즐거워하였으며, 소공동체 운동의 확산과 선교사목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고명철 신

부는 자신의 병을 알고는 '내가 죽을병이래.' 이렇게 말씀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결국 병원에서 다섯 달 가까이 힘든 암 투병을 하면서 그렇게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던 본당에 와보지도 못하고 2002년 2월 17일 오후 8시 23분, 강남성모병원에서 향년 65세로 선종하였다.

청천벽력 같은 고명철 주임신부의 선종 소식이 본당에 알려지자 라병국(아우구스티노) 보좌신부, 신숙자(데레사) 원장수녀와 주순복(젬마) 수녀, 유영순(미카엘) 총회장과 사목위원들은 소강당에 빈소를 마련하였으며, 전신자들과 함께 연도를 드렸다. 사목협의회 주관으로 명동성당 빈소와 용인 성직자 묘소인 장지까지 운행할 버스 배차와 구역별 연도일정을 빠르게 수립하여 본당 신자들이 정성되이 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당 신자들의 오열과 기도 속에 장례미사는 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됐으며, 유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 공원묘지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정진석 대주교는 장례미사 강론을 통해 "40여 년간 사목자로 살아오신 고신부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나라 건설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라고 말하고 "평소 고인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신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아온 모범적인 사제였다."고 회고하였다.

▲ 고명철 신부 장례 미사(2002.2.19)

영세기념(1999.9.12)

영세기념(1999.8.14)

견진기념(2001.5.27)

견진기념(2000.5.28)

불우 이웃돕기 알뜰시장(2000.10.22)

영세 및 첫 영성체기념(1999.6.5)

성지 축성하는 고명철 신부(2000.3)

연령회 야유회(2001.5.9)

구역반장단 연총친목회(1999.2.3)

성서 40주간 봉사자(1999.3.12)

11지구 어린이 성가잔치(1998.11.10)

김정진(바오로) 신부 금경축 축하 미사(2000.4.15)

제 5 부

본당의 안정과 내실화

제1장

본당 공동체의 안정화 노력

1. 김병학 신부 부임과 사목계획

1) 김병학 신부 부임

고명철(아우구스티노) 신부 후임으로 성서학자로 잘 알려진 김병학(라파엘) 신부가 2002년 3월 5일, 본당의 제4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이날 교우들이 환영하는 자리에서 김병학 신부는 "많은 교우 분들이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영을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 보좌신부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며 열심히 사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부임 인사를 하였다.

▲ 신자들의 환영 속에 부임하는 김병학 신부(2002.3.5)

김병학 신부는 1935년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 가톨릭대학교를 거쳐 1964년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해 인스부르크의 성 바오로성당에서 인스부르크의 파울 류슈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았다. 또한 1967년에 로마 교황청 성서대학에서 선종완(라우렌시오) 신부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성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 교황청 성 토마스 데 아퀴노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여 30여

년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였다. 한편 교수신부로 재직하면서도 서울 이태원 성당(1979.7.18), 역촌동 성당(1983.9.1), 방배동 성당(1988.10), 제기동 성당(1993.11.5), 돈암동 성당(1998.10)의 주임 신부를 역임하며 본당 사목활동을 펼쳤다.

2) 사목지향과 사목목표

김병학 신부는 사제 양성에 헌신한 학자답게 사제는 복음에 따르는 사제적 생활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제적 직무의 실천으로써 사제직의 존귀성과 의의를 드러내는 사목활동을 펼쳤다. 또한 성직자와 수도자가 중심이 되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신념이었다.

그리고 미사 때 성경 봉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례는 물 흐르는 듯한 분위기 속에 기품이 있고 간결한 진행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례 봉사자들의 전례교육 참가를 권고하였으며, 신자들에게는 전례의 의미를 자주 설명하였다. 또한 부활·성탄 미사시 불려진 라틴어 전례곡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 의미를 알려주었다.

신자들이 성경 공부에 맛들이도록 성서사목과 선교활동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였으며, 김병학 신부가 어렵게 공부한 성서학의 깊은 내용을 미사 강론이나 특강 시에 신자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을 기울이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시노드의 실행기에 접어들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는 여정' 인 시노드의 후속단계들이 김병학 신부 재임기때 진행되면서 본당 공동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목활동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노드의 실천방향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라는 교구장의 2003년도 사목교서에 따라 본당 재임기 동안 신자들이 시노드에 적극 참여하고 복음화의 실천에 매진하도록 이끄는 사목을 펼쳤다. 또한 시노도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본당의 각 사목부문인 선교, 교육, 청년, 평신도 등의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신자들의 성서읽기 생활화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 소공

동체 활성화 및 복음화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병학 신부의 재임기 동안 본당의 사목목표와 주요 추진시책은 다음과 같다.

▶사목목표와 주요 시책

구 분	사목목표	주요 시책
2003년	1. 교구 시노드에 적극 참여하여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의 발전과 쇄신을 이루는 길에 앞장서자 2.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자	– 교구 시노드에 적극 참여 –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 실천 – 쉬는 신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 경주 – 청소년, 청년 사목의 내실화
2004년	참여하는 시노드를 통해 즐겁고,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자 1. 봉사하는 본당 2. 따뜻한 본당 3. 환대하는 본당을 만들자	– 선교와 교육 시노드 – 쉬는 교우 시노드 – 평신도 시노드 – 소년, 청년 사목 시노드 – 사회 복음화 시노드
2005년	시노드 정신의 실천으로 사랑의 교회를 만들자 1. 성서읽기 생활화 2. 친교 활성화 3. 선교 활성화	– 소공동체 조직 재정비와 친교 활성화 전개 – '복음화 2020운동' 지속 추진 – 1교우 1봉사 단체 가입 – 성서읽기 생활화 – 청소년 재정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역내 이웃과의 지속적 선교 및 친교 운동 –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 배려
2006년	시노드 정신의 실천으로 사랑의 교회를 만들자 1. 성서읽기 생활화 2. 친교 활성화 3. 선교 활성화	–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쇄신 – 가정, 소공동체, 본당의 삼위일체적 공동체 중심 사목 –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하는 사목 실현 – 한마음한몸운동 적극 동참 – 각 지구별 사회사목회의 및 운영에 동참

3) 보좌신부와 수도자의 동정

고명철 주임신부의 요양치료와 선종으로 인하여 어려운 본당 상황이었지만 당시 1보좌 신부였던 라병국(아우구스티노) 신부는 그 공백기간 동안 본당 사목을 훌륭히 이끌었다.

라병국 신부는 김병학 주임신부의 부임일인 2002년 3월 5일에 미아5동 주임신부로 이임하였으며, 환송미사는 3월 3일(일)에 있었다. 그리고 후임으로 3월 5일 이성우(요셉) 신부가 세종로 성당에서 부임하였다.

이후 김병학 신부 재임 시 사목한 보좌신부는 다음과 같다.

성 명(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새 임지	비 고
이성우(요셉) 신부	2002.03.05	2004.02.29	가톨릭중앙의료원	제1보좌
강재흥(요셉) 신부	2004.03.01	2004.09.30	평화시장 성당	제1보좌
민범식(안토니오) 신부	2004.10.01	2004.11.30	해외 유학	제1보좌
이계철(라파엘) 신부	2004.12.01	2005.11.30	미아3동 성당	제1보좌
정현영(요셉) 신부	2005.12.01	2006.11.30	해외 유학	제1보좌
안성남(안드레아) 신부	2001.12.01	2003.11.30	상계2동 성당	제2보좌
김준동(마르티노) 신부	2003.12.01	2004.09.30	고양시 고양동 성당	제2보좌
박수환(치릴로) 신부	2005.12.01	2007.11.30	도림동 성당	제2보좌

그동안 본당 사목을 도왔던 신숙자(데레사) 원장수녀는 명동 본원으로, 주순복(젬마) 수녀는 성 바오로병원으로 2003년 2월 11일에 이임하였으며, 같은 날 신민숙(로렌시아) 원장수녀와 김인옥(젬마로사) 수녀가 명동 본원에서 부임하였다. 그리고 2004년 2월 9일에 부임한 최효숙(데레사) 수녀는 2005년 2월 15일에 계성초등학교으로 이임하였고, 후임으로 김정애(베르나데트) 수녀가 부임하였다.

4) 사목협의회의 개편

김병학 신부는 사목협의회 총회장을 중심으로 각 사도직 단체가 자율적으로 고유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믿음으로 지원하였다. 그래서 제8대 유영순(미카엘) 총회장 이후에 2003년과 2005년도에 제9대, 제10대 사목협의회 총회장과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본당 사목을 이끌었다.

제9대는 권중원(베드로) 총회장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신임 구성원 중에는 노창수(라인문도) 전임 사회사목 분과장이 부회장에, 이종성(돈보스코) 청소년 분

과장이 청년 분과장으로, 그리고 기존 청소년분과는 소년분과로 개칭되었다. 유임한 고윤상(정하상 바오로) 부총무, 조규황(요한) 재정분과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새로운 상임위원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제10대 사목협의회는 전임 부회장을 역임한 노창수(라이문도) 총회장이 임명되었으며, 각 상임위원 중에 유임 5개 분과(전례, 재정, 교육, 남성구역, 사회복지) 이외에 새로운 상임위원들을 임명하며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제9대와 제10대 사목협의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제 9대 사목협의회 명단(2003.11~2005.10)

– 회 장 : 권중원(베드로)
– 부회장 : 노창수(라이문도)
– 총 무 : 김진규(스테파노)
– 부총무 : 고윤상(정하상 바오로)
–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세용(요한), 부위원장 강규련(헬레나) 외 1인
–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재유(다니엘), 총무 김현숙(안나)
–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지연(그레고리오), 간사 김환수(안드레아), 엄정숙(요세피나) 외 7인
–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조규황(요한), 부위원장 감명식(마태오), 간사 안경식(안드레아) 외 2인
–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박순민(아가타), 간사 이영심(실비아) 외 4인
–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상섭(돈보스코), 간사 전한균(요한 크리소스토모) 외 17인
–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신연수(노엘) 외 19인
– 청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종성(돈보스코), 부위원장 임승순(사도요한) 외 4인
– 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권성오(필립보) 외 2인
–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상린(프란치스코), 간사 김태균(프란치스코), 이현경(베로니카) 외 5인
–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남궁칠(미카엘), 부위원장 성복순(스텔라), 총무 유순희(안젤라) 외 2인
– 시설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용철(루피노), 부위원장 문형진(안토니오 그라시) 외 2인

■ 제 10대 사목협의회 명단(2005.11~2007.10)

– 회 장 : 노창수(라이문도)
– 부회장 : 이종성(돈보스코)
– 총 무 : 고윤상(정하상 바오로)
– 부총무 : 조헌성(발렌티노)

–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상배(사비노) 외 2인
–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재유(다니엘), 총무 신소정(율리아나)
–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주영(아우구스티노), 부위원장 배기만(베드로), 간사 황주선(도미니코), 성필란(마리아) 외 7인
–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조규황(요한), 부위원장 감명식(마태오), 간사 안경식(안드레아) 외 2인
–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박순민(아가타), 간사 이경순(루치아), 서기 박영선(로사) 외 4인
–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상섭(돈보스코), 간사 이병일(요셉) 외 15인
–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박연숙(비비아나)외 18인
– 청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용화(야고보), 간사 유상규(사비오), 서기 오은자(루피나) 외 4인
– 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곽효종(안드레아), 부위원장 송기선(프란치스코), 간사 권동영(스테파노) 외 3인
–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상린(프란치스코), 간사 김태균(프란치스코), 이현경(베로니카) 외 4인
–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명준(남명혁 다미아노), 부위원장 성복순(스텔라) 외 3인
– 시설분과위원회 : 위원장 박창일(클레멘스)

2. 대치3동 성당의 분당과 소공동체의 활동

1) 대치3동 성당의 분당

서울대교구의 본당 신설 10개년 계획에 따라 이미 대치4동 성당을 1999년 10월 1일에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당의 2002년 신자수가 8,200여명을 상회하여 또다시 분할을 검토해야만 했다. 그래서 김병학 신부는 교우들에게 분당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대치3동 성당의 설립에 따른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물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신자들은 많은 물적 봉헌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본당의 관할지역인 대치3동 985번지 우성 2차 아파트, 대치3동 984번지 경일빌라와 대치4동 성당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치3동으로 분리하여 대치3동 성당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2004년 8월 11일에 강남구 대치3동 980번지, 980-2호, 980-7호 부지를 매입하였고, 개신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10월 21일 부터 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 대치3동 성당 전경

본당은 대치3동 성당의 부동산 대지 구입비로 5억 원을 내었고, 대치동 성당에서 6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 2005년 5월 2일에는 성당공사 분담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기 지원금으로 1억 원을 2005년 5월 20일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대치3동 성당은 2004년 9월 9일에 설립되었고, 초대 주임신부로 황경원(안드레아) 신부가 부임하였다. 성전 봉헌식은 2005년 5월 22일에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본당에서는 대치3동 성당에 편입된 지역(우성 2차 아파트, 경일빌라) 신자들의 115세대, 343명의 교적을 2004년 11월 1일부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대치3동 성당은 2010년 8월 20일에 대치 성모탄신성당으로 개명되었다.

2) 남성 구역 봉사자의 교육과 활동

김병학 신부는 부임 후 남성 사도회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2년 3월 7일에 이지연(그레고리오) 남성구역 분과장을 비롯한 구역장 11명과 첫 상견례를 하면서 소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봉사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남성 구역 봉사자들의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구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구역봉사자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는 봉사자 자질 향상이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본이 된다는 사목적 필요에서 였다. 이에 따라 남성 구역봉사자들은 2002년 3월 7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역삼동 성당과 일원동 성당에서 실시하는 11지구 남성 구역 봉사자 학교 교육과 교구에서 주관하는 남성구역 봉사자 일일피정에도 매년 참석하였다. 특히 2004년 3월 21일에는 남성구역 봉사자 피정시 감명식(마태오) 7구역 4분회장, 한규영(안드레아) 13구역 1분회장이 모범구역 봉사자로 선정되어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시노드의 배경 및 토론마당 교육(2002.5.6)과 본당 연회장에서 실시된 남성구역

소공동체 활성화 토론대회(2005.4.10)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봉사자들의 신심고양을 위해 배론성지(2003.5.11), 공세리 성당(2005.5.22), 성거산 성지순례(2006.5.14)를 다녀왔다. 2005년에는 구역별로 부활 판공성사 봉사(2005.3.17~3.19), 2006년에는 구역에서 견진교리를 받는 신자들과 친교와 사귐을 위해 봉사자들이 구역별로 견진 예비자 안내 봉사(2006.5.4~6.8)를 하였다.

3) 여성 구역의 활동

여성 구역의 소공동체 활동은 김병학 신부와 보좌신부, 신 로렌시아 원장수녀 등이 반모임에 참석하는 등 깊은 관심과 지원에 따라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김병학 신부는 본당 기초 공동체인 소공동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안의 일치' 라는 소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공동체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로서의 기초지식과 봉사자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목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성 구역 봉사자들을 2002년부터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구역(반)장 월례연수 등의 봉사자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10월 27일, 가톨릭회관에서 여성구역봉사자 신흥자(마르가리타) 구역장과 이혜련(세라피나) 반장이 교구 모범 구역, 반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그리고 여성구역은 2006년 사목목표의 실천 중의 하나인 친교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2006년 4월부터 성당 마당에서 구역장, 반장들이 차를 끓여 매월 1회~2회씩 교중미사 후 남성구역 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구역 교우들과 인사와 담소를 나누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대문시장 성당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2차례(2005.11, 2006.5)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구역장과 반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봉사를 하였다.

한편 매년 구역 반장단 피정을 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을(2002.1.22), 가평 피정의 집(2004.2.4), 소록도(2005.1.19), 대천 요나성당(2006.1.19) 등에서 가졌으며, 나바위 성지(2002.10.19), 솔뫼 성지(2003.10.15), 공세리 성당(2004.10.20)으로 성지 순례를 하였다. 또한 구역 반장단 모두가 충북 단양(2002.5.22), 감곡 성당(2005.5.18), 청남대와 허브랜

드(2006.5.17) 등지로 야유회를 다녀왔으며 연차 총친목회(2003.12.10)도 가졌다.

이외에도 용인 한터캠프에서 실시한 주일학교 여름캠프 방문(2002.8.9), 정선에 청년 여름캠프 봉사(2002.8.24), 예비신자 환영 봉사(2002.8.25) 활동을 하였다.

4) 구역미사 봉헌과 친교 행사

2005년도 사목목표인 소공동체의 조직 재정비와 친교 활성화를 위해 각 구역별로 미사봉사와 친교행사를 실시하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12시 미사때 해당 구역에 사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미사 봉헌을 하고 또 미사 전례의 봉사도 담당하였다. 미사 후에는 구역장 주관으로 지하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 온 구역 교우들을 소개하고 서로 상견례하며 간단한 식사나 다과로 친교행사를 가졌다.

▶구역미사 봉헌 일정

일자	구역	대상지역
2005. 9.25	1	은마 1~5동
10.23	2	은마 6~10동
11.27	8	미도 106~111동
12.25	1~13	남성 전구역 봉사자
2006. 1.22	1	은마 1~5동
2.26	2	은마 6~10동
3.26	3,15	은마 11~15동, 현대 101동
4.23	4	은마 16~20동
5.28	5	은마 21~26동
6.25	6,16	은마 27~31동
7.23	7	미도 101~105동
8.27	8	미도 106~111동
9.24	9	미도 201~207동
10.22	10	미도 208~212동
11.26	11	쌍용 1~6동
12.24	12,13	쌍용 7~10동, 우성 1차

5) 전입교우 돌봄 프로그램

전입한 교우들을 위한 본당 차원의 돌봄 계획이 2005년 6월부터 수립되었다. 그리고 본당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고 신자들과 친교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10월부터는 전입교우 환영 행사를 마련하였다. 전입교우가 있을 때 남성 레지오 단원들이 전입교우 세대를 전화연락이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본당을 안내하였는데, 이는 보다 적극적인 전입교우들의 돌봄을 통해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김병학 신부의 사목적 방침때문이었다.

그래서 전입교우의 연락이나 방문, 그리고 미사 참례 인도나 사도직 단체의 가입 권유는 남성 꾸리아 소속 쁘레시디움별로 담당하고 이와 함께 전입교우 형제들은 남성구역분과에서, 자매들은 여성구역분과에서 담당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우 돌봄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본당에 전입한 교우를 위한 환영회도 마련하여 2005년 10월 23일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환영식 자리에는 여성구역에서 준비한 다과와 음료를 나누며 김병학 신부, 총회장의 환영인사와 함께 참석한 교우들의 자기소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각 사도직 단체의 소개와 가입 권유도 있었다.

3. 시노드 활동

1) 시노드(Synod) 본회의 준비와 활동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2002년 12월 28일(토)에 서울대교구 시노드 대의원 793명 및 전문위원 159명을 임명, 발표하였다. 본당에서는 성직자 대의원으로 임명직은 김병학(라파엘) 신부가, 당연직은 이성우(요셉) 신부가 임명되었다. 또한 평신도 대의원 본당 대표로 이한분(스테파니아), 박석동(라우렌시오) 형제가 임명되었다. 시노드 대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단체나 본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속된 의안별 전체회의와 분과

▲ 시노드 기도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서울대교구의 시노드(Synod ; 교회회의) 본회의가 신부와 수녀, 한 가운데 평신도 대의원이 참석,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목표로 21세기 교구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3년 1월 26일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개막되었다. 본격적인 시노드 개막에 앞서 서울대교구 내 모든 본당과 수도회, 제 단체는 1월 17일(금)부터 9일 동안 매 미사 시작 전에 묵주기도 1단과 시노드 기도를 드렸다.

2) 시노드 토론마당 개최

교회와 본당이 가장 직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차례 토의를 거친 후 안건들을 모아 교구 시노드 사무국에 제출하게 되는데, 본당별 토론마당은 교구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시노드 준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당 시노드 19명의 대의원들은 교중미사 후 사목회의실에서 시노드 토론마당을 총 3회(2003.5.26, 6.16, 7.21)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본당 시노드 관련 토론마당 결과

구 분	내 용
교구 차원	사제의 권위의식으로 인한 문제점, 사제들의 세속적인 태도
	신부님들이 교구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순회했으면 좋겠다(빈부차가 심함)
	사형제도나 낙태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합심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비신자들의 호응을 얻고 사회적 반응을 얻을 수 있게 해야한다.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재미있게 만들어 비신자들도 관심을 갖게 한다.
	새 본당을 건립할 때 소규모로 지었으면 한다.
	사제가 신자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 상담하고 위안을 받고 싶은 상대가 되어 주는 따뜻한 사제
	장 위주가 아닌 소외된 자, 노인, 평범한 신자들과 대화를 잘하는 자세
	겸손과 희생, 모범적이며 기도하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제로 노력하면 좋겠다.
본당 차원	미사를 정성껏 드리는 사제 (강론을 길게 하여 미사전례를 서둘러 하는 일은 지양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미사 전에 고해실에 신부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고해성사를 친절하게 해주시는 사제 –상처받아서 위로 받고 싶을 때 꾸중과 같은 훈계는 상처로 인해 냉담하기 쉽다.
	청년미사를 즐겁고 활기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초등부 주일미사를 일요일로 옮겼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영적인 교육, 훈련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강론은 준비를 잘해서 핵심을 집어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는 사제
	미사 후 신부님이 어린이나 노인들을 대할 때 일일이 손잡고 사탕이라도 나누었으면 좋겠다.
	사제가 할 일을 평신도에게 역할을 분배하여 신부님을 돕고 신자들의 신앙심을 함양한다.
	성직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여 교우들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다.
	신부님들 영명축일에 축가, 꽃다발, 박수 등은 보기 좋으나 선물봉투는 개인적으로 드렸으면 좋겠다.(수녀님들과도 너무 차이가 나고 보기도 좋지 않다.)

개인 차원	신자 각자가 반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신자 개인 의견이 사목회에 잘 반영되는지 궁금하며, 사목회가 일치되어 성직자들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성직자, 수도자 비방 삼가기
	미사에 지각 안하기
	교무금 잘 내기
	신부님을 평신도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기
	신부님을 사사로이 귀찮게 하지 않기
	소속된 단체에 충실히 자기 몫을 다하기
	성직자와 신자와의 거리 유지하기

제2장

본당 내실화를 위한 활동

1. 사도직 단체의 개편과 활동

1) 성찬봉사회 해체와 연령회의 안나회, 선종봉사회 분리

김병학 신부는 영성체를 청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의 의무이고, 성체성사에 대한 존경심과 성체의 신성함을 드러내기 위해 성체분배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당 설립 초기부터 미사 중 사제를 도와 성체분배 봉사를 담당하였던 성찬봉사회의 활동은 2003년부터 중지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기존 '연령회' 회원 할머니들이 대부분 참여한 가운데 할머니들의 사도직 단체인 '안나회'가 발족하였다. 박철원(아나다시아) 회장, 전병렬(데레사) 2구역장, 손태석(아가타) 3구역장과 간사 조영희(크리스티나), 양영숙(소피아)이 초대 봉사자로 활동하였으며, 회원은 60명으로 시작하였다, 모임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에 미사참례 후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성복순(스텔라), 조영희(크리스티나), 유순희(안젤라)의 자발적인 봉사로 할머니들께 국수를 대접해 드렸다.

또한 김병학 신부는 상가 돌봄을 통한 선종봉사자의 역할과 할머니 연령회원들을 위한 친목과 교류를 위한 단체는 성격이 다르므로 기존 연령회를 분리하여 각각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2003년부터는 본당 신자들의 선종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선종봉사회로 개칭하였다.

2) 사도직 단체의 조직 정비

김병학 신부는 본당 사도직 단체의 활동에 있어 중복된 일부 조직은 통폐합하고 기존 각 단체의 조직을 정비하여 신자들의 신심활동이나 효율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년 성가대는 매년 정기발표회를 가졌으며, 본당의 주요 전례에 성가 봉사를 담당하는 대표 성가대임을 드러내기 위해 2006년부터 '성가정성가대' 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꽃꽂이 봉사단이 '전례꽃꽂이회' 로 개칭되었고 청년 전례단도 순 우리말인 '사랑이 가득한 세상' 이라는 의미를 지닌 '다솜누리' (2004.4.25)로 바뀌었다. 그리고 성소기도회는 해체(2003)되었다.

한편 초등부 교사회의 중복 기능도 통합하였는데, 2004년부터 '초등부 예비자 교리 교사회' 와 '초중고등 주일학교' 를 '어머니교사단' 으로 통합하여 자녀를 둔 어머니 그룹과 대학생 청년 그룹이 함께 소속되어 청소년 교리공부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교사 그룹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대학생 청년 그룹이 위축되는 면이 있어 2006년부터 '어머니 교사단' 을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어머니 그룹은 '주일학교 초등부' , 대학생 청년 그룹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를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을 하였다.

3) 봉사자의 밤과 체육대회 개최

사목위원들과 전 총회장, 남성 및 여성구역의 반장과 사도회장, 꾸리아 간부 등 270 여 명이 참석한 봉사자의 밤 행사가 2005년 12월 11일 대강당에서 있었다. 김병학 신부는 이 자리에서 사목위원들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한 봉사자들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김병학 신부와 신민숙(로렌시아) 원장수녀, 노창수 총회장과 사목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 놀이 겸 봉사자 체육대회가 2006년 5월 5일 오전 10시에 개포동 수도공고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으며, 사목위원간 친교와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족구와 발야구, 짝짓기 게임 외에도 안나회 성복순(스텔라) 자매가 진행한 꼭지점 댄스를 함께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4)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

▲ 샛별 꾸리아 피정(2005.6.25)

남성 꾸리아인 샛별 꾸리아와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는 합동으로 레지오 행사를 진행하였다. 레지오 교본 경시대회를 2002년 5월 25일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전단원 일일피정도 같은 해에 6월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본당에서 가졌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단원 연도교육을 본당에서 실시하였다.

샛별 꾸리아는 2004년부터 매년 수지 성모 교육원에서 전단원 피정을 가졌다. 전단원 연도교육을 2005년 3월 12일 대강당에서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은이성지로 순례를 다녀왔었다. 또한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는 전단원 토론대회를 2003년 3월 15일(토) 오후 2시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센폴수도원에서 전단원 피정(2004.9.10)과 토론대회 겸 봉쇄 피정(2005.7.9)을 가졌다. 그리고 여성 꾸리아는 간부교육과 전단원 피정을 매년 가졌으며, 11지구 연도 참가자를 초청하여 변경된 연도에 따른 창법 발표회(2005.11.17)를 통해 레지오 단원들의 연도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레지오의 적극적인 신심활동으로 레지오 마리애 단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샛별 꾸리아는 천상사랑의 어머니 Pr.(2002.4.23)과 그리스도의 모후 Pr.(2005.12.20)이 신설되었고, 대치동에서 분리되어 이어져온 평화의 모후 Pr.은 1,000차 주회(2004.6.30)를 가졌다. 그리고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는 자비의 모후 Pr.(2002.8.7)이, 사랑의 샘 꾸리아에서는 희망의 모후 Pr.(2005.5.3)이 신설되었다.

한편 서울대교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신앙대회가 2005년 8월 17일에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레지오 마리애가 출범한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레지오 정신의 부활과 참된 변화와 쇄신을 통한 레지오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가 주례하는 경축미사 봉헌과 김수환 추기경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사제단과 레지오 단원 등 2만여 명이 참석하였고, 본당 4개 꾸리

아 117명 단원이 이 신앙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03년 5월 8일에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였다.

2. 선교활동과 신자 재교육 강화

1) 예비신자 교리와 영세 현황

기존에는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함께하는 여정' 1, 2단계 교육을 수료한 예비자 교리 봉사자들이 예비신자들의 교리 교육과 봉사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김병학 신부는 2002년 예비신자 교리부터는 교리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전례적, 성체 중심적 교리교육의 본질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 교육을 위해 성직자와 수도자가 예비신자 교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교리반 편성은 평일 낮반(금, 오전 10시) 신숙자(데레사) 원장수녀, 저녁반(금, 오후 8시)은 이성우 신부, 중고등부(주일 9시 미사 후)는 주순복(젬마) 수녀가 담당하였다. 이후 김병학 신부 재임기 동안 보좌신부와 수녀가 3개의 교리반을 열어 예비신자들의 교리교육을 실시하였다.

▲ 영세기념 (2003.7.5)

그리고 선교활동에 있어서도 2002년 후반기 예비신자 모집시에는 외짝 교우와 미입교 자녀의 명단을 작성하여 주임신부 명의로 초청서신을 발송하는 등 가까이 있는 곳부터 선교 소명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였다, 특히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과 구역 반, 사도회가 중심이 되어 각 구역별로 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월부터는 성전 내에 예비신자 지정석을 배치하여 예비신자 봉사자들과 함께 미사참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신자들이 미사 성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영세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06	156	96	112	93	102	70	105
계	262		208		195		175	

2) 견진교리와 견진 현황

김병학 신부는 본당 신자 재교육을 위해 서울대교구 내의 본당들을 중심으로 견진교리 교육을 비롯하여, 예비신자 교리, 신앙특강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부의 선교사들을 초빙하여 견진교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신도만이 지닐 수 있는 갖가지 신앙체험들과 함께 본당 신자들의 신앙심과 영성 생활에 도움을 줄 새롭고 신선한 신앙 재교육을 시도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한국 C.L.C. 김광엽 교수를 초빙하여 복음 안에서 신앙을 키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영성 심화를 위한 견진교리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신자들은 빠짐없이 교리 교육과 특강을 수강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철저한 출석관리를 통해 성령 칠은을 받는 준비와 함께 세례의 은총을 성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견진성사의 의미를 신자들이 깊이 되새기도록 하였다.

▲ 견진성사 기념 (2006.6.11)

▶견진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45	64	64	88	46	71	48	62	55	80
계	109		152		117		110		135	

이와 같은 견진교리는 매년 실시되었으며, 2002년 5월 19일에는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2003년 6월 15일에는 이한택(요셉) 주교, 2004월 6월 6일에는 염수정(안드레아) 주교, 2005년 6월 5일에는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 그리고 2006년 6월 11일에는 김운회(루카) 주교가 집전한 가운데 견진성사식이 거행되었다.

▶견진교리 특강

일시		주 제	강 사
2002년	4.4(목)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인숙(아가타)
	4.11(목)	성서	최인용(요한)
	4.18(목)	전례	이건욱(시몬)
	4.25(목)	성사	김종숙(페브로니아)
	5.2(목)	기도	조명숙(체칠리아)
	5.9(목)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박용수(마르코)
	5.16(목)	사회 교리	권명안(스테파노)
2003년	5.1(목)	성사와 신앙 생활	이성우(요셉) 신부
	5.15(목)	교회 공동체	최인룡(요한)
	5.22(목)	그리스도인의 삶	양인수(마르타)
	5.29(목)	실천교리(지킬 계명)	권명안(스테파노)
	6.5(목)	성서와 하느님 말씀	김병학 신부
	6.12(목)	1) 기도, 2) 예절 연습	신민숙(로렌시아) 수녀, 이성우 신부
2004년	4.30(금)	성서	이현숙(루치아)
	5.7(금)	견진 성사와 전례 생활	조명숙(체칠리아)
	5.14(금)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	박원배(시메온) 신부
	5.21(금)	영성 생활 1	정원순 신부
	5.28(금)	영성 생활 2	정원순 신부
	6.4(금)	종합교리, 전례연습	김병학 신부

2005년	5.5(목)	성사총론, 성세 성사	이계철 신부
	5.12(목)	고해성사, 병자성사	이계철 신부
	5.19(목)	혼인성사,성품성사	이계철 신부
	5.26(목)	성체성사, 견진성사, 교회법 (신자의 의무)	이계철 신부
	6.2(목)	종합전례 및 전례 연습	김병학 신부, 이계철 신부
2006년	5.4(목)	나는 누구인가?	김광엽 교수
	5.11(목)	사랑과 죄	김광엽 교수
	5.18(목)	파스카를 사는 삶	김광엽 교수
	5.25(목)	올바른 영성 생활	김광엽 교수
		판공성사, 성삼일 예절참석	개별
	6.1(목)	주님 맛들이기, 성사	김병학 신부
	6.8(목)	참회예절, 고해성사 예절연습	박수환 신부

3) 영성 심화를 위한 특강

은총의 사순시기와 대림시기를 거룩하게 보내며,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특강과 전신자 교육, 일일 피정을 통해 본당 신자들의 영성을 심화시키는 교육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영성 심화 특강

구 분	시 간	주 제	강 사
사순특강	2002.2.22	기도란 무엇인가?	정규환 신부
	2002.3.1	어떤 기도를 해야하나?	정규환 신부
	2002.3.8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김종기 신부
	2002.3.15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김종기 신부
	2004.3.5	예수님의 수난과 참회, 우리의 성화	김보록(바오로) 신부
	2004.3.19	멋진 삶	두봉(레나도) 주교
	2005.2.25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배 야고보 신부
	2005.3.11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성가정의 의미	송영오 신부
	2006.3.24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식별 I	박일 신부
	2006.3.31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식별 II	박일 신부

4) 시네마 영성

기존에는 사순시기와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손님신부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여 왔었는데, 2003년의 대림특강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상영하고, 그 영화에 담긴 복음적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아주 높았으며,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사순특강은 영화 '나자렛 예수 1,2'와 김보록 신부, 두봉(레나도) 주교의 특강을 교차 진행하여 평균 3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였다.

▲ 시네마 영성 포스터(2003.6.28)

시네마 영성은 이처럼 영상 매체를 통하여 본당 신자들의 신앙심 고취와 영성 심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정현영(요셉) 신부, 박지훈(안드레아) 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영화 상영 전에는 먼저 지도신부의 시작기도와 영화 감상 포인트를 들었으며, 관람 후에는 복음적인 시각으로 영화 내용을 다시 풀어 설명하여 주었고 마침기도로 끝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목협의회 교육분과에서는 시네마 영성에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매회 영화 포스터를 자체 제작하여 성당 로비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보와 본당 홍보 카페에 '시네마 영성 미리보기' 글을 올리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2003년 1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또는 매주 3번째 토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대강당에서 상영되었다.

▶시네마 영성 프로그램

일시		영화 제목	일시		영화 제목
2003년	1.2	신과 함께 가라	2005년	1.15	pianist
	3.6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19	Passion of Christ
	3.13	플래툰		3.5	블랙 로브
	3.20	안개속의 풍경		4.16	로빙화
	3.27	데드 맨 워킹		5.21	몬스터 주식회사
	6.28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6.18	사랑의 블랙홀

2003년	9.6	미션	2005년	10.15	단스 신부
	9.21	아마데우스		12.3	보네트
	10.25	할 만 하거든 좀 착하게 굴어라		12.9	사이먼 버치
	11.1	축제	2006년	1.21	황금광 시대
	11.15	모노노케 히메(원령 공주)		2.18	영원과 하루
	12.13	인생은 아름다워		3.11	K-Pax
2004년	1.3	넷째 왕의 비밀		3.18	길
	2.21	꼬마 돼지 베이브		5.20	미세스 다웃파이어
	3.13	나자렛 예수 1부		6.17	미션
	3.20	나자렛 예수 2부		9.16	러브 오브 시베리아
	7.17	브루스 올 마이티		10.2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9.18	성 비오 신부			
	11.20	아들의 방			
	12.10	마더 데레사			

한편 시네마 영성은 영상에 익숙해진 세대와 영화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하느님의 현존과 삶의 희망,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본당의 신자들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신자들의 영성을 이끌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선한 시도였다,

3. 청소년 및 노인 사목활동

1) 초·중·고등부 활동

소년분과가 2003년 11월에 사목협의회 개편시 기존 청소년분과에서 분리되면서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교육, 지도 및 성소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유치부는 매년 7월에 본당에서 신앙학교를 열었으며, 초등부는 여름철에 무지개동산을 용인 한터 캠프장(2002.7.22), 가평 푸른누리 수련원(2003.8.9), 용문 청소년 수련원(2004.8.9), 가평 코스모피아(2005.7.22),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2006.7.27)을 다녀왔다. 연말에는 대강당에서 어린이들이 꾸미는 성탄 예

술제를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중·고등부도 매년 방학기를 이용하여 여름캠프를 가졌으며, 특히 2004년에는 미리내와 배티성지, 그리고 연풍성지와 배론성지를 순례하는 여행캠프를 하였다. 또 연초에는 '별빛 따라' 신년 예술제를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벗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복사단도 정기적으로 캠프와 연수를 가졌고, 고 3 수험생을 위한 피정도 연례적으로 1월에 실시되었다

2) 청년 단체의 활동

청년연합회는 청년들의 단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방학기를 이용하여 정선 초록 초등학교(2002.8.23), 가평 용추 계곡(2003.8.22), 속초 휴양소(2004.812), 주문진성당 인구공소(2005.8.19), 동강(2006.8.11) 여름캠프를 실시하였다.

캠프에 앞서 보좌신부와 간부들은 현장 답사를 다녀오고, 미사 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며 냉담 중이거나 비신자인 젊은이들도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청년도서 바자회(2006.5.7)를 본당에서 열어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본당의 주요행사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2006년 7월 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본당 세 번째 사제인 임민균(그레고리오) 신부의 서품식 때는 행사장 안내와 축하행사 지원활동을 펼쳤다.

▲ 청년여름캠프(2002.8.23)

▲ 청년의 밤(2005년)

청년합주단은 2001년부터 삼성의료원에서 매월 1회 환자들을 위한 연주와 입양원(2002.9.14), 가르멜 수녀원(2005.11.26)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05년 5월 14일에는 대강당에서 제2회 청년합주단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한울림성가대는 제4회 정기발표회(2002.11.16)를 하였으며, 매년 연말에는 한울림의 밤 행사를 가졌다. 청년 레지오는 장애교우 가정방문(2002년), 구룡마을 불우이웃 봉사(2004.9.5), 2005년 10월부터 매월 1회 은평 도티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전례단은 청년 전례단에서 '다솜누리' 청년 전례단으로 개칭(2004.4.25)하였으며, 서울 시립 아동상담소 봉사(2002.12.7)와 대천해수욕장에서 MT와 요나성당 순례(2005.6.23)를 가졌고 2005년부터 매주 토요일 수서아동복지원 봉사를 하였다.

3) 노인 사목과 단체활동

김병학 신부는 노인 신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친교를 나누며, 선교적인 목적에 따라 지역 노인들을 초대하는 경로잔치를 매년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인 신자들의 신심단체인 노장대건회 및 안나회는 봄에는 야유회를, 가을에는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가졌다.

그리고 대치동 지역의 노인 신자들을 위한 노인대학 설립이 2003년 12월 3일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본당도 노인 신자들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대치동 성당에 노인대학을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노인대학이 2004년 3월 10일에 '한티 솔로몬대학' 으로 대치동 성당에서 정식 출범하면서 대치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동에 거주하는 노인 신자 17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본당은 45명의 신자들이 노인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여성 꾸리아의 레지오 단원들이 솔선하여 노인대학의 식사 도우미로 학기 중에 성실히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4. 성경 공부의 확산과 새 단체의 설립

1) 가톨릭 성서모임의 활동

말씀의 봉사자회는 2000년 3월에 '가톨릭 성서모임' 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신자들의 성경공부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2년에는 23개반 279명(봉사자 23명), 2003년 22개반 269명(봉사자 22명), 2004년 22개반 211명(봉사자 27명), 2005년 24개반 276명(봉사자 21명), 2006년에는 23개반 215명(봉사자 25명)이 수료하였다. 이와 같이 꾸준히 신자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05년과 2006년의 본당 사목목표 중의 하나인 '성서읽기 생활화' 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 가톨릭 성서모임 피정(2005년)

2) 성서못자리의 탄생과 활동

1990년부터 명동대성당에서 안병철(베드로) 신부와 동창, 선후배 신부 등 7명의 성직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깊이 깨닫자는 취지로 시작된 성경공부가 성서못자리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성직자들의 성서못자리 강의는 큰 호응을 얻으면서 명동대성당 뿐만 아니라 교구 각 본당으로 확산되었는데, 본당에서도 조창수 신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성서못자리 강의를 성인 신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까지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격적으로 성경공부 활성화를 위하여 이성우(요셉) 신부는 기존의 가톨릭 성서모임 외에 또 다른 성서모임 창립을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에게 건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2년 10월에 김옥진(베르나데트)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김현자(안나), 이은

주(안나), 김은주(데레사), 신영애(스콜라스티카), 엄정숙(요세피나), 장혜원(마틸다), 도봉애(마리아 막달레나), 최영숙(율리아나), 차정언(가브리엘라), 유숙희(안나), 김춘희(마르가리타) 등 봉사자 13명으로 성서못자리가 탄생되었으며, 2003년에 정식으로 성서못자리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성서못자리는 2004년에 마르코, 루카, 마태오, 요한복음 4과목을 13개반, 156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5년은 5과목 11개반에 134명, 2006년은 7과목 12개반에 78명이 공부하였다.

3) 직장인 가톨릭 성서모임의 설립

2000년 3월부터 직장인을 위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한 8명 모두가 직장인을 위한 야간 성서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말씀의 봉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2년 2월 16일에는 송현철(라파엘) 초대 회장을 비롯한 이상일(시몬), 김광수(마르티노), 김태균(프란치스코), 이종수(프란치스코), 박철환(바오로). 최조정(아우구스티노), 이정길(라파엘), 이병일(요셉) 등 9명의 봉사자로 구성된 '직장인 가톨릭 성서모임' 이 탄생하게 되었고, 3월에 김병학 신부로부터 정식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직장인 가톨릭 성서모임은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등을 연이어 개설하면서 2002년 8개반 53명, 2003년 6개반 45명, 2004년 11개반 71명, 2005년 11개반 89명, 2006년 13개반 100명이 수료하였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개설과목과 개설반이 증가하였으며, 본당 직장인 신자들의 성경 공부의 열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의 본당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안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위한 성경 공부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본당 주변 성당에까지 알려져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타 성당의 직장인 신자들을 위해 직장인 가톨릭 성서모임은 말씀의 봉사자들을 해당 성당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2002년 대치동 성당에 이종수(프란치스코), 이병일(요셉) 봉사자의 첫 파견을 시작으로 도곡동, 대치3동으로 매년 확대해 나갔다.

▶직장인 성서 봉사자 파견 현황

년도 \ 파견	본당명	파견 봉사자	성경공부 과정
2002년	대치동 성당	이종수(프란치스코)	창세기
	대치동 성당	이병일(요셉)	창세기
2003년	대치동 성당	이병일(요셉)	창세기
	대치동 성당	송현철(라파엘)	탈출기
2004년	대치동 성당	박희종(루치오)	창세기
2005년	도곡동 성당	우길상(요셉)	창세기
	도곡동 성당	이정길(라파엘)	창세기
2006년	도곡동 성당	이병일(요셉)	창세기
	도곡동 성당	이정길(라파엘)	창세기
	도곡동 성당	박희종(루치오)	탈출기
	도곡동 성당	이상일(시몬)	탈출기
	대치3동성당	김동철(마르코)	창세기

4) 영어 성경공부의 시도

성경 공부의 열기가 높은 가운데 영어성경 공부반이 2006년 3월부터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행된 '말씀지기' 교재로 공부하는 2개반이 개설되었다. 월요일반은 오후 8시, 금요일반은 오전 9시부터 영어 성경 공부를 하였으며. 20여명이 수강하였다. 김은옥(모니카) 봉사자 등이 지도하여 하느님 말씀을 배우며 영어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5. 임민균(그레고리오) 새 사제의 탄생

1) 부제 수품

임민균(그레고리오) 신학생이 2005년 7월 7일 오후 2시에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정진

석(니콜라오) 대주교로부터 동료 37명과 함께 부제수품을 받았다. 이로써 1998년 김지형 신부의 사제수품 이후 7년만에 본당에서 다시 새 사제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부제서품식에는 김병학 주임신부와 이계철(라파엘) 보좌신부, 신민숙(로렌시아) 원장수녀와 김정애(베르나데트) 수녀, 김인옥(젬마로사) 수녀, 사목협의회 권중원(베드로) 총회장과 사목위원, 가족과 친지, 본당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임민균 부제의 수품을 축하하였다.

▲ 임민균 신학생 부제 수품(2005.7.7)

임민균 부제는 임희성(엘리야)과 장흥순(비비아나)의 3남중 막내로, 대치초등학교, 개원중학교, 단대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를 졸업 후 성소의 길을 걸었다. 특히 임민균 부제는 어릴 때부터 대치동 지역에서 자랐고 대치동 성당에서 복사로 활동하였으며, 본당 설립 이후에도 대학 4년 내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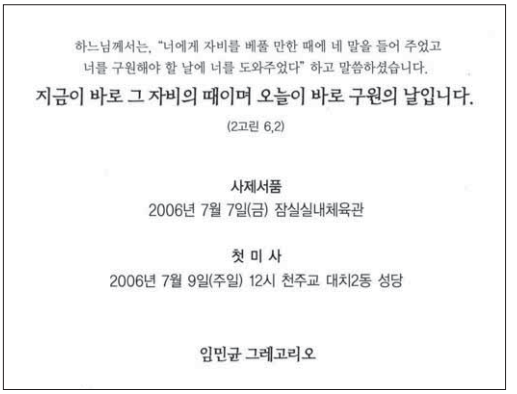
2) 사제 수품과 축하식

임민균(그레고리오) 부제는 2006년 7월 7일에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의 주례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35명의 동료와 함께 사제 수품을 받았다. 이로써 본당에서는 1997년 이용현(알베르토) 신부의 첫 사제 탄생이후, 1998년 김지형(제오르지오) 신부에 이어서 세 번째 사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날 서품식에는 김병학 주임신부와 정현영(요셉) 보좌신부, 박수환(치릴로) 보좌신부, 신민숙(로렌시아) 원장수녀와 김정애(베르나데트) 수녀, 김인옥(젬마로사) 수녀, 사목협의회 노창수(라이문도) 총회장과 사목위원, 가족과 친지 등 많은 본당 신자들이 참석하여 새 사제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 임민균 부제 사제수품(2006.7.7)

그리고 임민균 신부는 7월 9일, 본당에서 새 사제로서 첫 미사를 봉헌했으며, 같은 날 교중미사 후 가족과 친지, 본당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출신 사제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잔치가 있었다.

▲ 임민균 신부 상본(앞면)



▲ 임민균 신부 상본(뒷면)

그동안 해외유학 중인 신학생의 경우 부제품과 사제품을 해당 유학 교구지에서 행함이 관례였으나 임민균 신부의 경우 이례적으로 소속 서울대교구에서 수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로마를 방문한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을 신학생의 신분으로 보필하면서 부제품과 사제품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간청 드렸고, 교구장이 이를 수락하여 유학 중인 신학생이 자신의 출신 교구에서 신품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여행 경비 등의 문제로 영광스러운 서품식에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임민균 신부는 2011년, 로마 교황청립 그레고리안 대학(기초신학 박사과정)에서 수학 중이다.

6. 전례의 변화와 본당 시설보수

1) 미사 전례의 변화

미사 전례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지향은 전례의 단순화와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에 초점을 두었는데, 김병학 신부 부임 후 전례는 항상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례의 핵심적인 부분 이외는 가능한 한 단순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본당의 미사 전례가 2002년 6월 1일자로 변경되었다. 또 미사 시간도 주일미사가 오후 6시 30분(청년)과 8시(일반) 미사가 2002년 5월 5일자로 오후 7시 미사로 통합되었다.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미사 15분전에 도착하여 미사 전에 삼종기도와 시노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성가는 그 날 미사 전례에 맞는 성가를 최소한 2절까지 부르며, 화답송은 성가대가 있는 경우 선창자와의 연습을 통해 후렴부분은 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성가대가 없는 경우는 독서자가 하였다. 또한 미사 자체가 중요한 기도이므로 미사가 끝난 후 마침기도는 하지 않고 파견성가와 성호경,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인사로 끝맺도록 하였다.

2) 성당 시설보수 공사

김병학 신부는 1991년 본당 성전 건립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안전이나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된 시설물의 개수와 성전 시설의 보수작업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비 약 3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다. 먼저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사 내역은 성당 마당 바닥공사, 성전바닥 코딩 및 라인작업, 지하 3층 연회장 신축, 주차장 방수작업 등이었다. 그리고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는 성당 출입구 유리문 교체, 성당 지붕 및 외벽 코킹 공사, 국기봉 제작, 성당 외벽 세척작업이 있었으며. 11월에는 수녀원과 성전 옥상 방수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당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성당 안전진단이 2005년 3월 30일에 실시하였으며, 지

하 3층 누수부분의 문제가 나타나 이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4월부터 5월까지 장마철을 대비하여 붕괴 위험이 있던 사제관 옆 담장공사와 고해소 리모델링, 성당 마당 입구 계단 손잡이 보수, 사제관 앞 옹벽보수공사 및 화단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많은 시공자가 본당 교우의 사업체였기에 공사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성전보수 공사내역

공사기간	공사명	금액(원)
2003.5.~7	가스정압기 이설공사	10,032,000
	옥상탱크 주위 배관	1,300,000
	배수펌프 철거, 설치	1,060,000
	성당내부	46,090,000
	주차장 보수	36,520,000
	계단실	30,690,000
	교사실 다용도장	8,800,000
	성모회 다용도장	770,000
	교사실 냉난방, 모니터	7,110,000
	비상발전기	447,700
	천장보수 비계 임대	3,780,000
	교사실 냉방 배관과 전기 설비	1,0400,000
	화재 수신반	3,443,000
	성전 바닥 보수	36,300,000
	시청각실	11,765,600
	주차장 바닥	44,000,000
	전등설비	2,730,000
2004.8.19~9.25	성당지붕 및 외벽 방수(코팅)공사	8,500,000
2005.4.11~5.28	사제관 옆 담장공사	52,973,369
2005.5~7	고해소 리모델링	40,812,000

이러한 공사가 2년여 진행되는 동안 불편이 많았지만 본당 신자들은 기꺼이 어려움을 감내하였으며, 더욱이 많은 물적 봉헌과 어려운 노력봉사까지 함께 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성전 내부 경사진 바닥에 비해 의자는 수평을 유지하여 신자들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로 앉는 불편을 개선하는 어려운 작업이 있었다. 이 작업은 목공 전문가인 김지석(가브리엘)과 샛별 꾸리아 소속 레지오 단원들의 20여 일간 자발적인 노력 봉사로 의자를 바닥 기울기에 맞게 정확히 재단하는 고난도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노고에 따라 오늘날 신자들이 편한 자세로 미사 참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 성모상 및 성가정 상 수난사건

성탄을 눈앞에 둔 시점에 본당에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2003년 12월 14일 주일 새벽에 벌어졌다. 조각가 최종태 교수가 세운 3m 높이의 성전 마당의 성모상과 성당 입구의 성가정 상이 검은색, 붉은색 매직으로 온통 '낙서 수난'을 받았다. 이날 서울 강남 일대의 성당 10여 곳이 비슷한 성모상 수난을 겪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본당 내에서는 성 조각품 관리를 잘못한 일을 반성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성당 출입구의 철문을 설치하였다.

4) 성인 우표 전시와 주일학교 운영지원

성인 우표전시회가 2004년 11월 17일에 본당에서 있었다. 이날 전시된 성인 우표 134점은 최익철(베네딕토) 신부가 약 30여 년 동안 모은 150개국에서 발행한 1천여 장의 우표 중에서 특별히 수호성인에 관한 우표가 선별되었다. 신자들은 처음으로 성인 우표 전시회를 관람하였으며 자기 수호성인께 대한 신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2003년 8월에는 음료수 자판기를 만남의 방에 설치하였으며, 자판기 수익금 전액은 주일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7. 나눔과 봉사의 실천

1)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헌혈행사

2003년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인간배아복제 및 동물 난자에 사람의 핵을 이식하는 체세포핵 이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대교구는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구의 방침에 따라 김병학 신부는 회개와 보속의 사순시기에 장기 기증운동 및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과 헌혈을 본당도 적극 동참하도록 신자들에게 권고하였으며, 2003년 5월 11일 만남의 방에서 헌혈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날 98명의 신자들이 헌혈하였으며, 2,986명이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2) 서울대교구 성체대회와 봉헌서약

2005년 서울대교구 성체대회(2005.10.13~10.23)는 '겨레의 생명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성체성사 본질인 생명과 나눔의 신비를 드러내고 '한 생명 살리기' 는 기도와 희생과 나눔의 봉헌을 하나로 묶어 실천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본당 공동체는 10월 13일 개막 미사와 함께 9일 기도를 시작하였으며, 10월 16일 '한 생명 살리기 봉헌서약서' 를 미사시 봉헌하였다.

그리고 2006년 서울대교구 성체대회(2006.6.18~9.6)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생명운동을 삶에서 실행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였다. 본당에서는 6월 18일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8월 6일 성체성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웃 사랑과 자기희생이 담긴 '헌신 봉헌서' (뇌사시 장기 기증자 113명, 각막 기증자 112명, 헌혈 참여 36명,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153명)를 접수하여 교구청에 전달하였다.

3) 불우 이웃을 위한 나눔과 후원활동

나눔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년 예수의 집, 하남 프란치스코의 집 외 20여개 단

체와 여러 개인 등에게 후원금과 학자금, 명절 쌀 지원 등으로 2002년 53,460,000원, 2003년 58,140,000원, 2004년 57,840,000원, 2005년 58,960,000원, 2006년 62,160,000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인 이웃돕기 나눔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또한 여성 구역은 반모임을 통해 신자들의 정성을 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여성의 전화와 바오로 어린이집 외 15개 단체와 저소득층 이웃을 위하여 2002년에 16,423,000원, 2003년 16,775,300원, 2004년 13,701,000원, 2005년 14,826,800원, 2006년에는 15,066,000원을 사랑의 손길로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어려운 이웃의 몫으로 '한줌의 쌀'을 모아 봉헌하는 헌미헌금 또한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눔으로 그 활동이 매년 이어졌다.

한편 성모성심회는 주일날에 판매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타 성당을 위해 후원하였다.

▶헌미헌금 봉헌액 내역

년도	후원금액
2002년 9월	5,578,420원
2003년 5월	14,538,610원
2003년 9월	7,438,170원
2004년 5월	16,270,050원
2004년 9월	4,850,630원
2005년 5월	14,193,320원
2005년 9월	5,041,230원
2006년 5월	14,380,000원
2006년 9월	4,081,170원

▶성모성심회 후원활동 내역

년도	후원금액	후원 내역
2002	7,674,454원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2003	15,400,000원	주문진성당 외 17개 단체 및 개인 10명
2004	8,400,000원	안동교구 후포성당 외 단체 3곳
2005	11,866,550원	북한동포 돕기 외 단체와 개인
2006	9,100,000원	용인 생명의 집 외 단체

그리고 본당 신자들의 특별헌금을 통해 갑작스런 큰 재해를 입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타 성당에 후원하는 나눔의 실천도 다음과 같이 매년 이어지며,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나눔과 후원활동(2002년~2006년)

일 자	대 상	후원금액
2002년 9월 8일	수재민 돕기	2,507,940원
2003년 9월24일	수재의연금	18,633,000원
2004년 5월 9일	재해의연금	3,847,800원
2005년 1월 2일	해일 피해민을 위한 헌금	7,678,380원
2006년 7월23일	수재민 돕기	6,607,090원

타 성당에 대한 성전 건립 및 후원활동도 지속되었는데, 2002년에는 한남동 성당 외 4곳에 900만원, 2003년 송파동 성당 외 6곳에 1,000만원, 2004년 논현2동 성당 외 4곳에 1,100만원, 2005년 신월동 성당 지원금 외 3곳에 1,700만원, 2006년 동대문 성당 외 5곳에 1,760만원을 후원활동을 펼쳤다.

▶성전 건립 및 후원활동

일 자	대 상	후원금액	비 고
2003년 10월 26일	벌교성당 개축을 위한 헌금	12,833,250원	
2004년 10월 17일	전남 화순성당 신축헌금	6,745,530원	
	〃	78,872,000원	봉헌약정액
2005년 10월 9일	강원 영월 주천성당 신축공사 지원	11,157,650원	
2006년 3월 19일	가르멜 수녀원 돕기	7,788,850원	
2006년 8월 20일	춘천교구 강촌성당 신축헌금	10,410,300원	
	〃	89,600,000원	434명 봉헌약정액

8. 본당 행사와 김병학 신부의 은퇴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2005년 4월 2일, '전부 당신의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84세의 일기로 하느님의 품

에 안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소식을 접하고 본당 신자들은 '평화의 수호자', '생명의 수호자' 였던 교황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였다. 김병학 신부와 많은 교우들은 대강당에서 모여 생중계된 장례미사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교황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면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교황을 추모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병학 신부는 장례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우들에게 전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다.

2) 교우들이 함께 한 월드컵 경기 관람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온 나라를 흔들 무렵, 본당에서도 6월 18일에 있었던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에 많은 신자들은 성당 앞마당에 모여 단체 응원을 하였다. 이를 위해 김연홍(요안나) 자매가 빔 프로젝트, 대형 스크린을 제공해 주었고 상지의 옥좌 Pr. 단원들의 노력으로 대형 스크린이 사제관 외벽에 설치되었으며, 또한 사제관에서 사용하는 TV까지 옮겨와 월드컵 관람과 응원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석한 교우들은 성당 앞마당에 모여서 김병학 신부와 이성우 신부, 안성남 신부를 비롯한 수녀들과 신자 가족들, 또 비교우인 이웃 주민들도 초대하여 모두 어깨동무를 하며 다 같이 '대~한민국' 을 외치면서 응원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리고 결승골이 들어가자 환희와 감격의 분위기가 되어 붉은 T셔츠를 입은 김병학 신부와 자리에 함께한 신자 모두들이 일어나 얼싸안고 춤추었으며, 꽹과리를 두들기고 목청껏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다. 경기 후 감격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성당 앞마당 청소 및 정리 정돈을 함께 하였고, 비신자들인 이웃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 후 8강, 4강전까지 성당 앞마당 응원전은 계속 이어졌다.

3) 김병학 신부 사제 수품 40주년 기념과 고희 경축

김병학 신부의 '사제수품 40주년 및 고희' 축하식이 2004년 9월 19일에 있었으며, 12시 축하미사 봉헌에 이어 축하식과 축하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성구역 봉사자들은 김병학 신부 및 축하식에 참석한 선·후배 신부들을 위해 대강당에 잔치상을 차렸으며, 특히 고

▲ 사제서품 40주년 및 고희연(2004.9.19)

희를 맞은 본당 신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차림상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 청년연합회 및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단은 노래와 연주로 축하를 드렸다.

이 날 선·후배 신부들과 수도자, 총회장과 사목위원, 친인척 등 1,000 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레지오 단원들은 영적 지도신부인 김병학 신부 사제 수품 40주년 기념으로 영적 선물(묵주기도 63,425단, 미사참례 및 영성체 1,368회, 사제를 위한 기도 5,760회, 화살기도 422회, 희생 249회)을 드리며, 축하와 감사를 드렸다. 잔치 후 김병학 신부는 "사제수품 40주년과 고희를 맞이하여, 축하해주며 기도하여 주시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답례하였다.

4) 김병학 신부의 은퇴

신자들에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영적 양식을 제공하며 본당 공동체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온 김병학 신부는 본당 주임신부를 끝으로, 일선 본당 사목에서 물러나 기도와 저술활동을 하며 여생을 봉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3일에 김병학 신부의 은퇴식이 마련되었다. 은퇴미사는 10시 30분에 조규만(바실리오) 주교, 김병도(프란치스코) 몬시뇰, 최윤환(암브로시오) 몬시뇰을

▲ 김병학 신부 은퇴연(2006.9.3)

비롯한 동료、후배 사제 27명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 자리에 선·후배 신부, 수도자, 전임 사목지 신자들과 본당의 신자 등 약 800 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병도 몬시뇰은 강론에서 "학창시절에도 성실 그 자체였고 늘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 김병학 신부가 은퇴하는 것을 보니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제생활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30여년간 가톨릭 신학대학교에 재직하며 사제 양성에 혼신을 다한 김병학 신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병학 신부 부친인 김연희(발렌티노, 93세) 옹이 자리를 함께 해 신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은퇴미사와 은퇴식 후 이어서 대강당과 연회장 및 만남의 방에서 연회를 가졌으며, 청년 성가대와 청년 합주단의 축하노래와 연주로써 그동안 헌신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드렸으며. 더불어 헤어짐의 아쉬움을 같이하였다.

한편 김병학 신부는 은퇴 이후에도 저술활동을 하며, 독일 '루돌프 슈낙켄부르크' 신부의 저서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번역 출간되었다.

▲ 은퇴후 저서

청년연합회 월출산등반(2003년)

영세, 첫 영성체 기념(2002.6.1)

영세기념(2003.2.15)

영세기념(2002.3.16)

첫 영성체(2004년)

청년 여름캠프(2004.8.12)

영세기념(2004.6.26)

견진성사 기념(2006.6.11)

첫 영성체 기념(2005.5.29)

❖ 춘계 울림성가대 11지구 성가대회 참가(2005년)

❖ 청년합주단 연주회(2005.1.8)

❖ 코이노니아(2002년)

제 6 부

본당의 발전과 소공동체 활성화

제1장

본당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

1. 김자문 신부의 부임과 사목목표

1) 김자문 신부의 부임

김병학 신부를 이어 서울대교구 성소국장으로 재직하던 김자문(네레오) 신부가 교구 사제 인사발령(2006.8.24)에 따라 9월 5일에 많은 신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본당 제5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김자문 신부를 축하하는 환영미사는 9월 10일, 12시 미사에 봉헌되었으며, 본당 주보를 통해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더 데레사 수녀의 묵상글로 부임인사를 대신하면서 본당 사목을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필요한 배고픈 분입니다.
예수님은 감싸 안아야 할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인도해 주어야 할 앞 못 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배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1)]

김자문 신부는 1948년 5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출생하여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12월 8일 사제품을 받았다. 첫 사목지로 천호동 성당에서 보좌신부(1973.12.14)를, 그리고 명동성당 보좌신부(1975.1.7), 불광동 성당 보좌신부(1976.1.8), 성신고등학교 교사신부(1977.1.7)를 거친 후 필리핀 동아시아사목연구소(East Asian Pastoral Institute, E.A.P.I.) 연수(1980.7.31)를 다녀왔었다.

그리고 동잠실 성당(1981.5.20, 신천동 성당 개칭) 초대 주임신부를 시작으로 성산동 성당 2대 주임신부(1986.8.29)를 역임하였으며, 서울대교구로 옮겨 제4대 성소국장 신부(1992.10.8)로서 14년 동안 교구 성소사목 활동을 이끌었다.

2) 사목지향과 사목목표

김자문 신부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귐, 섬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성가정을 본받아 기도와 말씀의 가정 공동체, 성체 안에서 친교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가 되도록 사목활동을 펼쳤다.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와 일치를 지향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교우들에게 기도생활과 가족 중심의 미사 전례 참여,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일상의 삶 속에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년 전례시기에 맞춰 명망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자주 초빙하여 신자들에게 영적 성화와 하느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는 등 다양한 신심고양 사목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소공동체 미사를 통해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자들이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 재해를 입은 타 본당이나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나 해외 긴급구호 활동에 적극 후원하는 나눔의 실천을 이끌었다. 특히 선종 교우를 위한 연령회의 봉사활동을 격려하며 선종 가족에 대한 배려와 함께 선교사목적 노력을 하였다.

한편 김자문 신부는 교구 성소사목을 오랫동안 이끌었기 때문에 본당 사목지의 활동에는 다소 공백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본당 부임 후 먼저 한 일이 본당 현황 파악과 사목협

1) 본당 주보 제784호 2006.9.10

의회와 사도직 단체, 신자들과의 소통이었다. 그래서 각 분과뿐만 아니라 모든 본당 사도직 단체들과 모임을 하며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임 후 4개월 남짓 되어 주보를 통해 오랜만에 맡은 대치2동 본당 사목에 대해 "오랜 동안 해외근무하다 옛 직장으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할까? 어떤 때엔 귀농한 농부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며, 좋은 느낌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성당 건물도 마음에 들고, 하느님을 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교우들이 많아 마음이 흐뭇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자문 신부는 본당 공동체가 하느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2007년이 되자며 부임 후 첫 사목목표를 발표하면서 1) 은혜로운 소공동체 모임으로 작은 교회 체험하기, 2) 1교우 1봉사하기, 3) 매일 5분 성경읽기를 세부 실천계획으로 정하였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제자들처럼' 사는 2008년이 되자며, '영적으로 충만된 기쁨 가득한 공동체로!' 를 본당의 사목목표로 정하였고 1) 가정 교회 만들기, 2) 말씀으로 생활하기, 3) 성체 안에 친교 나누기를 세부 실천목표로 하였다.

한편 2009년도 교구장의 사목교서는 '신앙인의 터전인 가정' 으로 신앙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완성되어 세상 모든 이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님의 성가정을 본받아 복된 가정을 가꾸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9년도 사목목표는 1) 말씀과 기도로 사는 교우, 2) 감사와 따뜻한 가정교회, 3) 성체와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1) 나눔, 섬김, 봉사 2) 본당 설립 20주년 준비, 3)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를 사목목표를 정하였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는 2011년 사목목표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가정과 교회로 거듭 나고자 '씨 뿌리는 공동체' 를 지향하며 1) 기도하는 공동체, 2) 서로 봉사하는 가정, 본당 공동체, 3) 친교의 가정, 본당 공동체로 정하였다.

3) 보좌신부와 수도자의 동정

정현영(요셉) 1보좌신부는 2006년 11월 20일까지 1년간의 본당 사목을 마치고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후, 후임으로 박지훈(안드레아) 신부가 수유동 성당에서 부임(2006.11.21)하여 2008년 12월 8일까지 사목을 하고 시흥5동 성당으로 이임하였다. 후임으로 김승호

(안드레아) 신부가 해외연수를 마치고 2008년 12월 9일에 부임하였지만 두달 남짓 사목을 하다가 삼성동 성당 주임신부로 이임(2009.2.16) 했고 그로인해 6개월 반 정도의 1보좌신부의 공백이 있었다. 이후 교구 청소년국 이도행(토마스) 차장신부가 부임(2009.9.1)하였으며 2011년 2월 21일까지 1년 반 정도 사목하다 도봉동 성당 공동사목 주임신부로 이임하였다. 후임으로 이길재(베드로) 신부가 2월 22일에 난곡동 성당에서 부임하였다.

한편 박수환(치릴로) 신부는 2005년에 사제서품 후 본당에서 첫 사목을 하고 2007년 11월 19일에 도림동 성당으로 이임하였으며, 후임으로 안원진(베드로) 신부가 서품 후 첫 본당 사목을 2009년 8월 31일까지 하고 교구장 비서실 비서신부로 이임 후 3개월의 공백이 있은 뒤 박민우(알베르토) 신부가 서품 후 본당으로 2009년 12월 1일에 부임하였다.

한편 수도자로 김병학 신부 재임시부터 본당 사목을 위해 헌신한 신민숙(로렌시아) 원장수녀는 2007년 2월 8일에 논산 부평동 성당으로, 김정애(베르나데트) 수녀는 2007년 7월 17일에 대천성당으로 이임하였다. 또한 김인옥(젬마로사) 수녀가 명동 본원으로 2007년 2월 8일에 이임하고 김영숙(아녜스마리) 원장수녀, 조진희(루치아) 수녀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조진희(루치아) 수녀는 2009년 2월 9일에 명동 본원으로 이임하였으며 후임으로 최헬레나(헬레나) 수녀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김영숙(아녜스마리) 원장수녀는 원주 원동성당으로, 최헬레나 수녀가 가평 푸른누리 청소년수련원으로 2010년 2월 8일에 이임하면서 우정자(세레나) 원장수녀와 이인숙(마르티나) 수녀가 부임하였다.

4) 사목협의회의 개편

김자문 신부는 부임 후 교구 사목지침에 따라 2006년 11월에 가정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종성(돈보스코) 부회장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당 주보관리와 홍보, 사이버 사목을 위해 홍보분과를 신설하여 유상규(사비오) 분과장을 임명하였고 시설분과를 성전보존분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또한 본당 사도직 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사목협의회 직제를 2007년 3월에 종전의 단일 총회장 – 부회장 – 분과장 체제에서 부문별 담당제인 복수 부회장 – 분과장 체제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는 노

창수 총회장과 기존 부회장들을 유임하면서 제11대 사목협의회를 개편하였다.

■ 제11대 사목협의회 명단(2007.11~2008.10)

–총회장 : 노창수(라이문도)
–부회장(가정담당) : 이종성(돈보스코)
–부회장(선교담당) : 이주영(아우구스티노)
–부회장(사목담당) : 한상섭(돈보스코)
–부회장(여성담당) : 이귀배(레지나)
–총 무 : 고윤상(정하상 바오로)
–부총무 : 조헌성(발렌티노)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상규(사비오), 부위원장 김태균(프란치스코) 외 1인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재유(다니엘), 부위원장 한규영(안드레아) 외 8인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주영(아우구스티노), 부위원장 이광규(스테파노) 외 16인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감명식(마태오), 부위원장 안경식(안드레아) 외 3인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박순민(아가타), 부위원장 지인영(요안나), 간사 김명희(요안나) 외 10인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상섭(돈보스코) 외 16인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귀배(레지나) 외 18인
–청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정현윤(스테파노), 부위원장 김태수(안드레아) 외 11인
–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윤원호(스테파노), 부위원장 강규련(헬레나) 외 8인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위원장 박철제(베네딕토), 부위원장 김용운(베드로) 외 3인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명준(남명혁 다미아노), 부위원장 김명국(스테파노)
–가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종성(돈보스코), 부위원장 전한균(요한 크리소스토모) 외 10인
–홍보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재철(안드레아), 간사 이지현(마틸다) 외 5인
–성전보전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용화(야고보), 부위원장 제갈승(베드로) 외 3인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본당 제12대 총회장으로 이주영(아우구스티노) 선교담당 부회장을 임명하면서 다시 개편하였다. 제12대부터는 '사목협의회'를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부회장을 두지 않았다.

■ 제12대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명단(2008.11~2010.10)

–총회장 : 이주영(아우구스티노)

–총　무 : 장기영(바실리오)

–부총무 : 이경순(루치아)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조헌성(발렌티노), 부위원장 최정미(클라라), 간사 두창준(그레고리오) 외 1인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규영(안드레아), 부위원장 황석원(바오로) 외 8인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허길수(김대건 안드레아), 부위원장 정학진(실바노) 외 14인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감명식(마태오), 부위원장 안경식(안드레아) 외 3인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박순민(아가타), 부위원장 지인영(요안나), 간사 김명희(요안나) 외 10인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동성(김대건 안드레아) 외 16인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이귀배(레지나) 외 18인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정현윤(스테파노), 부위원장 김태수(안드레아) 외 11인

–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윤원호(스테파노), 부위원장 강규련(헬레나) 외 8인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위원장 박철제(베네딕토), 부위원장 김용운(베드로) 외 5인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명준(남명혁 다미아노), 부위원장 김명국(스테파노) 외 1인

–가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전한균(요한 크리소스토모), 부위원장 신진호(라파엘) 외 8인

–홍보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재철(안드레아), 부위원장 이찬영(요셉), 총무 이지현(마틸다) 외 2인

–성전보전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용화(야고보), 부위원장 제갈승(베드로) 외 3인

한편 2010년 11월에 제13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개편하면서 권혁노(프란치스코) 총회장을 임명하였다. 남성, 여성 총무를 두었으며 가정분과를 폐지하고 소속단체인 M·E를 교육분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성전보존분과를 관리분과로 개칭하였다.

■ 제13대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명단(2010.11~　)

–총 회 장 : 권혁노(프란치스코)

–남성총무 : 곽원섭(스테파노)

–여성총무 : 이경순(루치아)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조헌성(발렌티노), 부위원장 최정미(클라라), 간사 두창준(그레고리오) 외 4인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규영(안드레아), 부위원장 박동우(니콜라오)외 9인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영춘(체칠리아), 부위원장 서향숙(헬레나), 서기 황성규(미카엘)외 19인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감명식(마태오), 부위원장 안경식(안드레아)외 3인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지인영(요안나), 부위원장 박영선(로사), 간사 김명희(요안나)외 12인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우길상(요셉)외 21인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금순(가타리나)외 19인
–청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윤병익(레미지오), 부위원장 김태수(안드레아)외 9인
–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임종길(로고), 부위원장 강규련(헬레나)외 12인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위원장 채준석(토마스), 부위원장 조규홍(베드로)외 8인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은옥(모니카), 부위원장 주정선(데레사)외 4인
–홍보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재철(안드레아), 부위원장 이찬영(요셉)외 4인
–관리분과위원회 : 위원장 장기영(바실리오)외 2인

2. 사목활동의 새로운 시도

1) 본당 사목과제 현안 조사와 사목위원 연수

김자문 신부는 본당 교우들의 신앙적 욕구와 2008년 본당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사목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07년 9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었고, 설문지 560부를 남성 사도회와 여성 반모임에 배포하였다. 설문문항에는 기초자료 4개, 가정부문 4개, 소년·청년부문 4개, 노인부문 5개, 본당일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 사목위원들에게 본당의 사목과제로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으며, 전신자들에게도 2008년 2월 미사 중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 수지 성모교육원에서 진행된 사목위원 연수(2007.12.8)

또한 교구장의 사목교서와 주임사제의 새해 사목방향을 공유하며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자세, 각 분과의 사업계획

수립과 사도직 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사목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게된 것은 김자문 신부 부임 후 2006년 12월부터였다. 본당의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연수는 사목협의회 회장단과 기획분과에서 주관하였으며, 참석 대상은 회장단과 상임위원, 각 분과위원, 단체장, 꾸리아 4간부였다. 2007년 연수는 수지 성심교육관(2006.12.2~12.3)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08년 연수는 수지 성모교육원(2007.12.8~12.9)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부터 장소를 본당으로 옮겨 매년 성가정홀에서 실시하였으며 김자문 신부로부터 교구 사목지침과 본당 사목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어 본당 전반적인 현안에 관한 열띤 토론과 분과와 단체장 소개, 분과별 활동결과 보고와 각 분과의 실천계획 발표로 마무리 하였다.

▲ 성가정홀에서 진행된 사목연수 후 단체촬영(2009.12.5)

2) 본당 사목목표 전신자 교육 및 레지오 단원 교육

김자문 신부는 매년 본당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목적 지향점을 신자들이 알아야 한다며 정보의 공유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본당 사목목표를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하나로 신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사목목표 해설 교육을 전신자 대상으로 2007년 1월 14일 주일 미사시에, 그리고 2008년에는 1월 22일 10시 미사 후 성전에서 여성 신자를, 1월 26일(토)에는 대강당에서 남성 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는 매년 1월 셋째 주

일 교중미사시에 한 해의 본당 사목 지향점을 교우들에게 설명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평신도 신심단체인 본당 4개 꾸리아 소속 레지오 단원들에게도 성전에서 전단원 교육(2007.1.27)을 실시하며, 본당 현황 설명과 함께 본당의 사목목표를 레지오 단원 모두가 공유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매년 초마다 이러한 사목목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김자문 신부는 2007년부터 남성 레지오 Pr.별로 약 2년에 걸쳐 조찬 모임을 하며 단원들의 신심을 북돋아 주고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3) 본당 온라인 사목활동 개시

본당 홈페이지(www.dc2.or.kr)가 2008년 6월 29일에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이로써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본격적인 온라인 복음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홈페이지 구축은 이전에도 시도하였지만 홍보분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시범운용을 거쳤다.

3. 본당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노력

1) 성가정 캠페인 실시

교우들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작은 행동을 바꿔보기 위한 성가정 캠페인이 2007년 5월 6일부터 총 6회 시도되었다. 본당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홍보분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보를 통해 ① 미사시간을 지킵시다(2007.5.6 주보), ② 미사 걸어서 다닙시다(2007.5.13 주보), ③ 주보 가져가 읽읍시다(2007.5.20 주보) ④ 복

장 예절을 지킵시다(2007.7.15 주보), 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2007.7.22 주보), ⑥ 자리 앞부터 앉읍시다(2007.10.28 주보)를 계도하였다.

▲ 주보를 통한 캠페인(2007.5.6 본당주보)

처음 시도된 '성가정 캠페인'은 은혜로운 본당 공동체가 되기 위한 작은 변화를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 후 고해성사 전에 꼭 지켜야할 성찰하는 마음의 자세나 고해할 내용에 대한 '고해소 사용지침'이 2008년 8월 17일 주보를 통하여 다시 공지되었다.

2) 가족미사와 가족 예물봉헌

김자문 신부는 작은 교회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08년도 사목목표의 하나로 가정기도를 드리며 가족들이 매월 마지막 주일에 미사참례를 하여 성화되고 서로 대화와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한 해 동안 매월 마지막 주일에 교중미사(10시 30분)와 12시 미사를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미사로 봉헌하는 날로 정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가족미사 전례에 참여하도록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어린이 미사는 하지 않았다.

한편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기 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할 '예물 봉헌'을 하는 시간을 두어 예물 봉헌자인 부부나 가족들이 성찬의 전례에 사용될 성합과 주수병을 직접 주례사제에게 드리는 예식을 2008년부터 매주 교중미사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와 가족들이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며 찬미하는 특별한 미사로 기억되도록 하였다.

3) 성모의 밤 행사

2007년 성모의 밤 행사는 5월 12일에 1지역(은마, 현대), 5월 19일에 2지역(미도), 5월 26일에 3지역(쌍용, 우성) 순으로 각 지역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24일에 거행된 성모의 밤 행사는 본당 모든 신자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촛불 점화 후 꽃 봉헌, 묵주기도를 바치며 꽃가마에 성모님을 모시고 성당입구로 나가 성가족상을 끼고 큰길가를 돌아서 대성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관을 씌워드리는 예식과 어린이, 청년, 성인 신자대표의 성모님께 드리는 글 낭독이 있었다. 2009년 성모의 밤은 모든 신자가 함께 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청년 성모의 밤도 가졌다. 2010년에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매일 구역별로 묵주기도를 드리는 소 성모의 밤을 가졌다.

▲ 지역별 성모의 밤(2007.5.12)

4) 독서자 교육과 다함께 성가 부르기

주일미사의 독서를 봉독하게 될 독서자 교육이 전례분과 주관으로 2007년 10월 27일에 대성전에서 실시되었다. 미사에서 말씀의 전례를 담당하는 독서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법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실무교육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익월 독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가정 성가대 이금란(아델라) 단장, 김영진(안젤라) 지휘자가 중심이 되어 성가를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3일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대강당에서 본당 교우와 예비신자들이 참여하여 다함께 가곡과 생활성가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2009년 4월 25일(토)까지 진행되었다.

5) 새 사제 미사집전과 강복

김자문 신부는 성소에 대한 관심과 후원뿐만 아니라 새 사제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많았다. 사제수품을 받은 새 사제들을 본당에 초청하여 미사봉헌과 안수로 성령의 은혜를 전해 주며, 교우들에게는 새 사제를 위한 기도와 성소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 첫 시작으로 2007년 7월 6일에 사제수품을 받은 아시아 최초 청각장애 신부인 박민서(베네딕토) 신부와 안원진(베드로) 신부가 8월 12일에, 이정민(비오) 신부가 8월 15일, 정환규(베네딕토) 신부는 9월 2일, 그리고 2008년에는 진현구(베드로) 신부가 7월 27일, 원주호(비오)신부가 8월 3일, 2009년에는 김현진(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와 오석준(레오) 신부가 8월 2일, 박민우(알베르토) 신부가 8월 9일에 미사 집전과 미사 후 만남의 방에서 교우들에게 강복을 주었다.

4. 미사전례의 변화

1) 주일 미사시간 변경

주일미사 시간 변경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주일 오전 11시에 교중미사가 봉헌되었다. 그동안 주일 10시 30분 교중미사와 낮 12시 미사가 봉헌되었는데, 양 미사간 시간간격이 짧아 비좁은 성전 공간에서 혼잡함이나 초청 특별강론이 있는 경우 시간적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교중미사 시간의 변경 배경에는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성직자를 초빙하여 소중하고 참된 말씀을 전해 듣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심고양을 하기 위한 사목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청년미사를 오후 7시에서 6시로 변경하고, 오후 8시 미사를 신설하였다.

▶주일미사 시간 변경 (2010.1. 1 현재)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어린이 미사	오후 4시(토)	오후 3시	시간변경(미사 후 교리)
특전미사	오후 7시(토)	오후 7시	변경없음
일반미사	오전 6시 30분	오전 6시 30분	변경없음
학생(중고등부)미사	오전 9시	오전 9시	변경없음
교중미사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	교중미사 통합
일반미사	정오 12시		
청년미사	오후 7시	오후 6시	시간변경
일반미사	–	오후 8시	신설

2) 평신도 성체분배 봉사와 소성무일도

주일미사 전례 중 영성체 예식에 사제를 도와 '비정규(예외적) 성체 분배권' 이 수여된 평신도가 성체분배 봉사를 2009년 10월 25일부터 새로이 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일미사 시 신부와 수녀가 매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에게 직접 성체를 분배하다보니 영성체 시간이 길어지는 등 신부, 수녀들의 주일행사가 겹치고 바쁜 관계 등에 따라 취해진 사목적 조치였다. 평신도 성체분배 봉사자들은 2009년도 동서울지역 비정규 성체분배자 교육을 수료한 9명의 봉사자가 구성된 후 2010년에 성체분배자 교육을 수료한 8명이 추가로 증원되었다.

그리고 성직자나 수도자가 의무적으로 바치는 가톨릭의 전통적이며 공적인 기도인 성무일도를 신자들이 2009년 4월 6일부터 평일 오전 6시 미사와 10시 미사 전에 바쳤다. 이를 위해 성무일도 봉사자들은 3월 30일부터 일주일동안 성전에서 김영숙(아녜스 마리) 원장수녀로부터 성무일도 교육을 받았다. 본당 소성무일도의 시작 배경은 이은수(레오) 신부의 사제 수품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3) 그레고리오 미사곡 봉헌

라틴어 미사곡으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여 미사 성제의 은총을 새롭게 느껴 볼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매월 셋째 주일 11시 교중미사, 저녁 8시 미사는 그레고리오 미사곡으로 봉헌되었다. KYRIE(기리에, 자비송), GLORIA(글로리아, 대영광송), SANCTUS(상투스, 거룩하시도다), AGNUS DEI(아뉴스 데이, 하느님의 어린양)을 그레고리오 미사곡으로 봉헌하였다. 이를 위해 라틴어로 된 천사미사곡집(Missa De Angelis)을 신자들이 편리하게 미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분과 최재철(안드레아) 분과장이 주관하여 만들어 성전 의자에 비치하였다.

4) 복사단 임명식

김자문 신부는 복사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가 남달랐다. 그래서 새 복사가 되기 위해서 40일 동안 새벽미사 참례와 기도로 준비시켜 제대 앞으로 나와 선서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는 복사단 임명식을 매년 거행하였다. 2007년 7월 27일 새벽미사때는 새 복사 11명이 임명되었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로 교회와 부모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였다.

▲ 신입 복사단 임명식(2008.7)

2008년에 새 복사 15명은 교중미사시에 임명장과 목걸이를 수여받았고, 2009년은 새 복사 13명에게 첫영성체 후 100일 동안 매일 새벽미사 참례와 기도로 준비시키고 교중미사에 임명장 및 나무십자가를 수여하였다.

5) 헌금 방식변화와 교무금 통장 납부, 본당 재정현황 공개

기존에는 교우들이 행렬을 지어 나가 봉사자들이 들고 있는 봉헌 예물바구니에 헌금을

봉헌해 왔으며, 2차 헌금을 봉헌하는 날에는 별도의 바구니를 돌렸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미사 봉사자들 대신 그 자리에 헌금함(2차 헌금은 팻말 표시)을 설치하여 신자들은 봉헌시간에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렬을 지어 나가 헌금함에 봉헌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구 방침에 따라 교무금 카드 대신 납부 편리성과 정확한 납부관리를 위해 2008년 12월부터 구역 반장을 통해 교무금 통장을 배포하였다. 처음에는 사무실에서만 납부가 이루어졌고 은행 납부가 되지 않다가 8개월 뒤인 2009년 8월부터 우리은행과 전산개통이 되어 본격적으로 은행 납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무금을 사전에 책정하고 교무금 통장을 발급받은 후에 가능하였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1년이 지난뒤 은행을 이용한 교무금 납부는 약 30% 정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본당 재정 현황을 처음으로 2007년부터 주보를 통해 교우들에게 공개하였으며, 교구 지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주보를 통해 수입과 지출 등 본당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6) 본당 사목방문

동서울지역 교구장 대리인 김운회(루카) 주교의 본당 사목방문이 2007년 6월 5일에 있었다. 고명철 신부 재임기인 2001년 9월 19일 이후 네번째 본당 사목방문이었다. 사목협의회는 본당의 사목현황(2007년 5월 1일 기준)을 정리하여 사목방문 자료집을 만들었다. 사목방문 당일은 11지구 사제회의도 함께 있었다.

5. 내부시설 여건의 변화

1) 무릎틀과 촛불봉헌대, 도자이콘의 설치

성전 앞쪽 좌석 세 줄과 뒤쪽 두 줄에 무릎틀(장궤틀)이 2007년 11월 25일에 설치되었으며, 무릎을 꿇은 자세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자들의 성모신심을 고양하며 성모님께 촛불 봉헌을 원할 때 편리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전자식 촛불봉헌대가 2010년 4월 18일에 설치되었다. 신자들의 설문조사로 '자비의 성모님' 상으로 명명된 본당 1층 로비, 성모상 앞에 두었으며, 신자들의 개인 기도지향을 적어 두도록 옆에 게시판을 달아 두었다. 그리고 봉헌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쓰이게 되었다. 한편 고정민(프란치스카) 작가가 제작한 구세주상 1점과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 외 성모상 2점의 도자이콘(세라믹 이콘)이 성전 입구 복도 벽면에 2009년 12월에 설치되었다.

▲ 성모 촛불 봉헌대 축성(2010.4.18)

2) 멀티미디어 영상시설 구축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사 강론이나 신자 교육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전에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가 2008년 11월 2일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성전 뒷면 자리에 앉은 신자들의 미사 참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LCD 모니터를 설치하였고, 대축일 미사나 특별강론시 자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의 방이나 성가정홀에서도 동시에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시스템과 강론을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녹화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3) 성전 시설보수 및 공사

본당의 노후한 폐백실 및 신부대기실 내부 보수공사를 2008년 3월 10일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성당의 조명 안전시설 점검과 함께 조도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전 천정에 11개의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성전 내부를 밝게 하였으며, 부족한 전기의 용량을 높이는 전기 승압공사도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성당 마당의 성모상 화단 조성과 정원수를 식재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

1. 소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노력

1) 소공동체 미사 봉헌

김자문 신부는 부임 4개월 후 초기 교회 공동체의 원형인 나눔, 섬김, 봉사의 정신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친교를 다지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소공동체 미사를 시작하였다. 이 소공동체 미사는 사전 준비모임부터 미사진행, 나눔에 이르기까지 구역 신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은혜로운 미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본격적으로 소공동체 미사는 2007년 1월 18일에 1구역인 은마 1동 1202호에서 시작되었다. 미사 전날에 원하는 경우 전화 상담이나 가정방문을 하였으며, 당일에 김자문 신부는 가족별로 인사를 나누고 개인적인 면담이나 고해성사, 강복을 주었다. 소공동체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은 양형영성체를 하였으며 자유롭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미사가 봉헌되었다.

▲ 소공동체 미사(2009.10.15, 16구역 은마 31-215)

이렇게 하여 2009년 10월 15일에, 16구역 은마 31동 215호를 마지막으로 2년 9개월 동안 본당 전 구역 65개동을 순회하며 연인원 2천 200여명이 참석한 소공동체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어

소공동체 미사가 이렇게 끝마침에 따라 모든 신자들은 10월 16일부터 감사 9일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2009년 10월 25일 교중미사시에 소공동체 미사 마침 감사미사를 봉헌하였고, 일치하는 마음으로 전신자 사진촬영을 성전에서 가졌다.

▲ 소공동체 미사 전 봉사자 준비모임(2009.3.10)

한편 소공동체 미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모임부터 미사진행, 나눔에 이르기까지 남녀 구역장과 반장 등 구역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자신의 집을 기꺼이 성전으로 봉헌해준 교우들의 특별한 협조도 있었다. 그리고 김자문 신부는 소공동체 미사에 성원해 준 교우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소공동체 미사시 미사예물을 모아 모든 교우들에게 T머니를 선물하였다.

▶소공동체 미사 일시와 장소

2007년	1월18일 은마 1동 1202호		10월25일 은마 13동 1303호
	1월25일 은마 2동 306호		11월15일 미도 107동 1105호
	2월 8일 미도 101동 912호		11월22일 쌍용 7동 405호
	2월22일 쌍용 1동 205동		11월29일 은마 15동 306호
	3월 8일 은마 3동 1312호		12월13일 현대 101동 1102호
	3월15일 은마 5동 709호		12월20일 미도 108동 1407호
	3월22일 미도 102동 406호		12월27일 쌍용 8동 107호
	4월12일 쌍용 2동 102호	2008년	1월24일 은마 16동 801호
	4월19일 은마 6동 1001호		1월31일 은마 17동 216호
	5월10일 은마 7동 1406호		2월14일 미도 109동 404호
	5월31일 미도 103동 1405호		2월21일 미도 110동 1001호
	6월14일 쌍용 3동 1509호		2월28일 쌍용 9동 1101호
	6월21일 은마 8동 1403호		3월13일 은마 18동 211호
	6월28일 은마 9동 304호		4월10일 은마 19동 1106호
	7월12일 미도 105동 1303호		4월17일 미도 111동 1003호
	7월19일 쌍용 5동 106호		5월22일 미도 201동 205호
	8월30일 은마 10동 602호		6월19일 쌍용 10동 205호
	9월13일 은마 11동 704호		6월26일 은마 20동 302호
	9월20일 미도 106동 702호		7월10일 은마 21동 1001호
	10월11일 쌍용 6동 805호		7월17일 미도 202동 1404호
	10월18일 은마 12동 306호		9월25일 미도 203동 307호
	10월16일 우성 1동 107호		
	10월23일 은마 22동 408호		
	11월20일 미도 205동 1304호		
	11월27일 미도 206동 203호		
	12월11일 우성 2동 1203호		
	12월18일 우성 3동 706호		
2009년	2월12일 은마 23동 1102호		
	2월19일 은마 25동 802호		
	2월26일 미도 207동 304호		
	3월12일 미도 208동 208호		
	3월26일 은마 27동 408호		
	4월30일 미도 209동 1203호		
	5월28일 미도 210동 107호		
	6월11일 우성 5동 1007호		
	6월18일 우성 7동 1002호		
	7월2일 은마 28동 1401호		
	7월9일 은마 29동 1103호		
	9월17일 미도 211동 502호		
	9월24일 미도 212동 503호		
	10월15일 은마 31동 215호		

2) 연도교육 실시와 위령미사 봉헌

꾸리아는 한국 천주교회 고유의 상장례인 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레지오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성구역분과가 주관하여 전신자 대상으로 2010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성전에서 연도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다. 김진희(젬마) 초청강사의 진행으로 실시되었으며, 250여 교우들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다.

▲ 구역·연도 경연대회(2010.11.14)

또한 연도교육 후, 11월 14일에는 대성전에서 구역 연도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역별로 남여 각 15명 이상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날 연도대회에는 400여명의 교우가 참석하였으며, 1구역이 우승, 6구역이 2등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연도 공지가 나면 해당 구역의 반원이나 각 사도직 단체, 레지오 단원들이 상가를 방문하여 연도를 드렸는데, 특정일이나 같은 시간대에 몰리다보니 기다리거나 연도가 끊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2010년 12월부터 각 구역별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위령미사 봉헌(2009. 11. 21)

한편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연령회 주관으로 2009년 11월 21일에 성전에서 선종교우를 위한 위령미사와 유가족 위로의 행사를 가졌다. 150여명의

유가족과 신자들은 지난 3년간 선종한 60여 선종교우를 위해 한마음으로 위령연도를 바치고, 위령미사를 봉헌한 뒤, 고인을 회상하는 시간을 성가정홀에서 가졌다. 그리고 2010년 11월 20일에도 최근 1년 동안 선종한 교우와 그 유가족을 위한 위령미사 봉헌과 유족위로행사를 실시하였다.

2. 친교의 공동체를 위한 활동

1) 성가정 송년음악회

성가정 축일을 기념하기 위한 송년음악회가 2007년 12월 29일에 모든 음악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혜영(유스티나)의 사회로 80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였으며, 초등부 성가대의 성가와 청년 합주단의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청년성가대의 아름다운 폴리포니의 하모니와 합주단 협연으로 시작 분위기를 달구었다. 그리고 부부성가대의 뮤지컬 공연, 샛별 Cu. 상지의 옥좌 Pr.단원이 '녹슨 세개의 못' 연극과 함께 김자문 주임신부의 독창, 박지훈(안드레아) 신부와 안원진(베드로) 신부, 김정애(베르나데트) 수녀와 조진희(루시아) 수녀의 합창이 이어졌다. 성가정 성가대의 캐롤과 뮤지컬 모음곡 그리고 연합합창으로 헨델의 할렐루야로 성가정 축일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

▲ 성가정 송년음악회(2007.12.29)

2) 남성, 여성구역의 소공동체 활동

남성구역은 2007년 1월부터 시작된 소공동체 미사를 계기로 미선임된 사도회장이나 구역장을 임명하는 등 구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하였다. 2007년의 세 개 지역별 성모의 밤 행사와 함께 2010년의 구역별 묵주고리기도를 성모의 밤 행사를 앞두고 여성구역과 함께 드렸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대강당에서 척사대회를 열어 구역봉사자와 신자들이 소통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남성구역 봉사자와 사도회원을 위한 영성교육 및 야외행사(2010.6.19)

그리고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있었던 소공동체 전국모임(2007.6.22)에 구역봉사자들이 참석하였다. 남성구역 봉사자를 위한 교구 주관 연수교육에도 매년 참석하였으며, 본당 차원에서도 2009년 2월 1일에는 교구 사목국 이준성(요셉) 신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가졌다. 또한 김자문 신부의 지도로 남성구역 봉사자 일일 연수회(2009.8.23, 2010.11.22, 2011.1.23)를 매년 가지며, 구역 봉사자들이 소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헌신하는 사도직을 수행하자고 다짐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 광주 분도복지관 잔디밭에서 남성구역 봉사자의 날 야외 미사 및 친교 행사(2007.10.7)를 가졌으며, 2010년 6월 19일에는 남성구역 봉사자와 사도회 신자들을 위한 영성교육(차동엽 신부 지도) 및 친교행사를 양평 꼰벤뚜알 수도원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남성 구역봉사자의 밤(2010.11.22)을 성가정홀에서 가졌다.

한편 소공동체 미사를 마친 후 2009년 10월에는 신자들의 수가 많은 은마 아파트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4개 지역, 15개 구역, 98개 반으로 1지역(은마 1~4구역, 현대 101동), 2지역(은마 5~8구역), 3지역(미도 9~12구역), 4지역(쌍

용, 우성 13~15구역)으로 재편재하였다.

본당 설립 20주년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해 이귀배(레지나) 여성구역 분과장과 구역 봉사자들은 세 차례(2009.7.12, 9.13, 9.20)에 걸쳐 성가정 축제를 위한 기금마련 먹을거리 장터를 열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신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남성구역에서도 통합 사도회를 본당에서 실시하며 적극 협력하였다.

▲ 여성구역 먹을거리 장터(2009.9.13)

또한 여성구역 봉사자들은 척사대회(2010.2.28) 때에 교우들을 위해 떡국을 손수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 5월 1일에는 본당 20주년 기념행사인 '은총여행 529'의 홍보를 겸하여 본당 마당과 성가정홀에서 먹을거리 장터를 열었다. 여성구역과 여성 꾸리아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교우들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여성구역 봉사자들은 김자문 신부 지도로 본당에서 일일피정(2007.1.24)과 제주 성 이시돌 목장으로 자연피정 겸 야외행사(2007.5.17~19)를 다녀왔었다. 그리고 배론성지 피정(2008.1.16~17), 이준성 신부 지도의 일일피정(2009.1.21)과 해남 땅끝마을과 보길도 등으로 자연 피정(2009.5.20~22)을 가졌다. 정월기 신부의 '복음나누기 7단계', 안성철 신부의 '봉사자의 역할' 주제로 일일 피정(2010.1.20)을 하였으며, 영월로 자연피정(2010.5.19)을 다녀왔었다.

▲ 여성구역장 자연피정(2008.6.4)

3) 지역 공동체의 친교행사 개최

김자문 신부는 본당 전교우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보다는 구역별, 지역별로 교우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는 소공동체 행사를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2, 3 지역(미도, 쌍용, 우성) 친교의 날 행사(2008.4.27)는 용문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되었다. 1 지역(은마, 현대) 친교의 날 행사(2008.9.26)는 성가정홀 및 연회장에서 있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 가족들이 함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009년에는 1, 2 지역(은마, 현대) 신자들을 위한 야외미사 및 친교행사(2009.10.19)가 대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3, 4지역(미도, 쌍용, 우성) 및 구역외 지역의 날 행사(2009.10.31)는 성가정홀에서 있었으며, 이 행사를 앞두고 구역 신자들은 '자비의 성모상' 앞에서 10월 22일부터 9일간 묵주기도를 드렸다.

한편 본당에 전입한 교우들을 위한 환영미사와 환영회가 2010년 3월 21일, 5월 30일에 실시되었다. 전입 교우와 그 가족들, 구역 봉사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교중미사를 봉헌한 후 만남의 방과 성가정홀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4) 김자문 신부의 영명축일 및 회갑연, 이상훈 신부 금경축 축하식

김자문 신부의 영명축일 축하미사가 2008년 5월 18일(일) 12시에 김운회(루카) 주교와 최광연(모세) 본당 초대 주임신부, 오창선 신부 등 선후배 신부들의 공동집전으로 가족과 친척, 본당 신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축하연 겸 회갑연을 대강당에서 가졌으며, 신자들과 국수잔치로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본당 제2대 주임신부인 이상훈 신부의 사제서품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미사가 2008년 10월 12일 12시 미사에 이상훈 신부, 김자문 신부와 많은 교우들과 함께 봉헌되었으며, 금경축을 축하드리고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5) 동호회의 결성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성가정 산악회가 결성되었으며,

첫 등반을 2008년 8월 23일에 하였다. 회장은 권중원(베드로), 산악대장은 최용화(야고보), 총무는 조기홍(베드로)이 맡았으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 산행을 하였다. 그리고 구역사목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진에 대한 관심과 취미활동을 위한 '성가정 사진동호회'가 2008년 12월에 결성되었으며, 회장은 도명순(요한)과 총무는 김혜경(크리스티나)이 맡았다.

6) 평화방송 미사중계와 판소리 수난복음

김자문 신부가 집전한 본당 주일 교중미사가 2007년 10월 14일에 평화방송 TV를 통해서 전국 교우 가정에 중계되었다. 그리고 2008년 3월 11일(화) 미사 중에 본당 신자인 이용수(마르티노)가 창작한 '예수 수난기'를 판소리 수난복음이 봉독되었다.

3. 신자교육과 영성생활

1) 여성구역 성경필사 봉헌과 필사본 전시회 개최

▼ 최진자(마리아)의 성경 필사본

여성구역분과는 2010년의 분과 사목목표인 '말씀을 생활화하자'를 실천하기 위해 구역장들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필사한 성경필사본을 2010년 4월 부활성야에 봉헌하였다. 그리고 본당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고 구역신자들의 성경필사를 장려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김동성(김대건 안드레아) 남성구역 분과장과 구역장들이 주관하였으며, 개인이나 가정 특히 사도회나 단체별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 여성 구역장의 성경 필사본

이렇게 하여 제출된 필사본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1층 로비에 전시되었다.

전시된 성경필사본 중에는 81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필사한 박경옥(안나)의 신구약 6권, 여성해설단의 모든 단원이 참여한 필사본, 7여 년 동안 필사한 한일숙(마리아)의 신구약 17권, 그림을 함께 그려 넣은 최진자(마리아)의 필사본, 필기체 영어로 필사한 김정옥(소화데레사)의 신약성경 등 다양하고 정성이 가득담긴 필사본이었으며, 참가한 모든 신자들에게 김자문 신부는 시상하였다.

2) 부모와 자녀 대화교육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이 2008년 3월 16일(목)부터 매월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후 소강당에서 총 8회 실시되었다. 강사는 백대숙(베로니카) 자매가 담당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나-전달법과 실습', '자기표현과 분노 조절', '올바른 부모교육-발달단계에 필요한 덕목', 'Q 이야기' (I.Q, E.Q, S.Q, M.Q 등)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에 효과적인 대화법을 습득, 올바른 대화형성을 통해 가족관계가 개선되는 화목한 성가정으로 변모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었다.

4. 선교사목의 다양한 활동

1) 예비신자 교리교육과 신앙 성숙

김자문 신부는 예비신자의 교리교육과 더불어 영세 후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선교사목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예비신자들이 교리교육을 받는 동안 신앙심을 기르며 회심과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고 속죄하며, 기도하는 습관과 함께 신자들의 정신과 공동체의 체험들을 갖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려면 교리나 전례, 크리스찬 생활의 실천, 사도활동 등 종합적인 교

▲ 예비신자들이 성지순례 전에
김자문 신부의 말씀을 듣고 있다(2007.5)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입교예식이나 환영식, 대부모 등의 멘토, 성지 순례, 세례명 수여식, 기도와 묵상시간과 함께 예비신자 교리반 운영에 있어서도 평신도의 참여를 추진하였다.

그동안 2009년까지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담당하였지만, 2010년부터는 평신도교리 봉사자들이 신앙생활 체험 등을 나누며 예비신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 기도모임을 통해 영세 후의 신앙생활까지 이끌어 주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마다 예비신자 입교식 행사를 가졌으며 환영미사에 이어 대강당에서 교리반 개강식과 환영식을 열었다. 그리고 영세식을 앞두고 예비신자들이 신앙을 맛들이기 위한 일일피정 및 세례명 수여식을 대강당과 성전에서 거행하였다. 피정내용은 영세 예정자 개개인의 세례명 수여식, 주임신부의 '성사' 강의와 기도와 묵상, 친교의 시간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와 신앙 체험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2008년부터 영세 예정자들에게 세례명을 정함에 있어 한국 성인 세례명을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 영세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23	162	80	121	100	103	115	125	38	50
계	285		201		203		240		88	

한편 첫 영성체를 위해 어린이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매주(화~금) 4시에서 6시까지 반별로 교리수업을 하였으며, 주 3회(월, 수, 금) 새벽미사와 12가지의 기도문을 외웠으며, 성지순례와 가족피정을 가졌다. 특히 김자문 신부는 첫영성체 행사에는 촛불을 들고 부모와

▲ 부모와 함께 입장하는 첫 영성체 어린이들(20011.6.5)

함께 입장하는 예식을 가졌다. 교우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인상 깊고 의미 있으며, 성당의 축제가 가정축제로 이어지고 첫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축복과 함께 큰 기쁨과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2) 새 신자 기도모임의 활동과 설립

새 신자들이 영세 1년이 지난 후 절반 정도가 냉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가 하느님을 모르고 내적 신앙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 김자문 신부는 새로운 사목적 시도를 하였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데, 새 신자들은 기도생활을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성서공부 봉사자들과 구역장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4개월 동안 김영숙(아녜스마리) 원장수녀 지도로 묵상기도 훈련을 받은 후, 이들이 새 영세자들을 위한 기도모임의 봉사자로서 활동하게 하였다.

박연숙(비비아나) 등 초기 봉사자들은 2007년 6월 24일에 영세를 받은 새 신자 113명(제1기)을 4개조로 나누어 7월부터 4개월 동안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성당에 모여 1시간씩 묵상기도를 이끌었다. 또 2007년 12월 23일에 영세를 받은 118명(제2기)도 같은 방법으로 2008년 초부터 4개월 동안 묵상기도를 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도 매년 이렇게 실시되었다.

그리고 기도모임을 마친 새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 의견을 기도모임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참여도가 더욱 높아졌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영세 한 달 전부터 시작하여 영세 후 3개월 기간으로 기도모임을 갖게 되었으며, 묵상기도 위주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이러한 활동을 위한 새신자기도모임회가 2010년 5월에 정식단체로 설립되면서 초대 회장은 송현철(라파엘), 총무 원동희(체칠리아), 서기 두창준(그레고리오)이 봉사하고 있다.

5. 영성 심화 활동과 성서 공부

1) 영성수련 강좌 개설과 시네마 영성

실제적 기도훈련을 통하여 신앙을 복음 안에서 정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성생활의 정립과 쇄신을 목적으로 하는 영성수련 강좌가 김자문 신부의 배려로 교육분과가 주관이 되어 개설되었으며, 본당 신자들의 영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C.L.C.(Christian Life Community)의 김광엽 교수가 진행한 '세상 속의 영성수련' 이 매주 월요일에 총 10회로 실시(2007.4.30~7.2)되었으며, 2010년에는 김창훈 신부의 지도로 2월 18일부터 10개월간 매주 목요일에 실시되었다.

한편 2003년부터 시작된 복음의 눈으로 영화를 읽는 '시네마 영성' 이 2008년 9월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시네마 영성

일자	제목	일자	제목
2007. 2. 24	미라클 메이커	2008. 4. 26	KBS 스페셜 "영원과 하루"
2007. 6. 16	아일랜드 (The Island)	2008. 6. 28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007. 9. 29	천국보다 아름다운	2008. 9. 27	버킷 리스트
2008. 1. 26	인생은 아름다워		

2) 성경 공부의 확산과 타 본당 파견활동

가톨릭 성서모임은 2008년도 본당 사목목표인 '말씀으로 생활하기' 의 실천을 위해 '성서 40주간' 을 특별히 개설하였다. '성서 40주간' 은 신 · 구약 성경 전체를 40주간 내에 읽을 수 있도록 매일의 분량을 제시하고, 짧은 해설과 함께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성경 프로그램으로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의 조 루치아 수녀의 지도로 2008년 3월 14일에 개강하였다. 본당 신자 608명(45개조)이 참여하였으며, 1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신·구약을 통독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성경공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2007년 23개반 228명 수료(봉사자 23명), 2008년 성서 40주간 46개조 631명 수료(봉사자 20명), 2009년 21개반 203명 수료(봉사자 20명), 2010년 20개반 179명이 수료(봉사자 20명) 하였다.

그리고 성서못자리는 2006년에 신규 봉사자인 조연희(클라라), 정길현(스테파노), 김동성(김대건 안드레아)가 입회하여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7년에 마르코, 루카, 마태오,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복음 7과목을 12개반, 2008년은 7과목 7개반, 2009년은 6과목 15개반, 2010년은 6과목 12개반이 공부하였다.

또한 직장인 가톨릭 성서모임은 2007년 7개반 69명, 2008년 6개반 44명, 2009년 7개반 50명, 2010년 7개반 55명, 2011년 8개반 60명이 수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말씀의 봉사자들을 타 본당으로 파견하는 적극적인 복음활동을 펼쳤다.

▶말씀의 봉사자 파견현황

파견 / 년도	본당명	파견 봉사자	성경공부 과정
2007년	개포동	장기영(바실리오)	창세기
	성수동	박철환(바오로)	창세기
	대치동	최조정(아우구스티노)	탈출기
	청담동	송현철(라파엘)	탈출기
	도곡동	이상일(시몬)	마르코
2008년	대치동	이정길(라파엘)	창세기
	대치4동	이종수(프란치스코)	창세기
	개포동	장기영(바실리오)	창세기
	대치3동	김광수(마르티노)	마르코
	도곡동	송현철(라파엘)	요한
2009년	개포동	박희종(루치오)	요한
	도곡동	김태균(프란치스코)	사도행전
2010년	대치3동	이정길(라파엘)	창세기
	도곡동	박희종(루치오)	요한
2011년	도곡동	김태균(프란치스코)	사도행전

한편 2009년 본당 성경공부모임(가톨릭 성서모임, 성서못자리, 가톨릭 직장인 성서모임)의 수료미사와 모임별 수료식이 12월 4일에 성전과 성가정홀, 마리아 홀에서 거행되었으며 봉사자들의 필사본이 봉헌되었다. 또한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부모들의 성경필사 및 기도모임이 2007년 3월 11일에 첫 시작되어 매년마다 개설되었으며, 말씀 공부와 함께 자녀들을 격려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다.

3) 신심 고양을 위한 신자 재교육 활동

김자문 신부는 신자들의 영성생활과 신심 고양을 위해 전례 시기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육분과에서 이를 주관하였다. 특히 2008년 11월을 '문화선교의 달'로 정하여 문화 강연과 연주회를 가지며 지역 주민들인 비신자들도 문화 선교의 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행사를 펼쳤다. 그리고 본당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가정 성화'를 주제로 꽃동네 오웅진 신부와 신상현 수사와 함께하는 전신자 일일피정을 2011년 5월 19일에 성전에서 가졌다.

▶특강 프로그램(2007~2011)

구 분	일 시	주 제	강 사
사순시기 초청특강	2008. 2. 22	호스피스란?(1)	노 잔드마리 수녀
	2008. 2. 29	호스피스란?(2)	노 잔드마리 수녀
	2008. 3. 7	예수 마음 기도	신 까리따스 수녀
	2009. 3. 1	무지개 원리와 통하는 기도	차동엽(노르베르토) 신부
	2009. 3. 8	선교본당	박문수(프란치스코) 신부
	2009. 3. 15	교정사목	이영우(토마스) 신부
	2009. 3. 22	성남 안나의 집	김하종(빈첸시오) 신부
대림특강	2007. 12. 15	마음에서 화가 나십니까?	박영호 신부
	2007. 12. 16	어떻게 할까요?	박영호 신부
	2009. 12. 16	인간의 진정한 갈망은 무엇인가?	김창훈(바오로) 신부
	2009. 12. 17	인간의 진정한 갈망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김창훈(바오로) 신부
	2009. 12. 18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자	김창훈(바오로) 신부
	2010. 12. 12	돈보스코 성인의 영성과 청소. 교육	김건중(벤야민) 신부
	2010. 12. 19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개발	김영수(헨리코) 신부

구분	일시	주 제	강 사
새해 말씀듣기 특강 및 초청특강	2007.10. 19 2010. 1. 10 2010. 1. 24 2011. 1. 2	성서 속에 나타나는 용서와 치유 탄복한 사람들 희망의 삶 참 사랑에 이르는 여정	채준호(마티아) 신부 두봉(레나도) 주교 정월기 신부 정규한(레오) 신부
청소년 특별강론	2009. 3. 29 2009. 4. 19 2009. 4. 26	공부와 신앙 자녀의 신앙교육 하느님 마음, 부모 마음	조재연(비오) 신부 조재연(비오) 신부 조재연(비오) 신부
문화 선교의 달 특강 및 행사	2008. 11. 7 2008. 11. 15 2008. 11. 21 2008. 11. 28	시를 발견하는 기쁨 가을음악회 안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화 읽기와 묵상	정호승 시인 린나이코리아 오케스트라 유안진 시인 김남철 신부
견진특강 (사순특강)	2007. 3. 2 2007. 3. 10 2007. 3. 16 2007. 3. 23 2007. 3.30 2007. 4. 6 2007. 4.13 2007. 4.21	나는 누구인가? 사랑과 죄 파스카를 사는 삶 올바른 영성생활 판공성사 성금요일 예절참석 주님 맛들이기와 성사 기도(기도의 밤)	김광엽 교수 김광엽 교수 김광엽 교수 김광엽 교수 김자문 신부 김자문 신부 박지훈 신부
	2008. 3. 21 2008. 3. 28 2008. 4. 4 2008. 4. 11 2008. 4. 18 2008. 4. 25 2008. 5. 2 2008. 5. 9	성주간 참석 은총의 견진성사 향심기도 향심기도 향심기도 향심기도 떼제기도 참회예절과 고해성사	 김자문 신부 임 체칠리아 수녀 임 체칠리아 수녀 임 체칠리아 수녀 임 체칠리아 수녀 안토니오 수사 김자문 신부
	2010. 2. 21 2010. 2. 28 2010. 3. 7 2010. 3. 14 2010. 3. 21 2010. 3. 28 2010. 4. 4 2010. 4. 11 2010. 4. 18	성경의 가르침 교회와 이웃 그리스도와 만남(성사1) 견진성사(성사2) 가까운 아시아교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부활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사 기쁨의 영	이병일(빈첸시오) 주교 황재모 신부 박준양 신부 박준양 신부 김성현 신부 유병일 신부 김자문 신부 안병철 신부 김진태 신부

	2010. 4. 25 2010. 5. 2 2010. 5. 9 2010. 5. 16	삶 속의 크리스찬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 견진성사의 은혜	박완서 선생 이노엘 수녀 김자문 신부 허영엽 신부
	2011. 3. 13 2011. 3. 20 2011. 3. 27 2011. 4. 3 2011. 4. 10 2011. 4. 17 2011. 4. 24 2011. 5. 1 2011. 5. 8 2011. 5. 15	성사의 은총 은총이 가져오는 내적 변화 영적 목마름과 기도생활의 여정 아프리카 교회와의 나눔 신앙생활과 용서 은총의 고해성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성령의 은사	박준양 신부 심종혁 신부 심종혁 신부 한상호 신부 송봉모 신부 송봉모 신부 김자문 신부 권길중 홍근표 신부 김택신 신부

한편 2007년 견진성사는 김운회(루카) 주교 집전으로 4월 22일에 있었으며, 2008년에는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 주례로 5월 11일에 있었다. 그리고 우간다 교황대사인 장인남(바오로) 대주교의 집전으로 2010년은 5월 23일에, 2011년은 5월 22일에 견진성사가 거행되었다.

▲ 견진성사식(좌–정진식 추기경, 우–장인남 대주교)

▶견진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84	176	80	113	–	1	115	128	91	122
계	260		193		1		243		213	

※2009년은 본당 견진성사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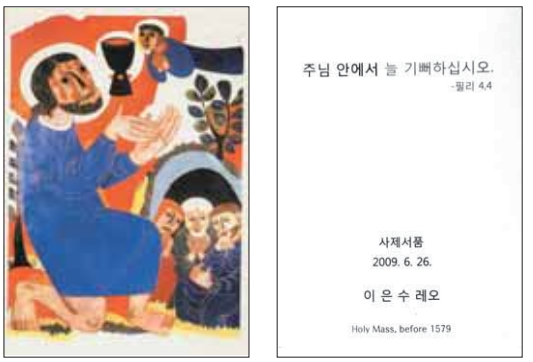
▲ 이은수 부제 사제 수품(2009.6.26)

6. 본당 출신 사제의 탄생

1) 이은수(레오) 신부의 사제 수품

이은수(레오) 부제는 2009년 6월 26일(금)에 송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 주례로 새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수품 성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필리 4,4)로 정하였다. 본당에서 첫 미사는 가족과 친지, 많은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 12시 미사로 봉헌되었으며, 미사 후 축하식과 국수잔치가 있었다. 새 사제 첫 강복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성전에서 있었다.

본당 신자들은 네 번째 본당 출신 사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4월부터 그리스도의 직무 사제직에 동참하는 의미로 시작한 소성무일도를 미사 전에 드렸다. 또한 5월 26일(화)부터 한 달 동안 사제 수품자를 위한 기도를 매 미사 후에 바쳤으며 영적, 물적 예물을 준비하였다. 이에 앞서 이은수(레오) 부제 서품



▲ 이은수 신부 상본

식이 2008년 6월 26일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으며, 부제 수품을 앞두고 신자들은 6월 17일부터 9일 기도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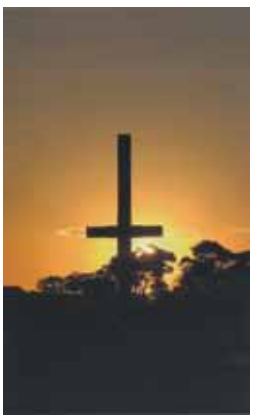
2) 유신재(에드문도) 신부의 사제 수품

유신재(에드문도) 부제는 2010년 6월 30일(수) 명동성당에서 조규만(바실리오) 주교의 주례로 사제 수품을 받았다. 본당 출신의 다섯 번째 사제이며, 예수회 소속으로 사제품을 받는 본당 첫 번째 수도사제가 되었다. 유신재 신부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산림이용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소의 길을 걷고자 가톨릭대학교 신학부로 입학하였지만 2000년 2월, 예수회에 입회하여 필리핀 Ateneo de Manila University에서 철학과정(2004.3)과 호주 Melbourne College of Divinity에서 신학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2010년 6월에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유신재 신부는 유희정(모세)과 전은경(실비아)의 3남 2녀 중 셋째로서 본당에서 1994년부터 독서단 활동과 1998년부터 사목협의회 청소년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98년 3월에 꾸르실료(서울대교구 남성 제205차)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5년간 폴리포니 앙상블 단원으로 음악활동을 하였다.

유신재 신부의 첫 미사는 7월 4일 11시 교중미사시에 가족과 친인척, 많은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으며, 미사 후 국수잔치와 새 사제의 강복이 있었다. 서품 성구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시편 95,7-8)로 정하였다. 신자들은 새 사제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5월 29일(토)부터 유신재 부제의 사제 수품을 위한 9일 기도를 드렸으며, 영적, 물적 봉헌을 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호주 멜버른 St. Ignatius(성 이냐시오 성당)에서 2009년 12월

▲ 유신재 부제 사제품 수여 장면(2010.6.30)



▲ 유신재 신부 상본

3일 오후 6시(호주 시간)에 부제 서품식이 있었다.

3) 유재현(다니엘) 신학생의 성소

유재현(다니엘) 군이 2008년 3월에 가톨릭대학교 신학부로 입학하게 되었다. 대현중학교와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군복무 중이다.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자 고등학교 1학년 무렵 성소의 길을 걸었다.

7.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의 실천

1) 나눔, 섬김, 봉사의 실천

본당 신자들은 긴급 재난을 당한 이웃에 구호활동을 적극 펼쳤다. 2007년 9월 나리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구호성금 1천만 원을 제주교구에 긴급 지원하였다. 이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는 본당 신자들의 형제애 실천을 격려하며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또한 2007년 12월 29일에는 사회사목분과가 주관하여 태안 원유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를 방문하였으며, 안원진(베드로) 신부와 80여 명 교우들이 추운 겨울날씨에도 사고현장에서 기름제거 작업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의 문화의 달 행사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모금액 4,256,410원과 2009년의 성목요일 주님만찬미사 3,149,500원에, 김자문 신부 본인 영명축일의 축하금을 더하여 서울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아프리카 우간다 진자교구 진료소의 차량 구입에 후원활동을 하였다. 또한 2009년 9월 30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지역에 발생한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태풍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재해 의연금으로 5,932,450원과 과테말라 긴급구호 특별헌금(2010.7.4) 5,892,380원, 일본 지진 긴급구호 특별헌금(2011.3.20) 9,438,350원을 긴급 후원하였다.

한편 사회사목분과 박철제(베네딕토) 분과장이 주관하여 2009년 1월 16일에서 1월 18일까지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영광에 거주하는 소외된 어린이 10명과 인솔 수녀를 초청하여 여성구역분과의 도움으로 본당 교우 가정에서 머무르는 서울나들이에 초대하였다. 창덕궁과 에버랜드, 명동성당 순례 등으로 관광을 하였으며, 한때 소외되었지만 힘차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톨릭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꿈을 심어주었다. 이에 작은자매 관상선교회 정 루치아 수녀는 감사의 편지를 본당에 보냈다.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헌혈행사에도 참여하여 2008년 5월 4일에 27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나눔과 후원활동 내역(2007년~2011년)

일자	대상	금액	비고
2007.3.18	청주성모꽃마을 회원모집과 각탕기 24대		670명
2007.6.17	캄보디아 선교지원 특별헌금	8,003,410원	
	캄보디아 선교지원 신립금	115,367,000원	746명
	캄보디아 선교지원 봉헌금	3,260,000원	
2007.10.7	논산훈련소 연무대성당 신립금	67,557,000원	493명
	현금봉헌	1,545,000원	
2007.10.17	문래동성당 외 4곳	9,000,000원	
2007.12.9	제주연동성당 성전건립 특별헌금	7,308,590원	
	제주연동성당 성전건립 신립금	112,030,000원	414명
2007.12.18	횡계성당, 성소후원회, 교정사목부 외 2곳	15,000,000원	
2007.12.30	태안 재난지역 돕기 특별헌금	6,941,130원	
2007.12.31	멕시코선교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외 8곳	19,000,000원	
2008.3.8	부산 모라성당 신축후원금	7,081,950원	홍삼판매 29세트
	부산 모라성당 신축 신립금	155,950,000원	569명
2008.3.20	태안지역 피해주민 돕기 헌금	2,929,430원	
2009.3.22	안나의 집 특별헌금	9,941,910원	
	안나의 집 후원 접수	6,906,000원	282명
	안나의 집 후원 후원금	4,600,000원	친선골프대회 참가자 후원
2009.2.22	아프리카 선교후원	2,099,400원	
2009.2	몽골 아시아 교회 특별헌금	9,727,250원	
	몽골 아시아교회 신립금	59,413,000원	424명
2008.6.8	국제성경사도직 후원금	7,231,650원	215명 후원회원
2008.12.21	광주대교구 보성성당 건축 특별헌금	8,230,510원	
	광주대교구 보성성당 건축 신립금	153,202,000원	670명
2009.1.8	의정부교구 법원리성당 후원	5,000,000원	
2009.1.29	봉천11동성당 후원	10,000,000원	
2009.3.22	교정사목 후원	3,000,000원	
2009.8.16	대치3동 교육관 축성 후원	3,000,000원	
2009.9.30	영등포 공부방 찬조	2,000,000원	

2009.12. 20	춘천교구 내면성당 성전건립 특별헌금	8.942,700원	
	춘천교구 내면성당 성전건립 신립 약정금	136,176,000원	584명
	물품 판매	8,000,000원	
2009.12.23	인천교구 서운동 외 7곳 후원	16,000,000원	
2010.1.17	아이티를 위한 특별헌금	10,305,620원	
2010.1.19	성요셉양로원	5,000,000원	
2010.2.28	안동교구 문경 신기동성당 건축헌금	9,194,660원	
	안동교구 문경 신기동성당 건축 신립금	96,820,000원	613명
2010.3.7	남미 칠레 지진피해 특별헌금	6,374,370원	
	남미 페루선교 특별헌금	6,071,200원	
	북한 및 파키스탄 대홍수 구호의연금	6,191,200원	
2010.3.22	호평동성당 바자회 티켓	5,000,000원	
2010.8.13	프랑스 액상 프로방스대교구 현지본당헌금	8,583,360원	
2010.12.21	치명자산 순교성지 개발 헌금	9,587,900원	
	치명자산 순교성지 개발 신립금	46,480,000원	253명
2010.12.31	군종후원회 15곳 후원	32,000,000원	
2011.2.6	남미 페루 선교후원금	6,071,200원	
2011.2.14	중국 돈보스코 연길국제합작기술학교 후원	12,888,600원	
2011.4.7	잠비아교회를 위한 헌금	10,803,080원	
	잠비아교회를 위한 후원 약정액	113,300,000원	561명
2011.4.24	톤즈돕기 후원금	10,100,000원	
2011.6.12	춘천 거두리성당 신축 헌금	9,401,100원	
	춘천 거두리성당 신립금	106,780,000원	572명

한편 여성구역은 반모임을 통해 신자들의 정성을 담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이주민 사랑방 쉼터와 바오로 성모의 집, 결핵요양원 희망의집 외 여러 단체와 저소득층 이웃을 위하여 2007년에 16,009,040원, 2008년 17,135,000원, 2009년 17,392,000원, 2010년 18,237,500원을 사랑의 손길로 전달하였다.

▶헌미헌금 봉헌액 내역

년 도	금 액
2007년 5월	15,184,000원
2007년 9월	6,736,180원
2008년 5월	15,204,000원
2008년 9월	7,934,500원
2009년 5월	16,437,000원
2009년 9월	6,577,650원
2010년 5월	17,226,000원
2010년 9월	7,927,230원
2011년 5월	17,422,000원

2) 나눔과 이웃사랑의 실천

나눔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여건의 한마음공동체 외 24개 단체와 개인 등에게 후원금과 학자금, 명절 쌀 지원 등으로 2007년 69,960,000원, 2008년 69,960,000원, 2009년 70,000,000원, 2010년 72,394,400원, 2011년 62,400,000원(본당 13개월 교무금)을 이웃을 위한 나눔의 활동으로 사용하였다.

▶나눔회 활동(2009.7.23)

그리고 회원들은 하남시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 장애우와 소년예수의 집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2박 3일 일정의 여름캠프, 충북 제천 사도의 집의 가족 경로잔치(2009.5.29), 경기 광탄의 시몬의 집 가족 경로잔치(2010.3.29), 파주 프란치스코의 집 장애 가족들의 서울대공원 나들이(2010.6.17) 등을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였다. 또한 밀밭모자쉼터 가족 여름캠프를 강원 고성에서 2010년 7월 27일부터 2박 3일간 가졌다.

한편 2009년 8월에는 행려자 및 복지시설 가족들에게 필요한 헌옷을 본당 신자들의 후원을 받아 무료 진료병원인 성가복지병원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8. 사도직 단체의 확대와 활성화

1) 성체분배봉사회와 성소후원회의 재발족

성체분배 봉사회는 2009년 10월 25일에 재발족되었다. 2001년 이후부터 성직자와 수도자만이 성체분배를 해 왔는데, 본당 신자수가 많고 매 미사마다 직접 성체를 분배함에 따른 과다한 시간 소요로 미사시간이 길어지고, 성직자의 주일 시간운영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다른 사목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김자문 신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현존이신 성체를 다루는 거룩한 봉사직을 수행하도록 봉사자들을 인선하여 교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뒤 정훈진(요한) 초대 회장과 김재유(다니엘) 총무 등 19명에게 성체 분배 봉사의 소임을 맡게 하였다.

한편 성소개발과 후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예비 신학생과 신학생, 은퇴 사제 등 성직자, 수도자들을 후원하고, 나아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신학교 후원까지 전개하는 성소후원회가 김자문 신부의 제안으로 2009년 7월 5일에 창립미사와 회원모집을 시작하며 발족하게 되었다. 이로서 1999년 1월부터 본 단체의 활동을 중단한 후 10년만에 새롭게 이은수(레오) 신부의 새 사제 탄생을 계기로 본당의 성소후원을 위해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초대 회장은 박연숙(비비아나), 부회장 박경심(마리안나), 총무 정은희(이레네), 회계 김경희(소피아)가 봉사하였고, 2010년 10월 말에는 후원회원이 330명에 이르렀다.

2) 평신도교리교사단의 설립

예비신자를 위한 교리교육이 머리로 이해하는 '앎'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삶'으로 그 중심을 바꾸어 가는 현실에서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 교회에 첫걸음을 한 예비신자들을 적은 인원의 그룹으로 나누어 교육한다는 김자문 신부의 사목방침에 따라 2010년 1월에 박철제(베네딕토), 김재유(다니엘), 박순민(아가타) 등의 봉사자들로 평신도 교리교사단이 구성, 활동하였다.

3) 성 요셉 아카데미의 설립과 활동

김자문 신부는 본당 부임 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2007년부터 김명준(남명혁 다미아노) 노인분과장이 주관하여 노인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5월 7일(수)에 '성 요셉 아카데미' 명칭으로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입학 대상은 65세 이상의 본당 신자이며, 매주 수요일 미사와 다양한 문화 활동

과 영성 강좌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성을 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초대 학장은 이수재(요셉) 형제가 봉사하였으며, 감곡성당 성지순례(2008.5.14), 가평 고향마을 피정(2011.6.8) 등과 방학을 하며 발표회(2011.7.6)를 가졌다.

▲ 성 요셉 아카데미 설립(2008.5.7)

4) 사도직 단체의 활동과 변화

남성 꾸리아와 남성 구역분과가 주관하여 2009년 5월 16일에는 노길명 고려대 교수를 초빙하여 '종교간 대화와 협력' 이라는 주제로 레지오 단원 및 구역 봉사자들의 특강이 있었다. 사랑의 샘 꾸리아는 '레지오의 발전 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대회를 2008년 1월 15일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여성 두 개 꾸리아 전 단원은 2008년 4월 8일에 대성전에서 한국가톨릭문화원 박유진(바오로) 신부가 진행한 '부활, 그 거룩한 기쁨으로 오십시오' 주제의 음악피정을 가졌다.

그리고 샛별 꾸리아는 전단원 봉쇄 피정을 수지 성모 교육원(2008.6.28), 과천 영보 수녀원(2009.6.20)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와 샛별 꾸리아 전단원이

▲ 레지오 1,500차 주회기념

수지 성모 교육원(2010.6.12, 2011.7.2)에서 공동으로 봉쇄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샛별 꾸리아는 강화도 갑곶성지(2008.10.26)로,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는 전주 초남이 성지, 숲정이 성지, 전동성당, 치명자산 성지(2008.11.9)를 순례하였다. 2009년 7월 28일(화)에는 인자하신 모후 꾸리아 소속 사도의 모후 Pr.이 1,500차 주회를, 8월 4일(화)에는 사랑의 샘 꾸리아 소속 샛별 Pr.이 1,500차 주회를 맞이하여 축하식을 가졌다. 그리고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 소속 사랑의 모후 Pr.(2009.5.5), 구세주의 모후 Pr.(2009.7.1),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 소속 상아탑 Pr.(2009.7.28) 등이 1,000차 주회를 가졌다.

한편 M·E는 '친밀한 부부가 되는 여정' 주제로 일일 참부부(2) 프로그램(2009.2.28)을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우리는 어떤 부부인가'를 되돌아보는 보다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갖았다.

9.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1) 청년 단체들의 활동

청년성서모임은 2008년 3월부터 소그룹으로 나눠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한 뒤 8월에 3박 4일간 연수를 다녀왔다. 청년연합회는 청년 여름캠프를 '변하는 세상속의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영월자연학교(2007.8.10~12)로 다녀왔으며, 박지훈(안드레아) 신부와 김정애(베르나데트) 수녀, 청년 55여명이 참석하였다.

▲ 성가정 청년축제시 부모께 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2008.10.4)

2009년 청년 여름캠프는 '너희 모두 나에게 오너라' 주제로 주문진 인구공소(2009.7.17~19)에서 있었다. 청년 겨울피정이 이도행(토마스) 신부 지도로 가평 계성 푸른누리 수련원(2011.2.11~13)에

서 실시되었으며 성서를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 내 안의 하느님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는 성탄을 맞이하며 본당 출신 군 장병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냈고, 농촌을 체험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농촌봉사 활동(2008.7.12~22)을 충북 괴산 솔뫼농장에서 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부모님을 초대하여 펼친 성가정 청년축제(2008.10.4)가 대강당에서 있었으며, 본당 유아부터 청년까지 모두 함께 참여한 성탄축제(2010.1.3)도 대강당에서 열렸다. 또한 청년연합회 청년들과 노인분과 봉사자 주관으로 사목회의실에서 본당 어르신들을 위한 휴대폰 사용법 도움행사(2010.12.4)를 가졌다.

성가정 성가대의 솔리스트 등으로 활동 중인 젊은 음악인들이 '한 여름밤의 꿈' 이란 주제로 2007년 7월 22일에 젊은 음악회를 대강당에서 열었다. 그리고 한울림성가대와 필레몬합주단이 제2회 작은 음악회(2007.9.8)를 열어 가을밤에 청년들의 아름다운 화음 속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한편 청년 선교단인 예그리나가 2010년 8월 29일부터 청년예비신자 지원팀, 청년 성서모임팀, 청년교육 지원팀으로 확대 편성되면서 청년예비신자들의 교리공부와 성경 공부, 피정 등 청년 신자 재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2) 초등·중등부의 활동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성모의 밤 행사(2007.5.19)가 대강당에서 있었으며, 어린이들이 성모님께 봉헌한 기도와 선물을 만들어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초등부 저학년을 위한 여름신앙학교를 매년 7월에 본당에서 열었다. 초등부 고학년의 경우 무지개동산은 한마음 청소년수련원(2008.8.10~12), 둔내 자연휴양림

▲ 한마음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한 초등부 무지개동산(2008.8.10)

(2011.7.19~21)에서 있었으며, 여름 신앙학교는 춘천 강원도청소년수련원(2009.8.9~11)에서 실시하였다.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여름 캠프를 영월 자연학교(2007.8.8~10)에서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중고등부의 경우 겨울피정을 강원도 청소년수련원(2008.1.15~17), 성 필립보 자연생태마을(2009.1.7~9), 강화도 내가면 바다의 별 수련원(2010.1.29~30), 여주 라파엘의 집(2011.1.26~28)에서 가졌다. 여름 신앙학교는 충남 공세리 성당(2008.7.23~25), 가평 계성 푸른누리 수련원(2009.8.4~6)에서 실시하였고, 여름캠프를 인천 신도성당(2011.8.9~11)으로 다녀왔었다. 그리고 대치1, 2, 3, 4동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연합 체육대회가 2008년 11월 9일에 있었으며, 본당 성전에서 대치1동 이중헌(요셉) 신부와 본당 안원진(베드로)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14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학생미사를 마치고 대현 초등학교로 이동하여 운동회를 하였다. 또한 '우리 아이와 인터넷 중독'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강좌가 2009년 11월 11일에 본당 연회장에서 성동 청소년지원센터 김희경 팀장을 초청하여 가졌다.

10. 본당 역대 주임신부의 선종

1) 최광연 신부의 선종

본당 초대 주임신부인 최광연 신부는 1996년 10월 11일에 본당을 이임후 신수동 성당을 거쳐 시흥동 성당을 마지막으로 사목하였다. 이후 원로 사목자로 있던 중 2009년 10월 11일에 향년 78세로 선종하였다. 본당 성당 건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과 땀으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었다. 오늘의 대치2동 성전을 봉헌한 최광연 신부는 본당 교우들에게 아버지와

▲ 최광연 신부 장례미사(2008.10.13)

같은 참 사제의 모습으로, 투병 중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을 배려하는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식복사를 두지 않고 손수 식사하면서 생활비를 아껴 요셉의원과 성가복지병원에 후원금을 보내는 따뜻한 선행을 베풀었다.

10월 13일 명동주교좌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과 사제단의 집전으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고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지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장례미사 강론에서 정진석 추기경은 '착한 목자로 청빈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하게 한평생 주님의 사제로서 사명을 다한 최광연 신부께 경의를 표하였으며, 성소양성에 힘을 기울이어 아들신부들을 많이 배출하고 남다른 경리 지식을 활용하여 교구 재정을 튼튼하게 하였으며, 특히 13곳의 본당을 사목하며 세 곳의 신설 본당의 성전을 봉헌한 위대한 업적에 모든 사제들을 대신하여 감사함을 전하였다.' 본당에서는 김자문 신부와 보좌신부, 수도자와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연도와 추모미사, 장례미사에 참석하였다.

2) 이상훈 신부의 선종

본당 제2대 주임신부였던 이상훈 신부는 1998년 9월 25일에 가톨릭대학교 교리사목연구소로 이임한 후 2004년에 사목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제생활 대부분을 가톨릭 교리교육에 헌신한 이상훈 신부는 2011년 1월 28일에 노환으로 향년 84세로 선종하였으며, 천주교 용인공원 묘지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이상훈 신부는 한국교회 교리교육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사제직무의 으뜸을 교리교육으로 삼았으며, 1월 31일에 명동 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된 장례미사에서 정진석 추기경은 "우리나라 가톨릭 교리교육의 기초를 놓는데 헌신한 이 신부님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 내셨다"며 "교리교육에 평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신부님이 가진 사랑의 열정 때문이었다"고 애도하였다.

▲ 이상훈 신부 선종(2011.1.28)

본당에서는 김자문 신부와 박민우(알베르토) 신부, 우정자(세레나) 원장수녀와 본당 많은 신자들이 연도와 추모미사, 장례미사에 참석하였다. 특히 선종 전날에 집필한 본당 20주년을 축하하는 이상훈 신부의 축사글이 선종 소식을 접한 날에 편찬위원회에 전달되어 가슴을 저미게 하였다.

3) 선종한 본당 주임신부의 추도미사 봉헌

김자문 신부는 부임 후 보좌신부와 수도자, 연령회 회원, 본당 130여명의 신자들과 함께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고명철 신부 추모미사를 드렸으며, 이 추도미사는 매년 이어졌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의 추도행사에도 본당 신자들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최광연 신부의 1주기 추도행사인 2010년 10월 11일에도 버스 2대로 신자들과 함께 참석하여 추모미사를 드렸다.

▲ 고명철 신부의 묘소 앞에서 봉헌한 추모미사(2009.2.17)

본당 설립 20주년의 준비

1. 본당 설립 20주년의 준비

1) 성가정 축제의 준비

본당 설립 20주년에 앞서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성가정 축제'를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9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기획분과에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09년 4월 26일에 대강당에서 사목위원, 남성·여성 구역장, 반장, 사도회장, 각 단체장, 레지오 Pr.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가정 축제에 대한 행사 취지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미사 시간에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명회를 하였고, 행사의 홍보와 신자들의 관심, 그리고 기금 마련을 위해 여성구역 봉사자들은 '먹을거리' 장터를 세 번 열었다. 특히 남성 구역에서는 사도회를 본당에서 가지도록 권유하였으며,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욕적인 준비와 노력을 하였지만 하반기 무렵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대규모 단체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무산되었다.

이어 2010년 4월 18일에는 '주님과 함께한 은총의 시간' 이라는 주제로 김자문 주임신부와 우정자(세레나) 원장수녀, 이주영(아우구스티노) 총회장과 상임위원, 단체장, 남녀 구역 봉사자 110여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체 회의 개최(2010.4.18)

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본당 사목목표의 추진현황과 정보 공유, 뜻 깊은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교우들의 영적 성장 준비와 성전 리모델링 추진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2)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및 편찬위원회 발족과 활동

제13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10년 11월에 새로이 구성되자마자 본격적인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권혁노(프란치스코) 총회장이, 간사는 총무와 기획분과장이, 준비위원으로는 현 상임위원이, 그리고 전 총회장들은 고문직을 맡았다. 그리고 주요 기념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전교우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 20주년 기념 감사기도 봉헌, 혼인갱신식, 은총여행 529, 본당 역사 사진전, 본당 20년사 편찬, 성가정 열린 음악회와 기념식 등으로 하였다.

▲ 편찬위원회 활동(2011년)

또한 2010년 12월에 본당 20년사 간행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편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이상린(프란치스코)가, 기획분과장인 조헌성(발렌티노)가 편집장을 맡았으며, 13명의 위원들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첫 편찬회의는 김자문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2월 30일에 상담실에서 있었으며, 편찬위원들은 매주 월, 목요일 저녁 8시에 정례회합을 가졌다. 본당의 설립과정과 역대 사목자의 활동,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사도직 단체의 활동, 본당 사목 통계, 연혁 등을 각 위원들이 자료 정리와 인터뷰, 초안 집필 등을 통하여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편찬회의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며 수정과 보완하는 과정으로 본당사 집필이 진행되었다.

■ 편찬위원회의 구성

– 편찬위원장 : 이상린 프란치스코(울뜨레야 간사, 전 사회사목분과장)

– 편 집 장 : 조헌성 발렌티노(기획분과장, 전 부총무)

– 편찬 위원 : 최재철 안드레아(홍보분과장)

전한균 요한크리소스토모(전 가정분과장)

정병채 안토니오(기획분과 위원, 전 울뜨레야 간사)

최정미 클라라(기획분과 부위원장)

두창준 그레고리오(기획분과 간사)

김경옥 스텔라(기획분과 위원)

김정숙 엘리사벳(기획분과 위원)

송현철 라파엘(새신자기도모임회 회장, 전 노인분과장)

전영애 엘리사벳(전 본당 월간 성가정지 편집장)

서강애 루시아(전 울뜨레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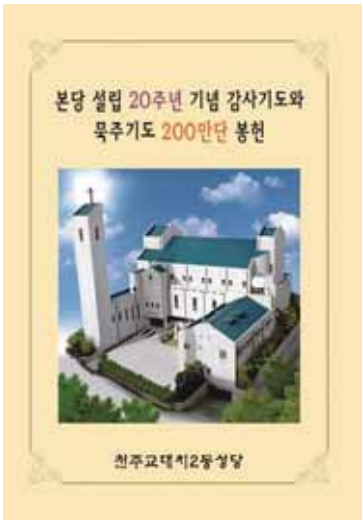
최양희 아녜스(교육분과 위원)

유인권 마태오(기획분과 위원, 전 12구역장)

이찬영 요셉(홍보분과 부위원장)

3) 본당 설립 20주년 감사기도와 묵주기도 봉헌

본당 설립 20주년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이를 개막하는 감사미사(2011.1.23)를 봉헌하고 본격적으로 2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였다. 우선 지인영(요안나) 교육분과장이 기도문을 쓰고 기획분과에서 기도문 카드를 제작하였다. 본당 전신자들은 2월 6일부터 '대치2동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기도'를 미사 후에, 그리고 소공동체와 각 사도직 단체들은 회합 전에 이 기도를 드렸다.



▲ 본당 20주년 감사 기도문 카드(2011.2.6)

이와 더불어 총회장과 총무, 기획분과장, 김영춘(체칠리아) 선교분과장은 본당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신자들의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당 공동체에 베풀어주신 모

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전신자들이 '가정 성화, 쉬는 교우 회두, 본당 공동체의 일치, 한반도와 세계 평화' 의 기도 지향을 두고 함께 기도드리는 것이었다. 200만단 묵주기도 봉헌은 전례분과 봉사자들이 기도를 주관하여 2월 6일부터 묵주기도를 평일미사(1단)와 주일미사(2단)에 참석한 교우들이 봉헌하였다. 또한 각 단체들도 회합 전에 묵주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시작된 묵주기도 봉헌은 본당 2011년 사목목표의 하나로 가정이나 소공동체, 사도직 단체가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로 나아가자는 김자문 신부의 사목 목표 실천사항이기도 하였다.

한편 묵주기도 봉헌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본당 성전 형태의 20주년 기념 자석퍼즐을 액자로 만들어 1층 로비에 설치하고 그 아래에 개인과 단체가 봉헌한 묵주기도를 선교분과에서는 매번 기록, 게시하며 주보에도 알렸다.

2. 20주년 기념행사 시작과 김자문 신부의 이임

1) 묵주기도의 밤과 혼인갱신식, 교황 강복장 수여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을 위한 신자들의 참여와 기도 분위기 확산을 위해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례, 선교분과가 주관하여 전신자들이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의 밤도 2011년 2월 27일부터 성전에서 시작하였다. 매일(월~금) 저녁 8시에 성전에서 신자들이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며, 8월 23일부터는 오전 10시 미사 후에 5단을 봉헌하였다.

▲ 오스발도 파딜랴 교황대사 교황강복장 수여(2011.7.17)

그리고 결혼 20주년을 맞이하는 교우 20부부 혼인갱신식을 2011년

5월 22일에 장인남(바오로) 대주교 집전으로 거행되었으며,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혼인 강복장을 이들 부부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7월 17일에는 본당 역대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총회장과 현 총회장, 전 상임위원과 현 상임위원들, 연령회 회원들, 그리고 본당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쓴 봉사자 83쌍 부부들에게 교황 부부 강복장을 주한 교황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로부터 수여받았다.

2) 본당 공동체의 은총여행 529

본당 공동체 1,300여명의 교우들이 김자문 주임신부와 이길재(베드로) 신부, 박민우(알베르토) 신부, 이용현(알베르토) 신부, 유신재(에드문도) 신부, 우정자(세레나) 원장수녀와 이인숙(마르티나) 수녀 등과 함께 철도청의 특별열차 각 9량씩 편성된 2편의 기차와 3대의 버스로 나뉘어 2011년 5월 29일에 충남 서천 춘장대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이 행사는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었으며, 본당 전교우가 참석한 대규모의 야외행사였다.

본당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차를 이용하여 '이집트를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으로 떠난 이스라엘 선조와 같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미와

▲ 은총여행529(2011.5.29)

▲ 야외미사 봉헌

영광을 드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김자문 신부는 격려하며 이끌었다. 이 행사를 위해 권혁노(프란치스코) 총회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남녀 구역 봉사자들, 청년들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공동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답사, 전신자 기도를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였다.

은총여행 529는 본당에서 수십 대의 버스를 각 지역별로 편성하여 용산역으로 이동한 후 기차 안에서 기도와 묵상, 강연 등의 피정과정과 춘장대 솔밭 숲에서 전교우가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 야외미사 봉헌, 행운권 추첨 행사와 서천 지역 토산물로 조리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여가를 보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레크레이션을 통해 구역별로 친교와 나눔을 가졌다. 특히 야외미사 강론에서 김자문 신부는 "본당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또한 내 이웃의 소중함도 깨닫는 친교의 시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본당 출신 첫 사제인 이용현 신부와 생활성가그룹 '사랑의 날개'가 밴드를 준비하여 대자연에서 울리는 아름답고 경쾌한 성가와 율동으로 분위기를 한층 돋우어 주어 본당 공동체 여행의 기쁨을 더해 주었다.

3) 김자문 신부의 이임

본당 성전 봉헌식(1992.6.20)에 김자문 신부는 참석하여 성가정 신앙 공동체를 축하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14년 뒤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본당 사목을 하는 깊은 인연이 있었다. 5년간의 재임시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였으며, 교우들의 영성을 심화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헌신하였다. 특히 새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목

적 배려를 하였고 가정의 복음화와 사도직 단체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재해나 구호가 필요한 곳과 해외에 까지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본당 20주년의 기념행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교구 사제 인사발령(2011.8.18)에 따라 8월 30일에 하계동 성당으로 이임하였다.

정진석 추기경의 '사랑합니다' 인사 답례(2008.5.11)

견진성사 기념(2008.5.11)

여름 신앙학교(2007.7.23)

첫 영성체(2010.6.6)

성탄전야미사 후 산타 이벤트(2008.12.24)

성 목요일 세족례(2008.4)

✣ 김자문 신부 영명축일 및 회갑축하(2008.5.18)

✣ 이상훈 신부 금경축 축하(2008.10.12)

✣ 예비신자 환영회(2010.2)

초등부 무지개 동산(2008.8)

이은수 부제 수품(2008.6.26)

윷놀이 대회(2010.2.28)

제 7 부

본당 설립 20주년과 새로운 미래

제1장

본당 설립 20주년과 미래 지향

1. 홍기범 신부의 부임과 20주년 행사

1) 홍기범 신부의 부임

김자문(네레오) 신부의 뒤를 이어 홍기범(바오로) 신부가 교구 사제 인사발령(2011.8.18)에 따라 8월 30일에 많은 신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본당 제6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홍기범 신부를 축하하는 환영미사는 9월 4일 교중미사(11시)시에 유봉준(토마스) 신부, 최승룡(테오필로) 신부, 김득권(굴리에손) 신부, 백운철(스테파노) 신부, 김명동(아우구스티노) 신부, 김성(세례자 요한) 신부 등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강론으로 본당 사목을 시작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오, 18.18)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인 것은 풀어주고 하느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가정 신앙 가족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임하는 홍기범 신부(2011.8.30)

홍기범 신부는 1958년 2월 15일, 충북 청주 출생으로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제수품(1988.2.12)을 받았다. 첫 부임지로 응암동 성당 보좌신부(1988.3~1990.3)로 사목을 시작한 뒤, 프랑스 낭트교구 라볼천주교회(1990.7~1996.8)에 파견되어 교환 사목을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학원에서 교리교수법을 전공(1996.9~1999.2)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전곡성당(현재 의정부교구) 주임신부(1999.3~2000.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2000.3.1~2011.2)을 오랫동안 역임하였다. 또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2009.2.20)를 취득하였으며, 중견사제연수(2011.3~2011.6)를 하였다.

2) 본당 사목의 시작과 20주년 기념행사

홍기범 신부는 부임하자마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각 분과와 사도직 단체 등과 만남을 가지며 본당 사목 전반을 확인해 나가면서, 신앙의 터전인 가정을 축복하고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며, 기도하기 위해 2011년 10월 27일부터 신자 가정축복 방문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추진하는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뜻 깊게 마무리하기 위해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 행사를 통해 본당 신앙 공동체가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다시 되돌아보게끔 이끌었다. 또한 홍기범 신부는 본당 신앙 공동체가 있기까지 애쓰고 헌신한 역대 신부들과 수녀들, 그리고 역대 봉사자들과 전신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며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고자 하였다.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미사(2011.10.30)를 봉헌하기에 앞서 전야제 행사인 성가정 열린 음악회(2011.10.29)와 본당 역사 사진전(2011.10.15~10.30)이 열렸다. 이제 대치2동 성당이 설립되고 2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남기는 본당 20년사를 발간하는 일만 남았다.

2. 새로운 본당의 미래

1989년 10월 22일에 첫 삽을 뜨며 본당 성전 기공식을 가진 후, 1992년 6월 20일에 김

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을 모시고 성전 봉헌식을 가졌다. 그 후 여섯 분의 주임신부, 많은 보좌신부들과 수도자들, 본당 출신 5명의 사제와 2명의 수도자, 그리고 설립부터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이룬 신자들이 본당 역사의 과정에 언제나 함께 있었다.

본당 20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본당 사목활동 역시도 현재로부터 출발하며, 지금까지 본당 공동체가 겪었고 걸어왔던 수많은 경험과 질곡들도 현재라는 시점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인 까닭에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공동체를 통해서 구현된다. 본당은 설립 초기부터 초대 교회의 원형인 사귐과 섬김, 나눔의 공동체를 오늘날까지 지향하며 실천하고 있다. 또한 소공동체의 목적인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대교구가 추진하는 '복음화 2020운동'의 목표를 이미 뛰어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성가정 신앙 공동체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된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미래의 사목 역시 소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초대 교회의 정신을 본받으며, 새로운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소공동체의 핵심은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상의 삶 안에 실천하는 것이며, 세상의 복음화이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오로지 새로운 복음화만이 깊고 빛나는 신앙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4항)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년이 된 대치2동 본당이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해야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제 홍기범 주임신부의 사목 지도에 따라 본당 공동체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홍기범 신부의 부임 인사글에서 "가톨릭 교회는 초대 신앙 공동체부터 배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한번 배에 오르면 다음 정박지까지는 어느 누구도 내릴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배에 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 가야될 신앙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주님의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본당 신앙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돛을 이제 올려야 할 때이다.

제 8 부

평신도 사도직 단체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 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3. 주요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후 최광연 신부에 의해 1991년 9월에 초대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총회장과 부회장, 총무, 10개의 실무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2009년 11월부터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개칭되었으며, 13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본당 초기 성전의 건립과 준공, 그리고 1992년 6월의 성전 축성식을 준비하였고, 2002년 고명철 신부의 선종, 2011년 본당 20주년 기념행사 등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노력하였다.

4. 역대 총회장

- 초 대 신대진(베드로)(1991.9~1993.11)
- 제2대 윤성노(니콜라오)(1993.11~1996.3)
- 제3대 윤성노(니콜라오)(1996.3~1996.11)
- 제4대 신대진(베드로)(1996.11~1997.5), 조명승(가리노)(1997.5~1997.10)
- 제5대 윤성노(니콜라오)(1998.4~1999.1)
- 제6대 윤성노(니콜라오)(1999.1~1999.11)
- 제7대 장주일(스테파노)(1999.11~2001.11)
- 제8대 유영순(미카엘)(2001.11~2003.11)
- 제9대 권중원(베드로)(2003.11~2005.10)
- 제10대 노창수(라이문도)(2005.11~2007.10)
- 제11대 노창수(라이문도)(2007.11~2008.10)
- 제12대 이주영(아우구스티노)(2008.11~2010.10)

▲ 역대 총회장

5. 현 상임위원 현황

–총 회 장 : 권혁노(프란치스코)
–남성총무 : 곽원섭(스테파노)
–여성총무 : 이경순(루치아)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장 조헌성(발렌티노)
–전례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규영(안드레아)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영춘(체칠리아)
–재정분과위원회 : 위원장 감명식(마태오)
–교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지인영(요안나)
–남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우길상(요셉)
–여성구역분과위원회 : 위원장 유금순(가타리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윤병익(레미지오)
–소년분과위원회 : 위원장 임종길(로고)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위원장 채준석(토마스)
–노인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은옥(모니카)
–홍보분과위원회 : 위원장 최재철(안드레아)
–관리분과위원회 : 위원장 장기영(바실리오)

▲ 제13대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총회장과 상임위원

기획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월

2. 설립목적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및 본당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주요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이후 1991년 9월에 초대 사목협의회 구성시부터 활동하였으며, 연말에는 본당 사목계획의 수립과 사목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매년 초 본당 사목계획서의 발간과 2011년 본당 20년사 발간과 20주년의 기념행사를 기획, 추진하였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한상국(야고보)(1991.9~1993.11)
- 제2대 이용헌(베네딕토)(1993.11~1996.11)
- 제3대 유병국(마티아)(1996.11~1999.1)
- 제4대 최세훈(유스티노)(1999.1~2001.11)
- 제5대 차일성(이냐시오)(2001.11~2003.11)
- 제6대 이세용(요한)(2003.11~2005.10)
- 제7대 최상배(사비노)(2005.11~2007.10)
- 제8대 유상규(사비오)(2007.11~2008.10)

5. 현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위 원 장 : 조헌성(발렌티노)
-부위원장 : 최정미(클라라)
-간　사 : 두창준(그레고리오)
-위　원 : 김정숙(엘리사벳)
-위　원 : 김경옥(스텔라)
-위　원 : 유인권(마태오)
-위　원 : 정병채(안토니오)

전례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본당 공동체의 전례예식 및 성사집행의 예식이 거룩히 집전되도록 사제를 돕는 일체의 봉사활동 전반을 기획 실천하며,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더 나은 거룩한 전례예식의 실현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1992년 6월 본당 성전 축성식 전례 예식을 준비하였으며, 2009년 10월에 성체분배봉사회 설립으로 산하 10개의 단체로 구성되었다. 여러 형식의 전례예식에 대한 봉사활동과 전례예식 교육수료, 봉사자들의 각 분야별 전문적인 봉사능력 배양,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심종보(프란치스코)(1991.9~1999.11)
- 제2대 김재유(다니엘)(1999.11~2001.11)
- 제3대 한진동(요셉)(2001.11~2003.2)
- 제4대 김재유(다니엘)(2003.2~2008.11)

5. **현 분과위원회 위원현황**

-위원장 : 한규영(안드레아)

6. **분과위원회 소속 단체현황**

남성해설단, 여성해설단, 제대회, 여성독서단, 성가정 성가대, 바다의 별 성가대, 선창단, 반주단, 전례꽃꽂이회, 성체분배봉사회

남성해설단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본당의 미사와 전례 행사를 담당하며 전례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아가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신심과 영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주요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후 남성 9명과 여성 6명이 '미사해설단'으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남성해설단과 여성해설단으로 분리되었다. 2002년에는 정보공유를 위해 카페를 개설하였으며, 2003년에 구룡마을에 봉사활동을 하였다. 2006년에는 정의철 신부 진행으로 5일간 전례단 특강 및 피정을 가졌고 2007년에는 독서자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2009년에는 이도행 신부 진행으로 본당에서 전례단 피정을 하였다.

4. 역대 단장

- 초 대 노길자(안젤라)(1991.10~1998.10)
- 제2대 박해복(이레네)(1998.11~1999.10)
- 제3대 박순민(아가타)(1999.11~2000.10)
- 제4대 이재근(디모테오)(2000.11~2003.10)
- 제5대 유상규(사비오)(2003.11~2004.10)
- 제6대 정현윤(스테파노)(2004.11~2005.10)
- 제7대 이상명(스테파노)(2005.11~2006.10)
- 제8대 박철제(베네딕토)(2006.11~2007.10)
- 제9대 한규영(안드레아)(2007.11~2008.10)
- 제10대 황석원(바오로)(2008.11~2010.10)

5. 현 임원 현황

-단장 : 박동우(니콜라오)

여성해설단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본당의 미사와 전례 행사를 담당하며 전례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아가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신심과 영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주요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후 남성 9명과 여성 6명이 '미사해설단'으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부터여성해설단이 공식적으로 분리되었다. 전례시기에 맞춰 남성해설단과 함께 전례 예식을 담당하며, 여성독서단과 함께 본당의 혼배와 장례미사를 담당하고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노길자(안젤라)(1991.10~1998.10)
- 제2대 박해복(이레네)(1998.11~1999.10)
- 제3대 박순민(아가타)(1999.11~2000.10)
- 제4대 이경애(비비아나)(2000.11~2001.10)
- 제5대 유명자(체칠리아)(2001.11~2002.10)
- 제6대 김평숙(율리아나)(2002.11~2003.10)
- 제7대 김현숙(안나)(2003.11~2005.10)
- 제8대 최정미(클라라)(2005.11~2007.10)
- 제9대 이증미(마리아 비앙카)(2007.11~2009.10)
- 제10대 김학례(데레사)(2009.11~2010.10)

5. 현 임원 현황

–단장 : 김영숙(스텔라)
–부단장 : 양희수(클라라)
–총무 : 김진수(라파엘라)

여성독서단

1. 설립연월일 : 1995년 3월 13일

2. 설립목적

본당의 미사 전례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준비하여 전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신심과 영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주요연혁과 활동

1995년 3월 13일에 남성 7명, 여성 12명이 하느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기 위해 처음으로 활동하였다. 주요활동은 평일 10시 미사, 저녁 7시 미사의 독서봉사와 영세식과 견진예식의 안내봉사를 담당하였으며, 2000년부터 소성무일도 응송봉사를 하였다.

4. 역대 단장

- 초 대 이병란(스텔라)(1996.12~1997.10)
- 제2대 성기란(아녜스)(1997.11~2000.10)
- 제3대 곽혜순(크리스티나)(2000.11~2003.10)
- 제4대 이경순(루치아)(2003.11~2004.10)
- 제5대 이은희(루치아)(2004.11~2006.10)
- 제6대 김춘희(마르가리타)(2006.11~2007.10)
- 제7대 권현숙(비비안나)(2007.11~2008.10)
- 제8대 강재연(베로니카)(2008.11~2009.11)

5. 현 임원 현황

-단장 : 심태희(크리스티나)

성가정성가대

1. 설립연월일 : 1992년 1월 4일

2. 설립목적

성당 내의 행사 중 음악으로 봉사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며 주님을 찬미하여 행사가 더욱 성스럽게 되고 참석한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연혁과 활동

초기 남성 10명, 여성 39명이 활동하였으며, 훼미리성가대(장년성가대)라 불렀다. 창립시 이준명(요셉)이 지휘를 맡았으며, 2004년부터 김영진(안젤라) 지휘자가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성탄 성야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봉헌, 최초로 소규모 관현악 반주 도입, 2006년 부활 성야 구노 장엄미사곡 봉헌, 성가정 송년음악회(2007.12), 린나이 오케스트라 협연(2008.11) 등의 활동을 하였다.

4. 역대 단장

• 초 대 강광수(안토니오), 최찬희(데레사)(1992.1~1994.1) • 제2대 박인전(요한), 김광호(프란치스코), 신시영(프란치스카)(1994.1~1995.1) • 제3대 강광수(안토니오), 한동윤(미카엘라)(1995.1~1997.1) • 제4대 김일신(요셉), 임경자(체칠리아)(1997.1~1998.1) • 제5대 김봉수(아우구스티노), 한동윤(미카엘라)(1998.1~2000.1) • 제6대 라병남(프란치스코), 김태희(아가타)(2000.1~2001.1) • 제7대 라병남(프란치스코), 홍성애(로사)(2001.1~2002.1) • 제8대 장정순(마리오), 강전희(스텔라)(2002.1~2003.1) • 제9대 이종섭(베네딕토), 홍성애(로사)(2003.1~2004.1) • 제10대 성낙억(미카엘), 김명자(스텔라)(2004.1~2006.1) • 제11대 강철기(사도요한), 황경순(아눈시앗다)(2006.1~2007.1) • 제12대 김봉수(아우구스티노), 성소영(소화데레사)(2007.1~2008.1) • 제13대 심순용(아브라함), 이금란(아델라)(2008.1~2010.1) • 제14대 강철기(사도요한), 신시영(프란치스카)(2010.1~2011.1)

5. 현 임원 현황

–단장 : 우정수(아녜스)
–부단장 : 김두희(요셉)
–총무 : 박영희(피데스)
–회계 : 임명희(율리아)

바다의 별 성가대

1. 설립 연월일 : 1997년 2월 14일

2. 설립 목적

본당 신자들로 하여금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특별히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 몇몇 부부가 모여 부부성가대로서 설립되었다. 최초 부부사랑 하나되어 주님께 찬미 찬송 드리고, 주님 안에 한 형제되어 사랑과 믿음을 키우며 본당 전례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부부성가대는 발전을 거듭하여 본당 전례의 한 축을 담당하던 중 2009년 6월에 '바다의 별(스텔라 마리스) 성가대' 로 개칭하였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2010년 4월에 부활 대축일 미사 성가 봉사와 5월에 세례명 수여식 봉사를 하였고 6월에는 공세리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매주 저녁 8시 주일미사 성가 봉헌과 전례 시가에 맞춰 성가 봉사를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피정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고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주종익(재준이냐시오)(1997.2~1998.9)
- 제2대 신당균(바오로)(1998.10~1999.9)
- 제3대 김경화(헬레나)(1999.10~2001.9)
- 제4대 김광철(윌리암)(2001.10~2002.9)
- 제5대 조 임(미카엘라)(2002.10~2004.9)
- 제6대 박우일(요한)(2004.10~2005.9)
- 제7대 최재철(안드레아)(2005.10~2006.9)
- 제8대 박동우(니콜라오)(2006.10~2007.9)
- 제9대 김보일(바오로)(2007.10~2008.9)
- 제10대 김광철(윌리암)(2008.10~2009.9)
- 제11대 이종옥(체칠리아)(2009.10~2010.9)

5.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원호(베드로)
-부단장 : 이순구(아우구스티노),
한승희(그라시아)
-총 무 : 류성원(요한),
김일희(요안나)
-악보장 : 임경빈(프란치스코)

1. 설립 연월일 : 1996년 11월

2. 설립 목적

본당의 전례에 맞춰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의 개념으로 말씀의 전례 독서자와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주례사제, 그리고 신자 모두에게 봉사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미사 봉사에 참여하고 봉사자 간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섬기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신자들이 제대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상훈 신부의 권유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초기 7명의 제대봉사자가 활동하였다. 전례에 시기에 맞춰 봉사하고 매년 야유회와 전례 피정을 실시하고 있다.

4. 역대 회장

- 초 대 박순민(아가타)(1996.11~1998.10)
- 제2대 이경순(루치아)(1998.11~2000.10)
- 제3대 박순민(아가타)(2000.11~2002.10)
- 제4대 박귀화(안젤라)(2002.11~2004.10)
- 제5대 이경순(루치아)(2004.11~2005.10)
- 제6대 신소정(율리아나)(2005.11~2008.10)
- 제7대 허성경(안젤라)(2008.11~2010.10)

5. 현 임원 현황

–회장 : 이기선(아나스타시아)
–서기 : 이태경(카리타스)
–총무 : 박희경(아녜스)

반주단

1. 설립 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본당의 미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성가 반주를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초기 미사 전례 봉사를 위해 여성 6명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 선창단과 합쳐져서 함께 활동과 월례회의를 가졌다. 2007년부터 다시 분리되어 각각 '선창단'과 '반주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봄, 가을에 단원들의 성지 순례와 성경 돌아가며 쓰기 등을 하고 있다.

4. 역대 회장

- 초 대 원동희(체칠리아)(1991.9~1995.11)
- 제2대 윤화엽(레지나)(1995.11~1999.11)
- 제3대 이은주(안나)(1999.11~2003.11)
- 제4대 박기주(비비안나)(2003.11~2006.11)
- 제5대 김성미(마리아 고레티)(2006.11~2008.11)
- 제6대 민영원(헬레나)(2008.11~2010.11)

5. 현 임원현황

-단장 : 이정진(리드비나)

전례꽃꽂이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15일

2. 설립 목적

전례시기에 맞춰서 아름답게 그리고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를 꾸미는 것을 지향하며 회원의 신심을 향상시키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95명의 신자들이 내는 헌화비로 '헌화회'란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었고, 백찬숙(세라피나) 초대 회장이 봉사하였다. 1993년에 황숙재(제노베파) 자매가 입단하여 2명이 1996년까지 전례꽃꽂이 봉사활동을 하였다. 1996년 4명의 새로운 회원이 입단하여 조직을 갖추고 전례분과 소속이었으나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2004년에 전례분과에 정식 소속되었으며, 경기도 양근성지 일일피정(2005.9.2), 죽산성지 순례(2008.10.28), 명동성당 성주간 전례교육(2010.3.9) 등의 활동을 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백찬숙(세라피나)(1991.9.15~1996.12.31)
- 제2대 황숙재(제노베파)(1997.1.1~2003.12.31)
- 제3대 김정희(소화데레사)(2004.1.1~2007.11.30)
- 제4대 차정언(가브리엘라)(2007.12.1~2009.11.30)

5. 현 임원현황

–회장 : 김봉호(크리스티나)
–서기 : 안문숙(베로니카)
–총무 : 신정숙(유스티나)

선창단

1. 설립연원일 : 1992년 3월

2. 설립 목적

성가대 없는 주일미사에 전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비 신자 및 교우들의 성가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전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성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김정숙(안젤라) 수녀의 제안에 따라 이정숙(마리아 고레티), 박덕자(데레사), 박언빈(베르나데트), 한동윤(미카엘라) 4명이 초기에 봉사하였다. 김정애(베르나데트) 수녀 부임 후 더욱 활성화되었고, 현재 주일미사 10분전 교우 성가지도와 예비신자 교리반, 견진 교리반 성가지도, 대입 수험생 40일기도 성가봉사(1995~2006)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이정숙(마리아 고레티)
- 제2대 박덕자(데레사)
- 제3대 한동윤(미카엘라)
- 제4대 허명숙(미카엘라)

5. 현 임원 현황

-단장 : 이영순(안나)

성체분배봉사회

1. 설립 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평신도 성체 분배자는 사제에 의해 선발되고 교구장이 정한 교육과 축복예식을 통해서 성체 분배권을 부여받게 되며, 이렇게 선발된 봉사자들은 미사집전 사제의 허락을 받아 비정규 성체 분배를 하게 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후 '베드로회'로 설립되어 봉사자 10명이 활동하였고, 1997년에 봉사자 17명으로 증원, 성찬봉사회로 단체명이 개명되었다. 그 후 1999년 봉사자 18명, 2002년에 봉사자 24명으로 증원되었으나 성체 분배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한다는 김병학 신부의 사목적 지침에 따라 2003년에 해단되었다. 이후 김자문 신부 권고에 의해 봉사자 9명이 교육수료 후 성체분배봉사회로 재설립(2009.10.25)되었고, 2010년 4월 4일에 봉사자 7명이 추가되어 총 1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일 미사에 성체 분배 봉사를 하고 있다. 2010년 4월 10일에 박민우(알베르토) 신부 지도로 본당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조명승(가리노)(1991~1997)
- 제2대 유영순(미카엘)(1998~1999)
- 제3대 이대용(요셉)(2000~2001)
- 제4대 남궁칠(미카엘)(2002~2003)

5. 현 임원 현황

–회장 : 정훈진(요한)

–총무 : 김재유(다니엘)

재정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본당의 예산 수립 및 집행의 관리, 감독을 수행하며 재정자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초기 사목협의회 구성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8년 5월에 예산, 결산 및 각종 통계 보고의 전산화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8월에는 교무금 은행납부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본당 회계업무의 전산화가 정착되었다.
   -예산 계획수립
   -예산에 따른 집행 관리 감독
   -주요 예산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회계 및 전표 집행의 관리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정인수(야고보)(1991.9~1997.10)
- 제2대 임성락(프란치스코 하비에르)(1997.11~2001.10)
- 제3대 노창수(라이문도)(2000.11~2001.10)
- 제4대 조규황(요한)(2001.11~2007.10)

5. **현 분과위원회 임원현황**
   -위원장 : 감명식(마태오)
   -부위원장 : 안경식(안드레아)
   -간사 : 허노복(안드레아)
   -위원 : 주인중(사울)
   -위원 : 김병두(프란치스코)

교육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견진교리를 포함한 신자 재교육과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권장하고 본당의 인재양성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초기 사목협의회 구성시부터 활동하였으며, 2000년대 복음화 위원장도 겸직하였다. 2007년 6월에는 M.E.가 신설된 가정분과로 소속되었으나, 2010년 11월에 다시 교육분과로 소속되었다. 2007년의 C.L.C. 영성강좌와 시네마 영성의 실시, 김길수 교수(2000.9)와 강요셉 신부(2003.11), 차동엽 신부(2009.2), 오웅진 신부(2011.5) 등의 일일 전신자 피정, 문화행사를 통한 선교 활동(2008.11) 등을 하였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유영순(미카엘)(1991.9~1993.9)
- 제2대 김성수(라우렌시오)(1993.10~1997.9)
- 제3대 정길현(스테파노)(1997.10~1999.9)
- 제4대 김상동(토마스 아퀴나스)(1999.10~2001.9)
- 제5대 정정희(마리아)(2001.10~2003.9)
- 제6대 박순민(아가타)(2003.10~2010.10)

5. 현 분과위원회 위원현황

–위원장 : 지인영(요안나)　–부위원장 : 박영선(로사)
–간사 : 김명희(요안나)　–서기 : 김수희(제노베파)
–위원 : 최양희(아녜스), 명정애(바울라), 김수이(사라), 황인정(아가타)

6. 분과위원회 소속 단체현황

가톨릭 성서모임,
직장인 가톨릭 성서모임,
울뜨레야, 성서못자리, M·E

가톨릭 성서모임

1. 설립연월일 : 1991년 12월 5일

2. 설립목적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교육과 말씀의 봉사자 양성과 국내외 선교, 전례의 생활화에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초기 '말씀의 봉사회' 로 설립되었고 여성 20명이 중심이 되어 어버이 성서그룹 명칭으로 성경 공부를 담당하였으며, 1992년에 창세기, 출애굽기, 마르코, 요한 4개그룹으로 시작하여 16개 반 191명이 수료하였다. 2000년 3월 2일에 '가톨릭 성서모임' 으로 개칭되었다. 2006년에는 봉사자 대상 마태오 복음 '렉시오 디비나' 반을 개설하였으며, 성서 40주간을 1999년과 2008년 2회 실시하였다. 매년 봉사자 피정과 그룹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6개 그룹(사도행전, 이사야 포함)으로 20년 동안 수료한 인원이 3,462명 이다.

4. 역대 회장

- 초 대 조윤희(헬레나)(1992~1993)
- 제2대 장영희(모니카)(1994~1995)
- 제3대 최경혜(릿다)(1996~1997)
- 제4대 서옥현(수산나)(1998~1999)
- 제5대 장명숙(헬레나)(2000~2001)
- 제6대 박유자(요세피나)(2002~2003)
- 제7대 최종현(제노비아)(2004~2005)
- 제8대 서옥현(수산나)(2006~2007)
- 제9대 이순자(베로니카)(2008~2009)

5. 현 임원 현황

-회장 : 심재복(로살리아)
-총무 : 김정옥(그라시아)
-회계 : 서지현(루피나)
-서기 : 유필상(소피아)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꾸르실료 체험을 통해 개인적 신앙 쇄신과 교회에서 핵심적인 크리스천으로 육성하여 교리와 일치하는 사목 환경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남성 49명, 여성 48명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9월말까지 총 167명(남 78명, 여 84명)이 꾸르실료 교육과정 후 각 사도직 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당에서 꾸르실리스따 출신으로 최희수(프란치스코) 신부, 이충열(티토) 신부, 이은수(레오) 신부(본당 출신 2008년 서품), 유신재(에드문도) 신부(본당 출신 2010년 서품), 손명옥(베르나데트) 수녀 등의 성직자와 수도자가 있다.

4. 역대 간사

• 초 대 박병윤(요셉)(1991.9~1991.12) • 제2대 이대용(요셉), 전은경 실비아(1993.1~1993.12) • 제3대 안용섭(야고보)(1994.1~1994.12) • 제4대 이수홍(스테파노)(1995.1~1995.12), 정정희(마리아)(1995.1~1997.12) • 제5대 이덕행(바오로)(1996.1~1996.12), 원명숙(율리아나)(1996.1~1997.12) • 제6대 이강신(라우렌시오)(1997.1~1998.12), 조정행(클라라)(1998.1~1999.2) • 제7대 김상동(토마스 아퀴나스)(1999.1~2000.12), 김혜경(레지나)(1999.3~2000.12) • 제8대 이지연(그레고리오)(2001.1~2002.12), 이혜순(비비아나)(2000.12~2002.12) • 제9대 장재근(마르코)(2003.1~2004.12), 강규련(헬레나)(2003.1~2004.12) • 제10대 정현윤(스테파노)(2005.1~2007.12), 김명희(요안나)(2005.1~2006.12) • 제11대 정병채(안토니오)(2008.1~2010.2), 이경순(루치아)(2007.1~2008.12) • 제12대 서강애(루치아)(2009.1~2010.12)

5. 현 임원 현황

–남성 간사 : 이상린 (프란치스코)

–여성 간사 : 김정옥 (그라시아)

성서못자리

1. 설립연월일 : 2002년 10월

2. 설립목적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눔으로써 이웃과 함께 복음적 삶을 살고자 힘쓰는데 그 목적을 두며, 봉사자들은 본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길잡이 역할을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초기 설립시 봉사자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에 마르코, 루카, 마태오, 요한 4과목을 그룹원 156명, 13반으로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마르코, 루카, 마태오,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 6과목 12반이 공부하였고 매년 과목과 반의 개설이 증가하였다. 매년 봉사자들은 31주간 명동 나눔터 연수를 하였으며, 영성 강좌 및 피정을 실시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김옥진(베르나데트)(2002.10~2004.12)
- 제2대 차정언(가브리엘라)(2005.1~2005.12)
- 제3대 장혜원(마틸다)(2006.1~2007.12)

5. 현 임원 현황

-회장 : 김현자(안나)
-총무 : 이은주(안나)
-회계 : 유숙희(안나)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M·E(Marriage Encounter)는 혼인한 부부들이 서로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더 깊고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해 M·E주말을 체험한 부부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소공동체인 성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초기부터 M·E가 탄생된 이래, 2011년 제20대 M·E대표를 배출하여 현재 M·E가족 71부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 M·E가족이 월례회 및 Sharing 실시, M.T.와 영성체험 일일피정 등을 하고 있다.

4. 역대 대표

• 초 대 이덕행(바오로) 한동윤(미카엘라)(1991.11.~1992.10) • 제2대 우계성(이타), 이병란(스텔라)(1992.11.~1993.10) • 제3대 정기방(미카엘), 김명실(데레사)(1993.11~1994.10) • 제4대 고정상(막시모), 길영옥(올리바)(1994.11~1995.10) • 제5대 이정길(라파엘), 이화숙(라파엘라)(1995.11~1996.10) • 제6대 김기호(요셉), 김영화(제노비아)(1996.11~1997.10) • 제7대 한진동(요셉), 이광숙(마리아)(1997.11~1998.10) • 제8대 남궁칠(미카엘), 이현심(제르트루다)(1998.11~1999.10) • 제9대 김재찬(베드로), 성기란(아녜스)(1999.11~2000.10) • 제10대 박일두(미카엘), 이세경(미카엘라)(2000.11~2001.10) • 제11대 서종열(시몬), 우정수(아녜스)(2001.11~2002.10) • 제12대 정희수(요아킴), 이향봉(안나)(2002.11~2003.10) • 제13대 박성수(비오), 임영희(베로니카)2003.11~2004.10) • 제14대 김유천(보니파시오), 김은옥(모니카)(2004.11~2005.10) • 제15대 한상섭(돈보스코), 박성숙(베로니카)(2005.11~2006.10) • 제16대 정기호(발렌티노), 오은자(루피나)(2006.11~2007.10) • 제17대 전한균(요한 크리소스토모), 이의옥(수산나)2007.11~2008.10) • 제18대 신진호(라파엘), 구연원(엘리사벳)(2008.11~2009.10) • 제19대 조극환(미카엘), 이남례(체칠리아)(2009.11~2010.10)

5. 현 임원 현황

-대표 : 고영진
(토마스 아퀴나스),
김혜숙(로사)

직장인 가톨릭 성서모임

1. 설립연월일 : 2002년 2월 16일

2. 설립목적

가톨릭 신자들의 성서 공부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저녁반을 운영하여 하느님 말씀에 목말라있는 누구에게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봉사자를 선정하여 저녁에 말씀 나눔 봉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연혁 및 활동

남성봉사자 9명으로 설립된 후 2002년 2월에 창세기 5개반, 출애굽기 1개반, 마르코복음 1개반으로 봉사를 시작,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봉사자 월례회의를 정례화하였다. 2003년 4월에 대치동 성당부터 시작하여 대치동, 도곡동, 대치4동, 개포동, 금호동 등에 파견하여 타본당 성경공부 파견봉사를 하고 있다.

4. 역대 회장

- 초 대 송현철(라파엘)(2002.2~2007.12)
- 제2대 이종수(프란치스코)(2008.1~2009.12)

5. 현 임원 현황

-회장 : 이상일(시몬)
-총무 : 김광수(마르티노)
-서기 : 김태균(프란치스코)
-회계 : 박희종(루치오)

남성구역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8년 4월

2. 설립목적

지역 공동체의 신자 모임인 구역 사도회의 조직과 운영을 통하여 소공동체 운동을 활성화하며, 본당 사목의 능률적인 전달과 집행, 효율적인 실천 도모, 구역봉사자 및 사도회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친교, 복음 전파에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남성 신자들의 기도모임으로 1992년 5월 28일(목)에 전체 15구역에 각 분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사도회 모임을 가졌다. 초기 사도회는 선교분과 소속이었으며, 선교분과위원이 구역위원으로 겸직, 활동하였다. 1998년 4월에 제5대 사목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남성구역분과위원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1999년 10월에 15구역이었던 대치3동 942~988번지를 대치4동 성당으로 분당, 3구역 소속(은마 13~15동, 현대 101동)을 4구역으로 분할 재편성하여 3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2001년에는 6구역(은마 30동, 31동)을 6구역, 8구역으로 재편성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제1지역인 은마아파트를 2개 지역으로 재편하고, 미도 3지역, 우성·쌍용 4지역 등으로 편성하였다. 2011년 1월에는 구역외 신자를 5지역으로 편성하였다.

-1993. 5.20 : 남성구역장 교육(복음나누기 7단계 교육)
-1996. 4.28 : 바둑동호인 결성 및 친교친선 대국
-1997. 5.25 : 1지역 소공동체 가정방문 시작
-2001. 9.16 :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한마당 대축제'
-2002. 2.17 : 고명철 신부 선종 연도(명동성당 봉사)
-2006. 4. : 남성, 여성구역 차 나눔 봉사 시작
-2007. 1.18 : 소공동체 미사 시작(은마 1동 1202호)
-2009. 4.19 : 남성구역 대항 체육대회(유수지)
-2010.11.14 : 구역별 연도 발표회
-2011. 5.29 :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공동체 '은총여행 529'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차일성(이냐시오)(1998.4~2001.10)
- 제2대 이지연(그레고리오)(2001.11~2003.10)
- 제3대 한상섭(돈보스코)(2003.11~2008.10)
- 제4대 김동성(대건안드레아)(2008.11~2010.11)

5. 현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장 : 우길상(요셉)

-1지역장 : 김시섭(프란치스코)
-2지역장 : 이광규(스테파노)
-3지역장 : 오정근(요한)
-4지역장 : 최정국(스테파노),
-5지역장 : 이병일(요셉)

-1구역장 : 최병유(요한)
-2구역장 : 송기선(프란치스코)
-3구역장 : 황주선(도미니코)
-4구역장 : 윤원호(스테파노)
-5구역장 : 이광규(스테파노)
-6구역장 : 강영훈(미카엘)
-7구역장 : 김주수(베드로)
-9구역장 : 오정근(요한)
-10구역장 : 최두혁(미카엘)
-11구역장 : 이한수(안드레아)
-12구역장 : 남충우(알렉시오)
-13구역장 : 최정국(스테파노)
-14구역장 : 김희동(요한)
-15구역장 : 황용근(베네딕토)
-16구역장 : 금교연(모세)
-17구역장 : 정희수(요하킴)
-총무간사 : 신동훈(베드로)

▲ 남성 구역분과위원회 위원

여성구역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본당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신자 모임의 질적 ? 양적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후 1991년 9월 11일(수)에 첫 반장단 미사와 14개 구역으로 구역 조직 후 첫 반 기도모임을 시작하였다. 1992년에 15구역으로 109개 반, 1995년에 116개 반, 1999년 10월에는 15구역이 대치4동 성당으로 분당되어 3구역(은마 13~15동, 현대101동)을 15구역으로 재편성하고 3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2001년에는 6구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16구역(은마 30동, 31동)으로 편성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우성 2차 아파트가 대치3동 성당으로 분당되어 14구역이 빠지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에는 은마아파트를 2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2010년 1월에는 15구역을 4구역으로, 16구역을 8구역으로 하여 각 구역 재편성하고 총 4개 지역, 15개 구역, 98개 반으로 개편하였다.

-1991. 9. 6 : 첫 미사후 때 각 구역, 반에서 떡을 준비하여 신자들과 나눔
-1993. : 복음나누기 7단계 교육(구역장 3개월 교육이수)
-1996. 7. 10 : 성 김대건 신부 유해 순회기도(150주년 기념행사)
-1997. 9. 21 : 이상훈 신부 영명축일 및 칠순(고희)잔치 봉사
-2001. : 서울대교구 시노드 교육 참석(구역, 반장단)
-2002. 2. 17 : 고명철 신부 선종(명동성당 차 봉사)
-2005. 11. 6 : 동대문시장 성당 기금마련 바자회(1차)
-2006. 4. : 남성, 여성구역 음료 봉사 첫 시작(교중미사 후)
-2007. 1. 18 : 소공동체 미사 시작(은마 1동 1202호)
-2008. 1. 16~17 : 구역, 반장단 제천 배론성지 피정(62명)
-2009. 7.12, 9.13, 9.20 : 성가정축제를 위한 기금마련 먹을거리 장터 운영
-2010. 2. 28 :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전신자 떡국 무료제공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여인희(클라라)(1991. 9~1995. 11)
- 제2대 김성자(체칠리아)(1995. 11~1999. 11)
- 제3대 홍영주(아녜스)(1999. 11~2002. 11)
- 제4대 이한분(스테파니아)(2002. 11~2004. 11)
- 제5대 신연수(노엘)(2004. 11~2006. 11)
- 제6대 박연숙(비비안나)(2006. 11~2008. 11)
- 제7대 이귀배(레지나)(2008. 11~20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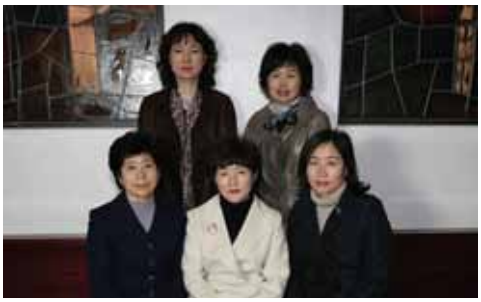
5. 현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장 : 유금순(가타리나)

-1지역장 : 여귀자(수산나)
-2지역장 : 김정희(보노사)
-3지역장 : 이인숙(마리아)
-4지역장 : 오은자(루피나)
-1구역장 : 황소애(이사벨라)
-2구역장 : 이재월(세레나)
-3구역장 : 강설옥(카타리나)
-4구역장 : 조경순(안나)
-5구역장 : 최진자(마리아)
-6구역장 : 박혜숙(프리실라)
-7구역장 : 이은희(루치아)
-8구역장 : 최은미(사라)
-9구역장 : 조은희(로사)
-10구역장 : 조연희(클라라)
-11구역장 : 이미경(가타리나)
-12구역장 : 최예윤(마르타)
-13구역장 : 이정영(루치아)
-14구역장 : 김현숙(헬레나)
-15구역장 : 강영희(안젤라)

▲ 여성 총구역장과 지역장

▲ 여성 구역장·반장단



▲ 제1구역 반장

▲ 제2구역 반장

▲ 제3구역 반장

▲ 제4구역 반장

▲ 제5구역 반장

▲ 제6구역 반장

▲ 제7구역 반장

▲ 제8구역 반장

▲ 제9구역 반장

▲ 제10구역 반장

▲ 제11구역 반장

▲ 제12구역 반장

▲ 제13구역 반장

▲ 제14구역 반장

▲ 제15구역 반장

선교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 성가정 운동과 각급 신심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활동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초기에 예비자 교리교육 체계의 마련과 외짝 교우, 통신교리 등의 특별반 모집, 예비자 교리교사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경향잡지, 소년, 가톨릭신문, 성가정지 등의 출판물을 통한 홍보활동과 '사도회' 남성구역 모임을 조직화하였다. 2001년에는 '성가정의 어머니' 남성 꾸리아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교리반 봉사자들의 영성강화를 위해 선교학교, 교구 사목국의 선교강좌 참석과 2007년은 '함께하는 여정' 13주 교육과정에 6명의 봉사자가 참석하였다. 새신자의 영성 강화를 위해 '새 신자들을 위한 기도모임'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에 평신도 교리교사제도를 도입하였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유영순(미카엘)(1991.9~1996.3)
- 제2대 이주영(아우구스티노)(1996.3~1997.10)
- 제3대 임희성(엘리아)(1998.4~1999.1)
- 제4대 최영식(보니파시오)(1999.2~2001.11)
- 제5대 김현자(안나)(2001.12~2003.11)
- 제6대 이지연(그레고리오)(2003.12~2005.10)
- 제7대 이주영(아우구스티노)(2005.11~2008.11)
- 제8대 허길수(대건 안드레아)(2008.12~2010.11)

5. 현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분과장 : 김영춘(체칠리아)　–부위원장 : 서향숙(헬레나)　–서기 : 황성규(미카엘)

–위원 : 이재호(헬레나), 김용혜(아녜스), 이병일(베로니카), 이영희(세레나), 배성옥(미카엘라)

6. 분과위원회 소속 단체현황

성물봉사회, 성소후원회
평신도교리교사단
새신자기도모임회, 샛별 Cu.
성가정의 어머니 Cu.
인자하신 모후 Cu.
사랑의 샘 Cu.

평신도교리교사단

1. **설립연월일 :** 2010년 1월 23일

2. **설립목적**

신 영세자들이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본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여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그 목적을 지향한다. 또한 평신도 교리교사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기도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하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신부와 수녀를 보필하는데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 교회에 첫걸음을 한 예비자들을 적은 인원의 소단위 그룹으로 나누어 교육한다는 김자문 신부의 사목방침에 따라 2010년 1월에 평신도 교리교사단이 구성되었다.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박철제(베네딕토)

-교리교사 : 김재유(다니엘), 박순민(아가타)

새신자 기도 모임회

1. 설립연월일 : 2010년 4월

2. 설립목적

새 신자들이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묵상기도의 기회 마련과 본당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김자문 신부의 사목적 배려로 2007년 6월 24일에 영세를 받은 새 신자 113명(1기)을 4개조로 나누어 7월부터 4개월 동안 묵상기도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의 영세자들을 위한 묵상기도를 이끌었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영세하기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영세 후 3개월까지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초기 기도모임 봉사자들은 성서공부 봉사자들이었으나, 2008년 3월부터는 김영숙(아녜스마리) 원장수녀의 지도로 약 10개월 정도 묵상기도 훈련을 마친 봉사자들이 활동하였으며, 박연숙(비비안나)가 대표 봉사자로 초기 기도모임을 이끌었다. 2010년 4월에 김자문 신부의 재가를 얻어 정식단체로 출범하였으며, 5월에 첫 월례회의를 하였다.

4. 현 임원 현황

-회장 : 송현철(라파엘)
-총무 : 원동희(체칠리아)
-서기 : 두창준(그레고리오)

성물봉사회

1. 설립연월일 : 1996년 11월

2. 설립목적

성당 내에서 성물과 도서 등을 판매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선교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전례시기에 맞춰 주님 봉헌 대축일, 부활시기, 성모의 밤, 성탄시기. 첫 영성체 및 세례식, 견진식에 기도초, 성물, 도서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성물 취급시간은 매 미사 후 총 주 9회 봉사(평일 10시미사 후 4회, 토요 특전미사 후, 주일 미사 전후 4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 2회 봄, 가을로 피정 및 성지순례를 통해 봉사자들의 친교를 도모하고 있다.

4. 역대 회장

- 초 대 신성희(안젤라)(1996.11~1998.1)
- 제2대 장연숙(헬레나)(1998.2~ 2002.2)
- 제3대 김현자(안나)(2002.2~2007.1)
- 제4대 장혜원(마틸다)(2007.2~2011.1)

5. 현 임원 현황

-회장 : 강연순(아가타)

성소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7년 6월 6일

2. 설립목적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의 계발과 육성을 기도와 성금으로 후원하고 성소자와 회원 공동체간의 친교와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첫 사제와 첫 부제의 탄생 후 1997년 6월에 이상훈 신부의 제안으로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를 계발하고 후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 실천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고명철 신부 부임 후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성소기도회로 개칭되었고, 김병학 신부 부임 후 해체되었다. 그 후 김자문 신부의 제안으로 2009년 5월에 이은수 부제의 사제 수품을 계기로 성소후원회 재창립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7월 5일에 창립미사를 가졌다. 2009년 11월에 11지구의 원로사목자 방문(김희선, 김형식 신부), 12월에 김병학 신부, 이상훈 신부 방문과 2010년 4월 16일에 교구 성소후원회 임원 연수 참가 및 6월에 본당 출신 유신재(에드문도) 부제의 사제수품에 봉사활동을 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장충현(리노)(1997.6~1999.1)
- 제2대 조명승(가리노)(1999.2~2002.2)

5. 현 임원 현황

-회　장 : 박연숙(비비안나)
-부회장 : 박경심(마리안나)
-총　무 : 정은희(이레네)
-회　계 : 신연미(체칠리아)

샛별 꾸리아

1. 설립연월일 : 1991년 8월 5일(승인일 9월 6일)

2. 설립목적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 아래 레지오 군단을 조직하여 세상 죄악과 권세에 대항하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모 마리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단원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신설에 따라 은총의 모후 Co. 소속 대치동 성당 '하늘의 문 Cu.' 에서 분단되어 설립되었다. 2001년 5월 26일에 단원 증가에 따라 소속 26개 Pr.에서 13개 Pr.을 성가정 어머니 Cu.를 설립, 분단시켰다. 2006년 10월에는 신설된 정의의 거울 Co.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조직 현황은 성인 남성 18개 Pr.을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행동단원은 남성 185명, 협조단원은 남성 51명, 여성 154명을 두고 있고, 쁘레또리움 단원 6명과 아듀또리움 단원 3명이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박순보(요셉)(1991.9~1994.9)
- 제2대 임희성(엘리아)(1994.9~2000.1)
- 제3대 유영순(미카엘)(2000.1~2001.11)
- 제4대 김상동(토마스 아퀴나스)(2001.11~2002.4)
- 제5대 임성락(프란치스코 하비에르)(2002.4~2005.3)
- 제6대 정훈진(요한)(2005.3~2008.4)
- 제7대 배기만(베드로)(2008.4~2011.4)

5.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유천(보니파시오)
(2011.4~)
-부단장 : 이승빈(제논)
(2008.4.11~)
-서 기 : 신택정(암브로시오)
(2011.4~)
-회 계 : 최인원(베드로)
(2010.5.7 ~)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5년 5월 7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한상국(야고보) 초대 단장과 9명의 단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본당 최초의 레지오이다. 1995년 10월 18일에 8명의 단원으로 인자하신 모후 Pr.을 분단, 설립시켰다. 2004년 6월 30일에 1,000차 주회를 가졌다. 1995년부터 15년 동안 매주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동문고 봉사를 하여 왔으며, 2005년 말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돌봄을 실시한 바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한상국(야고보)(1985.5.7~1986.2.17)
- 제2대 한동림(헨리꼬)(1986.2.18~1987.2.8)
- 제3대 조명승(가리노)(1987.2.9~1989.10.5)
- 제4대 한상국(야고보)(1989.10.6~1992.10.20)
- 제5대 이대용(요셉)(1992.10.21~1998.10)
- 제6대 이수홍(스테파노)(1998.10~1999.3.16)
- 제7대 오부석(토마스)(1999.3.17~2002.3)
- 제8대 박일두(미카엘)(2002.4~2005.4.5)
- 제9대 남궁칠(미카엘)(2005.4.6~2007.12.18)
- 제10대 정희수(요아킴)(2007.12.19~2010.12.2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고영진(토마스 아퀴나스)(2010.12.22~　　)
-부단장 : 오명렬(가롤로)(2010.12.22~　)
-서　기 : 오재섭(바오로)(2010.12.22~　)
-회　계 : 민성기(실바노)(2010.8.11~　)

구세주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0년 5월 7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사도들의 모후 Pr.에서 본당 설립에 따라 초대 단장 김영현(미카엘)외 8명으로 분단하여 설립되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영현(미카엘)(1991.5~1992.11)
- 제2대 김상동(토마스 아퀴나스)(1992.12~1997.7)
- 제3대 류형원(요셉)(1997.8~2000.4)
- 제4대 배기만(베드로)(2000.5~2003.4)
- 제5대 박성수(비오)(2003.5~2006.4)
- 제6대 김경래(리노)(2006.5~2009.4)
- 제7대 정현윤(스테파노)(2009.5~2009.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우재걸(스테파노)(2010.1~　)
-부단장 : 김태수(안드레아)(2009.5~　)
-서　기 : 송평호(프란치스코)(2009.5~　)
-회　계 : 신희성(요한)(2009.5~　)

천사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1년 2월 12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은총의 모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초대 단장 최성기(베드로) 외 13명의 행동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0년 4월 6일에는 제1,000차 주회를 가졌다. 2002년까지 백골부대 등 전방부대 성당을 위한 위문방문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부터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활동으로 '밥퍼' 배식봉사를 2010년 5월까지 지속하였다. 또한 본당에서 매월 5주째 주일 새벽미사 봉사를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최성기(베드로)(1991.2~1997.2)
- 제2대 박승환(안드레아)(1997.2~2001.2)
- 제3대 임용빈(율리아노)(2001.2~2004.1)
- 제4대 최성기(베드로)(2004.1~2007.1)
- 제5대 박석찬(안셀모)(2007.1~2008.8)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허윤(파우스티노)(2008.8.8~)
-부단장 : 최재철(안드레아)(2006.8.11~)
-서 기 : 노승학(바오로)(2006.9.8~)
-회 계 : 임민호(레미지오)(2008.2.15~)

사도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1년 9월 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한문준(베네딕토) 초대 단장과 단원 13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5년 5월 9일에는 희망의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2010년 11월 2일에는 제1,000차 주회를 가졌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연속 꾸리아 평의회 4간부 출석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 연차 총친목회에서 최우수 Pr.상을 수상하였다.

3. 역대 단장

- 초 대 한문준(베네딕토)(1991.9.11~1992.7.14)
- 제2대 이헌일(요한)(1992.7.21~1996.4.9)
- 제3대 김기호(요셉)(1996.4.16~2000.9.5)
- 제4대 박헌규(바오로)(2000.9.14~2001.10.9)
- 제5대 조기웅(로무알도)(2001.10.16~2007.9.18)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경래(리노)(2007.9.25~　　)
-부단장 : 조기웅(로무알도)(2010.10.5~　)
-서　기 : 전태환(스테파노)(2008.9.9~　　)
-회　계 : 이상원(아브라함)(2011.6.1~　　)

성조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1년 9월 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설립 이후 양철화(요셉) 초대 단장과 단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1993년 6월 9일에 예언자들의 모후 Pr.을, 2004년 4월 12일에는 중재자들의 모후 Pr.을 분단하였으며, 2010년 11월 3일에 제1,000차 주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양철화(요셉)(1991.9.9~1993.7.13)
- 제2대 김형범(마티아)(1993.7.14~1996.9.3)
- 제3대 이강호(원선시오)(1996.9.4~1997.9.30)
- 제4대 류우태(바오로)(1997.10.1~2001.10.24)
- 제5대 이수재(요셉)(2001.10.25~2004.1.6)
- 제6대 김진규(스테파노)(2004.1.7~2004.4.11)
- 제7대 김학술(바오로)(2004.4.12~2007.4.12)
- 제8대 양승룡(로마노)(2007.4.13~2010.7.30)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유순종(프란치스코)(2010.8.1~　)
-부단장 : 이현우(베드로)(2010.8.1~　)
-서　기 : 김주수(베드로)(2010.8.1~　)
-회　계 : 김재신(파라시오)(2010.8.1~)

천상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1년 9월 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설립 후 손문순(다이엘) 초대 단장과 단원들의 노력으로 1993년 5월 25일에 사랑의 샘 Pr.을, 1995년 1월 10일에 바다의 별 Pr.을, 1996년 8월 6일에는 천상은총의 모후 Pr.을 분단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23일에 상지의 옥좌 Pr.을, 2005년 6월 5일에는 다섯 번째로 천상자비의 모후 Pr.을 분단하였으며, 2010년 11월 2일에 제1,000차 주회를 가졌다. 최근 5년간 외인입교 권유를 통한 선교활동으로 10명의 교우가 세례성사를 받았다.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으로 강남노인복지관의 어르신 대상 PC교육(44회) 및 의왕시 노인복지시설의 의료봉사(39회)를 실시하였고 성 분도복지관, 침묵의 샘, 성모자애 복지관에서 총 90회의 노력봉사를 하였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손문순(다이엘)(1991.9~1993.9)
- 제2대 유영순(미카엘)(1993.9~1996.9)
- 제3대 정길현(스테파노)(1996.9~1997.12)
- 제4대 송승제(필립보)(1997.12~1999.1)
- 제5대 유영순(미카엘)(1999.1~1999.8)
- 제6대 고윤상(하상바오로)(1999.8~2002.7)
- 제7대 김유천(보니파시오)(2002.7~2005.6)
- 제8대 임팔순(본시아노)(2005.6~2008.6)
- 제9대 김교찬(프란치스코)(2008.6.13~2011.5)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심만보(마르티노)(2011.6.1~　　)
-부단장 : 원두희(바오로)(2011.6.1~　　)
-서　기 : 김순조(사무엘)(2008.6.13~　　)
-회　계 : 장해일(미카엘)(2011.6.1~　　)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1년 9월 18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정충남(시몬) 초대 단장과 7명의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 1월 14일에 애덕의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그리고 2010년 11월 10일에는 제1,000차 주회를 가졌다. 설립 초기부터 경기 용인의 요한의 집을 비롯하여 이천 수녀원, 가평 고향마을, 서울의료원 등을 방문하며 노력봉사를 하였고 현재 하남 구산성지 노력봉사 및 캄보디아 의료선교사업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정충남(시몬)(1991.9.18~1993.5.26)
- 제2대 김종화(요한)(1993.5.27~1994.7.6)
- 제3대 차창수(요셉)(1994.7.7~1995.5.17)
- 제4대 이걸중(루카)(1995.5.19~1999.7.7)
- 제5대 이상일(바오로)(1999.7.8~2002.4.16)
- 제6대 박철제(베네딕토)(2002.4.17~2005.7.5)
- 제7대 김정길(율리아노)(2005.7.6~2008.6.20)
- 제8대 이걸중(루카)(2008.6.21~2010.3.16)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차락규(스테파노)(2010.1.3~　)
-부단장 : 박철제(베네딕토)(2010.1.3~　)
-서　기 : 이승헌(가브리엘)(2010.9.8~　)
-회　계 : 김용운(베드로)(2010.1.3 ~　)

원죄없으신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2000년 7월 4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상지의 옥좌 Pr.에서 김영기(요한)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이 분단하여 설립되었다. 2002년 3월부터 구룡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격주로 2인 1조가 되어 차량봉사를 2008년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2003년 10월부터는 용인 수지 성심원에서 단원 등 가족들이 참여하는 노력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영기(요한)(2000.7~2003.7)
- 제2대 문점수(아우구스티노)(2003.7~2005.8)
- 제3대 이용전(아우구스티노(2005.8~2007.7)
- 제4대 신형삼(엠마누엘)(2007.7~2010.6)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신형삼(엠마누엘)(2010.6.29~　)
-부단장 : 문점수(아우구스티노)(2010.6.29~　)
-서　기 : 윤종구(스테파노)(2008.2.19~　)
-회　계 : 방인식(루카)(2010.6.29~　)

인자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1995년 10월 18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평화의 모후 Pr.로부터 1995년 10월 18일에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안용섭(야고보)초대 단장과 11명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성 분도 복지관에서 매월 4주째 주일에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동문고 봉사 활동을 하였다. 2005년 5월 5일에는 강화도에서 500차 주회 기념 Pr. 야외행사를 설립 후 전단원을 초대하여 협조단원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안용섭(야고보)(1995.10.18~1996.11.5)
- 제2대 박재명(루도비꼬)(1996.11.6~1999.10.19)
- 제3대 안용섭(야고보)(1999.10.20~1002.10.15)
- 제4대 정훈진(요한)(2002.10.16~2005.4.5)
- 제5대 장재근(마르코)(2005.4.6~2008.4.10)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지영구(바오로)(2008.4.11~　)
–부단장 : 한병성(베아또)(2008.11.7~　)
–서　기 : 황용근(베네딕도)(2009.12.11~　)
–회　계 : 정대로(마르코)(2009.12.11~　)

성가정의 어머니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1996년 2월 28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구세주의 모후 Pr.에서 분단되어 심종보(프란치스코) 초대 단장과 8명의 단원으로 첫 활동을 시작한 후 2006년 12월 20일에 그리스도의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매월 첫 주 교중미사 봉사 및 구산성지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매월 첫 주 토요일 Pr. 산악회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심종보(프란치스코)(1996.2~1997.1)
- 제2대 최종수(스테파노)(1997.2~1998.1)
- 제3대 이병욱(안토니오)(1998.2~2002.1)
- 제4대 박흥득(베드로)(2002.2~2005.1)
- 제5대 배재호(그레고리오)(2005.2~2005.12)
- 제6대 심종보(프란치스코)(2006.1~2008.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창덕(베드로)(2008.12~　　)
-부단장 : 최정국(스테파노)(2009.1.3~　　)
-서　기 : 김정훈(스테파노)(2008.3~　　)
-회　계 : 한창헌(티토)(2008.12~　)

천상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1996년 7월 30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천상의 모후 Pr.에서 차일성(이냐시오)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분단, 설립되었으며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2001년 7월 31일에는 단원 7명으로 은총의 샘 Pr.을 분단시켰다. 2009년 12월 29일에는 제700차 주회를 가졌으며, 매월 두 번째 주일 특전미사 봉사와 성 분도복지관 노력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차일성(이냐시오)(1996.8.6~1999.7.27)
- 제2대 이기호(티모테오)(1999.8.3~1999.12.14)
- 제3대 정병채(안토니오)(1999.12.21~2002.12.30)
- 제4대 이후희(리카르도)(2003.1.7~2003.7.1)
- 제5대 이상일(시몬)(2003.7.8~2006.7.4)
- 제6대 이상린(프란치스코)(2006.7.11~2006.12.26)
- 제7대 정병채(안토니오)(2007.1.2~2009.12.29)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유인권(마태오)(2010.1.5~　)
–부단장 : 김재권(그레고리오)(2009.7.10~　)
–서　기 : 이상일(시몬)(2010.1.5~　)
–회　계 : 권필상(루카)(2010.3.12~　)

상지의 옥좌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1997년 12월 16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천상의 모후 Pr.으로부터 분단되어 정길현(스테파노) 초대 단장를 비롯하여 행동단원 7명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때부터 삼성병원에서 환자들이 미사를 볼 수 있도록 미사 준비를 도와주었으며, 2003년 10월 12일부터는 매월 셋째주 주일 아침에 서울 세곡동에 위치한 성모자애복지관에서 한 후 원생들이 편안하게 수업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보수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정길현(스테파노)(1997.12.16~2001.1.7)
- 제2대 조규황(요한)(2001.1.8~2004.1.8)
- 제3대 최두열(스테파노)(2004.1.9~2007.1.11)
- 제4대 조극환(미카엘)(2007.1.12~2010.1.7)
- 제5대 주인중(사울)(2010.1.8~2011.8.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동선(안드레아)(2011.8.2~)
-부단장 : 양재민(펠릭스)(2011.8.2~)
-서 기 : 한상언(스테파노)(2011.8.2~)
-회 계 : 최병유(요한)(2011.8.2~)

애덕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1998년 1월 14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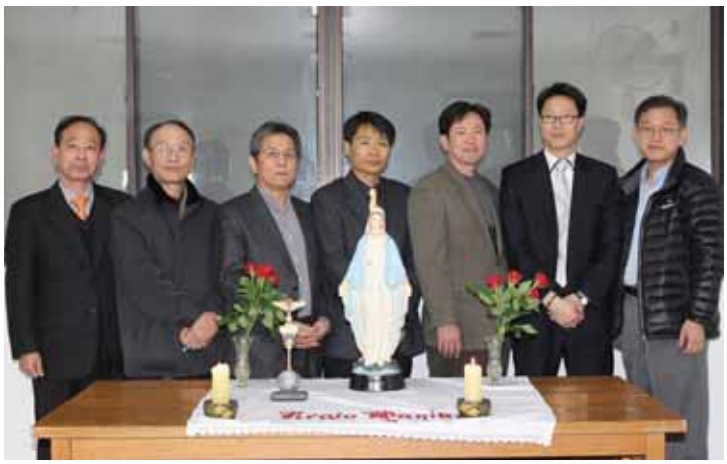
은총의 모후 Pr.로부터 분단, 설립되어 장선호(요한) 초대 단장과 단원 10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9년 7월 8일에는 제600차 주회를 가졌다. 연차 총친목회에서 '성가정의 몸부림' 연극으로 금상(1998.12.5), '천국의 길, 지옥의 길' 연극으로 은상(2000.12.16), 최우수상(2004.12.11)을 수상하였다. 2001년 4월부터 매월 둘째 주일에 하남시 구산성지 미사봉사, 순례 교우안내, 성지 내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2008년 8월부터 샛별 Cu. 카페를 활용한 '사이버 9일기도' 라는 시스템을 새롭게 시도하였으며 회계로 활동한 故 김광수(프란치스코) 단원의 쾌유를 위한 9일기도를 2009년 1월 12일부터 216일간 드렸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장선호(요한)(1998.1.14~2001.1.2)
- 제2대 이 진(마리노)(2001.1.3~2004.1.12)
- 제3대 김재선(요아킴)(2004.1.13~2007.1.11)
- 제4대 안동규(베드로)(2007.1.12~2010.1.7)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동철(미카엘)(2010.1.8~)
-부단장 : 이재남(안드레아)(2010.1.8~)
-서 기 : 김백기(비오)(2010.1.8~)
-회 계 : 조경훈(필립보)(2008.8.12~)



은총의 샘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2001년 7월 3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천상은총의 모후 Pr.에서 송현철(라파엘) 초대 단장과 단원 7명으로 분단하여 설립되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특전미사 봉사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성 분도복지관에서 단원 및 협조단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송현철(라파엘)(2001.8~2004.7)
- 제2대 김태균(프란치스코)(2004.8~2007.7)
- 제3대 김병의(라파엘)(2007.8~2010.7)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두창준(그레고리오)(2010.8.10~　)
-부단장 : 송관용(베드로)(2010.8.10~　)
-서　기 : 이동욱(마르티노)(2011.6.10~　)
-회　계 : 조경형(베네딕토)(2010.8.10~　)

천상 사랑의 어머니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2002년 4월 23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상지의 옥좌 Pr.으로부터 분단, 설립되었으며 감명식(마태오) 초대 단장을 포함한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매월 둘째 주 주일에 삼성병원의 미사봉사와 격월로 셋째 주일에 본당 미사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감명식(마태오)(2002.4.23~2005.3.31)
- 제2대 허노복(안드레아)(2005.4.1~2008.3.31)
- 제3대 김광수(히아친토)(2008.4.1~2011.3.3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병두(프란치스코)(2011.4.1~　)
-부단장 : 김인수(이냐시오)(2011.4.1~　)
-서　기 : 윤석배(요한)(2011.4.1~　)
-회　계 : 변길수(안젤로)(2011.4.1~　)

중재자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2004년 3월 17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성조들의 모후 Pr.에서 김진규(스테파노) 초대 단장 외 8명의 단원으로 분단, 설립되었다. 2004년 3월부터 2007년까지 매월 셋째 주 주일에 단원과 협조단원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였으며, 2007년 11월 18일부터는 성모자애복지관에서 노력봉사를, 2009년 2월부터는 매월 넷째 주 주일에 시각 장애자 선교회 차량봉사를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진규(스테파노)(2004.3~2004.9)
- 제2대 최달식(요한)(2004.9~2007.7)
- 제3대 김동겸(힐라리오)(2007.8~2010.7)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윤해중(요한)(2010.7.13~　)
-부단장 : 이용선(기예타노)(2010.7.13~　)
-서　기 : 송영태(요한)(2010.7.13~　)
-회　계 : 조철수(제랄드 마이엘라)(2010.7.13~　)

천상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2005년 6월 5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천상의 모후 Pr.에서 김유천(보니파시오)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분단, 설립되었으며 2011년 3월 1일에 제300차 주회합을 가졌다. 본당에서 매월 두 번째 주 새벽미사 봉사와 수지 성심원 노력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유천(보니파시오)(2005.6.5~2005.12.27)
- 제2대 신택정(암브로시오)(2006.1.3~2008.11.25)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성대(안드레아)(2008.12.2~　)
-부단장 : 한원수(도미니코)(2008.12.2~　)
-서　기 : 정군채(펠릭스)(2010.3.3~　)
-회　계 : 오승균(바실리오)(2007.6.5~　)

그리스도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2005년 12년 20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성가정의 어머니 Pr.에서 2005년 12월 20일에 분단, 설립되었으며, 배재호(그레고리오) 초대 단장 외 5명의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설립 이후부터 매월 첫 주일 오후 2시에 하남시 구산성지 경당 주변내 잡초 뽑기나 청소, 성지 내 건설공사, 작업장 자재 운반 등 잡역 업무,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 여름캠프장 안전관리, 순교체험 안내 등 성지 관리사무실에서 필요한 노력봉사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본당에서 매월 첫 주일 교중미사 봉사를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배재호(그레고리오)(2005.12.20~2008.12.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최용화(야고보)(2008.12.9~　)
-부단장 : 윤승일(라우렌시오)(2011.3.1~　)
-서　기 : 정증동(스테파노)(2010.9.7~　)
-회　계 : 이인섭(라파엘)(2011.3.1~　)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

1. **설립연월일 :** 2001년 5월 26일(승인일 6월 1일)

2. **설립목적**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 아래 레지오 군단을 조직하여 세상 죄악과 권세에 대항하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모 마리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단원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샛별 꾸리아에서 13개 Pr.을 분단하여 2001년 5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0월에 정의의 거울 Co.으로 소속되었다.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조직 현황은 성인 남성 13개 Pr.을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행동단원은 남성 131명, 여성 4명, 협조단원은 남성 65명, 여성 167명을 두고 있고, 쁘레또리움 단원 14명과 아듀또리움 단원 16명이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권중원(베드로)(2001.6~2003.12)
- 제2대 박석동(세형 라우렌시오)(2003.12~2005.5)
- 제3대 임희성(엘리아)(2005.5~2010.11)

5.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지석(가브리엘)(2010.11.6~　)
-부단장 : 구자일(세례자 요한)(2011.3.15~　)
-서　기 : 김성구(스테파노)(2010.12.4~　)
-회　계 : 황주선(도미니코)(2009.12.4~　)

사랑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0년 3월 1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승리의 모후 Pr.에서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본당 분리에 따라 대치2동 성당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승리의 모후 Pr.을 분단(1993.3)시켰으며, 1999년 12월에 연차 총친목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제1,000차 주회와 축하연을 가졌다. 주요활동은 서울역 노숙자 무료급식(1997~2006.5), 정릉 안나의 집 의료 및 노력봉사(1994~2005.5) 활동을 하였고 신망애의 집 장애인 목욕봉사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대 허지묵(요아킴)(1990.3~1992.1)
- 제2대 김세준(안드레아)(1992.2~1994.1)
- 제3대 노양근(토마스)(1994.2~1997.1)
- 제4대 유병국(마티아)(1997.2~2001.1)
- 제5대 안경식(안드레아)(2000.2~2003.1)
- 제6대 이세용(요한)(2003.2~2006.1)
- 제7대 황주선(도미니코)(2006.2~2009.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명승(프란치스코)(2009.2.13~　)
-부단장 : 김덕선(요셉)(2011.3.8~　)
-서　기 : 채준석(토마스)(2009.2.13~　)
-회　계 : 권영방(바오로)(2009.2.13~　)

상아탑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0년 6월 5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에서 대치2동 성당 분리에 따라 1990년 9월 1일자로 분단되어, 강남 은총의 모후 Co.의 샛별 Cu. 직속이 되었다. 2001년 5월 26일에 성가정의 어머니 Cu. 소속으로 바뀌었다. 설립 시부터 매주 화요일에 전단원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동문고의 봉사와 하상 바오로 복지관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임희성(엘리아)(1990.6.5~1994.8.29)
- 제2대 김긍한(비오)(1994.8.30~2000.9.4)
- 제3대 김양기(율리오)(2000.9.4~2002.7.9)
- 제4대 박순애(모니카)(2002.7.9~2008.11.6)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승찬(가타리나)(2008.11.7~　)
-부단장 :
-서　기 : 함은희(안젤라)(2008.11.7~　)
-회　계 : 유정희(안젤라)(2009.1.6~　)

다윗의 탑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1년 9월 10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다윗의 탑 Pr.은 1991년 9월 10일 창단되었으며, 정광영(베드로) 초대 단장과 단원 10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매월 셋째주 주일 샬트르 태능수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제1,000차 주회를 가졌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정광영(베드로)(1991. 9~1994.11)
- 제2대 이인수(요아킴)(1994.11~2000.12)
- 제3대 한종은(스테파노)(2000.12~2003.12)
- 제4대 권성오(필립보)(2003.12~2004.10)
- 제5대 최기혁(스테파노)(2004.10~2007.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시섭(프란치스코)(2007.12~　)
-부단장 : 윤선희(영주 바오로)(2010.2~　)
-서　기 : 임장석(치백 요셉(2011.7~　)
-회　계 : 최재왕(토마스 아퀴나스)(2011.7~　)

사랑의 샘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3년 5월 25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천상의 모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권중원(베드로) 초대 단장과 단원 7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7년 11월 11일에 창조주의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주요활동으로 광탄 시몬의 집 위문 및 노력봉사(1993.5~2004.12), 마천동 소년 예수의 집 위문(1993.5~2005.12),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동문고 봉사(1993.5~1997.7) 활동을 하였고 2004년 1월부터 율현동 성모자애복지관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권중원(베드로)(1993.5.25~1997.11.10)
- 제2대 최동규(알로시오)(1997.11.11~1998.4.5)
- 제3대 이계원(요한)(1998.4.6~2004.5.10)
- 제4대 박승원(미카엘)(2004.5.11~2005.12.31)
- 제5대 강희인(베드로)(2006.1.1~2008.6.30)
- 제6대 황의철(바오로)(2008.7.1~2011.6.30)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한호림(프란치스코)(2011.7.1~　)
–부단장 : 이계원(요한)(2011.11.9~　)
–서　기 : 옥병주(다니엘)(2009.4.28~　)
–회　계 : 박승권(미카엘)(2011.7.1~　)

예언자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3년 6월 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성조들의 모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양철화(요셉) 초대 단장과 단원 6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8년 8월 10일에는 복되신 어머니 Pr.을 분단시켰다. 주요활동으로 설립 초기부터 2009년까지 양재동 지체장애자 시설인 신망애의 집에서 목욕봉사를 하였으며, 2009년 7월 12일부터 동성고교 외국인 진료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양철화(요셉)(1993.6.3~1996.12.25)
- 제2대 이종성(돈보스코)(1997.1.1~2002.9.11)
- 제3대 권혁동(베드로)(2002.9.18~2005.9.21)
- 제4대 곽원섭(스테파노)(2005.9.28~2008.9.17)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임승순(사도요한)(2008.9.24~　)
-부단장 : 정상화(리차드)(2008.9.24~　)
-서　기 : 송기선(프란치스코)(2010.10.8~　)
-회　계 : 정광순(미카엘)(2008.9.24~　)

바다의 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5년 1월 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천상의 모후 Pr.에서 1995년 1월에 분단되어 김지환(아비토)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8년 1월부터 매월 둘째 주일에 환우들을 위한 삼성병원 미사 안내와 준비 및 기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지환(아비토)(1995.1.10~1997.12.31)
- 제2대 최영식(보니파시오)(1998.1.6~2000.12.31)
- 제3대 이규인(베드로)(2001.1.2~2003.12.31)
- 제4대 김지석(가브리엘)(2004.1.1~2006.12.31)
- 제5대 조기홍(베드로)(2007.1.2~2009.12.3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원우(요셉)(2010.1.5~　)
-부단장 : 신현수(프란치스코)(2007.1.12~　)
-서　기 : 김조연(미카엘)(2010.1.5~　)
-회　계 : 송경준(바오로)(2011.4. ~　)

승리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5년 1월 24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사랑의 모후 Pr.으로부터 1995년 1월 분단되어 창단되었으며, 이대원(도미니코)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6년 1월부터 14년 동안 평택 성 요셉의 집 청각장애인 시설에서 그리고 2009년 3월부터는 용인 노인요양원을 추가하여 두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대원(도미니코)(1995.1~1998.2)
- 제2대 강부인(베드로)(1998.3~1998.10)
- 제3대 소학영(베드로)(1998.11~2004.10)
- 제4대 최종현(안토니오)(2004.11~2007.1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종택(바실리오)(2007.11~　)
-부단장 : 김필태(베드로)(2007.11~　)
-서　기 : 이종화(루카)(2010.11~　)
-회　계 : 강한구(베드로)(2010.11~　)

정의의 거울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5년 9월 12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상아탑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이주영(아우구스티노)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요활동으로 1996년 6월 18일부터 하상 복지관에서 미사 참석 시각 장애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주영(아우구스티노)(1995.9.12~1997.7.11)
- 제2대 이광석(스테파노)(1997.1.7~2003.11.11)
- 제3대 이병일(요셉)(2003.11.18~2007.3.27)
- 제4대 최조정(아우구스티노)(2007.4.3~2010.1.26)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박상규(바오로)(2010.2.2~　　)
-부단장 : 금교연(모세)(2011.1.4~　　)
-서　기 : 윤청한(스테파노)(2011.3.15~　　)
-회　계 : 제갈승(베드로)(2011.1.4~　　)

창조주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7년 11월 1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샛별 꾸리아 소속 사랑의 샘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이지연(그레고리오) 초대 단장과 단원 7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1년 5월 26일에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로 소속되었으며, 2002년 8월에는 자비의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매주 복음서 필사와 소공동체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격주 단위로 이동문고 봉사 및 교우환자를 위한 기도 봉사, 강남 하상복지관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레지오의 회의록 작성, 교본낭독, 차량지원 등 돌봄을 하였다. 경기 파주 무의탁 음성결핵환자 수용시설인 '시몬의 집'과 '성 분도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한마음 나눔의 공동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지연(그레고리오)(1997.11~2000.11)
- 제2대 이길웅(요셉)(2000.11~2003.12)
- 제3대 박재호(베드로)(2004.1~2006.12)
- 제4대 김명국(스테파노)(2007.1~2009.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최병훈(세바스티아노)(2010.1~　)
-부단장 : 김명국(스테파노)(2011.7.27~　)
-서　기 : 이선국(루카)(2010.4~　)
-회　계 : 박재호(베드로)(2010.4~　)

복되신 어머니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8년 6월 8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예언자들의 모후 Pr.으로부터 분단, 설립되었으며, 정균성(토마스 아퀴나스)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약 3년간 지체 장애인의 시설인 신망애의 집(서울 양재동 소재)에 월 1회 청소와 목욕 봉사활동을 하였다.

2002년 말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성심원(경기 용인 수지 소재)에서 매월 두 번째 주일에 농사일 과 환경미화 등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제336차 주회(2004.11.10)부터 신구약 성경이어쓰기 활동이 배당되어 전단원들이 성경필사를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정균성(토마스 아퀴나스)(1998.6.10~2002.7.17)
- 제2대 박종대(제노)(2002.7.24~2005.7.27)
- 제3대 오수제(프란치스코 하비에르)(2005.8.3~2008.7.9)
- 제4대 김용화(아우구스티노)(2008.7.16~2010.12.29)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상욱(베드로)(2011.1.5~　　)
-부단장 : 이홍희(스테파노)(2011.7.27~　　)
-서　기 : 정균성(토마스 아퀴나스)(2009.12.30~　　)
-회　계 : 윤순탁(요셉)(2008.7.16~　　)

순교자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8년 7월 6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그리스도의 모후 Pr.(대치4동 성당으로 옮김)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김성하(스테파노)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수지 성모교육원 봉사와 1998년부터 남양주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가곡리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성하(스테파노)(1998.7.6~2002.9.9)
- 제2대 성영수(요한)(2002.9.9~2003.10.10)
- 제3대 황인관(프란치스코)(2003.10.10~2006.10.15)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박병순(베드로)(2006.10.15~　)
-부단장 : 김종현(그레고리오)(2010.9.8~　)
-서　기 : 염태주(율리아노)(2009.1.9~　)
-회　계 : 서정호(보델리오)(2010.9.8~　)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2002년 8월 7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창조주의 모후 Pr.에서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김연진(프란치스코) 초대 단장과 단원 7명으로 활동하였다. 2003년부터 4년간 무의탁 결핵요양소인 경기 파주 시몬의 집에서 노력봉사를 년 1~2회 실시하였으며,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요양환자 기도 및 이동문고 봉사(2002.8~2009.8)를 매주 1회 실시하였다. 서울 일원동 성당 소속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로사리오 모후 Pr.을 매주 1회 방문 및 돌봄(2002.8~2010.1)을 하며 제대 준비, 정리 및 회의록 작성을 도왔으며, 2002년 11월부터 서울 율현동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모자애복지관에서 노력봉사를 매월 1회 실시해 오고 있다. 2005년 2월에는 행동단원과 협조단원들이 일본 규수 나가사끼 성지순례를 하였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연진(프란치스코)(2002.8.9~2005.3.29)
- 제2대 윤병규(보니파시오)(2005.3.30~2008.3.26)
- 제3대 이건원(스테파노)(2008.3.27~2009.8.18)
- 제4대 김환수(안드레아)(2009.8.19~2010.8.31)
- 제5대 박문현(요한)(2010.9.1~2011.3.1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지연(그레고리오)(2011.3.12~　)
-부단장 : 이노진(루카)(2010.9.1~　)
-서　기 : 황성규(미카엘)(2009.8.19~　)
-회　계 : 한영수(루카)(2011.3.12~　)

겸손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2005년 10월 1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사랑의 모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강탁(야고보)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8년 3월부터 신망애의 집에서 노력 봉사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강탁(야고보)(2005.10.11~2007.3.13)
- 제2대 최두혁(미카엘)(2007.3.20~2010.3.16)
- 제3대 이인성(베드로)(2010.3.23~2011.1.25)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정원용(마르첼리노)(2011.2.1~　)
–부단장 : 송양근(미카엘)(2010.3.23~　)
–서　기 : 김승평(율리아노)(2011.2.1~　)
–회　계 : 이수창(세례자 요한)(2011.6.1~　)

1. **설립연월일 :** 1988년 4월 26일(승인 4월 26일)

2. **설립목적**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 아래 레지오 군단을 조직하여 세상 죄악과 권세에 대항하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모 마리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단원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황금궁전 Cu.에서 소속 19개의 Pr.이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이후 레지오의 확장에 따라 1991년 6월 29일에는 소속 14개 Pr.을 분단하여 사랑의 샘 Cu.를 설립하였다. 2011년 7월 31일 기준으로 조직 현황은 성인 여성 17개 Pr.을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행동단원은 179명, 협조단원은 334명을 두고 있고, 쁘레또리움 단원 58명과 아듀또리움 단원 15명이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최상목(체칠리아)(1988.5.9~1990.11.12)
- 제2대 이정숙(마리아고레티)(1990.11.12~1994)
- 제3대 최랑거(수산나)(1994~1997)
- 제4대 배영한(크리스티나)(1997~2000.4.6)
- 제5대 김용옥(안나)(2000.4.6~2004.12.9)
- 제6대 성기월(사라)(2004.12.9~2007.12.13)
- 제7대 이효미(이사벨라)(2007.12.13~2010.12.9)

5. **현 임원 현황**

-단　장 : 박경심(마리안나)(2010.12.19~　)
-부단장 : 이태경(카리타스)(2009.1.8~　)
-서　기 : 김미정(안젤라)
(2010.7.8~　)
-회　계 : 김인화(율리아나)
(2011.1.13~　)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79년 10월 26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황금궁전 Cu. 소속으로 창단된 후 1988년 4월 26일에 인자하신 모후 Cu. 분단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인자하신 모후 Cu.의 첫 Pr.이다. 이후 2010년 6월 22일에는 1,600차 주회합을 가졌다. 주요활동으로 하상회관, 삼성병원, 가락동 하상바오로 식당, 용인 요한의 집, 인하병원, 시립아동병원, 인보마을, 성모자애원, 수지성심원 등에서 봉사 하였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유재완(수산나)(1979.10.16~?)
- 제2대 이금순(마리아)
- 제3대 김병을(요안나)
- 제4대 채난희(안젤라)
- 제5대 김경분(미카엘라)(?~1989.4.10)
- 제6대 최순자(모니카)(1989.4.10~1990.3.12)
- 제7대 김경분(미카엘라)(19903.12~1991.1.14)
- 제8대 현혜경(헬레나)(1991.1.14~?)
- 제9대 강외순(아녜스)
- 제10대 고금순(프란체스카)
- 제11대 이진옥(로사)(1998.~2000.4.6)
- 제12대 이순옥(카리타스)(2000.4.6 ~2003.5.13)
- 제13대 허명화(요안나)(2003.5.13~ 2004.9.9)
- 제14대 김연순(마리아나)(2004.9.9~ 2006.7.25)
- 제15대 문명희(제노베파)(2006.8.1~2008.6.17)
- 제16대 이순옥(카리타스)(2008.6.24~2009.6.9)
- 제17대 문명희(제노베파)(2009.6.16~2009. 12.18)
- 제18대 이진옥(로사)(2010.1.14~2011.1.13)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권인숙(소화데레사)(2011.1.13~)
-부단장 : 김상여(율리아나)(2010.1.14~)
-서 기 : 백양숙(프란체스카)(2010.1.14~)
-회 계 : 이은미(안나)(2011.6.9~)

사도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0년 11월 4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황금궁전 Cu. 소속으로 설립된 후 1988년 4월 26일에 인자하신 모후 Cu.의 분단, 설립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었다. 인자하신 모후 Cu. 소속 쁘레시디움 중 두 번째로 오래되었으며, 2009년 7월 28일에는 1,500차 주회합을 가졌다. 본당 성 요셉 아카데미의 셋째 주 음식준비와 성모자애복지관 봉사를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제2대, 제3대 확인 불가
- 제4대 이경숙(요세피나)(?~1988.11.14)
- 제5대 이문자(아녜스)(1988. 11.14~1990.7.9)
- 제6대 김유승(프란체스카 (1990.7.9~1991.1.14)
- 제7대 김분옥(수산나)(1991.1.14~1993.12.)
- 제8대 오경우(마리아나)(1993.12.~1997.5.6)
- 제9대 이정희(스텔라)(1997.5.6~1997.10.14)
- 제10대 이재희(제노베파)(1997.10.14~2000.10.3)
- 제11대 장영심(아녜스)(2000.10.3~2003.5.13)
- 제12대 김국희(안나)(2003.5.13~2004.10.14)
- 제13대 성필란(마리아)(2004.10.14~2007.1.12)
- 제14대 오행자(가타리나)(2007.1.12~2008.4.10)
- 제15대 권혜경(미카엘마리아)(2008.4.10~2010.5.13)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재희(제노베파(2010.5.13~　)
-부단장 : 유본남(모니카)(2010.5.13~　)
-서　기 : 최은미(사라)(2010.5.13~　)
-회　계 : 성옥희(로사)(2009.1.8~　)

신비로운 장미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3년 2월 8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황금궁전 Cu. 소속으로 설립된 후 1988년 4월 26일에 인자하신 모후 Cu.의 분단, 설립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후 1987년 2월 9일에 영원한 도움의 모후 Pr., 1992년 5월 19일에 상아탑 Pr.을 분단시켰으며, 2002년 4월 9일에는 1,000차 주회합을 가졌다. 가락동 하상바오로 식당, 수서 시립복지관, 한신 아동복지관, 노인대학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1997년부터 한마음 독서회, 1998년부터 소년 예수의 집, 그리고 2000년부터는 성모자애 복지관에서 현재까지 3곳 모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천 데레사(1983.2.8~?)
- 제2대 빅토리아
- 제3대 김 모니카(?~1987.2.9)
- 제4대 최랑거(수산나)(?~1988.7.10)
- 제5대 남명자(체칠리아)(1988.7.10~?)
- 제6대 최찬희(데레사)(?~1992.2.12)
- 제7대 김진순(에메렌시아)(1992.2.13~1993.11.23)
- 제8대 김진숙(루치아)(1994.4.19~1996.6.24)
- 제9대 이봉선(아녜스)(1996.6.25~1998.8.10)
- 제10대 유금순(가타리나)(1998.8.11~2001.8.13)
- 제11대 서강애(루치아)(2001.8.14~2004.6.28)
- 제12대 김정희(보노사)(2004.6.29~2006.1.17)
- 제13대 이태경(카리타스)(2006.1.18~2009.1.8)

5. 현 임원 현황

-단　장 : 최인성(가타리나)(2009.2.12~　)
-부단장 : 이귀숙(제네로사)(2010.11.11~　)
-서　기 : 정경자(실비아)(2009.2.12~　)
-회　계 : 김수원(미카엘라)(2010.11.11~　)

무염시태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9년 3월 2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인자하신 모후 Cu.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 6월 29일에 사랑의 샘 Cu. 분단에 따라 소속이 바뀌었다. 주요 활동으로 강남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봉사를 10여년 동안 하고 있다. 2010년 9월 현재 행동단원 8명, 협조단원 16명, 쁘레또리움 4명이 활동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강태정(클라라)(1989.3~1992.4)
- 제2대 송현숙(미카엘라)(1992.4~?)
- 제3대 윤혜선(아녜스)(?)
- 제4대 양옥순(아녜스)(1994.5.~1996.7)
- 제5대 윤혜선(아녜스)(1996.7~1999.2)
- 제6대 양승자(가타리나)(1999.2~2001.5)
- 제7대 임난숙(제르트루다)(2001.5~2003.5)
- 제8대 박정희(엘리사벳)(2003.5~2006.6)
- 제9대 정명자(크리스티나)(2006.6~2009.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임난숙(제르트루다)(2009.2.12~　)
–부단장 : 조은혜(크리스티나)(2011.1.13~　)
–서　기 : 박정희(엘리사벳)(2009.2.12~　)
–회　계 : 정명자(크리스티나)(2010.6.10~　)

성실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4년 5월 22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황금궁전 Cu. 소속으로 설립된 후. 1988년 4월에 인자하신 모후 Cu.의 분단, 설립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1일에 환희의 모후 Pr.을, 2001년 1월 11일에 거룩하신 어머니 Pr.을 분단, 설립시켰다. 1991년부터 하상 바오로의 집, 성모자애재활원, 하상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최 헬레나(1984.5.22~1988.12.21)
- 제2대 이경선(비비아나)(1988.12.21~1991.1.14)
- 제3대 이옥순(데레사)(1991.1.14~1992.12.15)
- 제4대 윤길순(세레나)(1992.12.15~1996.7.4)
- 제5대 이혜순(비비아나)(1996.7.4~2000.5.4)
- 제6대 정희선(모니카)(2000.5.4~2001.1.11)
- 제7대 안무선(효주 아네스)(2001.11~2003.12.11)
- 제8대 김경희(미카엘라)(2003.12.11~2007.1.11)
- 제9대 김평숙(율리아나)(2007.1.11~2010.1.14)
- 제10대 김혜란(소피아)(2010.1.14~2010.4.8)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경희(미카엘라)(2010.4.8~　)
-부단장 : 김선희(마리아)(2011.9.8~　)
-서　기 : 김준희(체칠리아)(2010.8.12~　)
-회　계 : 손숙자(클라라)(2009.3.12~　)

환희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8년 12월 2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성실하신 모후 Pr.으로부터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이숙희(엘리사벳) 초대 단장과 7명의 행동단원과 7명의 협조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1년 6월에 사랑의 샘 Cu. 분단, 설립에 따라 소속되었다가 2000년 9월에는 인자하신 모후 Cu.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8년 2월 19일에는 1,000차 주회합을 가졌다. 은평마을 시립 양로원, 애덕의 집, 성모자애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서울의료원 환자 방문기도와 돌봄이 2009년 3월에는 200회, 성모자애복지관 봉사도 2010년 7월에 100회를 넘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숙희(엘리사벳)(1988.12.21~1993.2.2)
- 제2대 박상숙(엠마)(1993.2.2.~1993.5)
- 제3대 김인숙(로사리아)(1993.5.18~1996.2.8)
- 제4대 박상숙(엠마)(1996.2.8~2002.7.11)
- 제5대 서정례(프란체스카)(2002.7.11~2003.10.9)
- 제6대 박상숙(엠마)(2003.10.9~2006.7.14)
- 제7대 진애헌(마리아)(2006.7.14~2007.3.27)
- 제8대 박상숙(엠마)(2007.3.27~2008.7.10)
- 제9대 김현경(마리아)(2008.7.10~2011.2.10)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유미경(마리안나)(2011.2.10~　)
-부단장 : 홍준희(율리아)(2011.2.10~　)
-서　기 : 서향숙(헬레나)(2009.11.5~　)
-회　계 : 박선희(메히틸다)(2009.11.5~　)

은혜로운 어머니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5년 11월 5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황금궁전 Cu. 소속으로 설립된 후 1988년 4월 26일에 인자하신 모후 Cu.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2년 12월 5일에 결백하신 어머니 Pr.을 분단, 설립시켰다. 1990년부터 하상바오로 중식봉사, 한마음독서회 장애인 봉사(1998년), 성모자애원 봉사(1999년), 하상장애인 복지관 봉사(2010년) 등 4곳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7년과 2010년에 냉담자나 교우 등의 호구조사와 본당 성 요셉 아카데미와 예비자 교리반에서 봉사하며 2006년부터 성당 주변 상가 및 비신자들에게 출판물 보급과 입교 권면을 실시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노길자(안젤라)(1985.11.5~1987.4.17)
- 제2대 장정순(세레나)(1987.4.26~1990.1.6)
- 제3대 김명주(소피아)(1990.1.17~1993.2.5)
- 제4대 조양순(마리아)(1993.2.12~1996.3.10)
- 제5대 지경옥(가타리나)(1996.5.7~1997.3.25)
- 제6대 김명주(소피아)(1997.4.2~1998.3.7)
- 제7대 윤창희(마리아)(1998.3.11~2000.4.21)
- 제8대 이성이(유스티나)(2000.4.28~2003.5.5)
- 제9대 김석현(레지나)(2003.5.12~2004.5.18)
- 제10대 형향민(루치아)(2004.5.25~2005.10.25)
- 제11대 허희순(블란디나)(2005.11.10~2008.11.26)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곽영숙(도로테아)(2008.12.11~　)
-부단장 : 조금자(안나)(2011.7.14~　)
-서　기 : 배성옥(미카엘라)(2011.2.10~　)
-회　계 : 이경자(사라)(2011.3.10~　)

영원한 도움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7년 2월 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신비로운 장미 Pr.에서 1987년 2월 9일에 분단, 설립되었으며, 1992년 7월 2일에는 겸손하신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신망애 집 점심봉사, 대청복지관 설거지 봉사, 성모자애복지관 봉사, 해 뜨는 집 아기 돌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최필남(헬레나)(1987.2.10~1989.3)
- 제2대 육순주(엘리사벳)(1989.4.~1990.11)
- 제3대 김부자(율리아나)(1990.12~1992.6)
- 제4대 김성이(크리스티나)(1992.7~1996.3)
- 제5대 정명숙(소피아)(1996.4~2000.10)
- 제6대 강혜련(아삐아)(2000.11~2001.12)
- 제7대 권희숙(아녜스)(2002.1~2004..12)
- 제8대 함귀선(스텔라)(2005.1~2007.12)
- 제9대 이광순(소피아)(2008.1~2011.1.13)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칠희(레지나)(2011.1.13~　)
–부단장 : 조향숙(엘리사벳)(2010.1.14~)
–서　기 : 곽정숙(소피아)(2011.1.13~　)
–회　계 : 박현정(미카엘라)(2011.5.17~　)

사랑하올 어머니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8년 1월 2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황금궁전 Cu.에서 인자하신 모후 Cu.가 분단, 설립됨에 따라 1988년 4월 26일에 이에 소속되었다. 1990년 11월 12일에 찬송하올 어머니 Pr., 2001년 5월에 희망의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본당 성 요셉 아카데미와 2009년 상반기 예비자 교리 봉사, 그리고 성모자애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과거 자료 확인불가)
- 초 대 이정숙(마리아고레티)(1988.1.21~1990.11.12)
- 제2대 이영혜(율리아나)(1990.11.12~1991.10)
- 제3대 김복순(요세피나)(1991.10.2~2001)
- 제4대 박언빈(베르나데트)(2001~2004.3)
- 제5대 권정숙(레지나)(2004~2006)
- 제6대 김용혜(아녜스)(2006~2007)
- 제7대 여동연(비비아나)(2007~2010.2)
- 제8대 권정숙(레지나)(2010.3.11~2010.7.8)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남상란(발레리아)(2010.7.8~　　)
-부단장 : 김정자(데레사)(2009.9.10~　　)
-서　기 : 권경순(미카엘라)(2009.8.13~　　)
-회　계 : 박언빈(베르나데트)(2011.2.10~　　)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1988년 5월 10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샛별의 모후 Pr.에서 1988년 5월 10일에 분단되어 설립되었다. 레지오의 확장에 따라 천사들의 모후 Pr.(1989.10.13), 로사리오의 모후 Pr.(1990.12.10), 루르드의 성모 Pr.(1999.12)을 분단시켰으며, 2007년 7월 3일에 1,000차 주회를 가졌다. 설립 초기부터 용산 베들레헴 식당, 작은 예수회, 소녀가장 돕기, 서울의료원 미사봉사, 성 분도복지관 등에서 봉사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성모자애 복지관 주방봉사, 봉성체 수행, 환자 방문 등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순영(가타리나)(1988.5~1990.12)
- 제2대 김순자(베로니카)(1990.12~1991.5)
- 제3대 한혜정(요세피나)(1991.5~1995.1.12)
- 제4대 윤명인(아네스)(1995.12~2000.12)
- 제5대 홍기연(크리스티나)(2001.1~2003.12)
- 제6대 조현경(클라라)(2004.1~2005.8)
- 제7대 이순의(베네딕다)(2005.8~2008.8)
- 제8대 김화자(엘리사벳)(2008.8.14~2011.9.7)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수덕(안젤라)(2011.9.8~　　)
-부단장 : 박명동(데레사)(2009.4.16~　　)
-서　기 : 최정원(율리아나)(2011.9.8~　　)
-회　계 : 우순희(크리스티나)(2009.10.6.~　　)

찬송하올 어머니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0년 10월 23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사랑하올 어머니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김경중(아녜스)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0년 1월 5일에는 1,000차 주회합을 가졌으며, 2003년부터 매주 화요일에 성모자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대 김경중(아녜스)(1990.10~?)
- 제2대 설종인(로사)(2003.2.13~2004.3)
- 제3대 김윤숙(아녜스)(2004.3.11~2004.4.4)
- 제4대 하순옥(헬레나)(2004.5.4~2007.2.27)
- 제5대 김윤순(아녜스)(2007.3.6~2007.8.28)
- 제6대 설종인(로사)(2007.9.4~2009.8.25)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권숙중(요나)(2009.9.10~　　)
부단장 : 유윤순(루피나)(2009.9.10~　　)
서　기 : 안시현(안젤라)(2010.4.8~　　)
회　계 : 설종인(로사)(2010.7.8~　　)

그리스도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4년 4월 3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1984년 설립 이후 2003년 5월 27일에는 죽산 성지에서 1,000차 주회합을 가졌다. 예비신자들의 교리반 인도와 돌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하상 장애인 복지관과 명휘원의 주방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대~제3대 기록 없음
- 제4대 최정현(뽀리나)(1989.3~1989.8)
- 제5대 김창실(클라라)(1989.9~1992.5)
- 제6대 김성자(요안나)(1992.6~1993.9)
- 제7대 김영희(루치아)(1993.10~1996.6)
- 제8대 김희선(아가타)(1996.7~1997.10)
- 제9대 김경자(레지나)(1997.11~1998.3)
- 제10대 김형진(데레사)(1998.4~2001.3)
- 제11대 최경숙(안젤라)(2001.4~2004.4)
- 제12대 안명선(다니엘라)(2004.5~2007.5)
- 제13대 이상해(요안나)(2007.6~2008.9)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박정희(스텔라)(2008.10.9~　　)
–부단장 : 이미희(수산나)(2010.10.14~　　)
–서　기 : 안명선(다니엘라)(2010.6.10~　　)
–회　계 : 최경숙(안젤라)(2008.9.11~　　)

결백하신 어머니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2년 12월 5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은혜로운 어머니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김준희(체칠리아) 초대 단장과 단원 10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1년 2월에 1,000차 주회합을 가졌으며, 성모자애원과 시립 아동병원, 성로원 등에서 봉사하였다. 또한 설립 초기부터 성모자애복지관 주방봉사, 가락 하상바오로 식당 주방봉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2006년 9월에는 서울시장상(봉사상)을 수상하였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준희(체칠리아)(1991.12~1994.12)
- 제2대 강여희(베르나데트)(1995.1~1995.8)
- 제3대 신광희(아녜스)(1995.8~1999.3)
- 제4대 정명희(리디아)(1999.3~2000.1)
- 제5대 조영자(루치아)(2000.1~2005.12)
- 제6대 이효미(이사벨라)(2006.1~2008.12)
- 제7대 임문순(안젤라)(2008.12~2011.1.13)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정성봉(헬레나)(2011.1.13~　　)
-부단장 : 차준재(노엘라)(2010.1.14~　　)
-서　기 : 김옥경(엘리사벳)(2009.2.10~　　)
-회　계 : 강옥남(요안나)(2009.4.16~　　)

상아탑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2년 5월 1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신비로운 장미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성부전(가타리나)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요안의 집 장애우 돌봄, 하상 바오로의 집과, 서울 한마음공동체 노숙자 급식봉사, 역삼동 영아원 아기돌봄 봉사 등을 하였다. 2006년 4월부터 성모자애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12일에 제1,000차 주회합을 가졌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성부전(가타리나)(1992.5.19~1993.4.6)
- 제2대 최랑기(수산나)(1993.4.13~1994.3.15)
- 제3대 이준자(체칠리아)(1994.3.22~1996.8.1)
- 제4대 신흥자(마르가리타)(1996.8.8~1997.11.26)
- 제5대 성기영(라파엘라)(1997.12.3~2000.2.15)
- 제6대 안광자(베로니카)(2000.2.22~2002.11.19)
- 제7대 성기월(사라)(2002.11.26~2005.1.25)
- 제8대 남혜옥(가타리나)(2005.2..~2007.12.11)
- 제9대 권경희(안젤라)(2007.12.18~2008.10.28)
- 제10대 정창길(데레사)(2008.11.13~2011.6.9)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지애(요안나)(2011.6.9~　　)
-부단장 : 안광자(베로니카)(2010.12.9~　　)
-서　기 : 송인애(미카엘라)(2007.12.18~　　)
-회　계 : 손정화(체칠리아)(2010.12.9~　　)

겸손하신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2년 7월 7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임경자(데레사)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천동 소재 소년 예수의 집에서 청소 봉사, 성모자애복지관 장애아 보육교사 봉사를 오랫동안 하였다. 또한 서울 가락동 소재 하상 바오로집 행려자 식사 봉사와 성모자애복지관 주방 봉사, 작업장 노력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30일에 제1,000차 주회합을 가졌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임경자(데레사)(1992.7.7~1995.7)
- 제2대 배영한(크리스티나)(1995.7~1996.12)
- 제3대 김태희(아가타)(1996.12~1999.12)
- 제4대 김경희(소피아)(1999.12~2002.12.3)
- 제5대 강영숙(마리아안나)(2002.12~2005.12.20)
- 제6대 민은준(마뜨로나)(2005.12.30~2009.1.8)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인숙(레나다)(2009.1.8~　　)
-부단장 : 최옥자(멜라니아)(2006.10.3~　　)
-서　기 : 최연선(로사)(2009.6.11~　　)
-회　계 : 최은경(에밀리아)(2009.10.8~　　)

거룩하신 어머니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2001년 1월 1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성실하신 모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정희선(모니카) 초대 단장과 단원들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성모자애원 노력봉사, 본당 성 요셉 아카데미 봉사, 해외 입양아 한글 가르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정희선(모니카)(2001.1~?)
- 제2대 채이순(율리아)
- 제3대 최선옥(마리아)(2004.2.24~2007.1.10)
- 제4대 최예윤(마르타)(2007.1.11~2010.1.10)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임영희(크리스티나)(2010.1.14~　　)
–부단장 : 오성희(데레사)(2011.3.10~　　)
–서　기 : 천숙희(오틸리아)(2010.3.11~　　)
–회　계 : 박기주(비비안나)(2011.3.10~　　)

희망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2001년 5월 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사랑하올 어머니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이명자(젤마나) 초대 단장과 단원 9명, 협조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한마음장애인 봉사회, 하상 바오로의 집 중식 봉사를 시작으로 신부님 제의 및 성작 수건, 제대포 다림질 봉사, 양평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 봉사, 의정부 교도소 방문, 서울역 노숙자 배식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명자(젤마나)(2001.5.10~2004.6.10)
- 제2대 김현숙(헬레나)(2004.6.11~2005.6)
- 제3대 윤혜자(크리스티나)(2005.6~2006.6.7)
- 제4대 이옥선(스텔라)(2006.7.8~2007.8.8)
- 제5대 김명숙(클라라)(2007.8.9~2010.8.11)
- 제6대 박경심(마리안나)(2010.8.12~2010.12.9)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미령(오틸리아)(2011.1.13~　　)
-부단장 : 김희란(로사)(2011.6.9~　　)
-서　기 : 홍해교(세리나)(2010.8.12~　　)
-회　계 : 윤혜자(크리스티나)(2010.1.14~　　)

사랑의 샘 꾸리아

1. 설립연월일 : 1991년 6월 29일

2. 설립목적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 아래 레지오 군단을 조직하여 세상 죄악과 권세에 대항하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모 마리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단원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인자하신 모후 Cu.에서 소속 14개의 Pr.이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0년 9월 대치3동 성당 신설로 인하여 단원이 줄게 된 인자하신 모후 Cu.로 소속 3개 쁘레시디움이 옮기게 되었다.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조직 현황은 성인 여성 19개 Pr.을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행동단원은 201명, 협조단원은 508명을 두고 있고, 쁘레또리움 단원 64명과 아듀또리움 단원 49명이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장복희(모니카)(1991.6.29~1994.11.10)
- 제2대 조임(미카엘라)(1994.11.10~1999.8)
- 제3대 이순자(요안나)(1999.8~2003.6.12)
- 제4대 이해순(보니파시아)(2003.6.12~2009.6.11)
- 제5대 진정희(데레사)(2009.6.11~2010.5.13)

5. 현 임원 현황

-단　장 : 최순희(베로니카)(2010.5.13~　)
-부단장 : 신희명(젬마)(2010.12.9~　)
-서　기 : 김혜숙(마리아)(2011.5.12~　)
-회　계 : 박남희(루치아)(2009.9.10~　)

성조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79년 4월 1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옛 도곡동 성당(대치동 성당의 전신)에서 설립되어, 김덕자(율리아나)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3년 6월, 대치동 성당의 준공과 더불어 황금궁전 Cu. 소속으로, 다시 본당 설립에 따라 사랑의 샘 Cu. 소속으로 바뀌었다. 맹인 선교회 등에서 봉사하였으며, 현재까지 해 뜨는 집 아기 돌보기, 성모자애원과 성 분도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덕자(율리아나)(1979.4.19~1980.6.2)
- 제2대 김지연(헬레나)(1980.6.3~1982.1.11)
- 제3대 문영주(소피아)(1982.1.12~1982.9.11)
- 제4대 이수자(마리안나)(1982.9.12~1984.6)
- 제5대 장복희(모니카)(1984.6~1986.6)
- 제6대 윤양현(베로니카)(1986.6~1987.7.13)
- 제7대 문혜숙(안나)(1987.7.14~1988.8.17)
- 제8대 장복희(모니카)(1988.8.18~1990.1)
- 제9대 성선화(베로니카)(1990.2~1991.12.3)
- 제10대 김혜옥(체칠리아)(1991.12.4~1992.8.3)
- 제11대 김금순(실비아)(1992.8.4~1993.6.22)
- 제12대 박정분(레지나)(1993.6.23~1994.7.11)
- 제13대 신명희(아녜스)(1994.7.12~1999.11)
- 제14대 한경희(마리안나)(1999.11.2~2002.12)
- 제15대 강연순(아가타)(2002.12~2005.12)
- 제16대 김은옥(모니카)(2006.1~2008.1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조기환(크리스티나)(2008.12.11~　)
-부단장 : 전귀악(요안나)(2010.4.8~　)
-서　기 : 강연순(아가타)(2007.3.8~　)
-회　계 : 옥정혜(아델라)(2009.6.11~　)

순교자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1980년 7월 1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에서 설립되어, 김인주(골로리아) 초대 단장과 단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후 1990년 10월 5일에 증거자의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본당 설립에 따라 인자하신 모후 Cu. 소속으로 변경된 후 1991년 6월 29일에 사랑의 샘 Cu.로 소속되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7일에 1,000차 주회, 2009년 4월 7일에 1,500차 주회를 가졌다. 베들레헴의 집, 맑음 터 장애인의 집, 대청복지관 물리치료실, 프란치스코 집에서 봉사하였고, 현재 성모자애원 자립 작업장과 하상복지관 점자 도서 정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인주(골로리아)(1980.7~1982.7)
- 제2대 전순지(제르트루다)(1982.7~1985.7)
- 제3대 이정숙(마리아 고리티)(1985.7~1988.7)
- 제4대 전순지(제르트루다)(1988.7~1990.11)
- 제5대 정봉희(아나스타시아)(1990.11~1993.5)
- 제6대 노유남(안젤라)(1993.6~1996.9)
- 제7대 선서균(데레사)(1996.9~1998.3)
- 제8대 서순자(크리스티나)(1998.7~2002.3)
- 제9대 최문선(안젤라)(2002.3~2007.12)
- 제10대 최기숙(안나)(2007.12~2009.4)
- 제11대 최순희(베로니카)(2009.4~2010.5)
- 제12대 박미아(엘리사벳)(2010.6.10~2011.5.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김은옥(골롬바)(2011.5.12~)
-부단장 : 서순자(크리스티나)(2010.6.10~)
-서 기 : 임유숙(율리아나)(2011.4.14~)
-회 계 : 우혜란(체칠리아)(2010.12.9~)

샛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0년 11월 4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인자하신 모후 Cu. 소속으로 설립된 후, 본당 설립에 따라 1991년 6월 29일에 사랑의 샘 Cu.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2년 12월 22일에는 천상은총의 모후 Pr.을 분단시켰으며, 2000년 1월 3일에 1,000차, 2009년 8월 4일에 1,500차 주회합을 가졌다. 1997년에 종로 노인정 봉사와 2000년부터 수서 성모자애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3. 역대 단장

- (사랑의 샘 Cu. 소속 이후 단장–과거 자료 확인불가)
- 초 대 정원정(모니카)(1991.8~1992.11)
- 제2대 장부영(안젤라)(1992.11~1995.2)
- 제3대 정성애(데레사)(1995.3~2002.3)
- 제4대 김정윤(안젤라)(2002.3~2005.2)
- 제5대 주해랑(아셀라)(2005.3~2005.10)
- 제6대 이정진(리드비나)(2005.10~2007.7)
- 제7대 옹행자(요안나)(2007.4~2009.3)
- 제8대 이정진(리드비나)(2008.4~2009.4)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정영희(테클라)(2009.4.21~　)
–부단장 : 이금자(칸넬라)(2010.10.14~　)
–서　기 : 이정진(리드비나)(2010.10.14~　)
–회　계 : 양춘의(레지나)(2010.6.10~　)

창조주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일자 : 1983년 2월 8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설립 이후 1991년까지 대치동 인자하신 모후 꾸리아 Cu. 소속이었으나, 본당 설립에 따라 1991년 6월 29일에 사랑의 샘 Cu.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5년 7월 6일에 하늘의 문 Pr.을 분단시켰으며, 대청복지관 주방봉사, 본당 성 요셉 아카데미 성경봉사, 하상 바오로복지관 주방봉사, 첫 영성체 자모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마영애(체칠리아)(1983.2~1986.2)
- 제2대 김윤정(베로니카)(?)
- 제3대 정평순(아나스타시아)(?)
- 제4대 김정희(안나)(?)
- 제5대 김금순(루치아)(?)
- 제6대 고용순(바오리나)(2000~2004.1)
- 제7대 김옥진(베르나데트)(2004.2.8~2006.8)
- 제8대 정평순(아나스타시아)(2006.9.14~2009.11)
- 제9대 여정희(아녜스)(2009.12.15~2010.5)
- 제10대 김옥진(베르나데트)(2010.6.10~2011.6)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조선숙(크리스티나)(2011.6.9~　)
-부단장 : 정평순(아나스타시아)(2009.12.15~　)
-서　기 : 백귀자(엘리사벳)(2011.6.9~　)
-회　계 : 주순희(안젤라)(2011.6.9~　)

성모승천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4년 8월 10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인자하신 모후 Cu.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본당 설립 이후 사랑의 샘 Cu.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2년 7월 10일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을 분단시켰으며, 서울성모병원 안내봉사, 수지성모성심원에서 노력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최희영(가타리나)(1984.8.21~1987.7)
- 제2대 김세준(로사)(1987.7~1989.1)
- 제3대 전은경(실비아)(1989.1~1990.6.8)
- 제4대 최희영(가타리나)(1990.6~1991.7)
- 제5대 박계원(마리아)(1991.8~1992.7)
- 제6대 차연경(마리아)(1992.7~1995.2.14)
- 제7대 이은정(그레덴시아)(1995.2.22~1997.3.30)
- 제8대 이인순(로사)(1997.3~2000.1.20)
- 제9대 안소원(룻)(2001.1~2003.10)
- 제10대 차연경(마리아)(2003.10~2009.5.30)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오영희(베로니카)(2009.7.9~　)
-부단장 : 양인숙(에밀리아나)(2010.7.8~　)
-서　기 : 강정숙(실비아)(2009.7.9~　)
-회　계 : 노순금(빌지니아)(2009.7.9~　)

완덕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5년 3월 22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인자하신 모후 Cu. 소속으로 설립된 이후, 1986년 4월 8일에 애덕의 모후 Pr.을 분단시켰다. 본당 설립에 따라 인자하신 모후 Cu.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사랑의 샘 Cu.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리고 1991년 11월 12일에는 쁘레시디움 설립 후 두 번째로 기쁨의 샘 Pr.을 분단시켰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성모자애원 봉사를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0주년 봉사상패를 받았다. 그리고 1995년에 한마음 장애인 독서회 봉사, 1993년에 성모노인정 주방 봉사, 2010년에부터 여성복지센터 주 1회 봉사활동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사랑의 샘 Cu. 소속 이후 단장-과거 자료 확인불가)
- 초 대 문영희(로사)(1991.6~1994.6)
- 제2대 김영희(베로니카)(1994.6~1996.7)
- 제3대 남옥진(베로니카)(1996.8.3~1999.8.3)
- 제4대 이현지(안나)(1999.8.3~2002.9.3)
- 제5대 김은옥(모니카)(2002.9.3~2003.6.23)
- 제6대 안정희(베로니카)(2003.6.23~2006.5.8)
- 제7대 이명순(루치아)(2006.5.8~2008.5.8)
- 제8대 남옥진(베로니카)(2008.5.8~2011.7.14)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송경희(베로니카)(2011.7.14~　)
-부단장 : 최복실(데레사)(2009.9.10~　)
-서　기 : 이혜섭(헬레나)(2010.1.14~　)
-회　계 : 이현지(안나)(2009.5.14~　)

애덕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연월일 : 1986년 4월 8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완덕의 모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임대미자(베로니카)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 5월 31일에는 1,000차 주회를 가졌으며, 1995년부터 하상 바오로복지관 식당에서 배식 및 설거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6일에 하상 바오로복지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2003년 10월부터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임대미자(베로니카)(1986.4~1988.4)
- 제2대 최인자(로사)(1988.4~1991.4)
- 제3대 임대미자(베로니카)(1991.4~1994.4)
- 제4대 송희양(로사)(1994.4~1997.4)
- 제5대 이정례(데레사)(1997.4~1999.6)
- 제6대 박명연(헬레나)(1999.6~2003.3)
- 제7대 이경아(마리아)(2003.3~2003.9)
- 제8대 박순주(에스델)(2003.9~2006.2)
- 제9대 정복희(아나스타시아)(2006.2~2008.1)
- 제10대 이은신(가타리나)(2008.1.10~2011.1.13)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안행미(엘리사벳)(2011.1.13~　)
-부단장 : 김진숙(소피아)(2011.1.13~　)
-서　기 : 이한우(아녜스)(2008.1.10~　)
-회　계 : 남기선(모니카)(2011.1.13~　)

능하신 정녀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7년 11월 3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인자하신 모후 Cu.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본당 설립 후 사랑의 샘 Cu.로 소속이 바뀌었다. 1997년 8월 26일에는 평화의 모후 Pr.을 분단시켰으며, 안양교도소, 안나의 집, 임종의 집, 요셉의 집, 성 분도재활원,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하상 바오로복지관의 노력봉사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우 기도봉사, 청운양로원에서 노인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사랑의 샘 Cu. 소속 이후 단장–과거 자료 확인불가)
- 초 대 이영순(로사)(1991.6~?)
- 제2대 이한분(스테파니아)(?)
- 제3대 오정순(수산나)(?)
- 제4대 이한분(스테파니아)(1996.2.21~1999.1.19)
- 제5대 김광희(세라피나)(1999.1.19~2000.6.20)
- 제6대 황경성(아눈시앗다)(2000.6.20~2003.4.12)
- 제7대 백수용(아녜스)(2003.4.12~2005.12.8)
- 제8대 이한분(스테파니아)(2005.12.8~2008.12.11)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양근옥(레지나)(2008.12.11~　)
–부단장 : 백수용(아녜스)(2010.3.11~　)
–서　기 : 장진희(모니카)(2009.2.12~　)
–회　계 : 이효년(체칠리아)(2010.1.14~　)

천사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89년 10월 13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인자하신 모후 Cu.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왕종희(프란체스카) 초대 단장과 단원 10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당 설립 후 사랑의 샘 Cu.로 소속이 바뀌었다. 용산 베들레헴의 집의 식당 봉사, 마포 어린이 집에서 아기 돌보기와 청소, 작은 둥지에서 노인목욕 봉사, 성모자애원, 대청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서울의료원 봉성체 및 전례 봉사, 하상 바오로 장애복지관에서 점역 봉사 및 노력 봉사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왕종희(프란체스카)(1989.10~1993.8)
- 제2대 김옥란(아녜스)(1993.9~1995.10)
- 제3대 이춘자(실비아)(1995.10~1996.4)
- 제4대 조영희(크리스티나)(1996.5~1998.12)
- 제5대 양영숙(소피아)(1999.1~2001.12)
- 제6대 성복순(스텔라)(2002.1~2004.12)
- 제7대 전혜경(프란체스카)(2005.1~2005.2)
- 제8대 성복순(스텔라)(2005.4~2008.6)
- 제9대 허만숙(스텔라)(2008.6~201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차순옥(소화데레사)(2011.3.10~　)
-부단장 : 강정녀(아녜스)(2008.12.11~　)
-서　기 : 양영숙(소피아)(2009.2.12~　)
-회　계 : 유재이(라파엘라)(2011.6.9~　)

증거자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0년 10월 5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순교자의 모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권복희(모니카)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9년 12월 29일에 1,000차 주회를 가졌으며, 대청 복지관 물리치료 봉사, 삼성병원 주일미사 및 봉성체, 서울의료원 주일미사 및 봉성체, 성모자애원 지적장애아 돌보기 등을 하였고, 2004년 3월부터 해 뜨는 집 아기 돌보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권복희(모니카)(1990.10~1993.2)
- 제2대 조임(미카엘라)(1993.2~1994.12)
- 제3대 양경숙(스테파니아)(1994.12~1997.9)
- 제4대 김매희(크리스티나)(1997.9~1999.2)
- 제5대 권복희(모니카)(1999.2~2002.3)
- 제6대 김양자(라자리나)(2002.3~2002.6)
- 제7대 황인숙(유스티나)(2002.6~2005.1)
- 제8대 조임(미카엘라)(2005.1~2006.1)
- 제9대 김양자(라자리나)(2006.1~2009.1)
- 제10대 최정연(도로테아)(2009.1~2009.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대봉(헬레나)(2009.12.10~　)
-부단장 : 이혜숙(모니카)(2009.12.10~　)
-서　기 : 최은숙(수산나)(2009.11.5~　)
-회　계 : 육해경(실비아)(2011.4.14~　)

로사리오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0년 12월 10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 은총의 모후 Pr.에서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이순영(가타리나)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1년 2월 20일에는 은총의 모후 Pr.을 분단시켰으며, 햇살 놀이방과 수서복지관, 목련치매 주간보호센터, 하남 프란치스코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재 하상 바오로복지관에서 주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순영(가타리나)(1990.12.11~1992.3.10)
- 제2대 한성애(아가타)(1992.3.10~1992.10.13)
- 제3대 이경희(아녜스)(1992.10.13~1994.2.8)
- 제4대 이경자(로사)(1994.2.8~1996.12.17)
- 제5대 이해순(보니파시아)(1996.12.17~2000.113)
- 제6대 정삼남(미카엘라)(2000.1.13~2003.4.22)
- 제7대 김영란(소화데레사)(2003.4.22~2006.5.2)
- 제8대 김옥영(안젤라)(2006.5.2~2009.5.19)
- 제9대 조영숙(스테파니아)(2009.5.19~2009.12.10)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홍기향(율리아나)(2009.12.10~　)
-부단장 : 임복순(수산나)(2009.12.10~　)
-서　기 : 김옥영(안젤라)(2009.5.14~　)
-회　계 : 이윤경(루치아)(2010.11.11~　)

기쁨의 샘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1년 11월 12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완덕의 모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이순자(요안나)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1년 설립 후 성가복지병원 청소. 성로원 아기 돌보기 외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하상 바오로복지관의 식당 봉사와 작업장 보조, 여성의 집 빵 배달, 성모자애복지관 식당 봉사 및 작업장 봉사,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 식당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순자(요안나)(1991.11.12~1995.7.25)
- 제2대 배정애(요안나)(1995.8.1~1997.12.30)
- 제3대 이순자(요안나)(1997.12.30~1999.6.29)
- 제4대 박창혜(젬마)(1999.7.6~2005.2.28)
- 제5대 김순화(젬마)(2005.2.28~2008.2.26)
- 제6대 신희명(젬마)(2008.4.10~2010.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송은경(마리아)(2011.1.13~　)
–부단장 : 이인숙(임마누엘라)(2011.5.12~　)
–서　기 : 신인애(율리아나)(2011.4.14~　)
–회　계 : 이미경(루치아)(2006.1.12~　)

지혜로운 정녀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2년 6월 9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그리스도의 모후 Pr.에서 분단하여 설립되었으며, 임숙희(율리아나) 초대 단장과 단원 9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 5월 3일에는 희망의 모후 Pr.을 분단시켰으며, 수지 성심원과 하상 바오로복지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임숙희(율리아나)(1992.6~1995.6)
- 제2대 박옥수(루치아)(1995.6~1997.5)
- 제3대 최동옥(루치아)(1997.5~2000.6)
- 제4대 박명숙(크리스티나)(2000.6~2003.5)
- 제5대 임숙희(율리아나)(2003.5~2004.6)
- 제6대 임은숙(소피아)(2004.6~2005. 5)
- 제7대 양인숙(에밀리아나)(2005.5~2007.10)
- 제8대 이추하(데레사)(2007.10~2010.10)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박명숙(크리스티나)(2010.10.14~　)
–부단장 : 박진숙(루치아)(2010.10.14~　)
–서　기 : 유현희(아녜스)(2010.10.14~　)
–회　계 : 서영남(마리아)(2009.10.8~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2년 7월 10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성모승천 Pr.에서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전은경(실비아) 초대 단장과 단원 15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요 활동으로 명휘원, 하상 바오로복지관, 연성원, 성모자애원, 삼성병원, 도티병원, 베들레헴의 집, 안나의 집, 가락시장 무료급식 봉사 등을 하였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전은경(실비아)(1992.7.21~1998.12.22)
- 제2대 이재희(데레사)(1998.12.29~2000.5.9)
- 제3대 김은주(데레사)(2000.5.16~2002.6.25)
- 제4대 전은경(실비아)(2002.7.2~2004.6)
- 제5대 김현자(안나)(2004.6.8~2006.9.19)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함명순(가타리나)(2006.9.26~)
–부단장 : 이재호(헬레나)(2009.10.13~)
–서 기 : 김영옥(벨리나)(2010.7.27~)
–회 계 : 김정숙(로사리아)(2011.7.14~)

천상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2년 12월 22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샛별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정영희(데레사) 초대 단장과 단원 7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각 장애인 선교회 성가와 중식 봉사, 수서 명화복지관 중식과 목욕 봉사, 성모자애복지관 치료 보조, 가락동 하상 바오로의 집 중식 봉사, 작은 둥지회, 강남 세브란스병원 안내 봉사, 삼성의료원 원목실 봉사, 철원 문혜요양원, 가평 꽃동네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전단원이 2006년 12월에 파주 군부대 위문공연을 하였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정영희(데레사)(1992.12.22~1996.1.30)
- 제2대 김근순(실비아)(1996.2.6~1996.12.31)
- 제3대 김정희(아녜스)(1997.1.7~1999.9.21)
- 제4대 이영실(베로니카)(1999.9.28~1999.12.14)
- 제5대 황숙희(비비아나)(1999.12.21~2003.3.25)
- 제6대 임춘자(유스티나)(2003.4.1~2006.2.28)
- 제7대 여순영(루치아)(2006.3.7~2007.2.27)
- 제8대 조진숙(수산나)(2007.3.6~2008.2.19)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영순(안나)(2008.3.13~　)
-부단장 : 여순영(루치아)(2009.10.8~　)
-서　기 : 유제경(크리스티나)(2010.3.11~　)
-회　계 : 이옥분(미카엘라)(2010.3.11~　)

하늘의 문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5년 7월 6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창조주의 모후 Pr.에서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고용순(바올리나) 초대 단장과 단원 12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세곡동 성모자애원 노력봉사와 수원 노인복지관 목욕 봉사를 하였다. 그리고 하상 바오로복지관 주방 봉사, 서울 여성보호센터 말벗 봉사, 수지 성심원 노력 봉사, 제대 청소, 역삼 재가 노인복지센터, 상계복지관 수지침 봉사 등의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고용순(바올리나)(1990.7.6~1996.12.10)
- 제2대 김명자(요세피나)(1997.1.28~1998.1.26)
- 제3대 김금순(루치아)(1998.3.3~1999.6.29)
- 제4대 김화숙(소피아)(1999.7.6~2004.11.23)
- 제5대 진정희(데레사)(2004.11.23~2009.6.23)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임영희(골롬바)(2009.79~　　)
-부단장 : 김기현(세레나)2010.1.14~　　)
-서　기 : 장미진(마르가리타)(2011.6.9~　　)
-회　계 : 권기예(마리아)(2011.1.13~　　)

평화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1997년 8월 26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능하신 정녀 Pr.에서 분단, 설립되었으며 노현순(베네딕타)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11년 8월 현재 행동단원 9명과 협조단원 25명, 아듀또리움 단원 3명, 쁘레또리움 단원 3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락동 하상 바오로복지관 노력봉사, 맹인선교회, 제대 청소, 역삼 재가노인복지센터 도시락 배달, 수지 성심원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노현순(베네딕타)(1997.8.26~1999.1.4)
- 제2대 황향순(안젤라)(1999.1.4~2000.4.6)
- 제3대 노현순(베네딕타)(2000.4.6~2003.1.7)
- 제4대 변금희(체칠리아)(2003.1.7~2005.1.4)
- 제5대 오혜순(체칠리아)(2005.1.4~2007.8.14)
- 제6대 변금희(체칠리아)(2007.8.14~2010.8.12)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한일숙(마리아)(2010.8.12~　)
–부단장 : 안미애(젬마)(2010.8.12~　)
–서　기 : 이은희(가타리나)(2010.11.11~　)
–회　계 : 김정혜(클라라)(2011.2.10~　)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2001년 2월 20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로사리오 모후 Pr.에서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이해순(보니파시아)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하상 바오로복지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중식 봉사를 하고 있으며, 여성보호센터 교리봉사와 대모(2009년 17명), 9200부대 방문 미사봉사, 맹인선교회 차량봉사 등을 하였다.

3. 역대 단장

- 초 대 이해순(보니파시아)(2001.3.6~2003.7.1)
- 제2대 이영복(가타리나)(2003.7.1~2004.1.6)
- 제3대 조일순(가타리나)(2004.1.6~2005.1.4)
- 제4대 심숙자(프란체스카)(2005.1.4~2008.1.10)
- 제5대 조일순(가타리나)(2008.1.10~2010.1.13)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안운자(마리스텔라)(2010.1.14~　)
-부단장 : 한영숙(율릿다)(2010.1.14~　)
-서　기 : 김온주(가빌라)(2010.1.14~　)
-회　계 : 추숙희(엘리사벳)(2011.1.13~　)

희망의 모후 쁘레시디움

1. 설립 연월일 : 2005년 5월 3일

2. 주요 연혁과 활동

지혜로운 정녀 Pr.에서 분단되어 설립되었으며, 김경숙(클라라) 초대 단장과 단원 8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1년 8월 현재 행동단원 8명, 협조단원 22명, 아듀또리움 단원 2명이며, 하상바오로복지관 지하 성전 청소를 설립일부터 지금까지 매월 4주째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3. 역대 단장

- 초 대 김경숙(클라라)(2005.5.3~2009.5.13)

4.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재희(데레사)(2009.5.14~　)
-부단장 : 임은숙(소피아)(2010.1.14~　)
-서　기 : 박은하(데레사)(2009.5.13~　)
-회　계 : 김경숙(클라라)(2010.1.14~　)

청년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본당의 각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청년연합회 및 청년단체의 선교 사목을 지도하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에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초기, 사목협의회 구성시기 부터 청소년분과위원회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8대 사목협의회 개편(2001.11)시 기존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청년과 소년으로 나눠지면서 청년사목을 담당하는 청년분과위원회로 분리되었다. 매년 청년회 피정과 11지구 청년체육대회 참가, 청년 여름캠프, 청년의 밤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청년단체 홍보 팸플릿 제작 및 홍보활동, 2009년 11월에 청년단체 회칙 제정 및 정비 등의 활동을 하였다.

4. 역대 분과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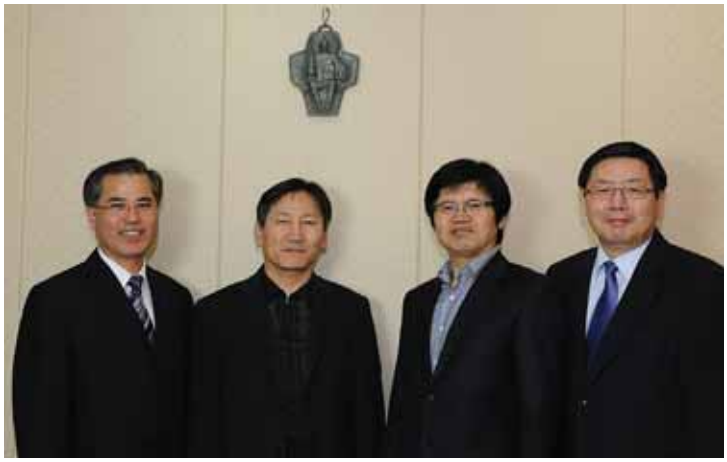
- 초 대 권중원(베드로)(1991.9~1997.10)
- 제2대 최두혁(미카엘)(1998.4~2001.11)
- 제3대 장충현(리노)(2001.11~2003.11)
- 제4대 이종성(돈보스코)(2003.11~2005.10)
- 제5대 최용화(야고보)(2005.11.1~2007.10)
- 제6대 정현윤(스테파노)(2007.11~2009.12)

5. 현 분과위원회 임원현황

-위원장 : 윤병익(레미지오)
-부위원장 : 김태수(안드레아)
-간사 : 김희동(요한)
-위원 : 이한수(안드레아)
-위원 : 윤욱준(비오)

6. 분과위원회 소속 단체현황

청년연합회,
다솜누리 청년전례단,
흔울림 청년성가대,
필레몬 청년합주단,
예그리나 청년선교단



청년연합회

1. 설립 연월일 : 1998년 2월 3일

2. 설립 목적

청년단체 상호간 정보 교환과 나눔 실천, 친목 도모 등 교회 발전과 선교사목에 기여하는 동시에 본당 전체 행사 및 청년행사의 기획 및 실행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조창수 신부의 지도로 1998년 2월에 청년단체의 단체장들이 모여 첫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첫 피정(1998.2.17~19)을 영보수녀원에서 가졌다. 7월부터 청년구역미사와 청년구역모임을 통해 청년반장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매년 청년피정과 여름캠프, 청년의 밤 등을 개최하였으며, 2007년 5월에 청년성모의 밤 개최와 2009년 5월에는 도서 바자회를 통해 불우이웃을 도왔다. 2011년 5월에는 본당 20주년 기념 전신자 기차여행에 협력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신재민(요한)(1998.2.3~1998.12.31)
- 제2대 최성욱(라파엘)(1999.1.1~1999.12.31)
- 제3대 엄상빈(요셉)(2000.1.1~2000.12.31)
- 제4대 김윤진(레지나)(2001.1.1~2001.12.31)
- 제5대 염동욱(미카엘)(2002.1.1~2002.12.31)
- 제6대 배대현(요한)(2003.1.1~2003.12.31)
- 제7대 염동욱(미카엘)(2004.1.1~2004.12.31)
- 제8대 이동건(베네딕토)(2005.1.1~2005.12.31)
- 제9대 황성욱(스테파노)(2006.1.1~2006.12.31)
- 제10대 권순욱(안드레아)(2007.1.1~2007.4.30)
- 제11대 이정아(유스티나)(2007.5.1~2008.12.31)
- 제12대 홍지훈(요셉)(2009.1.1~2009.12.21)

5. 현 임원 현황

–회　장 : 김기민(미카엘)
–부회장 : 최지원(안나),
　　김현규(암브로시오),
　　이주형(비오)
–회　계 : 이선주(아녜스)
–서　기 : 이정나(크리스티나)

다솜누리 청년전례단

1. 설립연월일 : 1994년 10월 5일

2. 설립 목적

전례 봉사를 통하여 미사의 진행을 돕고 단체원들의 전례 연구와 미사 준비 및 기도를 통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가 단원간의 친교와 나눔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어 대치2동 청년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성당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청년 전례단은 13명의 단원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홈페이지 '전례마을'을 개설(2001년)한 뒤 2005년에 싸이월드 클럽(cyworld.com/dasomnuri)으로 바꿨다. 2003년 11월에 청년 전례단에서 '다솜누리' 청년 전례단으로 개명하였다.

4. 역대 단장

- 초 대 김용일(미카엘)(1994~1996)
- 제2대 이태원(율리아나)(1997)
- 제3대 권순욱(안드레아)(1998)
- 제4대 박시알(율리아나)(1999)
- 제5대 홍성호(고스마)(2000)
- 제6대 박주원(헬레나)(2001)
- 제7대 김갑순(베드로)(2002)
- 제8대 이정은(노엘)(2003)
- 제9대 박지은(스피릿다)(2004)
- 제10대 이동건(베네딕토)(2005)
- 제11대 이성빈(세레자 요한)(2006)
- 제12대 구성훈(가브리엘)(2007)
- 제13대 이재윤(가브리엘)(2008)
- 제14대 이주형(비오)(2009)
- 제15대 최성훈(프란치스코)(2010)

5. 현 임원 현황

–단장 : 한지석
. (김대건안드레아)
–부단장 : 김유선(페트리샤)
–부단장 : 김현규(암브로시오)
–회계 : 김민조(미카엘)
–서기 : 정다운(헬레나)
–봉사부장 : 김규리(체칠리아)

한울림 청년성가대

1. **설립연월일 :** 1993년 3월 14일

2. **설립 목적**
청년성가대 '한울림'은 대치2동 본당의 청년미사를 주도하는 단체로서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께 봉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청년성가대 단원 20여명이 첫 창단미사(1993.3.21)를 봉헌하였으며, 명칭을 '한울림'으로 명명(1994.7.3)하였다. 국악미사 봉헌(1993.9.19)을 시작하였으며, 제1회 정기총회(1993.12.28), 제1회 한울림성가발표회(1996.10.3), 한울림성가대 창단 10주년기념행사(2003.8.30), 성가정음악회(2007.12.29) 등 매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93년 8월에 Music Camp를 시작하였으며, 한울림의 밤(1997.12.19), 모꼬지(MT)(1995.1.14~15)를 매년 가졌다.

4. **역대 대장**

- 초 대 이호택(사무엘)(1993.3~1993.12)
- 제2대 전지호(시몬)(1994.3~1994.12)
- 제3대 민선홍(사도요한)(1995.1~1995.12)
- 제4대 박재은(가타리나)(1996.1~1996.12)
- 제5대 김형욱(베드로)(1997.1~1997.12)
- 제6대 강윤정(크레센시아)(1998.1~1998.12)
- 제7대 손형범(1999.1~1999.12)
- 제8대 이지희(체칠리아)(2000.1~2000.12)
- 제9대 이나리(마리아)(2001.1~2001.12)
- 제10대 이태정(레오)(2002.11~2002.12)
- 제11대 박혜진(세레나)(2003.1~2003.3)
- 제12대 김태일(바오로)(2003.3~2003.12)
- 제13대 배두현(미카엘)(2004.3~2004.12)
- 제14대 성지영(세라피나)(2005.3~2005.12)
- 제15대 김수연(아녜스)(2006.3~2006.12)
- 제16대 김영주(세레자 요한)(2007.3~2007.12)
- 제17대 한상훈(프란치스코)(2008.3~2008.12)
- 제18대 최지원(안나)(2009.3~2009.12)
- 제19대 양준석(마르첼리노)(2010.3~2010.8)
- 제20대 채영우(호세아)(2010.8~2010.12)

5. **현 임원 현황**

-대 장 : 이승한(다니엘)　-부대장 : 김소담(로엘라)　-서 기 : 이은정(체칠리아)
-회 계 : 이형석(사도요한)　-전례부장 : 채영민(미카엘)　-음악부장 : 김가형(아눈시아따)

필레몬 청년합주단

1. 설립연월일 : 1999년 2월

2. 설립 목적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악기연주를 통하여 미사 전례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찬미를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1998년 '청년사목방문' 후, 유신재(에드문도 : 현 예수회 신부)가 중심이 되어 본당 청년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하였다. 매주 청년미사에서 연주봉사와 1999년 성모승천대축일에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부터 삼성병원에 매월 1회 연주로 환우 분들의 미사 봉사와 2005년부터 하계 음악연수를 시작으로 2005년 합주단 정기 연주회, 2006년 필레몬 합주단 & 한울림 성가대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2009년 문정1동 성당 '20주년 연합 음악회' 에 찬조출연을 하였다. 2010년 군종교구 제 3대 교구장 유수일 주교 서품 및 착좌식에 연주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2011년, 36명의 청년 신자들이 합주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김재호(암브로시오)(2003.11~2004.10.30)
- 제2대 박지영(크리스티나)(2004.11~2005.10.30)
- 제3대 박재현(프란치스코)(2005.11~2006.7.30)
- 제4대 김원호(세레자 요한)(2006.8~2006.10.30)
- 제5대 김현주(로사)(2006.11~2007.10.30)
- 제6대 오혜영(비르짓다)(2007.11~2008.10.30)
- 제7대 박성환(라파엘)(2008.11~2009.10.30)
- 제8대 이선주(헬레나)(2009.11~2010.10.30)

5. 현 임원 현황

–단 장(Vn.) : 차정윤 (프란체스카)
–부단장(Fl.) : 이혜수(로사)
–회 계(Vn.) : 김선균(라파엘)
–지휘자(Vn.) : 정지은 (그라시아)
–악 장(Vn.) : 박성환(라파엘)

예그리나 청년선교단

1. 설립연월일 : 2007년 9월 9일

2. 설립 목적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나 쉬는 청년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활발한 교회활동을 이끌어 주며, 청년 예비신자 교리 봉사와 본당 청년들의 분기별 교육 및 성경공부를 담당하는데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각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청년들이 모여 청년 선교단이 설립되었다. 청년 예비신자 교리를 보조하고 기도모임을 도와주며, 부활절과 성탄절 때 말씀사탕을 만들어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였다. 2008년에 하반기 11지구 견진성사 교리 봉사를 하였으며, 2010년 8월에 청년 예비신자 지원팀, 청년 교육 지원팀, 청년 성서모임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홍지완(요한 마리아 비안네)(2007.9.9~2008.2.10)
- 제2대 류준희(김대건 안드레아)(2008.2.10~2008.10.26)
- 제3대 박희영(아가타)(2008.10.26~2009.1.6)
- 제4대 이승훈(마태오)(2009.1.6~2009.3.8)
- 제5대 황나연(헬레나)(2009.3.8~2009.7.12)
- 제6대 이승훈(마태오)(2009.11.30~2009.11.30)
- 제7대 이윤주(소피아)(2009.11.30~2010.8.21)

5. 현 임원 현황

–단 장 : 이정나(크리스티나)
–부단장 : 이석준(라파엘)
–교육부 팀장 : 이주형(비오)
–성서모임 팀장 : 나성원(요셉)
부팀장 : 이시은(젬마)
–회 계 : 손정원(미카엘라)
–서 기 : 이수진(베로니카)

소년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및 성소후원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초기 사목협의회 구성시기 부터 청소년분과위원회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8대 사목협의회 개편(2001.11)시 기존 청소년분과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청년과 청소년으로 나눠지면서 청소년분과위원회로서 청소년사목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병학 신부 재임기 중 제9대 사목협의회 개편(2003.11)시에 소년분과위원회로 개칭되었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권중원(베드로)(1991.9~1997.10)
- 제2대 최두혁(미카엘)(1998.4~2001.11)
- 제3대 이종성(돈보스코)(2001.11~2003.11)
- 제4대 권성오(필립보)(2003.11~2005.10)
- 제5대 곽효종(안드레아)(2005.11~2007.11)
- 제6대 윤원호(스테파노)(2007.11~2010.11)

5. **현 분과위원회 임원현황**

-위 원 장 : 임종길(로고)
-부위원장 : 강규련(헬레나)
-간　　사 : 조승현(미카엘)
-위　　원 : 박경진(헬레나), 오창균(바오로), 고진우(다니엘), 나운종(김대건 안드레아)

6. **분과위원회 소속 산하단체 현황**

-첫영성체교사단
-복사단자모회
-주일학교자모회
-초등부저학년교사단
-초등부고학년교사단
-중고등부교사단

첫영성체 교사단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초등부 어린이들의 예비자 교리와 첫영성체 교리를 지도하고 관리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고, 예수님과 성체에 대한 신심을 길러주기 위함에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어머니 교사들로 구성된 '초등부 예비자 교사단' 으로 설립되어 초등부 3학년 이상 어린이들의 예비자 및 첫영성체 교리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충렬 신부 재임시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부모들을 위한 수능 전 40일 기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첫 영성체 교사단에서 40일 기도의 진행과 수능 당일의 부모님 피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수험생 40일 기도를 54일 기도로 바꾸어 진행하였고, 2010년에는 수험생을 위한 부모님의 성경필사 기도모임을 새롭게 만들어 3월부터 월 1회 모임을 갖고 성경필사와 신부님의 강의 및 기도로 진행하여 수험생 54일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4. 역대 단장

- 초 대 박순민(아가타)(1991.9~?)
- 제2대 김해련(클라라)(?)
- 제3대 성기란(아녜스)(?)
- 제4대 이영심(실비아)(?)
- 제5대 김복숙(루피나)(?)
- 제6대 신소정(율리아나)(2004.12~2005.11)
- 제7대 김은경(체칠리아)(2005.12~2006.11)
- 제8대 곽금호(테클라)(2006.12~2007.11)
- 제9대 방안나(안나)(2007.12~2008.11)
- 제10대 김희경(헬레나)(2008.12~2009.11)
- 제11대 신소정(율리아나)(2009.12~2010.11)

5. 현 임원 현황

–단장 : 곽금호(테클라)

복사단 자모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돕는 초등부 복사단의 협조 단체로써 어린이 복사단을 후원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대치동 성당의 솔로몬 복사단 중 4~5학년 10명이 본당 설립에 따라 성전이 완성되기 전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복사활동을 첫 시작하였다. 미리내 성지순례(1996.10.26), 아침고요 수목원 일일 피정(1997.6.9) 등과 다섯 번의 본당 사제 서품식에 참석하였으며, 매년 성소주일에 복사단과 함께 신학교를 방문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강경화(프란체스카)(1991.9~1993.2)
- 제2대 양영숙(소피아)(1993.3~1994.2)
- 제3대 박은자(아녜스)(1994.3~1995.2)
- 제4대 성기란(아녜스)(1995.3~1996.2)
- 제5대 이경순(루치아)(1996.3~1997.2)
- 제6대 정난미(스텔라)(1997.3~1998.2)
- 제7대 박경심(마리아나)(1998.3~1999.2)
- 제8대 유금순(가타리나)(1999.3~2000.2)
- 제9대 이을선(이유딧)(2000.3~2001.2)
- 제10대 고윤희(데레사)(2001.3~2002.2)
- 제11대 유경아(논나)(2002.3~2003.2)
- 제12대 권현숙(비비아나)(2003.3~2004.2)
- 제13대 박성희(아녜스)(2004.3~2005.2)
- 제14대 안기주(모니카)(2005.3~2006.2)
- 제15대 김승희(데레사)(2006.3~2007.2)
- 제16대 김현주(라파엘라)(2007.3~2008.2)
- 제17대 양희수(클라라)(2008.3~2009.2)
- 제18대 박명순(유스티나)(2009.3~2010.2)
- 제19대 김영미(실비아)(2010.3~2011.2)

6. 현 임원 현황

–단　장 : 강효정(미카엘라)

–부단장 : 이효재(마틸다)

주일학교 자모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유아, 초등부 및 중고등부 주일학교 활동을 후원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주일학교에 자녀를 둔 자모들의 후원회비와 본당 지원금 등의 기금으로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간식과 부활, 성탄시기에 선물을 제공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딸기잼, 유자차 등을 팔아 간식비에 보태었고, 2006년에 커피 자판기와 캔 음료 자판기를 맡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쓰고 있다. 또한 자모회비를 적립하여 주방 냉장고(2005), 만남의 방에 자판기(2006), 교리실 칠판(2009), 교사단 캠코더(2009), 주방 에어컨(2010) 등을 기증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장연숙(헬레나)(1991.11~1992.10)
- 제2대 호명진(마리아)(1992.11~1993.10)
- 제3대 강규련(헬레나)(1993.11~1995.10)
- 제4대 박경심(마리아나)(1995.11~1996.10)
- 제5대 허양구(아가타)(1996.11~1997.10)
- 제6대 조영란(체칠리아)(1997.11~1998.10)
- 제7대 최예윤(마르타)(1998.11~2000.10)
- 제8대 고윤희(데레사)(2000.11~2001.10)
- 제9대 신소정(율리아나)(2001.11~2002.10)
- 제10대 곽금호(테클라)(2002.11~2003.10)
- 제11대 이지현(마틸다)(2003.11~2004.10)
- 제12대 방미란(스콜라스티카)(2004.11~2005.10)
- 제13대 강정연(크리스티나)(2005.11~2006.10)
- 제14대 남영이(소화테레사)(2006.11~2007.10)
- 제15대 박명순(유스티나)(2007.11~2008.10)
- 제16대 김남희(가타리나)(2008.11~2009.10)
- 제17대 박경진(헬레나)(2009.11~2010.10)

5. 현 임원 현황

–회　장 : 이유진(아나스타샤)
–부회장 : 이성희(요세피나)
–총　무 : 전성희(스테파니아)
–서　기 : 김희라(엘리사벳)
–전　례 : 안문숙(베로니카)
–봉　사 : 김남희(율리아나)

초등부 저학년 교사단

1. 설립연월일 : 2007년 1월 27일

2. 설립 목적

초등부 저학년(유아, 유치, 1학년, 2학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주일학교 교사들이 인도함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올바른 교리 교육을 위한 교안연구와 교사간의 일치를 위한 회합을 통해 교사교육, 정보교환,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설립시 박수환 신부의 지도 아래 초대 교사 이경금(안젤라) 외 7명은 유아(5,6세), 유치(7세), 초등 1학년, 2학년 4개 반으로 편성 후 교사들은 신입 교사학교 수료를 시작으로 지구 월례교육을 받고 교리교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교사 부족으로 유아부를 폐지하였으나 2010년부터 유아부를 재편성하여 4개의 반으로 개찬하였다. 매년 봄, 가을소풍, 성모의 낮, 부활잔치, 신앙학교, 은총잔치, 사순시기 사랑을 나눠요, 성탄 예술제 등을 개최하였다.

4. 역대 교감

- 초 대 이경금(안젤라)(2007.1.27~12.31)
- 제2대 이명자(비비아나)(2008.1.1~12.31)
- 제3대 방데레사(데레사)(2009.1.1~12.31)
- 제4대 김희경(헬레나)(2010.1.1~2011.8.31)

5. 현 임원 현황

–교감 : 박정윤(실비아)
–서기 : 이선희(빅토리아)
–회계 : 최송희(바올리나)

초등부 고학년 교사단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리교육과 신앙생활을 지도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주일학교 교무와 운영활동을 수행하고 교사 개개인의 성화와 본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초기부터 활동을 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3시 어린이 미사, 4시 주일학교 교리를 운영하며 무지개동산 여름 캠프와 성탄예술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4. 역대 단장

- 초 대 배재훈(스테파노)(1991)
- 제2대 임우균(베드로)(1992)
- 제3대 신재민(요한 (1993)
- 제4대 노유승(아킬레오)(1994)
- 제5대 백지원(루치아)(1995)
- 제6대 주완호(1996)
- 제7대 이현진(루치아)(1997)
- 제8대 장지영(아녜스)(1998)
- 제9대 박윤석(사도요한)(1999)
- 제10대 배두현(미카엘)(2000)
- 제11대 박윤석(사도요한)(2001)
- 제12대 장 영(가밀라)(2002)
- 제13대 한유섭(미카엘)(2003)
- 제14대 김복숙(루피나)(2004)
- 제15대 신소정(율리아나), 안승현(프란치스코)(2005)
- 제16대 황원선(미카엘)(2006~2007) 제17대 장혜리(유스티나)(2008~2009)
- 제18대 정동원(요셉), 김선민(율리아나)(2010) 제19대 문유석(페르디난도3세)(2011)

5. 현 임원 현황

–교감 : 안해조(아나톨리아)
–교무 : 장희준(다니엘)
–총무 : 이우정(베르나데트)
–서기 : 이선민(안나)

중고등부 교사단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리교육과 신앙생활을 지도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주일학교 교무와 운영활동을 수행하고 교사 개개인의 성화와 본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초기부터 활동하였으며, 매 주일 9시 미사 및 교리교육을 하였다. 매년 여름캠프와 겨울피정, 수험생 피정 등을 개최하였다. 여름 캠프는 최근 공세리성당(2008), 가평 푸른누리수련원(2009), 전주 수류성당(음악캠프)(2010), 인천 신도성당(2011) 등에서 하였고, 겨울피정은 영월 자연학교(2008), 바다의 별 수련원(2009), 수험생 피정은 수지 성모성심원(2009), 강원 청소년수련관(2010)에서 가졌다.

4. 역대 단장

• 초 대 정 훈(마론)(1991~1992) • 제2대 신익준(니콜라오)(1992~1993) • 제3대 김정호(바오로)(1993~1994) • 제4대 임민균(그레고리오)(1994~1995) • 제5대 전치형(시몬)(1996~1997) • 제6대 한승훈(다미아노)(1997~1998) • 제7대 장호원(요셉)(1998~1999) • 제8대 조윤행(베드로)(1999~2000) • 제9대 최창완(요한)(2000~2001) • 제10대 박지윤(레지나)(2001~2002) • 제11대 임철우(그레고리오)(2002~2003) • 제12대 조재현(프란치스코 사베리오)(2003~2005) • 제13대 조승현(미카엘)(2005~2006) • 제14대 백서영(데오도라)(2006~2007) • 제15대 조승현(미카엘)(2007~2008) • 제16대 김인철(베네딕토)(2008~2009) • 제17대 조승현(미카엘)(2009~2010) • 제18대 김연우(아녜스)(2010~2011)

5. 현 임원 현황

–교감 : 이루다(로사)
–총무 : 진재연(가타리나), 권진성(모세)
–서기 : 조연지(가타리나)

사회사목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 목적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개인의 성화와 하느님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 초기부터 사회복지분과로 설립되어 여성 노인층의 친목과 연령 봉사를 하는 연령회를 소속단체로 두었다. 1995년에 연령회, 성모성심회, 노장대건회로. 1997년 성모성심회로, 1999년에는 성모성심회, 성소기도회, 나눔회로 소속단체의 변화가 있었다. 2004년에 사회사목분과로 개칭되면서 선종봉사회, 성모성심회, 나눔회를 두었으며. 2009년에 선종봉사회가 연령회로 개칭되었다. 주요 활동은 본당 헌혈의 날, 의료 및 법률, 세무 상담, 무료급식 노력봉사(레지오와 연계), 태안 원유유출지역 기름제거 작업(2007) 등의 활동을 펼쳤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유승재(아우구스티노)(1991.9~1994.7)
- 제2대 권혁노(프란치스코)(1994.7~1997.10)
- 제3대 남궁칠(미카엘)(1998.4~1991.1)
- 제4대 유병국(마티아)(1999.1~1999.11)
- 제5대 정길현(스테파노)(1999.11~2001.11)
- 제6대 노창수(라이문도)(2001.11~2003.11)
- 제7대 이상린(프란치스코)(2003.11~2007.11)
- 제8대 박철제(베네딕토)(2007.11~2010.11)

5. 현 분과위원회 임원 현황

–위원장 : 채준석(토마스)
–부위원장 : 조규홍(베드로)
–회계 : 권영방(바오로)
–간사 : 신홍자(말가리다)

6. 분과위원회 소속단체 현황

연령회, 성모성심회, 나눔회

연령회

1. 설립연월일 : 1992년 3월 28일

2. 설립 목적

연령회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한 몸이 되고,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가기 위함과 성인의 통공, 믿음 안에서 고인에 대하여 기도와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상가를 정성껏 돌보아 주어 죽음의 부활과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도록 한다. 이 신비를 체험함으로써 비신자인 경우에는 입교를, 쉬고 있는 교우는 회개를, 교회 발전과 선교에 기여함과 선종하신 분을 위한 상가 돌봄, 염습, 입관, 출관, 장례미사, 장지수행에 정성을 다하는 봉사자가 되는데 목적을 둔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초기 설립 시 연령회는 노인교우의 친목 도모가 중심인 단체였으며, 박순기(베드로) 초대 회장과 봉사자들은 할머니 연령회 회원을 위한 봉사와 함께 선종교우 봉사활동도 병행하였다. 1998년 5월에 정재익(가누토) 2대 회장 때부터 선종봉사를 전담하는 봉사자 조직구성과 연도 교육 등을 받아 염습까지 실시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2004년에 정식으로 선종봉사회 단체로 분리, 설립되었다. 2009년에 교구의 명칭 통일지침에 따라 연령회로 바뀌었다. 정례적인 상가 돌봄 외에 유가족을 위한 위령미사(2009.11.21, 2010.11.20) 등의 활동을 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박순기(베드로)(1992.3.28~1998.5.12)
- 제2대 정재익(가누토)(1998.5.13~2000.8.31)
- 제3대 송진선(야고보)(2000.9.1~2001.1.31)
- 제4대 조명승(가리노)(2001.2.28~2004.6.12)
- 제5대 김진규(스테파노)(2004.613~2007.11.20)
- 제6대 한영수(루카)(2007.11.21~2010.11.20)

5. 현 임원 현황

–회　장 : 남갑현(요셉)
–부회장 : 김연진(프란치스코)
–총　무 : 장영심(아녜스)
–회　계 : 강수미(클라라)

성모성심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12월 16일

2. 설립 목적

대치2동 성당 어머니들이 교회의 어머니시며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성심을 본받아 깊은 믿음과 용기 있는 실천으로 자신과 이웃을 성화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당 발전과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협조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사목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봉사단체로써 매월 2회 첫째, 셋째 주일 물품 판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각종 단체 행사지원 및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혼배 미사때에 폐백 봉사를 년 25회 이상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부활 성야미사 때 생강차 제공, 의정부 이주노동자상담소 후원, 예비신자 환영회 봉사, 괴산 소년 작은 예수의 집 후원, 2008년 필리핀 우물파기 지원, 해바라기 프란치스코의 집 후원, 구룡마을 바오로의 집 후원 등의 활동과 갈뫼못 성지, 공세리 피정의 집 피정을 하였다.

4. 역대 회장

- 초 대 박유자(요세피나)(1992~1996)
- 제2대 손성숙(가타리나)(1997~1997)
- 제3대 최희숙(안젤라)(1998~2000)
- 제4대 강수미(클라라)(2001~2002)
- 제5대 이순자(베로니카)(2003~2006)
- 제6대 황국실(안젤라)(2007~2008)
- 제7대 옹행자(요안나)(2009~2010)

5. 현 임원 현황

-회장 : 이남례(체칠리아)
-총무 : 배현병(리디아)
-서기 : 양춘희(레지나)
-회계 : 이정진(리드비나)

나눔회

1. 설립연월일 : 1999년 1월

2. 설립 목적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가난하며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함으로써 참된 인간화와 복음화가 이루어져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고명철 신부 부임 후 본당 나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13개월 교무금을 나눔 후원금으로 하는 사목방침에 따라 사목협의회 사회사목분과 소속으로 나눔회가 1999년 1월에 설립되었다. 매월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물질적 지원과 함께 장애인 가정 청소 및 차량봉사, 무료 급식소 봉사 등의 수시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하남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 소년예수의 집 등 회원들은 매 분기별로 복지시설의 가족을 모시고 경로잔치나 야외 나들이, 여름캠프 등의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역대 회장

- 초 대 김명승(프란치스코)(1999.1~2003.12)
- 제2대 원명숙(율리아나)(2004.1~2008.12)
- 제3대 곽원섭(스테파노)(2009.1~2010.12)

5. 현 임원 현황

-회장 : 채준석(토마스)
-서기 : 김경옥(스텔라)
-회계 : 홍기향(율리아나)

관리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1년 9월 5일

2. **설립목적**
   본당 성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설립시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성전 준공까지 현장 공사에 따른 활동을 하였다. 이후 정기적 안전 점검과 시설 개보수, 성전의자 보수작업, 성당 외벽공사, 유아방과 고해소 공사, 조명등 설치와 멀티미디어 시설 설치 등을 하였다. 그리고 초기에는 시설관리분과였으나 1996년에 시설분과, 2007년에 성전보전분과로, 다시 2011년에 관리분과로 개칭되었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이중표(파트리치오)(1991.9~1993.11)
- 제2대 오부석(토마스)(1993.11~1996.11)
- 제3대 최성기(베드로)(1996.11~1997.10)
- 제4대 김지석(가브리엘)(1998.4~2003.11)
- 제5대 김용철(루피노)(2003.11~2005.10)
- 제6대 박창일(클레멘스)(2005.11~2007.11)
- 제7대 최용화(야고보)(2007.11~2010.11)

5. **현 분과위원회 임원 현황**
   -위원장 : 장기영(바실리오)
   -조　경 : 심 영(세라피나)
   -전　기 : 서남석(돈보스코)

노인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1996년 11월

2. **설립 목적**
노인 신자들에 대한 신심활동과 교육, 여가 선용, 노인대학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이상훈 신부 부임 후 노인분과위원회를 정식으로 설치하고 분과장을 선임하면서 소속단체로 노장대건회를 두고 활동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연령회가 추가로 소속되었다. 2004년에 대치동성당의 한티솔로몬대학 설립에 따라 본당 노인신자들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김자문 신부 때에 본당 노인대학인 '성 요셉 아카데미'를 설립(2008.5.7)하였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송진선(야고보)(1996.11~1997.10)
- 제2대 서상현(베드로)(1998.4~1999.1)
- 제3대 송진선(야고보)(1999.1~1999.11)
- 제4대 송현철(라파엘)(1999.11~2001.11)
- 제5대 이계원(요한)(2001.11~2003.11)
- 제6대 남궁칠(미카엘)(2003.11~2005.10)
- 제7대 김명준(남명혁 다미아노)(2005.11~2010.10)

5. **현 분과위원회 임원 현황**
위원장 김은옥(모니카)
부위원장 주정선(데레사)
위원 최용화(야고보), 김영환(마리아), 강금화(미카엘라), 이명재(마리아)

6. **분과위원회 소속단체 현황**
성 요셉 아카데미

성 요셉 아카데미

1. 설립연월일 : 2008년 5월 7일

2. 설립 목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 신자의 신앙 제고를 위한 오름회 방식의 영성적 측면의 프로그램과 여가 활용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본당 고유의 새롭고 활기찬 운영방식에 따라 노년층 신자의 신심 고양과 새로운 가톨릭 노인문화 창달을 목표로 한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본당 노인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되던 중 김자문 신부 부임 후 본격적인 노인대학 설립 준비 작업을 진행하여 2008년 5월 7일에 이수재(요셉) 초대 학장과 봉사자들, 학생 50명으로 첫 개설되었다. 매주 수요일 학교 운영을 하며, 봄, 가을 성지순례와 함께 문화와 취미, 영성 강좌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식 때 작은 발표회를 열고 일년에 한 번은 문집을 발간, 제1집은 2011년 7월에 간행하였다.

4. 역대 학장

- 초 대 이수재(요셉)(2008.5~2009.11)

5. 현 임원 현황

-학 장 : 김은옥(모니카)

홍보분과위원회

1. 설립연월일 : 2006년 11월 1일

2. 설립 목적

본당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함께 본당 발자취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체제 구축하고 관할구역 내 공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있다.

3. 주요 연혁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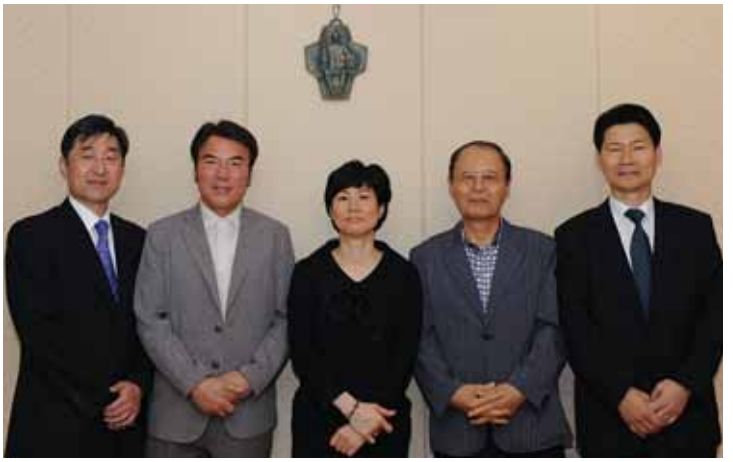
김자문 신부의 제안으로 미디어 선교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유상규(사비오) 초대 분과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본당 주보를 증면하였고, 성가정 소식란 편집 활동과 홈페이지 구축준비를 하였다. 2008년부터 본당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선교를 시작하였고, 교중미사의 강론을 동영상으로 게재하고 있다. 본당 각종 행사시의 사진 촬영, 본당 행사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였으며 2009년 TV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례 실황을 중계하는 한편 강론, 특강 등의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4. 역대 분과위원장

- 초 대 유상규(사비오)(2006.11.1~2007.10.30)

5. 현 분과위원회 임원 현황

-위원장 : 최재철(안드레아)
-부위원장 : 이찬영(요셉)
-위원 : 정웅교(바오로), 한승훈(베드로), 민태철(프란치스코), 최은미(히아친타)



부록

본당 관할 구역

1) 관할 구역 : 대치2동

2) 성당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993번지

3) 구역 및 반수 : 15개 구역 98개 반

4) 관할구역도 :

본당 사목 현황

1. 복음화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지역인구수(A)	47,547	52,073	49,744	49,004	46,947	46,341	45,425
본당신자수(B)	7,084	7,586	7,810	7,864	8,011	8,419	8,518
복음화율(B/A)	14.9%	14.6%	15.7%	15.9%	17.0%	17.6%	18.7%

구분 \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역인구수(A)	44,796	35,376	35,310	35,421	35,296	35,071	33,203
본당신자수(B)	8,614	7,545	7,865	8,141	8,256	7,145	7,044
복음화율(B/A)	19.2%	21.3%	22.3%	23.0%	23.4%	20.4%	21.2%

구분 \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역인구수(A)	32,709	31,696	31,803	31,896	31,935	32,198
본당신자수(B)	7,254	7,548	7,860	7,367	7,623	7,923
복음화율(B/A)	22.1%	23.8%	24.7%	23.1%	23.9%	24.6%

2. 신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총세대수		2,269	2,441	2,529	2,573	2,668	2,759	2,766
신자수	남	3,033	3,273	3,359	3,353	3,394	3,463	3,639
	여	4,051	4,313	4,451	4,493	4,617	4,686	4,879
	계	7,084	7,586	7,810	7,846	8,011	8,149	8,518
주 일 미 사	인원				2,600	3,750	2,500	3,390
	비율				33.1%	46.8%	30.7%	39.7%
예 비 신 자	남		161	154	90	106	98	187
	여		199	216	101	178	134	195
	계		360	370	191	284	232	382

구분 \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세대수		2,767	2,447	2,591	2,743	2,799	2,352	2,343
신자수	남	3,656	3,234	3,376	3,490	3,539	3,102	3,035
	여	4,958	4,311	4,489	4,651	4,717	4,043	4,009
	계	8,614	7,545	7,865	8,141	8,256	7,145	7,044

주 일 미 사	인원	2,870	2,500	2,500	2,550	2,260	2,240	2,264
	비율	33.3%	33.1%	31.8%	31.3%	27.4%	31.3%	32.1%
예 비 신 자	남	81	98	68	80	43	91	84
	여	118	148	100	119	76	137	101
	계	199	246	168	199	119	228	185

구분 \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세대수		2,450	2,578	2,712	2,500	2,610	2,743
신자수	남	3,120	3,276	3,437	3,244	3,359	3,499
	여	4,134	4,272	4,423	4,123	4,264	4,424
	계	7,254	7,548	7,860	7,367	7,623	7,923
주 일 미 사	인원	2,250	2,313	2550	2,046	2,134	2,250
	비율	31%	31%	34%	28%	28%	28%
예 비 신 자	남	95	68	112	81	102	116
	여	106	103	161	125	107	127
	계	201	171	273	206	209	243

※ 주일미사 참여자수는 매주일 참여자수의 평균. 주일미사 참여자의 비율은 신자 총수에 대한 비율
※ 예비신자 수는 당해년도말 7세 이상 영세자 기준.

3. 신자 증감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연초 신자수		8,033	7,084	7,586	7,810	7,846	8,011	8,149
증가	세 례 자	24	380	403	212	318	269	413
	교구내전입	219	460	395	399	428	438	331
	타교구전입	53	138	148	157	127	170	155
	계	296	978	946	768	873	877	899
감소	교구내전출	72	251	336	381	360	370	261
	타교구전출	38	193	347	316	317	339	225
	사 망	13	32	39	35	31	30	44
	거주불명	1,122						
	계	1,245	476	722	732	708	739	530

연말 신자수	7,084	7,586	7,810	7,846	8,011	8.149	8.518
증감	▼949	▲502	▲224	▲36	▲165	▲138	▲369

구분 \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초 신자수		8,518	8,614	7,545	7,865	8,141	8,256	7,145
증가	세 례 자	228	292	201	230	147	262	208
	교구내전입	407	480	497	1,429	533	674	501
	타교구전입	178	217	272	152	173	163	175
	계	813	989	970	1,811	853	1,099	884
감소	교구내전출	394	1,813	385	1,196	414	1,909	724
	타교구전출	283	207	246	303	307	283	235
	사 망	40	38	19	36	17	18	26
	거주불명							
	계	717	2,058	650	1,535	738	2,210	985
연말 신자수		8,614	7,545	7,865	8,141	8,256	7,145	7,044
증감		▲96	▼1,069	▲320	▲276	▲115	▼1,111	▼101

구분 \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연초 신자수		7,044	7,254	7,548	7,860	7,367	7,623	
증가	세 례 자	195	175	285	201	203	240	
	교구내전입	352	489	357	405	458	452	
	타교구전입	225	186	195	153	220	149	
	계	772	850	837	759	881	841	
감소	교구내전출	319	332	358	1,024	397	352	
	타교구전출	221	208	142	201	189	159	
	사 망	22	16	25	27	39	30	
	거주불명							
	계	562	556	525	1,252	625	541	
연말 신자수		7,254	7,548	7,860	7,367	7,623	7,923	
증감		▲210	▲294	▲312	▼493	▲256	▲300	

4. 영세 현황 (성인, 유아 모두 포함)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2	12	172	208	173	230	97	115	121	197	116	153	213	214
계	24		380		403		212		318		269		427	
전년비 증감			1483.3%		6%		−47.3%		50%		−15.4%		58.7%	

구분 \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98	130	120	172	82	119	97	133	58	89	106	156	96	112
계	228		292		201		230		147		262		208	
전년비 증감	−46.6%		28%		−31.1%		14.4%		−36%		78.2%		−20.6%	

구분 \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93	102	70	105	123	162	80	121	100	103	115	125	
계	195		175		285		201		203		240		
전년비 증감	−6.2		−10.2		62.8%		−29.4		0.1		18.2		

5. 견진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56	184			77	142	36	75	121	205		
계			340				219		111		326			
전년비 증감									−49.3%		193.6%			

구분 \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33	245	105	210	84	89	61	106	47	62	64	88	46	71
계	378		315		173		167		109		152		117	
전년비 증감			16.6%		−45%		−3.4%		−34.7%		39.4%		−23%	

구분 \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48	62	55	80	84	176	80	113		1	115	128	
계	110		135		260		193		1		243		
전년비 증감	−5.9		22.7		92.6		−25.8		−99.5		242		

※ 1991년, 1993년, 1997년, 2009년 견진 없었음

역대 사무장 현황

성명(세례명)	임기	비고
최혜선(요한 돈보스코)	1991.8~1996.8	
김용식(요셉)	1996.9~1997.3	
김형환(안드레아)	1997.4~1998.9	
이상태(안드레아)	1999.1~2008.1	
김종헌(베드로)	2008.2~ 현재	

본·당·연·표

1988년

3. 4 본당 신축 부지 712평 매입
6. 1 대치2동 성당 분활 공식 발표

1989년

1월 성전 건립 건축설계 발주(도성무이 건축사무소)
2.27 본당 신축 헌금(2382세대 약정)
3. 5 신축 헌금 약정세대, 추가 청약 공지
10.22 대치2동 본당 성전 기공식

1991년

8.23 서울대교구 대치2동 본당 설립인가
9. 5 최광연(모세) 주임 신부 부임
박희원 (보니파시오)신부 부임
김정숙 (안젤라)수녀 부임
9. 6 본당 첫 미사 봉헌(지하 2층 주차장 임시성전)
9. 7 주일학교 개학과 초등부 첫 교리
9. 8 본당 설립 첫 주일미사 봉헌
본당 주보 1호 발간
9.11 월례미사와 반장회의 시작
9.13 김화순(런네마리) 원장수녀 부임
9.13~15 M·E 피정(성 베네딕토 피정의 집)
9.17~11.21 구역반 가정방문
10.15 여성 Cu. 전단원 일일피정
11. 7 여성 Cu.,Pr. 간부 일일피정(용인 나눔의 집)
11.12 성전건축 3차 설계 변경
11.19~21 고3 피정(부천 은혜의 집)
12 .8 울뜨레야 정기총회 및 송년 행사
12.23 꼬마들의 성탄(초등부)
12.26 별빛따라(중고등부)

1992년

1.12~20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9일 기도
2.25~26 고등부 겨울 성경학교
2.27~28 중등부 겨울 성경학교
3.19 성모성심회 일일피정(성바오로 피정의 집)
3.26 성가대 일일피정(성바오로 피정의 집)
4. 2 헌화회 일일피정(성바오로 피정의 집)
4. 5 식목일 전후 성전 식수 봉헌 받음
4. 9 초빙 교양특강(현대여성과 부모 역할–김인자 교수)
4.30 주일학교 자모회 일일피정(성바오로 피정의 집)
5.12 인자하신 모후 Cu. 야외행사(춘천 중도 유원지)
5.18 노장대건회 성지순례(남양성지)
5.19 사랑의 샘 Cu. 야외 행사(춘천 중도 유원지)
5.20~6.1 스테인드글라스 시공
5.20 축성식 협의 임시 상임위원회 개최
5.23 첫 영성체
5.25 교양특강(현대 사회와 부모 역할–김인자 교수)
5.28 사도회 설립, 축성식 준비위원회 설치 구성
5.30 성모의 밤, 헌미헌금 봉헌(13,420,000원)
6. 4 축성식 전례 연습(백성호 신부)
교양특강(창의성을 키우는 자녀교육–이성호 교수)
6.11~19 성전 축성식 준비를 위한 공동 묵주기도
6.16~17 14처상 부착
6.17 축성식 전체봉사자 실시 연습
공동 고해성사 및 참회미사 봉헌
6.18 성모상 안치,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봉헌
6.20 새 성전 축성식(김수환 추기경 집전)
6.28 한마음 한몸 헌혈의 날
7. 6 성전 준공 검사필증 교부
7. 7 성가족상 부착
7.21~23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7.28~30 무지개동산(양지 리조트 연수원)
7.28~31 코이노니아(양지 리조트 연수원)
9. 5 샛별 Cu. 전단원 피정(아론의 집)
9.14 반장단 성지 순례(공주 황제 바위)
9.21 연령회 성지 순례(연풍성지)
9.18 사목방문(제1차)
9.20 청년그룹 성서 개강(제1회)
9.22 사랑의 샘 Cu. 전단원 성지순례(풍수원 성당)
9.23 박희원(보니파시오) 신부 이임
9.26~27 중고등부 학생 영세식(137명)
9.29 인자하신 모후 Cu. 전단원 성지 순례(남양성지)
9.30 한마음 헌미헌금 봉헌(11,880,000원)
10.1 초빙 교양특강(셱익스피어의 비극세계–여석기 교수)
10.4 불우이웃돕기 알뜰시장 개장
10.8 송천오(안드레아) 신부 부임
10.11 본당 상담실 개설(주1회 : 4개 분야)
10.16 강문일(요한) 신부 부임
11.18 교적 일제정리(행불처리 1,122명, 581세대)
11.19 성모성심회 성지순례(해미 성지)
11.21~22 사목위원 피정 및 정기 총회(은혜의 집)
11.27 장년성가대, 헌화회 일일피정(용인 나눔의 집)
11.28 견진성사(340명)
12. 9~23 성탄 판공성사(3,778명)
12.25 봉사자 송년의 밤
12.23,29 주일학교 성탄 예술제(초, 중, 고)
12.26~28 고 3 피정(과천 영보 수녀원)

1993년

1. 6~7 구역 반장단 연례 피정(한마음 108명)
1.25~29 중고등부 피정(싸리재)
2.25 어버이 성사 가족 입문강의
3. 4 여성 Cu. 간부 직책교육
3. 4~4.30 제8기 환경학교 실시(145명 수료)
3.13 청년성서 개강
3.21"본당은 우리" M·E 사도직 일일피정
3.23 흔울림 청년 성가대 창단
3.26 주일학교 자모회 일일피정(명상의 집)
3.31~4.13 레지오 전단원 아치에스 행사(3개 Cu.)
3.29~4.3 부활 판공성사(3,905명)
4.18 영세식(성인반 103명)
5.12 반장단 야외 행사 (문경세재)
6. 5~6 말씀의 봉사회 피정(성모 교육원)
6. 6 울뜨레아 배티성지 순례
6.12 첫 영성체(70명)
6.13 청년 전례단 신설
6.19 샛별 Cu. 전단원 피정(과천 영보 수녀원)
6.27 사도회 정기 총회
7. 7 초빙 교양특강(사회 변화와 적응-지용희 교수)
7.13, 20 여성 Cu. 레지오 전단원 토론대회
7.20~22 무지개 동산(용인 영보)
7.26~27 코이노니아(공세리 성당)
8.10~12 청년 성가대 수련회(작은 예수회)
8.29 청년그룹 성서 개강
사목활동 보고회 및 봉사자 친교의 밤(280명)
9. 9 초빙 교양특강(행복한 부부생활—김상태 박사)
9.25 초등부 주일학교 은총시장 개장
9.20 주일 미사(청년, 일반) 국악미사 봉헌 시작
9.26 중고등부 주일학교 성지 순례
10.10 불우 이웃돕기 알뜰시장 개장(수익금 3,000,000원)
10.23 영세성사(초등부)
10.31 9지구 울뜨레아 본당에서 개최
11. 5 강문일(사도 요한) 신부 이임
11. 7 본당 헌혈의 날 행사(67명)
11.14 본당 총회장 이취임(2대 윤성노 니콜라오)
12. 3 김종원(요한) 신부 부임
12. 6 어버이 성서가족 수료 미사
12.12 성전 유리화(스테인드 그라스) 리플렛 및 엽서 발행
12.17~23 성탄 판공성사(4,026명)
12.23 꼬마들의 성탄(초등부 예술제)
12.26 봉사자 송년의 밤 행사(250명)

1994년

1. 5~7 중고등부 피정(명상의 집)
1.12~13 구역 반장단 피정(용인 영보)
1.19 연령회 신년모임(척사대회)
2. 1~3 청년 피정(꼰벤뚜알)
2.25 김화순(런네 마리) 원장 수녀 이임
권은희(베네딕타) 원장수녀 부임
이계월(마리 율리아나) 수녀 부임
2.28~3.28 사순절 월요 특강(5회 900명)
3. 5~6 새 영세자(훼밀리 3기) 피정(아론의 집 43명)
3. 9 주일학교 어머니 일일피정(수원 말씀의 집)
4.21 비디오 포럼 시작(매주 목요일-크쉴롭스키의 십계)
성모성심회 성지순례(연풍성지)
5.18 복사단 제11지구 체육대회 참가
5.28 성모의 밤 행사
5.29 본당 헌혈의 날(70명)
6. 7 첫 영성체 어린이 작은 둥지 양로원 방문
6.14 여성Cu. 전단원 피정(380명)
6.19 동호인 결성을 위한 설문 조사
견진성사(219명)
6.23 이웃과 함께하는 초빙 교양특강(140명)
(밝은 가정 만들기-조동춘 교수)
7. 2~3 샛별꾸리아(남성) 전단원 피정(용인 영보 126명)
7.19~21 여름 성경학교(96명)
7.22 초빙 교양특강(복된 가정-송열섭 신부)
7.26~28 무지개 동산(배론성지 120명)
8. 1~4 코이노니아(용인 영보)
8. 7~10 청년 성가대 하계 수련(강원 옥계 40명)
8.28 사목활동 보고회 및 봉사자 친교의 밤 행사(300명)
9. 3~4 새 영세자 피정(용인 나눔의 집 80명)
9.11 중고등부 백일장(양재 시민의 숲)
9.30 교양특강(밝은 마음, 밝은 세상-석용산 스님, 970명)
10.13 노장대건회 성지 순례(남양성지)
연령회 성지 순례(천호 성지)
10.16 어린이 성가경연대회 참가(논현동 40명)
10.20 주일학교 자모회 야유회(치악산)
10.20,28 새연도 교육(1, 2차 293명)
10.27 교양 특강(건강과 영양-윤춘자 43명)
10.30 영세식(초,중,고 : 76명)
11. 5 "사랑의 빛으로" 제1회 중·고 학생회 발표회
11. 6 본당 헌혈 행사(67명)
11.15 레지오 교본경시대회(3개 Cu. : 520명)
11.20 M·E가족 정기총회, 베드로회 피정
12. 2 송천오(안드레아) 신부 이임
최희수(프란치스코) 신부 부임
12.11 고입 수험생 기원미사
12.25 봉사자 송년의 밤(260명)
12.30 교사의 밤

1995년

1.20 구역반장단 연례 피정(명상의 집 120명)
1.22 미사 독서단 신설
1.29 첫영성체
2. 8 반장단 설날맞이 나눔 잔치
2.14 손명옥(베르나데트) 수녀 이임
강영옥(마르가리타) 수녀 부임
2.14~17 주일학교 교사 피정
2.26~4.5 주일학교 학생 일제 등록 실시
3. 7 주일학교 학생 가정방문 시작(년중)
3. 3 주일학교 학부모를 위한 신앙강좌(첫 개강)
4. 9 본당 심볼마크 제정 공포
4.11 본당 심볼마크 상본 제작 전신자 배포
4.15 세례성사(성인반 93명)
5. 5 레지오 전단원 체육대회(대곡국교 380명)
5. 7 한마음 헌혈잔치(83명)
5.21 견진성사(111명)
5.26 교양특강(나는 어떤 부모인가-문용린 교수, 160명)
5.21 성모의 밤
6.30 교양특강(현대인의 스트레스-송수식 박사, 180명)
7.18~20 여름 성경학교(90명)
7. 25~27 무지개 동산(용인 잠실교육관 120명)
8. 1~4 코이노니아(나바위성지 142명)
8. 8~11 교사단 도보 성지순례
9. 3 사목활동 보고회 및 봉사자 친교의 밤
9.27 사목방문(제2차)
10.26 훼밀리아 성가대 제1회 발표회
주일학교 자모회 야유회(용문산)
10.27 교양특강(인간의 갈등과 역할-소설가 김홍신)
11. 5 본당헌혈의 날
11.21 대입 수험생 기원미사
12. 1 김종원(요한) 신부 이임
이충열(티토) 신부 부임
12.25 봉사자 송년의 밤
12.27 별빛따라(성탄예술제)

1996년

1.20~22 수험생 피정(공세리 성당)
1.24~25 구역반장단 연례피정(나바위성지)
2.7~9 청년 동계피정(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3.24 사목위원 정기총회
4.16 여성 Cu. 아치에스 행사(3개 Cu.)
4.28 M·E 부부 일일피정
5.16 주일학교 자모회 성지 순례(솔뫼성지)
5.17 교양특강(시테크와 시간 창조의 기술-윤은기 소장)
5.24 청년연합 성지순례(배론성지)
복사단 체육대회(청담중학교)
5.25 성모의 밤
6.28 교양특강(신바람과 종교인의 자세-이철근 루카)
7. 1~9 김대건 신부 유해 순회 9일 기도
7.10~12 김대건 신부 유해 순회 기도회
8. 4 이용현(알베르토) 부제 서품식(개포동 성당)
9.15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9.22 중·고등부 성지순례(절두산성지)
10. 3 제1회 **훈**울림 청년성가대 정기발표회
10. 7 노장대건회 배론성지 순례
10.11 최광연 신부 이임, 이상훈 신부 부임
10.27 견진성사(집전-김수환 추기경, 326명)
11.12 대입수험생을 위한 기원미사
11.17 본당 헌혈의 날 행사
11.21 조창수 신부 부임
12. 1 새 미사통상문 사용 시작
12. 2 평일 20시미사 신설, 주일 20시 미사 신설,
토요일 특전미사 18:30 -> 8시로 바뀜
12. 8 성가 안내 전광판 설치
12.22 성당 음향시설 보완 스피커 설치
12.29 봉사자 감사의 밤 행사

1997년

1. 6~9 복사단 피정
1. 7 본당 '성가정 주일'
1.19 사목협의회 위원 및 구역장 임명장 수여식
1.21~28 여성 Cu. 연도교육
1.28 부부성가대 창설모임
2. 5 본당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2. 5 한마음운동 장애자모임
2.13 주일학교 자모회 적사대회
2.14 권분다 원장수녀, 이(마리율리아나) 수녀 이임
구(율리아나) 원장수녀, 송(데레사) 수녀 부임
2.20 사순특강(김인규 신부)
3. 4~14 전지역 가정방문
3. 9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특강(박기주 신부)
3.19 성부(성요셉)의 날 행사 '모든 아버지를 위한 합동미사'
4. 9 '사도회 활성화를 기대하며' 유인물 배포
4.20 M·E 가족 일일피정-참부모 되는 길
4.24 교양 강좌(생명의 존중과 예수님-박홍 신부)
5. 4 신대진 총회장 사임, 조명승 부회장 총회장직 수행
5.18 본당 성가정의 날 행사(도곡초교)
5.24 성모의 밤
6. 1 본당 헌혈의 날 행사(200 여명 참여)
6.3~5 1지역 가정방문
6. 6 성소후원회 창립 총회 및 창립 미사 봉헌

6.25~7.4 이용현 사제 서품, 김지형 부제 서품을 위한 9일 기도
6.26 교양강좌(내 인생 나의 구원–최영배 신부)
7. 4 김지형(제오르지오) 부제 서품식(개포동 성당)
7. 5 본당 첫 사제 이용현(알베르토) 신부 사제 서품식
(개포동 성당)
7. 6 이용현 신부 첫미사 봉헌
7.23 100만인 서명운동 본당(민족화해위원회)
9. 4 교리통신수료자 영세를 위한 보충교육실시
(9.4~5, 9.11~12 : 4일간)
9. 7 예비신자 일일피정
9.21 이상훈 신부 고희 축하미사 및 축하행사
10. 4 외짝교우를 위한 예비자 교리특강 시작
10. 5 주임신부 직권에 의해 사목회 해체
10. 5 알뜰시장 큰 잔치(성모성심회)
전국 울뜨레야대회
10.24 자매들을 위한 미술강좌 시작(유화상 교수)
10.26 새 영세자 피정 및 첫 고해성사
11.16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창립총회
11.28 이충렬 신부 이임, 김병훈(알렉시오) 신부 부임

1998년

1. 4 본당 성가정주일
1.10~5.31 견진교리 시작(4개 대상자 군으로 실시)
1.24~26 고3 수험생 피정
2.10 송(데레사) 수녀, 강(마르가리타) 수녀 이임
김(에밀리아나) 수녀 부임
2.17~19 청년회 피정
3.18 가장을 위한 위로미사 봉헌과 강복
3.19 사순 특강(이범주 신부)
3.20 성당 2층에 로저스오르간905 구입 설치공사
3.22 사목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수지 성모교육원)
4. 5 사목협의회 재구성
4.19 M·E 일일피정 '참 부부되는 길'
5. 3 사목협의회 회장단 및 분과장 임명장 수여
5. 5 11지구 청년연합회 체육행사
5. 9 성모의 밤 행사 실시
5.31 견진성사(최창무 주교 집전)
5.31 성령강림 맞이 9일기도
6. 8 영신수련 특강(하느님의 경제학–변희선 신부)
6.13~2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기도
6.15 성서못자리 특강(안병철 신부)
'요한 묵시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IMF 위기극복 방법'
6.18 두봉 주교 특별교양강좌 '성령의 해'
6.19 제4회 사제성화의 날
6.21~29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위한 9일 기도
6.24~7.2 김지형 부제 사제 수품을 위한 9일 기도 시작
6.29 제13대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의 착좌식(명동 주교좌성당)
7. 3 김지형(제오르지오) 사제 서품식(개포동 성당)
7. 5 김지형 신부 첫 미사 봉헌 및 축하행사
7. 7~9. 1 전지역 청년신자 사목방문
7.21 이상훈 주임신부 신병 요양
7.27 본당과 가정 성화를 위한 15단 묵주기도 시작
8. 2 염수정(안드레아) 신부 직무 대행
8. 6~8.15 성모승천 대축일 맞이 9일 기도 및 단식
9. 3~10.8 한방특강(매주 목)–경희한방병원 교수진
10. 8 이상훈 신부 이임(가톨릭교리사목연구소)
10. 9 고명철 신부 부임
11.1 그림사랑 전시회
11.23 성서못자리 종강미사와 안병철 신부 특강
11.29 조창수 신부 이임(구리 성당)
이은형 신부 부임
12.13 평화방송 박신언 신부 강론
12.26 봉사자 송년의 밤

1999년

1.16~17 청년연합회 소공동체 교육 참가 31명
1.19 중고등부 학생 피정(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영보수녀원)
1.23 사목협의회 상임위원 임명
2.14 윤용순 수녀 부임
2.28 복사단 성서 유물전 견학(예술의 전당)
3.4~25 사순 특강(정봉모 신부, 임병헌 신부)
3.30 말씀의 봉사회 피정(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원)
4.18 11지구 복사단 체육대회(언북중학교)
4.20 여성 Cu. 아치에스 행사
4.22 여성 해설단 피정(성요셉 수도원)
5. 4~25 첫영성체 예비신자 어머니 교육
5.15 성모의 밤
5.30 견진성사(김옥균 주교–315명)
6. 6 초등부 한티마을 뜀박질대회(대현초교)
6.13 예비신자 입교식 환영미사
6.27 본당 헌혈의 날 85명 헌혈
7. 1 일일 피정(하느님 나라의 체험–강길웅 신부)'
7.20 복사단 가족캠프 30명
7.26~27 무지개 동산 캠프 134명
8.4~7 중고등부 코이노니아(포천 산정호수 캠프)
8.12 청년 성가대 캠프
8.14 한여름 밤의 콘서트(청년 합주단)
8.27 성서 40주간 개강
8.28~29 청년 반장단 피정(상방 공소)
9. 1~10.10 새로운 가족찾기 운동 40일 기도 시작
9.12 중고등부 세례성사 19명

10. 1 선교를 위한 특강(신앙과 선교–박도식 신부)
10. 2 대치3동 지역 346세대 1054명 대치4동으로 분당
10. 4 노장 대건회 솔뫼 성지순례 (35명)
10. 6 복사단 자모회 미리내 성지순례
11. 7 사목협의회 상임위원장 임명–장주일 총회장 외 13명
11.12 패밀리아 성가대 제2회 발표회
11.13 폴리포니 앙상블 연주회
12. 3 대림특강(대림의 현대적 의미–이동익 신부)
12. 5 성찬봉사회 피정(왜관 분도수도회)
12. 7 새 성당 설립 헌금 입금(236,320,100원)
12.10 김병훈 신부 오류동 성당 이임
박종철 신부 부임
12.10 대림특강(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유시찬 신부)
12.17 대림특강(하느님께로 향하는 징검다리–박영호 신부)
12.23 중고등부 성탄 예술제 '별빛따라'
12.28 청년 성가대 '흔울림의 밤'
12.30 교사단 '교사의 밤'
12.31 묵주기도 1억단 봉헌운동 참여(총 1,074,430단)

2000년

1.19 여성구역 반장단 피정(용문 청소년 수련원–90명)
1.19 대희년 맞이 봉사자의 밤 행사
2.8 구(율리아) 수녀, 김(에밀리아나) 수녀 이임
신데레사 수녀 부임
3.6 노인분과 경노잔치
3.20~23 사순시기 특강 2회(정웅모 신부)
4. 6~13 사순시기 특강 2회(조광호 신부)
4.10 평화방송 프로그램 후원 '내친구 천사친구'
4.15 김정진 신부 금경축 미사
4.30 본당 헌혈의 날 행사(59명)
5.17 제대회 성지순례(구산성지)
5.20~21 청년반장단 피정(용문산)
5.23 견진성사(강우일 주교–173명)
6. 4 남성사도회 성지순례(미리내)
6. 7 여성구역 반장단 야유회(강화도)
6. 7 복사단 자모회 성지순례(구산성지)
6.18 혼인성사 서약 갱신식 50쌍
6.18 지하3층, 사무실, 강당 보수공사 시작
7.9 이월성당 신축 2차 헌금(₩6,173,680원, 미화 11불)
7.16 평화신문 홍보 구독신청(158부), 기증신청(197부)
8.18~ 8.20 청년 여름캠프 산정호수 71명
8.27 다목적 강당과 아가방 축복식
9.17 청년성서 첫모임
9.19 이은형 신부 이임
9.28 전신자 일일피정 및 특강(김길수 교수)
10. 9 장년성가대 피정(양수리 피정의 집)
10.19 중고등부 소풍(양재 시민의 숲)
10.22 불우 이웃돕기 알뜰시장(수익금 4,171,360원 사회복지기관 전달)
11.28 인자하신 모후 Cu. 연차 총 친목회
12.2 성찬봉사회 피정(수지 성모교육관 24명)
12. 8~15 대림특강(김운회 신부)
12.16 세례성사 34명
12.16 봉사자의 밤(210명)
12.23 초등부 성탄축제
12.27 청년성가대 '흔울림의 밤'
12.29 교사의 밤

2001년

1. 8 샛별 Cu. 신년 간담회
1. 9 라병국 신부 부임
2. 7 윤용순 수녀 이임
김희완(안나노엘) 수녀와 주순복(젬마) 수녀 부임
3. 9~16 사순특강 2회(하느님의 사랑–장수안 신부)
3.23~30 사순특강(순교자 영성과 우리의 삶– 배은하 신부)
4. 11 성주간 '한가족 만찬 시행'
4. 15 본당설립 10주년 성가집 비치
4. 21 이향신자 379세대, 844명 이향신자 사목부 이관
4. 22 샛별 Cu. 청계산 등산대회
5. 5 제11지구 청년 체육대회(영희초교)
5.18 성당마당 방수공사 시작
5.19 성모의 밤 행사
5.27 견진성사(강우일 주교–167명)
6.17 시노드 제1차 의견수렴(미사참례 2,560명 중 1,472명 작성)
7. 26~28 초등부 신앙학교
8. 5 본당설립 10주년 기도문공모,
8.15~9.8 김수환 추기경 50주년과 팔순기념 영적 예물 봉헌
8.11 예비신자 영세식 78명
9. 9 신유박해 '나의결심 나의봉헌' 봉헌결과(1,281명)
9.16 본당설립 10주년 기념행사(대현초교)
9.19 오태순 신부 사목방문
10.18 일일피정(주님과 함께 걸으며–이용길 신부)
11. 4 사목협의회 회장단과 상임위원장 임명,
12. 4 박종철(세례자 요한) 신부 이임
안성남(안드레아) 신부 부임
12. 7 대림특강 황지연(요한) 신부
12.14 대림특강 김종오(아우구스티노) 신부
12.25 중고등부 성탄 예술제 '별빛 따라'

2002년

1.16~18 겨울학교(초중고 주일학교–영보수녀원)

2.17 고명철 신부 선종
2.22~3.1 사순특강(정규한 신부)
3. 5 라병국 신부 이임(미아5동 성당)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이성우(요셉) 신부 부임
3. 8 사순특강(김종기 신부)
3. 9 남성구역 봉사자 피정(동성고등학교)
4.13 청년연합회,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행사참가(서강대 앞)
4.19~20 노인분과 춘계 야유회(제주도)
5. 1 청년부 미사시간 통합
5.19 견진성사(김수환 추기경 집전)
6.18 월드컵 경기 단체응원, 성당앞 마당
6.22 샛별 Cu.,성가정 Cu. 피정
9.26 일일피정(한상만 신부)
10.27 성모성심회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11. 5 그레고리오 미사 봉헌
11.16 제4회 훈울림 청년성가대 정기 발표회
11.17 남성구역- 11지구 봉사자학교 교육
12.7 청년전례단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봉사
12.28 청년 성가대 훈울림의 밤 행사

2003년

1.12 중고등부 신년예술제(별빛따라)
1.26 시노드 본회 개최
1.26-28 중고등부 겨울피정(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2. 7 김인옥(젬마로사) 수녀 부임
2.11 신숙자(데레사) 원장수녀, 주순복(젬마) 수녀 이임
신민숙(로렌시아) 원장수녀 부임
2.16 고명철 신부 1주기 추모미사(용인 천주교 묘지)
5. 8 한국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행사 참석
(광주 월드컵경기장)
5.11 장기 기증운동 및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촉구 서명운동과 헌혈
5.14 노인분과 춘계 야유회(남이섬)
5.15 성모성심회 야유회(강화도)
5.21 자모회 성지순례(갈뫼못)
여성 구역반장단 야유회(아침고요수목원)
8.10 주일학교 자모회, 음료수 자판기 기증, 만남의 방
10.19 성모성심회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11.1 세례식, 새 사목협의회 임원 임명, 영화상영(축제)
11.15 그레고리아 성가 미사(아퀴나스 시니어즈 합창단)
11.29 장년성가대 정기 발표회
11.30 안성남(안드레아) 신부 이임
12. 1 김준동(마르티노) 신부 부임
12. 3 성경특강-김효준 신부
12. 5 대림특강-강요셉 신부
12.14 성모상 및 성가정상 훼손사건

2004년

1.11 중고등부 신년예술제(별빛따라)
2. 4 여성 구역반장단 피정(가평 피정의 집)
2. 9 김희환(안나노엘) 수녀 이임, 최효숙(데레사) 수녀 부임
2.29 이성우(요셉) 신부 이임
3. 1 강재홍(요셉) 신부 부임
3. 5 사순특강(김보록 신부)
3.10 대치동 한티솔로몬 대학 개설 및 입학식
3.19 사순특강(두봉 주교)
4.25 청년전례단 명칭 '다솜누리'로 변경
5.22 청년 산행- 대모산,구룡산
6. 3 여성 Cu 간부 교육
6. 6 견진성사(염수정 주교)
6.25 청년 레지오 피정, 가평 고향마을 피정의 집
7. 3 영세식
7.30~8.1 청년성가대 music camp
8.9~11 무지개 동산(용문 청소년 수련원)
9. 5 청년 레지오 구룡마을 봉사
9.10 성가정 Cu. 피정(센폴 수도원)
9.19 김병학(라파엘)신부 사제 수품 40주년 및 고희연
9.21 강재홍(요셉) 신부, 김준동(마르티노) 신부 이임
민범식(안토니오) 신부 부임
10.13 노인분과 성지순례(공세리 성당)
10.21 성모성심회 피정(감곡성당)
11. 1 대치3동 성당으로 115세대 343명 분당됨(교적이관)
11.17 성인우표 전시회
11.27 영세식
11.30 민범식(안토니오) 신부 이임
11.30 연도 교육
12. 1 이계철(라파엘) 신부 부임
12.3 대림특강(하느님을 만나는 길-김성만 신부)

2005년

1. 19 여성구역 반장단 피정(소록도)
1. 31 고3 수험생 피정(영보 수녀원)
2. 15 최효숙(데레사) 수녀 이임, 김정애(베르나데트) 수녀 부임
3.11 사순특강(송영오 신부)
3.12 남성 Cu. 연도교육
3.20 헌혈의 날 행사
4.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4.19 제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
5.11 노인분과 춘계 야유회(단양팔경)
5.14 제2회 청년합주단 연주회
5.29 초등부 첫 영성체
6. 5 견진성사(정진석 대주교)
6.12 11지구 봉사자 학교 남성구역 교육(일원동 성당)

7. 7 임민균(그레고리오) 부제 서품식
7.20 초등부 신앙학교,
7.22~24 초등부 무지개 동산(가평 코스모피아)
8.3~6 중고등부 여름캠프(안성 산문마을, 여주 관광농원)
8.17 레지오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잠실 실내체육관)
8.19~20 청년 여름캠프(주문진 성당 인구공소)
9.25 구역미사 및 친교행사 시작
10.12 노인분과 성지순례(이천 어농성지)
10.19 여성구역 반장단 성지순례(나바위 성지)
10.20 성모성심회 성지순례(연풍성지)
10.23 전입 교우 환영회 실시
10.30 초등부 주일학교 11지구 어린이 성가대회 대상 수상
11.6 동대문시장 성당 기금마련 바자회(1차)
11.17 연도 창법 발표회(11지구 연도 참가자)
11.26 청년합주단, 가르멜 수녀원 연주 봉사
11.30 이계철(라파엘) 신부 이임
12. 1 정현영(요셉) 신부 부임, 박수환(치릴로) 신부 부임
12. 3 영세식, 영화 상영(보네트)
12.11 봉사자의 밤
12.30 훈울림의 밤

2006년

1.19 여성구역반장단 피정(대천 요나성당)
3.11 레지오 교육(향심기도-박순원 신부)
3.12 청년레지오 재활원 목욕봉사(양재 재활원)
3.24,31 사순특강(박일 신부)
4. 2 남녀구역 차 나눔 봉사 시작
5. 5 사목위원 체육대회(수도공고)
5. 7 청년 도서 바자회
5.14 남성구역봉사자 성지순례(성거산 성지)
5.17 여성구역 반장단 야유회(청남대 문화단지)
5.21 동대문시장 성당 기금마련 바자회(2차)
5.26 일일피정(이재성 보나벤뚜라 수사)
6. 4 초등부 첫 영성체
6.10 레지오 교육(구약의 하느님- 신희준 신부)
6.11 견진성사(김운회 주교)
6.17 레지오 교육(신약의 하느님-허영엽 신부)
7. 7 임민균(그레고리오) 신부 사제 수품
7.27~29 초등부 무지개 동산(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8. 7 복사단 캠프(하늘 마루)
8.11~13 청년 여름캠프(동강)
9. 3 김병학(라파엘) 신부 은퇴미사
9. 5 김병학 신부 은퇴, 김자문 신부 부임
11.30 정현영(요셉) 신부 이임
12.9~10 사목위원 피정(수지 성모 교육원)

2007년

1.17~19일 중고등부 봉사피정(여주 라파엘의 집)
1.18 소공동체 미사 시작(은마 1-1202)
1.27 레지오 전단원 교육(4개 꾸리아 68 Pr.-본당)
2. 8 신 로렌시아 원장수녀, 김 젬마로사 수녀 이임
김 아녜스마리 원장수녀, 조 루시아 수녀 부임
3. 2~23 사순특강 4회(김광엽 교수)
4.22 견진성사(김운회 주교)
4.30~7.2 세상속의 영성수련(김광엽 교수)
5. 9 본당 노인신자 봄 야유회
5. 10 자모회 일일피정(유태인의 자녀교육)
5.12,19,26 지역별 성모의 밤
6. 5 11지구 사제회의 및 사목방문
6.10 예비신자 일일피정(대강당)
6.16 시네마 영성(The Island)
6.17 캄보디아 선교 후원(한국외방선교회 박서필 신부)
7.24~25 유아부 여름 신앙학교
8.10~12 청년 여름캠프(영월 자연학교)
9. 8 작은 음악회
10. 7 남성 구역봉사자의 날(성 분도복지관)
10.13 전 신자 연도교육(대성전)
10.14 주일미사 중계(평화방송)
10.19 채준호(마티아) 신부 특별강론
10.27 시네마 영성(Vaya Con Dios)
11.2~30 위령의 달 연도
11.18 중고등부 성지순례(명동성당,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11.20 박수환(치릴로) 신부 이임(도림동성당)
안원진(베드로) 신부 부임(사제학교)
12.16 11지구 청년 견진성사(김운회 주교)
12. 9 제주 연동성당 성전건립 후원
12.15~16 대림특강 박영호 신부
12.23 하반기 영세식(119명)
12.30 성가정 송년음악회(대성전)
태안 재난지역을 위한 특별헌금

2008년

1.15~17 중고등부 겨울피정(강원 청소년수련관)
1.15 사랑의 샘 Cu. 토론대회(대강당)
1.24 안병철 신부 요한 묵시록 특강
1.22 본당 사목목표 교육(여성교우 대상)
1.26 본당 사목목표 교육(남성교우 대상)
2. 3 남성 구역봉사자 일일피정(김자문 신부)
2. 23"다함께 성가부르기" 시작(대강당)
3. 9 부산 모라성당을 위한 특별헌금
3.10~26 만남의 방(폐백실 등) 보수공사
3.14 성서40주간 특강 시작(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3.30 가족미사 봉헌 시작
4. 8 여성 Cu. 전단원 음악피정(박유진 신부)
4.17 부모-자녀 대화 교육(백대숙 베로니카)
4.27 2, 3지역 야외미사 및 행사(용문 청소년 수련관)
5. 4 사랑 · 나눔 헌혈행사(만남의 방)
5. 7 성 요셉아카데미 개교
5. 2 김자문 신부 영명축일 및 회갑연
5.14 성 요셉아카데미 성지순례(감곡성당)
5.24 성모의 밤
5.25 11지구 청소년 축제 '한울제' (대청초교)
6. 8 국제 성경사도직 후원회 후원
6.19 새신자들의 기도모임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6.26 이은수(레오) 부제 서품식(잠실 실내체육관)
7. 5 M·E 가족 일일피정(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7.17~22 청년농활(환경캠프-솔뫼농장)
7.20 새 복사단 임명식(교중미사)
8.10~12 여름 무지개동산(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8.23 남성구역 봉사자 일일연수(김자문 신부)
8.30 성가정성가대 '작은 음악회' (대강당)
10.4 성가정 청년 축제(대강당)
10.7 성 요셉아카데미 제22회 노인의 날 경축행사 참가
10.12 이상훈(리노) 신부 금경축 미사
10.19 1지역 야외미사 및 친교행사(대현초교)
11.7 문화선교의 달-시를 발견하는 기쁨(정호승 시인)
11.15 문화선교의 달-린나이코리아 오케스트라 연주회
11.21 문화선교의 달-유안진 시인
11.28 문화선교의 달-성화 읽기와 묵상(김남철 신부)
12.9 박지훈(안드레아) 신부 이임(시흥5동 성당)
김숭호(안드레아) 신부 부임
12.14 하반기 세례식(71명)
12.21 전남 보성성당 성전 건립 후원

2009년

1. 7~ 9 중고등부 겨울 피정(성 필립보 자연 생태마을)
2. 1 남성구역봉사자 일일연수(이준성 신부)
2. 9 조루시아 수녀 이임(명동 본원), 최헬레나 수녀 부임
2.10 김숭호(안드레아) 신부 이임(삼성동 성당 주임신부)
2.17 고명철 신부 7주기 추도행사
2.28 참부부(2)
3. 8 사순특강(박문수 신부-선교본당)
3.15 사순특강(이영우 신부-교정사목)
3.22 사순특강(김하종 신부-성남 안나의 집)
3.29 청소년 사순 특별강론(조재연 신부-공부와 신앙)
4.19 청소년 사순 특별강론(조재연 신부-자녀의 신앙교육)
4.25 성가정성가대 "다함께 성가부르기"
4.26 청소년 사순 특별강론(조재연 신부-하느님 마음, 부모 마음)
4.26 본당 성가정 축제 설명회(대강당)
5.16 5월 특강 종교간 대화와 협력(노길명 교수)
5.20 여성구역 반장단 자연피정(해남)
5.23 성모의 밤 첫 영성체 가족 피정(연회장)
5.24 성당 성모상 뒤 수벽(樹壁) 조성
5.31 청년 성모의 밤
6.26 이은수(레오) 신부 사제 서품(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6.28 이은수 신부 첫 미사 및 첫 강복
7.12 성가정 축제 기금마련 '먹을거리' 장터
7.17 청년 여름캠프(주문진 인구공소)
7.20~21 초등부 저학년 여름신앙학교
8. 2 교무금 은행납부 시행
8. 9 남성구역 주일 새벽미사 성가 봉사 시작
8.12~14 초등부 무지개동산
9. 1 안원진(베드로) 신부 이임(교구청 비서실)
이도행(토마스) 신부 부임
9. 4 성소후원회 첫 월례미사
9.13, 20 여성구역 먹을거리 장터
10.11 최광연 모세 본당 초대 주임신부 선종
10.14 성 요셉아카데미 성지순례(공세리 성당)
10.15 마지막 소공동체 미사 은마 31-215
10.25 소공동체 미사 마침 감사미사 봉헌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재해의연 특별헌금
11.22~29 성경 필사본 전시회
12. 1 박민우(알베르토) 신부 부임
12. 3 유신재(에드문드) 부제 서품(호주 멜버른 St. Ignatius)
12. 5 사목위원 연수(대강당)
12.13 하반기 영세식(89명)
12.16~18 대림 말씀듣기 및 판공성사(김창훈 신부)
12.20 춘천교구 내면성당 성전건립 후원

2010년

1. 1 주일미사 시간변경
1.10 1월 말씀 듣기(두봉 주교)
1. 3 2009년 성탄 축제(유아~청년)
1.29~30 중고등부 겨울피정(강화 바다의 별 수련원)
2. 8 김 아녜스마리 원장수녀, 최헬레나 수녀 이임
우 세레나 원장수녀, 이 마르티나 수녀 부임
2.27 수험생 만남의 잔치(연회장)
2.28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성가정홀)
견진특강(교회와 이웃-황재모 신부)
3. 7 견진특강(그리스도와 만남-박준양 신부)
3.11 수험생을 위한 성경필사 기도모임
3.14 견진특강(견진성사-박준양 신부)
3.21 견진특강(가까운 아시아교회-김성현 신부)

3.21 전입교우 환영회
3.28 견진특강(예수님의 기도–유병일 신부)
4. 4 견진특강(예수님의 부활–김자문 신부)
4.10 자비의 성모상 촛불 봉헌대 설치
4.11 견진특강(초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사–안병철 신부)
4.18 견진특강(기쁨의 영–김진태 신부)
4.25 견진특강(삶 속의 크리스찬–박완서 작가)
5. 1 성모의 밤
5. 2 견진특강(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이노엘 수녀)
5. 3~31 소 성모의 밤
5. 9 견진특강(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김자문 신부)
5.19 여성구역 반장단 자연피정(영월)
5.20 성모성심회 봄 피정(예수 마을 피정의 집)
5.23 견진성사(장인남 대주교) 집전
5.30 전입교우 환영회
6. 9 성 요셉아카데미 성지순례(단내성지)
6.12 남성 Cu. 전단원 봉쇄 피정(수지 성모 교육원)
6.19 남성구역 특강 및 친교행사(양평 꼰벤뚜알 수도원)
6.20 상반기 영세식(87명)
6.30 유신재(에드문드) 부제 사제 서품식(명동성당)
7.14 주일학교 자모회 성지순례(마재성지)
8.4~6 중고등부 음악캠프(수류 성당)
8.15~31 남성용 헌옷 나눔(성가복지병원 전달)
9.17 전신자 연도 교육
9.26 1, 2지역의 날 행사
10.11 고 최광연 신부 1주기 추도 행사
10.15, 29 전신자 연도 교육
10.22~10.30 구역의 날 행사 9일 묵주기도
10.31 3,4지역 및 구역외 지역의 날(성가정홀)
10.31 중고등부 성지탐방
11 5, 11 전신자 연도 교육
11.14 구역별 연도 발표회
11.20 연령회 유가족 위로미사
11.27 청년 작은 음악회
12.11 사목위원 연수
12.12 하반기 영세식(87명)
대림 말씀듣기와 나눔(김건중 신부)
12.19 대림 말씀듣기와 나눔(김영수 신부)
12.30 20년사 편찬위원회 첫 회의

2011년

1. 2 새해 말씀듣기(사랑으로 함께하는 여정–정규한 신부)
1.23 본당 20주년 감사 미사
남성구역 봉사자 피정 및 워크샵(성가정홀)
1.26~28 중고등부 겨울피정(여주 라파엘의 집)
2. 6 본당 20주년 기념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 시작
2.11~13 청년 겨울피정(가평 계성 푸른누리 수련원)
2.16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2주기 추도미사
2.28 20주년 묵주기도의 밤 시작
3.11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특별헌금
3.13 견진특강(성사의 은총–박준양 신부)
3.20 견진특강(회심–심종혁 신부)
3.27 견진특강(영적목마름과 기도생활의 여정–심종혁 신부)
4. 3 견진특강(제3세계 교회와의 나눔–한상호 신부)
4.10 견진특강(신앙생활과 용서–송봉모 신부)
4.17 견진특강(용서하기 위하여–송봉모 신부)
4.24 견진특강(예수님의 부활–김자문 신부)
5. 1 은총여행 529를 위한 먹을거리 장터
견진특강(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권길중)
5. 7 성모의 밤
5. 8 견진특강(성숙한 신앙생활–홍근표 신부)
5.15 견진특강(성령의 은사–김택신 신부)
5.19 본당설립 20주년 기념 전신자 하루피정
(가정 성화–오웅진 신부, 신상현 수사)
5.22 견진성사(장인남 대주교)
20 부부 혼인갱신식 및 교황 혼인강복장 수여
5.29 은총여행 539 공동체 야외행사(춘장대)
6.12 춘천교구 거두리성당 성전건립 후원
6.19 상반기 영세식
7.17 봉사자 교황 부부 강복장 수여식
8.30 김자문(네레오) 신부 이임
홍기범(바오로) 신부 부임
9. 4 청년성서모임 가을학기 개강
9. 8 수험생을 위한 성경필사 기도모임
9.18 순교성월 특별강론(김길수 교수)
9.24 초등부 고학년 성지순례(서소문 순교성지)
10.16~30 본당 역사 사진전
10.27 구역 교우 가정축복 방문 시작
10.29~30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성가정 열린 음악회, 기념미사

세·례·명·표·기·법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 용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교회의 총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용어집에서 세례명 표기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로마자	한글 표기	종전 표기
Agatha	아가타	아가다
Albertus	알베르토	알베르또
Antonius	안토니오	안또니오
Augustinus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띠노 (아오스딩)
Benedicta	베네딕타	분다
Benedictus	베네딕토	베네딕도
Bibiana	비비아나	비비안나
Birgitta	비르지타	비르지따
Bonaventura	보나벤투라	보나벤뚜라
Caecilia	체칠리아	세실리아
Caietanus	가예타노	가예따노
Callistus	갈리스토	갈리스도
Clara	클라라	글라라
Clemens	클레멘스	글레멘스
Cyprianus	치프리아노	치쁘리아노
Dominicus	도미니코	도미니꼬
Edmund	에드문도	에드몬드
Felicitas	펠리치타	펠리치따스
Franciscus Xavier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프란치스꼬 사베리오
Gertrudes	제르트루다	제르뜨루다
Hedviges	헤드비히	헤드비제스
Henricus	헨리코	헨리꼬
Hippolytus	히폴리토	히뽈리또
Ioannes Baptista	요한 세례자	요한 세자
Iosephina	요세피나	요셉피나
Iustinus	유스티노	유스띠노
Juliana	율리아나	율리안나

로마자	한글 표기	종전 표기
Lucas	루카	루가
Lucia	루치아	루시아
Ludovicus	루도비코	루도비꼬
Marcus	마르코	마르꼬
Margarita Scotiae	마르가리타	말가리다
Maria Goretti	마리아 고레티	마리아 고레띠
Martinus	마르티노	마르띠노
Matthias	마티아	마지아
Monica	모니카	모니까
Nicolaus	니콜라오	니꼴라오 (니고나오)
Norbertus	노르베르토	노르베르또
Pancratius	판크라시오	방글라시오
Patricius	파트리치오	빠뜨리시오
Paulinus Nolanus	바울리노	빠울리노
Perpetua	페르페투아	뻬르뻬뚜아
Polycarpus	폴리카르포	뽈리까르보
Pontianus	폰시아노	뽄시아노
Scholastica	스콜라스티카	스콜라스띠카
Sebastianus	세바스티아노	세바스띠아노
Silvester	실베스테르	실베스뜨로
Stanislaus	스타니슬라오	스따니슬라오
Stephanus	스테파노	스데파노
Thomas	토마스	토마
Timotheus	티모테오	디모테오
Titus	티토	디도
Xystus, Sixtus	식스토	씨스또

편찬위원회

(앞 열 좌로부터) 조헌성(발렌티노), 송현철(라파엘), 최정미(클라라), 김정숙(엘리사벳), 최양희(아녜스), 서강애(루시아), 전영애(엘리사벳), 김경옥(스텔라), 이상린(프란치스코)
(뒷 열 좌로부터) 전한균(요한 크리소스토모), 최재철(안드레아), 유인권(마태오), 이찬영(요셉), 정병채(안토니오), 두창준(그레고리오)

[참고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한국천주교회총람(조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한국천주교 예비자 교리서(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논현동본당 30년사
청담동 본당 30년사
대치동 본당 15년사
대치동 성당 30년사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대치동 본당 주보
대치2동 본당 주보
대치2동 본당 사목계획서(1992~2011)
대치2동 성당 사목일지(1991~2002)
성가정지
사목방문자료
사목협의회 회의록

대치2동 성당 20년사

발행일 2011년 10월 31일
엮은이 대치2동 20년사 편찬위원회
펴낸이 홍기범(바오로) 신부
펴낸곳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치2동 성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3
TEL : 02)565-1994~5 FAX : 02)565-1004
www.dc2.or.kr

(비매품)